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체제 강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서 영 인(한국교육개발원)
공동연구자 김 미 란(한국교육개발원)
김 은 영(한국교육개발원)
채 재 은(가천대학교)
연구 조 원 윤 나 경(한국교육개발원)

머리말

고등교육의 국제화 추세가 뚜렷하다. 자신의 국적과 다른 국가의 고등교육 기관에 등록한 학생 수가 약 40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는 자국의 고등교육 국제 경쟁력 및 우수 인재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시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국제 수지를 개선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들은 우수 인재를 자국의 대학에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한 중·장기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 동안 개별 대학과 정부의 노력으로 외국인 유학생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어 현재 약 90,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양적 성장에 버금가는 질적 성장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아직도 외국인 유학생을 단순히 대학의 미충원 부분의 대체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풍조와, 나아가 대학의 무분별하고 특정국에 편중된 유치, 국가적 수준에서의 유학생 관리 및 지원체제 미흡 등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유치하고 있는 대학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고, 또한 유학생들의 다양한 불편과 애로로 국가 이미지도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원에서는 고등교육 국제화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전략적 유치 및 관리·지원체제 강화 방안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효과적인 관리·지원 강화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어 향후 정책 개선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위해 도움을 주신 정부와 대학 관계자분들, 그리고 조사에 협조해 주신 교수님들과 유학생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충실하게 연구를 수행해 준 연구진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

2012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백순근

연구요약

본 연구는 한국 고등교육 국제화 역량 제고의 핵심 변인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제 강화 방안을 탐색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및 국제화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분석하고, 한국의 유학생 생활의 실태 및 요구분석, 정부정책 및 대학의 현황과 해외 주요국의 유학생 정책의 사례를 분석하여 정책 방안 도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한민국 외의 국적 소지자 및 재외 국민으로 국내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를 하는 학생이며 정규 과정·연구과정(D-2 비자 소지자) 물론 그 외의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어학연수생(D-4 비자 소지자)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자하며, 효율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본 연구의 대상은 대학의 정규 학부과정에 전일제 등록 학생으로 재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으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유학생 관리 및 지원 체제를 크게 유학생 유치, 입학 시, 재학 중 및 졸업 후 관리까지 포함하여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할 관리 및 지원 활동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체제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이 5가지 기본방향에 의해 탐색되었다. 1) 전주기적 관리 및 지원 체제 구비, 2) 질 관리 체제 내실화, 3) 보상적·지원적 인센티브 연계, 4) 범정부 정책 연계, 5) 한국 대학의 역량 강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방향 하에 1) 외국인 유학생의 전략적 유치, 2) 평가와 모니터링 체제 완비, 3) 유학생 학업 및 생활 지원 강화, 4) 유학생에 대한 취업과 진로 지도 강화, 5) 행·재정 지원 강화 등의 방안을 탐색하였다. 구체적인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체제 강화방안을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학생 유치 전략의 고도화를 추구한다. 정부는 대상국가별 맞춤형 유치 전략 프로그램 연구·개발 강화, 잠재적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자국 내에서의 한국어 교습체제 개발 및 보급, 전략적 유학생 유치 홍보 시스템 개발 운영, 유학안내시스템(www.studyinkorea.go.kr)의 고도화, 개별 대학들의 홈페이지 다국어 사이트 개발 유도 등을 추진한다. 그리고 대학은 외국 학생 정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공개로 유치 정보 제공 강화, 외국인 유학 희망자들을 위한 대학별 다국어 홈페이지 사이트 적극 개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깊이 있고 폭넓은 대학 정보 및 안내 제공, 외국인 학생 모집에 적합한

절차 및 안내 개발, 외국 대학과의 공동 학위 운영 강화를 통한 단기 유학생 유치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둘째, 유학생에 대한 학업 및 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강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on-line 교습 전용 사이트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한국어능력평가(TOPIK) 제도 개선,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생활 여건 개선 강화 등을 추구하고, 대학은 대학내 외국인 유학생 전담 지원체계 구비 의무화, 학과 또는 동일 전공 차원의 지원 강화, 외국인 유학생별 상담 및 지도 체제 개발, 유학생의 학교 내·외 생활 적응을 위한 교류 및 문화 활동 지원 강화, 유학생의 학업생활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셋째, 평가 및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자질과 능력 사전 검증을 위한 한국형 토폴(TOKFL) 개발 및 시행, 유학생 정보 공시 강화,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 증제 개선, 외국인 유학생 정책에 대한 자체 평가 실시, 유학생 졸업기준 대학 자율책임제로 전환 등을 추진하고, 대학은 유학생 자체 관리 강화, 유학생 졸업자 관리 강화, 유학생 관리 효율화를 위한 자체 및 외부 컨설팅 강화 등을 추진한다.

넷째,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및 진로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및 졸업 자에 대한 취업활동 지원, 유학생 졸업자 취업브릿지 운영 지원, 유학생 취업 허용 직종제 다양화,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특별연구원제 운영 사업 개발 등을 추진하며, 대학은 유학생 진로 및 취업 지도센터 운영, 유학생 재학 중 시간제 취업 기회 제공 등을 추진한다.

다섯째, 행·재정 지원체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통합정보교환 및 관리시스템 운영, 교 과부에 전담 과 조직 신설, 유학생 관련 정부 서류 처리 국제학생 편의 제공 시스템 개발, 정부출 연기관형태의 가칭 ‘외국인 유학생 정책 진흥원’ 설립, 대학은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 전담지원체 계 구축, 외국인 유학생 전용 학내 콜센터 설치·운영 등을 추진한다.

이상의 다양한 강화 방안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 다. 첫째, 정부 합동 ‘외국인 유학생 정책 통합 위원회’ 설치, 둘째,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셋째, 관·산·학 공동의 안정적 필요 자원 확보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강화 방안들과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 외국인 유학생 정책 종합계획 개발 및 실천, 정부와 대학의 적극적 문제 파악과 해결 자세 필요, 관련 기초 및 정책연 구의 축적 필요 등을 제언하였다.

키워드 :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 유치, 유학생 관리·지원체제, 유학생 정책 등

CONTENTS

목차

par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7
3. 연구 방법	8

part II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체제에 대한 이해와
선행연구의 분석

1.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의 개념	15
2.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체제	23
3.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의 근거	33
4. 선행연구 분석	37
5. 시사점 및 본 연구의 분석 틀	42

part III 외국인 유학생 정책 및 관리·지원 현황

1. 외국인 유학생 일반 현황	49
2. 정부 정책 추진 현황	73
3. 대학의 관리 및 지원 현황	81
4. 성과 및 문제	89
5. 시사점	100

part IV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실태 조사 분석

1. 조사의 개요	105
2. 실태분석 결과	110
3. 시사점	157

part V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례 분석

1. 분석 개요	163
2. 분석 결과	171
3. 논의 및 시사점	211

part VI 주요국의 유학생 정책

1. 호주	224
2. 캐나다	239
3. 일본	250
4. 시사점	270

part VII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체제 강화 방안

1. 방안 탐색의 기본 방향 및 과제277
 2. 강화 방안285
 3. 추진 전략308

part VIII 요약 및 제언

1. 요약315
 2. 제언318

참 고 문 헌323

Abstract333

부 록337

[부록 1] 면담조사 질문지339

[부록 2] 설문조사지349

CONTENTS

표목차

〈표 I-1〉 대학별 면담 대상자 선정 기준10

〈표 I-2〉 설문조사 실시 개요11

〈표 I-3〉 설문조사 내용 구성11

〈표 II-1〉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의 개념18

〈표 II-2〉 유학생 유치단계에서 제공되는 정보24

〈표 II-3〉 입학시기에 제공되는 지원25

〈표 II-4〉 입국 및 도착에 관한 지원25

〈표 II-5〉 도착 후 학업관련 관리 및 지원27

〈표 II-6〉 재학중 지원28

〈표 II-7〉 졸업시 지원30

〈표 II-8〉 영국 Exeter대학의 귀국 유학생을 위한 출발 전 체크리스트30

〈표 II-9〉 유학생 관리 및 지원 근거(법령정보 중심)34

〈표 II-10〉 외국인 유학생 지원 및 관리의 제도적 근거36

〈표 III-1〉 외국인 학생 비율50

〈표 III-2〉 외국인 학생 변화 지수(2000년=100)50

〈표 III-3〉 유학 형태별 외국인 유학생 수 변화 추세51

〈표 III-4〉 재학 유형별 외국인 유학생 수 변화 추이53

〈표 III-5〉 재학 유형별 외국인 유학생 변화 추이57

〈표 III-6〉 고등교육 기관별 외국인 유학생 수 변화 추이59

〈표 III-7〉 외국인 유학생의 재학 유형별·계열별 구성 변화 추이61

〈표 III-8〉 한국어 자격 능력시험(TOPIK) 지원자 수 변화 추이	65
〈표 III-9〉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수용 현황	66
〈표 III-10〉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수혜 현황	67
〈표 III-11〉 유학 형태별 장학금 지원 금액	69
〈표 III-12〉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 현황	70
〈표 III-13〉 대학의 설립 유형별 유학생 중도탈락률 현황	70
〈표 III-14〉 권역별 유학생 중도탈락률 현황	71
〈표 III-15〉 외국인 유학생 졸업 현황	71
〈표 III-16〉 유학 형태별 유학생의 졸업 후 진로	72
〈표 III-17〉 현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방안	75
〈표 III-18〉 최근 3년간 고등교육 부문 국제화 관련 예산 현황	80
〈표 III-19〉 최근 3년간 평생·직업교육 부문 국제화 관련 예산 현황	81
〈표 III-20〉 주요 대학의 유학생 구성 비율 현황	82
〈표 III-21〉 A-B 유형 대학 간 모집 및 선발 현황 비교	83
〈표 III-22〉 A-B 유형 대학 간 생활 관리 현황 비교	85
〈표 III-23〉 A-B 유형 대학 간 학사 관리 현황 비교	86
〈표 III-24〉 A-B 유형 대학 간 학생 지원 현황 비교	87
〈표 III-25〉 해외 유학박람회 개최 실적	91
〈표 IV-1〉 규모, 소재지 및 유형에 따른 조사 대학 현황	107
〈표 IV-2〉 학생 표집 현황	107
〈표 IV-3〉 응답자 배경별 현황 분석	108
〈표 IV-4〉 유학목적별 중요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110
〈표 IV-5〉 유학목적에 대한 집단 간 평균 비교	111
〈표 IV-6〉 유학국가 선택 이유별 중요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112
〈표 IV-7〉 유학국가 선택에 대한 집단 간 평균 비교	113
〈표 IV-8〉 유학대학 선택 이유별 중요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115
〈표 IV-9〉 유학대학 선택에 대한 집단 간 평균 비교	115

〈표 IV-10〉 유학 정보 획득 경로에 대한 빈도 분석	117
〈표 IV-11〉 유학 전 정보와 유학중 경험한 실제간 격차에 대한 빈도 분석	117
〈표 IV-12〉 한국어 학습 방법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	118
〈표 IV-13〉 입학 전 단계에서 지원이 가장 필요한 항목	120
〈표 IV-14〉 입학 전 단계에서 지원 정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120
〈표 IV-15〉 대학의 지원이 높은 항목에 대한 집단 간 평균 비교	121
〈표 IV-16〉 유학생 거주지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	122
〈표 IV-17〉 기숙사 외에 거주하는 이유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	124
〈표 IV-18〉 유학비용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	125
〈표 IV-19〉 생활비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	127
〈표 IV-20〉 직업 활동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	128
〈표 IV-21〉 직업 활동에 유형별 참여시간에 대한 빈도 분석	129
〈표 IV-22〉 교내 시간제 직업 활동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	129
〈표 IV-23〉 교외 시간제 직업 활동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	131
〈표 IV-24〉 일주일 평균 연습·복습 시간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	133
〈표 IV-25〉 일주일 평균 과제수행 시간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	134
〈표 IV-26〉 한국어 강의 이해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	135
〈표 IV-27〉 영어 강의 이해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	136
〈표 IV-28〉 수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138
〈표 IV-29〉 수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에 대한 집단별 평균 비교	138
〈표 IV-30〉 교수와의 상호교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139
〈표 IV-31〉 교수와의 상호교류에 대한 집단 간 평균 비교	140
〈표 IV-32〉 교수 외의 학교 구성원과의 상호교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141
〈표 IV-33〉 교수 외의 학교 구성원과의 상호교류 집단 간 평균 비교	142
〈표 IV-34〉 만족도에 대한 집단 간 평균 비교	143
〈표 IV-35〉 학업 관련 항목별 만족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144
〈표 IV-36〉 학업 관련 항목별 만족도에 대한 집단 간 평균 비교	145

〈표 IV-37〉 생활 관련 항목별 만족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146
〈표 IV-38〉 학업 관련 항목별 만족도에 대한 집단 간 평균 비교	147
〈표 IV-39〉 구성원 별 차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148
〈표 IV-40〉 구성원 별 차별에 대한 집단 간 평균 비교	149
〈표 IV-41〉 차별의 요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150
〈표 IV-42〉 구성원 별 차별에 대한 집단 간 평균 비교	150
〈표 IV-43〉 유학 성과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151
〈표 IV-44〉 유학 성과에 대한 집단 간 평균 비교	152
〈표 IV-45〉 졸업 후 계획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	154
〈표 IV-46〉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서비스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	155
〈표 IV-47〉 진학지원 강화를 위한 서비스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	156
〈표 V-1〉 면담 대상대학의 유학생 현황	166
〈표 V-2〉 대학별 면담 대상자 선정 기준	166
〈표 V-3〉 면담 실시 현황	168
〈표 V-4〉 피면담자별 주요 면담 내용	170
〈표 VI-1〉 고등교육단계 유학생 비율(2005, 2010)	223
〈표 VI-2〉 2011년 상위 10위권의 출신국가별 유학생 수 및 구성비	225
〈표 VI-3〉 상위 10위권의 출신국가별 유학생 재학기관 유형	226
〈표 VI-4〉 호주의 교육기관 유형별 유학생 분포	228
〈표 VI-5〉 유학생 전략 중점 과제	231
〈표 VI-6〉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의료 서비스	232
〈표 VI-7〉 2010년 유학생들을 위한 Endeavour 장학금 지원	235
〈표 VI-8〉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주거 서비스	236
〈표 VI-9〉 캐나다 연도별 유학생 수 현황	240
〈표 VI-10〉 캐나다 유학생의 주요 출신 국가별 입국자 수 현황(상위 10개국)	241
〈표 VI-11〉 캐나다 유학생의 학교급별 총 입국 수 현황	241
〈표 VI-12〉 캐나다의 장학금 지원 현황	247

〈표 VI-13〉 상위 10위권의 출신국가별 유학생 수 및 구성비	251
〈표 VI-14〉 대학 국제화 추진 사업 및 예산	259
〈표 VI-15〉 일본의 일본어교육기관 현황	262
〈표 VI-16〉 대학 간 교류 현황	263
〈표 VI-17〉 국비 외국인유학생 종류 및 대우(2010년도 예산)	264
〈표 VI-18〉 사비 외국인유학생 종류 및 대우(2010년도 예산)	264
〈표 VI-19〉 일본의 유학생 기숙사 현황	265
〈표 VI-20〉 일본의 유학생 기숙사 정책	266
〈표 VI-21〉 외무성 관계의 유학생 귀국 후 후속 정책	267
〈표 VI-22〉 각국의 유학생 지원 및 관리	270

CONTENTS

그림목차

[그림 I-1] 면담 대상 대학의 단계별 선정 기준9

[그림 II-1]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체제23

[그림 II-2] 국립국제교육원의 주요 업무32

[그림 II-3] 연구의 분석 틀44

[그림 III-1] 외국인 유학생 수 변화 추세49

[그림 III-2] 유학 형태별 외국인 유학생 수 변화 추세 비교52

[그림 III-3] 아시아 외 지역별 외국인 유학생 구성 비율53

[그림 III-4] 아시아 외 지역별 외국인 유학생 증가율54

[그림 III-5] 외국인 유학생 연도별·출신 국가 순위별 구성 현황55

[그림 III-6] 주요 국가 증가 현황56

[그림 III-7]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의 구성 비율 변화 추이57

[그림 III-8] 학위과정 유형별 유학생 수 변화 추이58

[그림 III-9] 학위과정 재학 유학생 수의 변화 추이60

[그림 III-10] 재학 유형별 외국인 유학생 증가율 비교61

[그림 III-11] 학사과정 계열별 유학생 구성 현황62

[그림 III-12] 석사과정 계열별 유학생 구성 현황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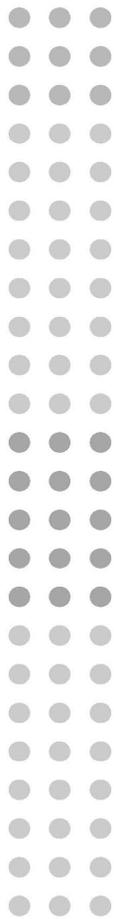
[그림 III-13] 박사과정 계열별 유학생 구성 현황64

[그림 III-14] 한국어 능력 자격시험(TOPIK) 지원자 수 변화 추이65

[그림 III-15]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수용률 변화 추이67

[그림 III-16] 유학 형태별 장학금 지원 현황 비교68

[그림 III-17] 유학 형태별 유학생 진로 현황 비교	72
[그림 IV-1] 조사도구 개발 과정	106
[그림 V-1]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례 분석틀	165
[그림 VI-1] 호주 고등교육기관의 유학생 현황	225
[그림 VI-2] 호주의 유형별 유학생 분포	227
[그림 VI-3] 호주의 전공별 유학생 분포	227
[그림 VI-4] 1997-2008년 유학생 출신국별 평균 증가율	240
[그림 VI-5] 캐나다의 전공별 유학생 분포	242
[그림 VI-6] 일본의 연도별 유학생 추이	251
[그림 VI-7] 일본의 대학유형별 유학생 분포	252
[그림 VI-8] 일본의 전공별 유학생 분포	252
[그림 VI-9] 일본의 국제화 전략 정책	257
[그림 VI-10] 일본의 유학생 추진 기구	269
[그림 VII-1] 미래비전과 대안 탐색의 기본방향 및 과제	284
[그림 VII-2] '외국인유학생정책진흥원' 조직(안)	306
[그림 VII-3] '외국인유학생정책통합위원회'의 조직(안) 예시	309



I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 증가는 인구구조학적 변화, 중등교육 이수자의 증가, 평생교육의 발달, 지식기반경제의 성장 등 다양한 요인을 그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 특히 사회 각 부문에 영향을 미친 글로벌화는 고등교육 분야의 팽창과 국제화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 2001년 자신의 국적과 다른 국가의 고등교육 기관에 등록한 학생 수는 210만여 명이었으나 2009년 360만여 명으로 연평균 8%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72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OECD, 2011; Bohm et al., 2002).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수록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많은 국가에서는 공공부문역량에 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인재유치 전략의 일환으로 주요 국가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지원체제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 동안 개별 대학과 정부의 노력으로 외국인 유학생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었다. 그러나 양적 성장에 버금가는 질적 성장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무분별한 유치, 특정국에 편중된 유치, 관리 및 지원체제 구축이 뒷받침 되지 못한 유치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 결과 유학생 유치 확대가 조만간 한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므로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체제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가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학생, 교수, 교육기관, 프로그램 등 고등교육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국경을 넘은 상호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 간 우수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유학생 유치는 글로벌 인재양성은 물

론 우호 및 지지기반 확보차원에서 중요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기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약 8.4만 명인데 반해 해외로 유학하는 한국인 유학생은 약 28만 명으로 국내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수가 절대적으로 적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지 못한 상황이다(통계청, 2011). 2020년까지 일본은 30만 명, 중국은 50만 명, 말레이시아는 20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계획을 발표하였다. TEE지수¹⁾ 상위국가인 싱가포르도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2015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15만 명 유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2012년까지 10만 명 유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관리 및 지원체제가 미흡하여 계획 달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국내 인적자원과 더불어 해외 인적자원 유치 및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고부가가치 경제에 필수적인 고급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한국의 총 고용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 미만으로, OECD 평균 12.7%에 비해 크게 저조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 수출기업의 11.8%가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하고 있으나 향후 계획 수립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외국인 유학생 활용에 대한 인식 부족, 의사소통 및 인력관리 등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일본은 외국인 유학생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기업이 21.7%로 한국의 2배 정도 높아 인적자원 유치 차원에서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수립이 시급한 시점이다(김우중, 2011).

둘째, Cross-Border 고등교육 시대의 Global Standard에 부응하는 유학생 지원체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UNESCO/OECD는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 질 보장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학생들이 질적 수준이 낮은 고등교육 서비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 대학, 평가기구 등이 갖추어야 할 규범을 제시하여 국제협력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 2008년 이후 고등교육 질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왔으나 그 성과가 아직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교육서비스 제고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UNESCO/OECD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외국의 교육 수요자가 한국 대학 입학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과 학위에 관해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제 표준에의 부합성과 통용성을 고려하여 유학생 유치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유학 생활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원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1) 기업환경지수를 의미하는 'TEE 지수'는 신뢰(Trust), 경제적 자유(Economic Freedom),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경쟁력 지수로서 IMD 경쟁력 보고서를 토대로 분석함.

셋째, 글로벌 교육 서비스 국가로의 교육시장 성장 가능성에 부응하는 인재 유치 전략 및 지원 체제 수립이 필요하다. 유학·연수 수지는 사업서비스 다음으로 적자폭이 큰 서비스 무역 분야로 1993년 통계집계 이래 누적적자가 400억 달러에 이른다. 2010년 유학·연수 적자는 44.5억 달러로 2000년 대비 약 5배 증가한 규모이다(한국은행, 2011). 이는 해외로 유출되는 한국인 유학생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학생 수 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이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볼 때, 글로벌 교육 서비스 국가로의 성장 가능성은 비교적 희망적이다. 2005년 이후 연 평균 35.5%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대학에 재적중인 총학생수 대비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2005년 0.6%에서 2010년 2.3%로 증가하였다.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국적과 다른 국가에서 수학하고 있는 학생 수는 2010년 기준 약 360만 명으로 이는 2001년 이후 연평균 8.2%로 증가세를 의미한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중 68.9%를 차지하는 중국의 경우만 보아도 해외로 진출하는 유학생 수의 증가율이 2010년의 경우 전년대비 30.8%이며, 이는 2005년 이후 연평균 17.7% 증가세를 의미한다(KEDI, 2010; 통계청, 2011; OECD 2011). 따라서 급속히 성장하는 국제 교육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유치전략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유학생 '수'에 의존하는 고등교육 국제화의 한계를 극복해야한다. 고등교육의 국제화가 강조되면서 외국인 유학생은 대학의 국제화 수준 및 글로벌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정보공시제, 대학평가인증, 자체평가, 언론사 대학평가 등에서 국제화에 관한 지표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대부분 정량평가로(외국인 유학생 수, 영어 강좌 비율 등)이루어지고 있어 외국인 학생 구성의 다양성, 학습 과정 및, 각종 지원 및 국제화의 성과 등 질적인 측면이 간과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에서는 외국인 학생 유치에 대한 양적인 성과로 국제화에 접근하고 있고, 이는 유학생 유치가 비교적 용이한 특정국 편중 현상과 질 관리 부재 및 각종 사회 문제로 이어져 국제화의 실효성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유학생 유치 실적 상위 10개 교의 경우 전체 유학생 중 중국인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76.7%에 이른다(교육과학기술부, 2011b). 또한 정주여건, 교수·학습, 사후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부재로 입학 이후에 관리가 어려우며, 대학별 국제처 직원 1-2명이 문제해결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제화의 내실을 제고하고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유학생 관리 및 지원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다섯째, 무분별한 외국인 유학생 선발로 인해 저하된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 200개의 4년제 대학 중 전체 정원의 70%도 채우지 못하는 30여개 대학에서는 신입생 입학정원을 채워도 2학년만 마치고 수도권 대학으로 편입하는 학생들로 인해 이 자리를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워야만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b). 그러나 이러한 대학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 선발기준이 부재하거나, 존재하더라도 지키지 않는 등 심사 절차 미흡으로 한국어 능력, 전공 지식 등 기본적 수학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학생을 선발하여 유학생의 강의 부적응, 중도 탈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선발, 학사운영 및 관리, 그리고 이에 대한 전반적 상황을 평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이 보장 된 국제화를 달성 할 수 있도록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체제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여섯째,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증가에 부응하는 지원 체제 구축으로 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주변 개도국의 고등교육 수요증대와 한류 확산, 고등교육 국제화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대학의 노력으로 인해 '03년 12,314명 이었던 외국인 유학생 수가 2011년 89,537명으로 매년 평균 29.0% 증가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KEDI, 2010). 그러나 양적인 증대에 부응하는 질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해 최소한의 수학(修學)능력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고, 일부 유학생은 등록금 마련을 위해 불법 체류자가 되거나 범죄에 연루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 중 68%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 및 예비 한국 유학 수요자들 사이에서 한국 유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반한 정서)가 확산되어 우수인재 유치 경쟁에서 불리해질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상의 필요성에 근거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화 역량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 그 유치에서 관리 및 배출에 이르는 전 과정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관리 및 지원체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대학의 고등교육 국제화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연구목표는 첫째,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관한 실태 및 문제, 요구 진단, 둘째, 국제 교육시장 점유율 상위국가의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탐색, 셋째,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지원시스템 강화 방안 탐색 등으로 설정하였다.

2. 연구 내용

가.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 개념 및 선행연구 분석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개념분석을 위해 유학생 유치, 실태, 활용, 지원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했으며, 이와 함께 OECD, UNESCO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규정하는 유학생 관련 개념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유학생 관리 및 지원의 필요성, 근거, 관련 주체들을 도출하고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유학생 관리 및 지원체제의 구조를 입학전, 재학중, 졸업후 등 단계별 접근을 시도했으며 각 단계에 따라 관리 및 지원되어야 할 세부 항목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관련 주체로 정부, 대학, 유관기관을 포괄하여 각 세부항목들이 관련 주체들과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는지를 통해 유학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입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나. 외국인 유학생 현황 및 관련 정책 분석

유학생에 관한 현황 분석은 통계현황, 정부정책, 대학별 운영현황 등으로 구성된다. 통계 현황은 유학생의 규모 및 학업, 생활과 관련하여 거시적인 변화 양상과 현재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정부 정책은 그 변천과정과 현재의 중점 추진 정책들을 분석하여 유학생 지원에 관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 성과와 한계 등을 진단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의 현황 분석을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유학생 실태조사 결과 A/B 두 유형별 대학을 비교하여 유학생 지원 및 관리 사례를 통해 대학의 미시적인 실태를 진단하였다. 외국인 유학생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 분석과 대학 및 정부차원의 현황 파악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성과 및 문제점을 도출하였는데, 이는 유학생 관리 및 지원체제 강화방안 도출에 반영하였다.

다.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실태 및 요구분석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체제에 관련 이해 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요구분석을 실시하였다. 요구분석 대상은 외국인 유학생, 한국인 대학생, 외국인 유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교수 그

리고 대학의 국제처 또는 이와 관련 된 업무의 담당 직원 등이다. 기존연구에서 국제처 직원 또는 외국인 유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해온 경향이 있다면 본 연구에서는 관련 유학생 지원에 중요학 역할을 담당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반영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요구분석의 내용은 입학전, 재학중, 졸업후 취업 및 진학 등으로 구성되며 이에 관해 법적 제도적 인프라,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및 대학에 바라는 사항 등으로 포괄하여 분석하였다.

라. 유학생 정책에 관한 주요국 사례 분석

국제 교육시장 점유율 상위 국가에서는 유학생 정책에 관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이러한 국가와 함께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활발한 국가 선정하여 유치 전략, 지원 정책, 유학생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생활지원, 외국어 교육, 학위·학점·자격 인정, 교수·학습 지원, 사후 관리 등을 비교 분석 하였다. 또한 유학생 지원주체 및 전담기구, 정부·대학·유관기관별 역할 분담, 국가수준의 종합계획 등을 분석하여 학생 이동(student mobility) 증가에 따른 국제사회의 유학생 관련 정책의 변화와, 국가별 유학생 관리 및 지원의 성공요인과 전략을 도출하였다.

마.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체제 강화 방안 탐색

마지막으로 유학생 지원 과정의 단계별, 지원 주체별로 추진되어야 할 관리 및 지원체제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방안탐색의 기본 방향 설정하여 중앙정부, 개별대학, 기타 관련 집단 차원의 과제와 역할을 도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적 차원의 실천 전략, 정책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전략, 소요 재정 판단 및 확보 전략 등을 모색하였다.

3. 연구 방법

가. 국내·외 문헌 및 자료 분석

고등교육의 국제화 및 학생 이동(student mobility),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및 지원, 활용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과 유학생 정책에 관한 정부 발표 자료(로드맵, review report, 각종 보도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외국의 경우 유학생 관련 전담기구, 대사관, 국제교류 유관 기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 및 각종 자료를 분석하고 종합정보서비스(웹사이트)등을 검토하였다. 한편, 유관기관으로 한국대학국제교류협의회, 전국대학교국제처장협의회에서 실시한 각종 국제컨퍼런스, 세미나 자료를 분석하고, 각 대학에 대해서는 국제처에서 발간하는 홍보자료, 유학생 관련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 등이 문헌분석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에 대해서는 인증제 도입을 위해 수행되었던 연구들과 지표 개발 연구 등을 참고하였다.

나. 면담 조사

외국인 유학생 문제는 유학생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 캠퍼스내에서 이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일반 학생과 교수 등에게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장성 있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이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한국인 학생, 지도 교수 및 대학 직원에 대한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유학생과 관련된 문제와 요구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였다.

면담 대학 선정은 대학에 재학하는 유학생의 구성 비율, 2011년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실시 여부, 대학의 소재지 및 설립 유형 등을 고려하여 4개 대학을 선정하였다. 선정 과정과 선정 결과는 다음 [그림 I-1]과 같다.



[그림 I-1] 면담 대상 대학의 단계별 선정 기준

대학별 면담 대상자는 외국인유학생 및 한국인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총 12~13명 정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각 대상별 참여자 수 및 선정기준은 다음 <표 I-1>과 같다.

<표 I-1> 대학별 면담 대상자 선정 기준

면담 대상		면담자 수	선정 기준
학생	외국인 유학생	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공계열, 인문사회계열 각 3명 ◦ 그룹 면담 진행 ◦ 학부 3, 4학년 생 ◦ 중국·영미권 유학생 혼합
	한국인 대학생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공계열 및 인문사회계열 혼합 ◦ 그룹 면담 진행 ◦ 학부 3, 4학년 생 ◦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수업 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 ◦ 국제학부 제외, 외국에서 수학 경험자 제외
교직원	일반 교수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공계열, 인문사회계 각 1명 ◦ 외국인 유학생을 지도해 본 순수 한국인 교수 ◦ 국제학부 제외
	담당직원	1~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처 관계자

다. 통계 자료 분석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및 학생 이동(student mobility)에 관한 OECD, UNESCO 통계자료를 살펴보고, 교육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로는 교육통계연보, 교육정책분석자료집, 대학정보공시자료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통계청의 e-나라지표 유학생 현황, 국제수지통계자료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중 유학 관련 데이터 분석,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등을 분석하였다.

통계자료 분석은 유학생에 관한 최근현황은 물론 최근 10여년 동안의 변화추이 분석과 향후 전망 분석 등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국제 고등교육 시장 점유율 상위국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각종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활용되었다.

라. 설문 조사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유학생들의 전반적인 경험을 분석하여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실태를 진단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외국인 유학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개발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졌다. 우선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하여 유학생 정책 관계기관 및 대학의 관계자들에게 설문조사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항목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기초연구를 실시하여 유학생 설문조사 문항의 메타분석을 실시한 후 다시 조사도구 초안의 내용 타당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아 수정본을 개발하였다. 이후 예비조사(pilot study)를 실시하여 문항의 타당도를 제고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본을 개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 대학은 5개 권역별로 규모(학생수), 설립유형(국·공·사립)을 고려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194개 4년제 일반대학 중에서 48개교를 할당표집하고, 외국인 유학생은 출신국과 7대 전공 계열을 고려하여 총 1,000명을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7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5주간에 걸쳐 면접원이 설문지를 지참하여 유학생들에게 직접 질문하고 그 응답을 기록하는 면접타계식(face to face interview)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지 구성 내용과 조사 실시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 <표 I-2>와 <표 I-3>과 같다.

<표 I-2> 설문조사 실시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 전국 4년제 일반대에 재학중인 학부 유학생으로 1~4학년
조사방법	◦ 면접타계식(face to face interview)
대상표집	◦ 지역, 규모, 설립유형 안배를 고려하여 광역권 별로 대학 선정 후 출신국과 계열 안배를 고려하여 총 1,000명의 유학생 선정
조사기간	◦ 2012년 7월 23일 ~ 8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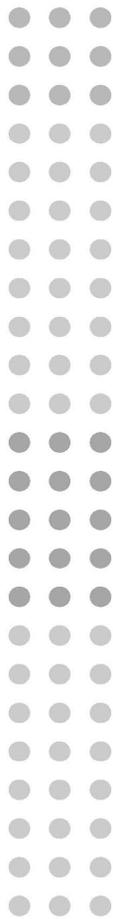
<표 I-3> 설문조사 내용 구성

구분	내용
유학 국가 및 학교 선택	◦ 유학 목적 ◦ 유학국가 및 대학 선택 이유 ◦ 유학 관련 정보획득 경로 및 획득한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도

구분	내용
입학 전 유학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학습 방법 ◦ 입학전 지원 관련 필요 사항 및 실제 지원 현황
재학 중 학업 및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숙사 및 기타 숙소 거주 현황 ◦ 유학 비용 및 생활비 ◦ 학업 외 직업(아르바이트) 활동 ◦ 학습 활동 및 학습 이해도 ◦ 교수 및 학교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 유학생생활 전반 및 학업·생활 관련 만족도
졸업 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 후 계획 ◦ 취업 지원 관련 필요 사항 ◦ 학업(대학원 진학) 지원 관련 필요 사항

마. 전문가 협의회

연구내용, 방법에 관한 자문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관한 문제 및 이슈 도출, 요구분석 및 설문조사 실시에 관한 자문, 외국인 유학생 지원체제 구축에 관한 의견 수렴 등이다. 대상은 주요 대학의 국제처 담당자, 한국대학국제교류협의회 또는 전국대학교국제처장협의회 관계자, 고등교육 전문가, 주요국 대사관의 International Education 관련 업무 담당자, 교과부 업무 담당자 등이 참여하였다.



Ⅱ.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체제에 대한 이해와 선행연구의 분석



1.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의 개념
2.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체제
3.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의 근거
4. 선행연구 분석
5. 시사점 및 본 연구의 분석 틀

II.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체제에 대한 이해와 선행연구의 분석

본 장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개념 정의와 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의 범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유학생 관리 및 지원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였다. 개념 정의는 본 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의 범위를 규정할 뿐 아니라, 유학생 지원을 위해 추진되어 온 다양한 활동들을 학술적 의미로 정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유학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체제를 분석하였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유학생 관리 및 지원 활동을 하나의 총괄적인 시스템으로 정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틀 개발의 토대가 될 것이다. 셋째, 유학생 관리 및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적, 정책적 배경을 살펴 제도적 접근으로 내용을 분석하였다. 넷째, 유학생 및 국제화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실시하여 본 연구의 방향 및 내용 구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의 개념

가. 외국인 유학생의 개념

외국인 유학생의 개념은 국가적 상황이나 개념을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그 의미에 다소간 차이가 있다. 외국인 유학생 개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의미를 비교하고 본 연구에서 다루는 외국인 유학생의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 주요국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한다.

미국은 F-1 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사람으로²⁾, 국가가 인정한 난민, 이민자, 혹은 미국의 시민권

2) 미국의 학생비자는 크게 F-1과 M-1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어학연수를 포함한 대학, 고등학교,

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미국의 교육기관에 등록한 경우를 외국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민권을 보유하지 않은 영주권자는 자국의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개념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의이며 대학마다 다른 개념으로 유학생을 구분하기도 한다. 예컨대 존스홉킨스 대학의 경우,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학부에 지원하게 되면 해당 학생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분류된다.

호주는 570-575의 비자를 소지하고³⁾ 입국하여 수학하고 있는 학생을 외국인 유학생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호주정부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을 수여받아 공부하는 학생이나, 관광비자와 같은 단기비자를 가지고 수학하는 학생은 외국인 유학생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 출신의 학생은 호주 유학 시 비자를 받을 의무가 없으므로 외국 학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캐나다의 캐나다 시민권이거나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유학 허가(study permit)를 얻어서 캐나다 입국을 하여 수학하고 있는 학생을 외국 학생으로 분류하고 있다.

프랑스는 프랑스 국적을 소지 하지 않은 학생이 프랑스에서 수학을 목적으로 입국해 있거나, 제 2 프랑스인 자격(secondary french qualification)을 가진 장기거주, 혹은 영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프랑스에서 수학하고 있는 학생을 외국 학생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해외 프랑스령 출신 프랑스 시민권을 소지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역시 외국인 유학생으로 분류된다.

영국은 영국, 영국령, EU회원국의 거주자 출신의 학생을 제외한 학생을 외국인 유학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영국 시민권을 소지하지 않은 영주권자의 경우는 국내학생으로 분류된다.

일본은 자국의 '이민통제 및 난민인정법(Immigration Control and Refugee Recognition Act)'의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 학생 비자로 일본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기술대학, 직업연수 대학 및 대학준비과정에 등록하고 있는 모든 외국 학생을 외국인 유학생으로 간주하고 있다.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유학생을 좀 더 세분화 하여 외국인 학생(foreign student)과 국제학생(international/mobile student)으로 구분한다. 외국인 학생(foreign student)은 본인의 국적

사립초등학교 등의 학교에 입학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이 받아야 하는 비자는 F 비자이다. 직업학교나 비학문적인 성격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려는 학생은 M비자를 받게 된다(US Department of State, 2012).

3) 호주의 학생비자는 입학하려는 학위 등급이나 과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발급받는다. 영어 연수 과정: 570 / 초등 및 고등학교 과정: 571 / 사립기술전문대학 과정: 572 / 석사(연구과정)·박사: 574 / 학사, 준석사, 석사(코스 과정): 573 / 대학예비과정 및 그 밖의 다른 과정: 575

과 다른 국가에서 특별허가 또는 비자발급을 통해 인증된 교육기관에서 유학할 자격이 인정된 학생으로 유학 체류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을 의미한다.

한편, 국제학생(international/mobile student)은 학업을 목적으로 국경을 넘어서 다른 국가로 이동한 학생을 의미한다. 국제학생은 유학 체류 국가의 거주권자(resident)가 아닌 학생이거나 또는 사전 교육을 다른 국가에서 이수한 학생으로 정의된다.

유학생을 이렇게 구분하는 배경에는 최근 학생이동(student mobility)에 관한 국제통계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 외국인 학생에 대한 조사는 영주권을 가진 학생들로부터 순수 외국인 유학생들을 구분하여 보고하기 어려운 몇몇 국가들로 인해 이 구분은 일관성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예컨대, 이민 자들에 대한 국적 부여에 엄격한 국가들과 비영주 외국인 학생을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국가의 경우에 이민자들에게 쉽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국가들보다 외국인 학생 규모가 부풀려지게 된다. OECD 주요국 중 외국인 학생과 국제학생 데이터를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는 나라의 자료를 살펴 보면 국제학생수가 외국인 학생 수의 평균 7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OECD에서는 외국인 학생의 개념이 학생 유동성을 측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제학생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고, 2006년 처음으로 외국인 학생에 관한 분석과 함께 국제학생에 관한 통계자료를 발간하였다.

이론적으로 유학생은 특정 프로그램에 최소한 한 학기 이상의 전일제 학생으로 등록한 외국인 학생을 의미한다. 자국의 모교에 등록된 학생이 단기간의 연수를 위해 다른 나라 교육기관에 등록한 경우나 자국의 교육기관에 여전히 수업료를 지불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는 유학 국가에서 외국인 학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비록 외국인 학생이 국제학생과 동일한 의미를 갖지는 않지만 외국인 학생이 학생이동을 살펴보기에 근접한 개념이기도 하고, 다양한 나라의 자료를 가장 일관성 있게 수집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변화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실질적인 이유로 외국인 학생 개념에 근거하여 학생 이동에 관한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법적인 의미로는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한 규정을 따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또는 재외 국민으로서 국내의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를 하는 학생으로 국내 대학이나 대학원의 정규 과정·연구과정은 물론 그 외의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어학연수생까지를 포함한다.

한편, 법무부 체류자격별 구분에 따르면 유학생과 연수생을 구분하고 있다. 유학생은 일반연수,

강습, 학술자료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로서 유학(D-2)비자를 발급 받은 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자,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 국·공립 또는 공공의 연구기관 등(연수원, 단체)에서 기술, 기능 등을 연수하는 자는 일반연수(D-4) 비자를 발급받는데 한국어 학습을 위한 어학연수생은 여기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제공 및 활용의 국제적 일관성에 부응하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OECD의 사례와 같이 넓은 의미의 외국인 학생(foreign student)의 개념을 활용하고자 한다. 즉, 외국인 유학생이란 대한민국 외의 국적 소지자 및 재외국민으로 국내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를 하는 학생이며 정규 과정·연구과정은 (D-2 비자 소지자) 물론 그 외의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어학연수생(D-4 비자 소지자)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다만 유학생을 재학 유형별로 보았을 때 그 규모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대표성에 초점을 둔 효율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의 대상은 대학의 정규 학부과정에 전일제 등록 학생으로 재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표 II-1〉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의 개념

국가기관	규정	비고
OECD	- 자국이 아닌 외국에 비자 등의 허가를 얻어 입국하여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특정한 학위취득이나 교육과정 이수를 목적으로 교육받고 있는 사람	비 시민권자 해당
미국	- 국가가 인정한 난민, 이민자, 혹은 미국의 시민권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미국의 교육기관에 등록한 경우	비 시민권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
호주	- 국내에 570~575의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여 수학하고 있는 학생	뉴질랜드 학생은 해당 되지 않음
캐나다	- 캐나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유학허가(Study Permit)를 얻어서 캐나다 입국을 한 학생	-
프랑스	- 프랑스 국적이 아닌 학생이 프랑스에서 수학을 목적으로 입국해 있거나, 제 2 프랑스인 자격(Secondary French Qualification)을 가진 장기거주 혹은 영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프랑스에서 수학하고 있는 학생	해외 프랑스령 내 프랑스 시민권을 소유하지 않은 학생 포함
영국	- 영국, 영국령, EU회원국의 거주자 출신의 학생을 제외한 학생	영국시민권을 소유하지 않은 영주권자 포함되지 않음

국가기관	규정	비고
일본	- 고등교육 학생 비자로 일본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기술대학, 직업연수 대학, 및 대학 준비과정에 등록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유학생	-
한국	- 외국인 또는 재외 국민으로서 국내의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	-

© 출처 : World Education Service(2007)

나. 관리 및 지원의 개념

유학생 관리 및 지원에 대한 별도의 개념 수립은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관리 및 지원이 학생이 대학 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인 학업 성취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행·재정적 행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교육행정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적용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만 지원의 대상이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적인 개념에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유학생에 대한 정책이 별도의 이론에 의해 뒷받침되기 보다는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유학 서비스의 역사적 경험이 풍부한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는 활동들 분석하여 특수성에 대한 개념적 보완을 하고자 한다.

행정학적 관점에서 국가의 공권력을 배경으로 법을 집행하는 것이 관리라고 할 때, 관리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사결정과 방침을 정하는 과정에 규제를 받으면서 객관적 타율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지원은 교육의 핵심 기능은 교수·학습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제반 조건을 정비하고 제공하는 수단적·봉사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남정걸, 2006). 따라서 유학생에 대한 관리는 유학생이 한국에서 학업 및 연구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의사결정과 방침을 정하고 이를 안정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한편, 지원이란 유학생이 한국에서 성공적인 학업적 성과를 이루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적 토대 위에 실제 유학생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의 사례들은 다음에 제시된 바와 같이 관련 기관들의 활동 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

유네스코는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및 관리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국제학생처(Office of International Services)의 업무를 규정하면서 국제 유학생 지원(International Student Services)의 목적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 국제학생의 재학률을 높이기 위한 활동 개발 및 촉진
- 문화적 프로그램 및 활동을 통해 대학커뮤니티에 국제 학생과 국제 교육 교류의 가치 및 중요성 인식 확산
- 여권, 비자, 각종 면허증 등 정부 서류 처리 관련 국제학생 협조 및 지원
- 학생의 출신 교육기관과의 연결
-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출발 전 정보와 상담 제공
- 적절한 유학준비를 위해 학업관련 정보와 학교 주변지역에 관한 정보 제공
- 유학생이 처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관련된 질문에 전문지식과 지원을 대학커뮤니티에 제공
- 국제학생과 국내학생의 교류를 증진시켜 유학생의 학교생활을 풍부하게 함
- 국제학생에 관한 교육관련 프로그램이나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대학커뮤니티에 제공
- 각종 국제학생 관련 시상과 재정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집행
- 다른 문화와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학생과 교직원들의 인식 고양

유네스코는(2002) 국제학생처의 목적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이를 위해 대학 내 국제학생 관련 부처가 수행해야 할 일반적인 활동 29가지를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 국제학생을 위한 상담자 역할 수행
2.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1:1 지원
3. 외국인 유학생 모집에 적합한 절차 개발
4. 외국인 유학생이나 교환교수 등을 위해 정확한 이민 관련 규정 정보와 지시 사항 제시
5.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도착 전 안내 패키지 제공
6. 외국인 유학생이 거주할 적절한 수준의 주거 시설 확보
7. 비자 및 출입국관련 지원
8. 국내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이 같은 시설에서 함께 활동하고 지낼 수 있는 여건 마련
9. 사회, 문화, 교육적인 지원 서비스 개발
10.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재정지원 개발과 시행

11. 외국인 유학생의 새로운 환경 적응을 위한 개별적 지원 제공
12. 제도적 책임감과 의료보험 관련 법적요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보장
13. 캠퍼스 내 다국적인 활동, 프로그램, 행사 개발의 권장 및 지원
14. 유학생의 적응을 위해 교수와 교직원의 외국 문화 이해 증진 노력
15. Host-family 확보와 mentor활동 개발
16. 수강신청, 숙소, 학교의 주변 환경 등에 관한 지원 제공을 위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 프로그램 구축
17. 외국인 유학생/교수가 생활, 학습, 근무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환경으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
18. 학교 공동체가 타 문화에 대해 배우는 과정에 참여하고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활동 조직
19. 외국인 유학생의 소속감 고양 관련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20. 다양한 문화를 알리기 위한 학생모임 지원
21. 타문화 이해를 위한 워크숍 및 활동 조직
22. 외국 학생모집과 순조로운 유학 절차를 위해 교육 방면 지도자 및 지원체제와의 공조
23. 외국인 유학생의 재정적 여건 평가 및 유학을 위한 재정적 요건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
24. 유학생을 위해 도착 전 및 유학과정 중 필요한 정보 제공
25. 출입국 문제와, 재정문제 혹은 다른 개인적 문제에 관해 일대일 혹은 그룹 토론의 장 마련
26.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직원과 학생 연수 프로그램 개발
27.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한 문제 관련 교직원에게 상담 및 조언 제공
28.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의 접촉 경험 및 주요 이슈에 관한 연구
29.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 된 연구에서 제기된 주요 이슈의 인식 증진 및 연구 결과 보고

UNESCO의 목적과 활동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지원은 유학지역 및 교육기관의 선택에서부터 재학중 학업을 수행하고 생활하는 데에 어려움을 최소화하며 유학생과 그들이 속한 커뮤니티의 공동체적 발전 및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역할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비슷하게, 프랑스의 국립기관으로서 자국 내로의 유학을 촉진시키고 유학관련 업무를 담당

하고 있는 캠퍼스 프랑스 역시 활동업무를 통한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Volz,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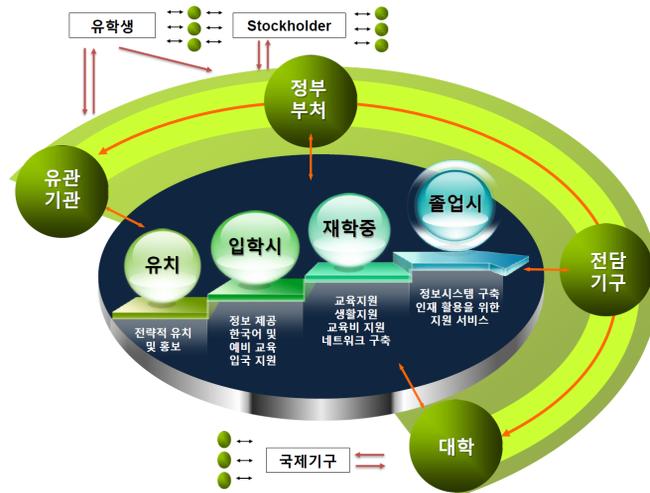
- 출발 전 정보 및 상담 제공
- 지원과 등록 절차 지원
- 비자관련 업무 지원
- 입국절차와 숙소 및 기숙사 관련 지원
- 오리엔테이션과 적응 프로그램 제공
- 학업관련 지원 및 개인교습 제공
- 진로 안내
- 동문 네트워크 조성 지원

즉, 외국인 유학생이 유학하기 전부터 재학 시기, 그리고 졸업 이후까지를 포함하는 전 과정에서 그들의 필요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제공하며 관리하는 것이 외국인 유학생 지원 및 관리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활동들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도출할 수 있다. 유학생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행정적 혹은 법적인 의무를 수행하지 못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사전에 대비하는 항목을 ‘관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원’은 유학생이 목표한 학업적 성과를 이루어내고,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격이 강조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UNESCO 활동을 통해 구분한다면 ‘관리’적 성격을 지닌 항목은 비자 및 출입국 관련 사항, 법적 제도적 의무 이행과 관련된 것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 항목들은 대부분 정보제공과 학습활동 및 생활지원에 중심을 두고 있고, 이에 더하여, 대학 내 교직원 및 소속 커뮤니티와의 연계노력을 포함시켜 유학생이 현지 사회에 조화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세심한 주의가 보여지고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2.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체제

유학생 관리 및 지원 체제는 유학생과 관련된 정책 및 실재를 받치고 있는 전체적인 틀이라 할 수 있다. 유학생 관리 및 지원체제는 다음 [그림 II-1]과 같이 단계별 관리 및 지원에 대한 내용 구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해관계 집단 및 유관기관들로 구성된다. 유학생 관리 및 지원에 대한 별도의 이론이나 체계적 문헌이 부족하므로 본 절에서는 국내의 기관이나 대학에서 유학생을 지원하는 활동을 바탕으로 지원체제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II-1]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체제

가. 단계별 관리 및 지원의 범주

일반적으로 유학생 관리 및 지원이라 하면 유학생의 입학과 재학 중 단계에 국한되어 논의되는 경향이 있어왔다. 그러나 앞의 해외사례나 UNESCO, OECD 등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유학생 관련 정책이 유치단계에서 졸업 후 지원 및 관리까지 유학생에 대한 전 주기를 포괄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크게 유치부터 공항 도착을 포함한 입학 무렵, 재학, 및 졸업 후 관리까지 포함하여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할 관리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1) 유치

유학생을 위한 유치단계에서의 지원체제는 정보제공 및 상담이 주로 이루어진다. 대학이나 유치기관의 웹사이트와 브로슈어 등을 이용한 정보제공부터 1:1 상담까지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는 다양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제공되는 주요 정보들은 유학 국과와 유학 대학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로 구성된다. 특히, 해당 국가 및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고등교육의 내용과 졸업 후 취득한 학위 및 자격의 효용성에 대한 내용은 우수한 유학생 유치를 위해 필수적인 항목이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QAA, 2011).

〈표 II-2〉 유학생 유치단계에서 제공되는 정보

유치단계 정보 제공	관련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과 기관에서 제공하는 학위 및 자격에 대한 정보 - 대학 소개 - registered representatives or agents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정보 - 입학 절차 및 외국 학생에게만 적용되는 규정 - 비자 취득 요건 및 절차 - 영어 능력을 포함한 입학 요건 - 입학에 필요한 절차, 예치금 및 환불 규정 - 숙소 비용을 포함한 생활비 관련 정보 - 등록금을 포함한 학비 - 장학금과 학비 보조 관련 정보 - 교육 프로그램 관련 정보 - 학생 지원 서비스 관련 정보 - 각종 직업 활동에 관한 정보 - 외국 학생 정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공개 - 대학과 연계된 유학생 유치 전담 기구에 관한 관리·감독 	<p>대학, 영사관 및 대사관, 유치관련 기구</p>

2) 입학시

입학 시기에 제공되는 지원은 입학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입국 시에 필요한 절차 및 서류 등의 지원이 일반적이다. 유학생의 입학이 결정되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이 새로운 학교가 있는 도시에 도착하기 약 3개월 전에 필요한 정보와 구비 서류 등의 안내가 포함 된 입학전 안내 패키지(Pre-Arrival Package)를 우편으로 송부한다. 이 패키지에는 학교와 프로그램 안내, 수강 및 등록 관련 정보 안내, 국제학생관련 업무 담당 부처와 같은 학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부터, 기숙사

및 주변 거주 시설, 운전면허증 취득 방법, 도착 후 공항에서 학교까지의 교통, 유학과 생활에 필요한 대략적인 월 경비까지 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정보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동일한 정보가 학교 웹사이트에 탑재되어 있어 유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입학하는 학과나 국제학생담당 부서의 담당자는 신입생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어 주요 일정이나, 해야 하는 일 등을 공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표 II-3〉 입학시기에 제공되는 지원

입학전 정보 제공	관련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핸드북/관련 서류 우편 송부 - 필요 정보 웹사이트에 업로드 - 이메일을 통한 정보 제공 - 학생출신국 내에서 직접 유학관련 정보 제공 - 신입생과 재학생 혹은 졸업생과의 연계 주선 - on-line communication의 장 마련 (eg. 메신저나 토론 광장 등) - 학과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국제학생담당 부서 및 학과) - 유학관련 기관

학교에 따라서는 신입생과 재학생 혹은 졸업생과의 만남이나 대화의 장을 주선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이 좀 더 개인적이고 친근한 여건에서 정보를 수집 및 교환하고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메신저나 토론게시판과 같은 온라인 대화 창구를 개설하여 신입유학생 들이 학업과 유학지에서의 적응을 돕는 각종 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기도 하다(UKCOSA, 2007).

입국 및 도착 후 지원도 이 시기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다음을 살펴보면 입국 및 도착에 관한 지원으로 비자관련 업무, 공항 서비스 및 오리엔테이션이 제시된다.

〈표 II-4〉 입국 및 도착에 관한 지원

입국 및 도착 후 관련 행정적 지원	관련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비자 관련 업무 지원 - 동반 자녀나 배우자 비자 업무 지원 - 비자 관련 문제발생 시 해결방안 제시 - 공항 마중 서비스 - 오리엔테이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국제학생담당 부서 및 학과) - 정부 (출입국 관리소)

오리엔테이션의 경우 유학을 시작하는 입학 시기에 한 번만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매 학기별로 학기 초에 한 번씩 시기별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대학에서는 많은 경우 매 학기 한 번 정도의 학생 만남이나 오리엔테이션의 장을 마련하고,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시기나 이민 정책 관련 변화가 있을 시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는 대학이 적지 않다.

오리엔테이션에 포함되는 내용이나 방법은 시기나 사안별로 다르지만, 수강신청 및 등록 방법, 도서관, 컴퓨터 랩 등 학교의 중요한 시설이나 language-tutoring 과 같은 프로그램 이용방법 및 관련 정보안내, 문화적 이해를 높이고 새로운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설명회 등이 포함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일반적인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오리엔테이션 내용을 주제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

- 이민규정 관련 서류나 절차 등에 관한 안내
- 노동법 관련 규정
- 문화적 다양성 관련
- 문화적 충격이나 사안 발생 시 상담
- 학업 관련 유용 정보 안내

일반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모여 실시하는 강의나 워크숍 같은 방식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지만, 오리엔테이션이 실시되는 시기보다 늦게 해당 지역에 도착한 유학생 들을 위해 인터넷이나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오리엔테이션을 시행하는 학교도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UKCOSA, 2007).

미국의 조지아 주립대학의 경우,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신입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다(Housley, 2009)

- 이민규정, 문화적응 및 미국의 수업 및 교실 문화, 대학에서의 각종 절차, 주택, 음식, 교통, 재정 관련 정보 제공
- 테스트, 학업관련 상담 및 조언, 수강신청, 이민법 관련 서류 복사, 등 대학에서 요구하는 행정적 업무 수행

- 학생의 소속 학과와의 연계 및 학과 동료와의 친교를 통한 조언과 협조 도모 및 학교 시설 및 프로그램 안내
-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분위기 조성을 통한 학생 환영

이 대학에서는 재학생에게(국내, 국제학생 모두) 국제학생 업무 가운데 VISA리더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ISA리더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사흘 동안의 연수를 통해 맡은 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민법이나 비자규정에 변화가 생겼을 때 외국인 유학생의 여권 비자 문제 등의 관리를 담당하는 대학 내 직원을 대상으로 재교육 혹은 연수 프로그램이 정부에 의하여 실행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9.11 사태가 발생한 후, 외국인 유학생의 이민권 관련 규정이 강화되고, 외국인 유학생 관련 기록을 컴퓨터 데이터화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을 때, 미국 정부 및 주 정부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규정 설명과 시스템에 관한 정보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였다.

위와 같은 학업 외적인 측면에서의 지원 외에 유학생의 학업과 관련하여 지원 및 관리를 시행하는 데 대표적인 것이 유학생들의 언어 능력 평가와 언어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I-5〉 도착 후 학업관련 관리 및 지원

도착 후 학업관련 관리 및 지원	관련 수행 기관
- 언어 능력 평가 - 언어 교육 실시	- 대학(언어교육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의 외국인 유학생은 해당 국가가 요구하는 언어 수준을 갖추었다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 이상 언어 연수를 받아야 한다. 미국의 대학에서는 TOEFL 성적을 유학생에게 요구하고 있고, 비록 입학이 허가 되었다 하더라도 TOEFL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언어능력 평가에 응시하여 영역별(읽기, 쓰기, 말하기), 수준별 강의를 이수해야만 한다. 언어교육은 입학 시기에 평가를 시행함을 시작으로 해당학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재학 중에도 계속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은 여름방학 기간에 이 대학의 대학원에 입학허가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9주간의 영어 강화 프로그램인 Graduate Preparation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2006

년부터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새로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과 교수를 통해 유학생의 필요사항과 요구를 파악하며 내용을 발전시켜 오면서 단순한 언어교육을 벗어나 언어적, 학문적, 문화적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실제 수업 상황에서의 상호작용, 토론 기술, 팀 과제 수행, 프레젠테이션 기법 등 대학원생에게 필요한 상황을 이용한 언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글쓰기에 필요한 문어적인 영어 사용 외에도, 숙어나 구어적인 언어도 교육내용에 포함하고 있어 학생들이 실제 상황에서 접할 수 있는 측면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더하여, 특정 전공 혹은 범-전공에서 사용되는 글쓰기 스타일과 같은 전문적인 내용도 가르치고 있다(Rosenstiel, Taaffe, & Thomas, 2009).

3) 재학중

재학중 제공되는 지원으로는 언어교육서비스, 장학금 등의 학비지원, 교육프로그램, 교수-학습 지원, 그리고 생활지원 등을 포함한다. 많은 경우, 외국인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은 재학시에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언어와 관련된 지원이다.

〈표 II-6〉 재학중 지원

재학중 지원 제공	관련 수행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교육 및 지원 서비스 - 컴퓨터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 - 기숙사 등의 거주 시설 - 학생처 업무 관련 지원 - 재정관련 지원 - 인턴십 근로장학생 등의 학내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국제학생담당 부서, 학생처, 학생회, 학생취업지원센터, 학과 등)

언어교육의 경우 입학시 테스트 결과에 따른 수강과목 외에 학생의 글쓰기나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한 과외 수업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미국대학의 경우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유학생의 언어적 능력 개선에 효과적인 성과를 얻고 있다. 글쓰기 능력이 강조되는 대학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캔사스 대학에서는 대학원 글쓰기 지원 프로그램인 Graduate Writing Suppor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많은 대학이 글쓰기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캔사스 대학의 이 프로그램은, 정규수업, 개인지도, 워크숍, 글쓰기 지원 그룹 등의 4가지 활동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정규수업에서는 전문적인 글쓰

기, 논문(석사, 박사)쓰기, 프레젠테이션을 다루는 것으로 1년에 2~3번, 3~4학점 수업의 형태로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나 학생이 속한 학과나 교수의 권고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 프로그램의 재정은 학생의 등록금으로 많은 부분 충당되고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의 재정 보조와 대학에서 일부 재정 지원을 하며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널리 퍼져있는 선진국의 경우 컴퓨터 사용이나 특정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학과나 단과대 단위로 운영하여 학생의 학업향상을 도모하고 있다(Kessler, 2006).

많은 경우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서 유학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지만, 유학생의 수요를 모두 다 수용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 있는 거주시설 알선이나 알선 기관 정보 안내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유학생과 국내 학생의 연계 프로그램도 많이 확산된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Buddying 혹은 Mentoring과 같은 형태의 이들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정식으로 구성되는 형식과 국내 학생의 자원에 의해 구성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 주고 배우는 언어교환(language exchange) 프로그램이 일반화 되어 있고, 이외 주말이나 저녁의 사교모임, 여행, 장터, 운동경기와 같은 행사를 열어 유학생과 국내 학생의 친교를 도모하고 서로간의 문화적 이해를 돕는 지원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UKCOSA, 2007).

기존 연구에 의하면 유학생들은 수강하는 과목의 강의 교수로부터 얻는 지원을 중요한 지원 형태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Kingston & Forland, 2008; Tran, 2008). 즉 교수의 정성어린 검토의견과 대화 등은 학생의 학습 진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교수에 의해서 얻어지는 지원은 그 정도나 범위에 있어서 개인차가 심하여, 정규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의 학내 고용을 포함한 법적인 한도 내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고용을 지원하기도 하는데, 영국의 경우 1/3가량의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part-time job알선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KCOSA, 2007).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주일에 두 번 학생취업지원센터에서 관련 정보 설명
- 지역내 취업지원 기관과 연계

-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작성 등 보조
- 고용관련 변호사와 국제학생담당자의 워크숍 개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은 정부, 공공기관, 기업, 재단, 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외에 대학에서 연구조교, 강의조교, 인턴 등과 같은 제도를 두어 등록금 면제나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유형이다. 그런데 유학생을 많이 받아들이는 국가의 대학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은 장학금에 대한 지원조차 제한하는 등의 차별적인 재정지원 여건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4) 졸업시

졸업을 앞둔 학생의 경우 귀국준비 관련 지원과 동창회 등 네트워크 정보 지원 등이 포함된다.

〈표 II-7〉 졸업시 지원

졸업시 지원 제공	관련 기관
- 귀국 준비 - 동창회 등 네트워크 정보 지원	- 대학(국제학생담당 부서)

영국의 한 대학에서 귀국을 앞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보면 출입국 관리 관련 구비서류부터 은행이나 우체국 등의 생활적인 측면까지 필요한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8〉 영국 Exeter대학의 귀국 유학생을 위한 출발 전 체크리스트

항목	내용
주소변경	- 대학 웹사이트와 우체국
재정관련	- 은행계좌 정리 - 세금 및 각종 공공요금 납부
여행 및 이사	- 비자 변경 및 증빙 서류 구비 - 항공표 예약 및 구입 - 이사전문 업체 예약 및 확인 - 세관 관련 정보 확인 -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고나 확인 (필요할 경우)
기타	- 추천서나 성적표 등의 필요한 서류 신청 및 확보

© 자료 : <http://www.exeter.ac.uk/internationalstudents/afterexeter/return/>

위와 같은 체크리스트나 귀국 관련 정보 제공은 일반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지원으로 귀국에 앞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담당자들은 다양한 정보 및 필수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과 관련된 업무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졸업 후 귀국을 곧바로 하지 않고 유학한 국가에서 직업을 구해 일하는 경우에 비자변경 등의 출입국 관련 업무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도 졸업을 앞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일반적인 지원업무의 하나다.

호주의 캔버라대학의 경우 귀국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사이트에 귀국 후 본국으로 돌아간 유학생이 겪을 문화적 충격에 관심을 갖고 귀국 학생이 겪을 수 있는 반-문화충격(Reverse-Culture Shock)을 문화적, 언어적, 정치적, 교육적, 직업적 등의 5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그 대처 방법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⁴⁾.

졸업, 혹은 귀국 시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동창회 등의 네트워크 활용정도에 머물고 있어, 학위를 취득한 후, 학업성과 및 학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제시와 같은 지원에 주목이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학위활용의 효용성제고 노력은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책무성과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로 유치부부터 졸업이후까지 전 주기적 지원체제 수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졸업시에 대한 이상의 지원내용 중 중요한 점은 해외의 경우에도 졸업후 취업 및 진로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유학을 통해 획득한 학위 및 자격의 가치 제고와 유학생들을 인재로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유학후 취업 및 진로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나. 유학생 관리 및 지원 기관

유학생 관리 및 지원 기관은 위상과 규모에 따라 크게 4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개별 대학의 국제관리 부서가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며, 그 다음이 전담기구이고, 전담기구가 없을 시 별도의 민간 지원 기구에서 유학생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가장 규모가 큰 단위는 정부부처 및 출입국 관리 기관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학생 이동과 체류에 관한 법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 기관에 해당하는 사례와 각각의 담당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학생 관리 및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은 기본적으로 대학이 중심이 된다고 하겠다. 특히 대학내

4) <http://www.canberra.edu.au/seasu/intl-student-support/returning-home/reverse-culture-tips>

국제교류처는 대학의 국제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유학생 박람회 개최 및 참여, 외국인 유학생 입학 전형 업무, 유학생 대상의 국제교육 프로그램 개발, 유학생 대상 생활, 학업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유학생 관리 및 지원을 담당하는 국내의 전담기구로 국립국제교육원을 들 수 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국가기관으로 현재 재외동포 교육전문기관으로 국제교육 교류 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 기관의 주요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II-2] 국립국제교육원의 주요 업무

국립국제교육원은 외국인 유학생을 초청하고 국내교육기관에 유치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펼치고 있고, 특히 한국정부 국제장학 프로그램(GKS) 운영으로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학 지원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국립국제교육원이 정부산하기관으로서 유학생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민간영역에서는 한국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담당 직원의 모임인 KAFSA (Korean Association of Foreign Student Administrators), 즉 한국대학 국제교류 협의회를 꼽을 수 있다. KAFSA는 유학생 지원 정책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대학의 국제화와 관련된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해오고 있다. 대학내 유학생 담당 교직원들이 업무 분야 관련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KAFSA에서는 매년 두 차례 워크숍 개최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대학 내 유학생 담당 교직원의 전문성을 높여 서비스의 질 개선에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유학생 정책을 관장하고 유학생 관리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관리소)를 들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Study Korea Project와 같은 사업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인프라 개선과 행정 지원 체제 구축 등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외국인 인권 옹호’와 같은 가치를 내걸고 비자업무, 출입국신고, 외국인의 국내체류와 같은 이민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유학생 관리 지원을 하고 있다.

3.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의 근거

유학생 지원이 구호적인 측면에서만 머물지 않고 실효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학생 관리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한국 정부는 관련 제도 수립이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해외 사례를 통해 법적근거를 살펴보고 한국의 법적·행정적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제도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제 교육시장 점유율 상위국가로서 호주의 경우 국제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외국인 학생을 위한 교육 서비스법(ESOS ACT)」(2000)을 제정하여 학생 안전(International Student Wellbeing), 교육 소비자 보호(Consumer Protection), 정보 제공(Better Information), 교육의 질(Quality of Education)에 대한 내용을 보장하고 있다(서영인, 2011). 유학생을 위한 교육서비스 법(ESOS)은 유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유학생이 해당 대학에서 유학 관련 정확한 정보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학생이 알아야 할 정보의 유형을 열거해 보자면: 교육기관의 학생지원 서비스 이용방법, 유학생 담당관, 학점신청, 등록 연기, 유예 및 취소, 학생의 학업향상을 위한 교육기관의 요건, 신청한 과정의 출석체크 여부, 교육기관 변경, 교육기관에 대한 불만 및 소송 절차 이용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 내에서 유학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시민이 받는 법적 보호와 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Wernick, The international student handbook). 특히 행정적으로 지방분권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대학의 독립성,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국가적 특성상 이민법을 제외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9.11 테러사건 이후에 2003

년부터 시행 된 유학생 관리 시스템인 SEVIS(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를 통해 유학생의 입국 출국 및 거주지 변경 등을 포함한 미국 내 비자 관련 신상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유학생 관리의 체제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미국 대학에서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교직원들의 구성체인 NAFSA에서는 2006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국가 수준에서의 국제교육 및 유학생에 관한 공공정책 수립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일본학생지원기구법에 따라 학생지원기구를 통한 일본국내 학생 및 유학생 지원과 학생 지원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를 통한 유학생 지원 내용은 외국인 유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 유학생 교류사업의 운영, 학생생활지원 사업 등을 포함한다.

국내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적용을 받는 법적 행정적 조항들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II-9〉 유학생 관리 및 지원 근거(법령정보 중심)

구분	외국인 유학생 적용 법적 행정적 근거
현행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관리법 [시행 2012.7.27] [법률 제11224호, 2012.1.26,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2.5.27] [대통령령 제23818호, 2012.5.25,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5.27] [법무부령 제773호, 2012.5.25, 일부개정]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2013.7.1] [법률 제11298호, 2012.2.10, 타법개정]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시행2010.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7.12, 타법개정] - 고등교육법 [시행2012.7.22] [법률 제11384호, 2012.3.21, 타법개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2012.3.2] [대통령령 제23650호, 2012.3.2, 일부개정]
행정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 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시행 2010.11.29] [법무부훈령 제805호, 2010.11.29, 일부개정] -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08.5.1] [훈령 제614호, 2008.4.16, 제정] - 장기체류 제외 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시행 2011.1.1] [고시 제2010-111호, 2010.12.17, 일부개정]
자치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시도별 외국인 지원 조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 [10. 9월 개정,교육과학기술부]

◎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따로 유학생을 위한 법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은 현실이고, 위 표에서 제시된 법령이나 규칙 등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을 제외하고는 국내 기존 법을 외국인 유학생이 그대로 적용받는 경우이다.

다만, 유학생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포함한 몇몇 규정에서 유학생처우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외국인유학생의 국내 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 5조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그 기본계획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 외국인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외국인정책의 추진과제,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한,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2008년 12월에 발표된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제 1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는 1)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2) 인권이 존중되는 성숙한 다문화사회로의 발전, 3) 법과 원칙에 따른 체류질서 확립 등의 3가지 기본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외국인과 함께 하는 세계 일류국가’라는 목적과 함께 외국인 인권옹호 등의 목표가 함께 제시되었다.

올해는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대상 기간('08년 ~ '12년)에 포함되어 있는데, 위에 기술된 3가지 기본 계획 가운데 세 번째로 제시된 법과 원칙에 따른 체류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체계적 관리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 단계에서의 지문정보 제출 의무화 등 외국인 정보 관리 조항이 유학생 관리 및 지원 수립과 외국인 인권 옹호 등을 정책적 목표로 삼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관한 근거로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0년 9월에 새롭게 개정된 본 지침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선발 절차와 학업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대학의 업무처리를 표준화하여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국내 유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적용되는 대상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 제7호에 따른 외국인 또는 재외 국민으로서 국내의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

하거나 연구를 하는 학생과 정규 과정·연구과정 외에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어학연수생이 포함된다.

〈표 II-10〉 외국인 유학생 지원 및 관리의 제도적 근거

국가	법적·제도적 근거		내용 및 이슈
	이름	성격	
호주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Act 2000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생 권리 보호 및 교육서비스 질 제고를 통한 호주 교육 인식제고 노력 •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및 관리를 통한 호주 이민법과의 일관성 향상 및 유지 도모
한국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및 시행령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화를 위한 노력과 학문연구 노력 진흥을 위한 시책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주로 외국으로 나가는 학생에 대한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음)
일본	일본학생지원기구법 (3조)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재육성 및 국제 상호이해 증진에 기여
미국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행정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생의 입국 출국 및 거주지 변경 등을 포함한 미국 내 비자 관련 신상정보 추적 시스템
한국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인권존중 법과 원칙에 따른 체류질서 확립 - 외국인 유학생 체계적 관리 명시화 함 - 지문 정보 제출 의무화(인권옹호와 상충되는 요소)
한국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생업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작성한 유학생업무를 위한 기본 지침 - 법적 구속력 없음 - 관리의 가이드라인 - 지원을 통한 유학생 보호 역할 미흡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법적 근거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인프라가 되어 해외 유학생 유치는 물론 국제사회의 고등교육 수요자들의 유학국가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또한 유학생 지원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자, 유학생 관리 및 지원을 안정적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다양한 정부 정책 추진에 앞서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체제 선진화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법적 기반 구축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4. 선행연구 분석

가. 국내 연구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된 연구의 특징은 대부분의 연구가 2000년대 이후에 이루어져 축적량이 부족한 편이라는 것이다. 또한 연구 내용이 대부분 유학생 현황이나 정책에 관한 것이며, 연구방식도 유학생 대상 설문조사, 국내 대학 사례조사, 해외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유학생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과 지원에 관한 연구로 한국어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예비교육 연구, 문화적응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연구, 외국인 유학생 전담기구 등을 통해 유학생의 관리와 적응을 돕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박태호(2000)의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에 교육서비스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 주목하여 경영학적 관점에서 유학생 유치 정책을 분석하였다. '마케팅 믹스' 모델을 도입하여 4P(Product, Price, Place, Promotion)의 측면에서 국내 유학생 유치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실천 과제를 도출하였다. 노종희 등(2003)은 국내 4년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출신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교육적 요구와 유학 중 애로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 학생 유치 및 홍보, 학교 적응 프로그램 개발, 유학 인프라, 유학생 관리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국가별 유학생 유치 전략을 모색하였다. 박우수 등(2004)의 연구는 전문대학의 유치방안을 집중 연구하여 국내 전문대학의 유학생 유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전문대학에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유학현황 및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김화영(2005)의 연구는 교육 개방 등에 대비한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교육 국제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대학교육 국제화의 핵심 사업으로 유학생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외에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측면의 연구로 김남희 외(2005), 이명재(2006), 한영옥(2007) 등의 연구가 있다.

한편,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연구로 엄혜경(2003)의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생활 적응 정도와 한국생활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인에 대한 인식 방법, 외국인 유학생에게 필요한 것 등에 대해 연구하고 외국인 유학생 지원 방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나임순(2006)의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겪게 되는 문화적 적응 및 생활 스트레스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유학생들의 생활 실태를 객관

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사회복지학적 관점의 연구이다.

그 밖에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 연구(윤성원, 2001; 최진희, 2005; 진평, 2006),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연구(두경자, 2002; 안선민 외, 2006),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왕 샤오링, 2002; 장연, 2005; 최진희, 2005; 이해연, 2007; 차민영, 2007; 황해연, 2007)도 있다.

국내 주요 정책연구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유형의 연구를 소개할 수 있다. 첫째, 문흥호 외(2010) 「한·중 양국의 상호 유학생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는 한중 양국의 유학생이 한·중 관계의 교량역할을 할 인재라는 사실을 보다 깊이 인식하고, 유학생 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과 중국 정부에도 한국 유학생이 받는 부당한 대우와 불합리한 조건의 개선을 요구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구자역 외(2010) 「2010년 대중국 종합연구 한·중 양국민간 우호정서 저해원인 연구: 국내체류 중국인 유학생실태조사를 중심으로」는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반한정서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반한정서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국내 반한 정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한·중 국민 우호정서 저해 원인의 하나로 인식되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실태 조사와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셋째, 최석준 외(2010) 「글로벌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서비스 역량강화 방안연구」는 국경을 초월하는 글로벌 인재와 이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수요의 급증에 따라,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교육 분야 글로벌 서비스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아이টে를 발굴하여 신규 고용 창출 및 교육수지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교육서비스업의 개념을 정리하고, 교육서비스의 통계자료 전반 및 교육서비스의 유형과 고용역량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교육서비스업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의 교육서비스 글로벌화 추진 동향을 분석하고,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의 교육서비스 글로벌화 정책 환경을 비교하였다. 넷째, 송영관·양주영(2009)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을 통한 외국 전문인력 활용방안」 연구는 한국경제의 고도화를 위해 외국 전문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과 외국 전문인력 활용방안을 연계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한국의 외국인력 유치 현황과 정책,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과 정책을 살펴보고, 미국과 일본의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노동시장에서 전문인력으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였다. 다섯째, 최정순 외(2007) 「해외인적자원 유치 확대 및 활용을 위한 유학생 지원 전담기구 설립방안 연구」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유치 방안과 후생 복지를 포함하는 관리 방안,

그리고 유학 후 활용 방안을 포함하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의 모색을 시도했다. 아울러 이들 여러 부분별 방안들의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 방향, 그리고 업무 영역 분장 등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 국외 연구

Ozturgut & Murphy(2009)는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미국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문화적 학문적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음에도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정책은 현실적이라기 보다는 여전히 구호적인 측면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비슷하게 Heikinheimo와 Shute는 (1986) 대학이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들과 대학당국에 간극이 존재하게 됨을 지적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론을 통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이 유학을 와서 적응하며 겪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언어문제와 미국 학생들과의 상호관계 등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대학 당국은 이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학생을 받아들인 대학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갖는 일반적인 주요 관심은 학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Mori(2000)의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신적 건강 문제에 관한 연구에서 유학생들은 외국에서 생활하고 수학하면서 얻어지는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질환을 가질 위험이 높다는 것을 제시한다. 학생의 언어능력, 문화적 차이, 그리고 학생들이 유학을 오기 이전에 갖고 있던 유학생 활에 관한 여러 가지 기대에 따라서 학생들의 관심 영역과 필요 분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기술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여 보다 민감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Dillon과 Swan(1997)은 6명의 아시아 국가의 학생과의 면담을 통해 그들이 갖는 문제점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그들이 갖는 자신감 부족은 외국어 실력이 부족함에서 초래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유학생에게 사전에 제공되는 유학에 필요한 정보 등이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학생 자신의 외국어 실력에 따라 유학 경험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Heggins and Jackson(2003)은 미국의 한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는 28명의 아시아 지역출신의 학생을 면담하고 10명으로 구성된 2개의 포커스 그룹을 통하여 유학을 통해 얻어지는 학생발달의 수

준과 미국대학에 재학하며 일어나는 변화과정과 관련된 경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학과 혹은 전공과목 등과 같은 선택의 문제, 적응, 커뮤니케이션, 학습, 참여, 가족으로부터의 부담, 그리고 유학 오기 전에 형성되어 내재된 전통적인 가치관 등이 유학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7가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을 통해 연구자들은 교수, 교직원, 대학 내 기구 혹은 서비스 기능을 갖춘 조직 등에서 포괄적이면서 동시에 개별적인 접근 방식을 외국인 유학생에게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외에 해외에서 수행된 다섯 가지 주요 정책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Wille J. Heggins & Jerlando F. L. Jackson(2003) 「Understanding the Collegiate Experience for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at a Midwestern Research University」는 student development와 transition process에 포커스를 두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시아 유학생들의 대학 경험(collegiate experience)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이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참여 대상은 MRU 아시아 유학생, 직원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개인면담(28명)과 포커스 그룹 토론(각 10명씩의 2개의 포커스 그룹)을 실시하였다. 둘째, Osman Ozturgut & Carole Murphy(2009) 「Literature vs. Practice: Challeng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U.S.」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미국의 국제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good practice란 어떤 것인가를 밝히고, 이러한 practice들을 개선하기 위한 제언을 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good practice를 위해서 유학생들과의 관계 확립이라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Sakurako Mori(2000) 「Addressing the Mental Health Concerns of International Students」는 유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관하여 다양한 문헌을 바탕으로 연구한 것으로, 유학생들이 겪는 정신 건강상의 문제의 다양한 원인 및 증상에도 불구하고 유학생들이 정신 건강을 위한 치료 및 서비스 활용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였다. 넷째, P.S. Heikinheimo & J.C.M. Shute(1986) 「The Adaptation of Foreign Students : Student Views and Institutional Implications」는 유학생들의 적응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을 명확히 밝혀 학생 조직 및 학생 서비스 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 및 캐나다 유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서비스의 질 및 범위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유학생들이 유학생생활에서 적응이 필요하다고 밝힌 주요 부문은 언어 기술(language skills), 학업에 대한 걱정(academic concerns) 및 학업관련 압박감(academic pressure), 문화적 차이(cultural differences), 인종차별(racial discrimination), 사회적 적응의 패턴(patterns of social adjustment)이며, 유학생들을 상대로 비구조화/구조화 면접 및 참여 관찰방법을 사용하였다. 다섯째, Randy K.

Dillon & Janet S. Swann(1997) 「Studying in America : Assessing How Uncertainty Reduction and Communication Satisfaction Influence International students' Adjustment to U.S. Campus Life」는 미국의 대학 캠퍼스에 처음 들어온 유학생들의 초기 교류(interaction)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으로, 유학생 6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다. 선행연구에서의 강조점

이상에서 제시한 선행연구 분석의 강조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는 대체로 생활 적응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책에 관한 연구의 경우 대부분 유치정책에 초점을 두고 수행된 경향이 있다. 따라서 유치부터 졸업 후 관리까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포괄적이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으로 연구대상이 주로 중국에 국한되어 있다. 지리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유치 대상 국가의 다양화가 해외인재 유치 경쟁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으므로 외국인 유학생의 대상을 다양하고 넓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학 외에도 다양한 이해집단이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대학의 유학생 업무 관계자 또는 외국인 유학생 위주로 의견을 수렴한다.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은 물론 개별대학과 관련 유관기관(전담기관)도 관련 집단에 해당하며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된 이익단체들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 내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의 의견뿐 아니라 교직원, 한국 재학생들 등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유학생 지원방안 수립 시 구체적인 실천전략의 개발도 필요하다. 특히 국경을 넘은 고등 교육의 변화 경향에 따라 학생교류의 형태가 변화될 것에 대비하여 단기 정책뿐 아니라 중·장기 차원에서의 전략수립도 필수적이다. 또한 현재 유학생 지원 및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이 미흡하기 때문에 관련법령 및 지침 제정 전략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유학생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재정지원방안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단기 및 중기 정책제언에서 그치고 있다. 유학생 유치는 교육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서비스 부문 무역 분야로 국가의 경제적 성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구체적인 소요 재정을 파악하고 필요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까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시사점 및 본 연구의 분석 틀

가. 시사점

이 장에서는 유학생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외국인 유학생 지원의 이론적 배경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학생에 대한 국내 대학 및 관련 기관이 유학생과 관련된 정책개발 시 유학생을 관리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둔 접근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교육서비스 부문에 국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 유치단계에서부터 학업을 마치는 단계에까지 단계별로 잘 짜여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2003년 이후에 유학생 관리에 중점을 둔 정책을 펼 미국은 지원하는 유학생 수의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 미국은 9.11 테러사건 이후에 2003년부터 시행된 유학생 관리 시스템인 SEVIS(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를 통해 유학생의 입국 출국 및 거주지 변경 등을 포함한 미국 내 비자 관련 신상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발급을 종전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서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을 유학지로 정하여 지원하는 학생이 수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 조지타운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까다로운 비자발급과정을 외국인 유학생들이 미국으로의 유학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Lowell, Bump, & Martin, 2007). 이와 같이, 유학생을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그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보다는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서 커다란 어려움 없이 수학할 수 있는 지원책을 계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 및 관계기관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원체제를 강화함으로 책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대학교육의 책무성을 고려할 때, 외국인 유학생이 그 대상에서 소외된 그룹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내 유학생 관련 정책이나 대학의 관심이 유치와 관련된 것들이 대다수인 현실이고, 또한 구호적인 성격에 머무는 경향이 적지 않다. 하지만 기존 연구자료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은 외국인 유학생이 겪는 어려움은 언어능력, 학업 수행과 관련된 것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의 관리 및 지원시스템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학생과는 다른 어려움을 겪고 다른 종류의 필요를 느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처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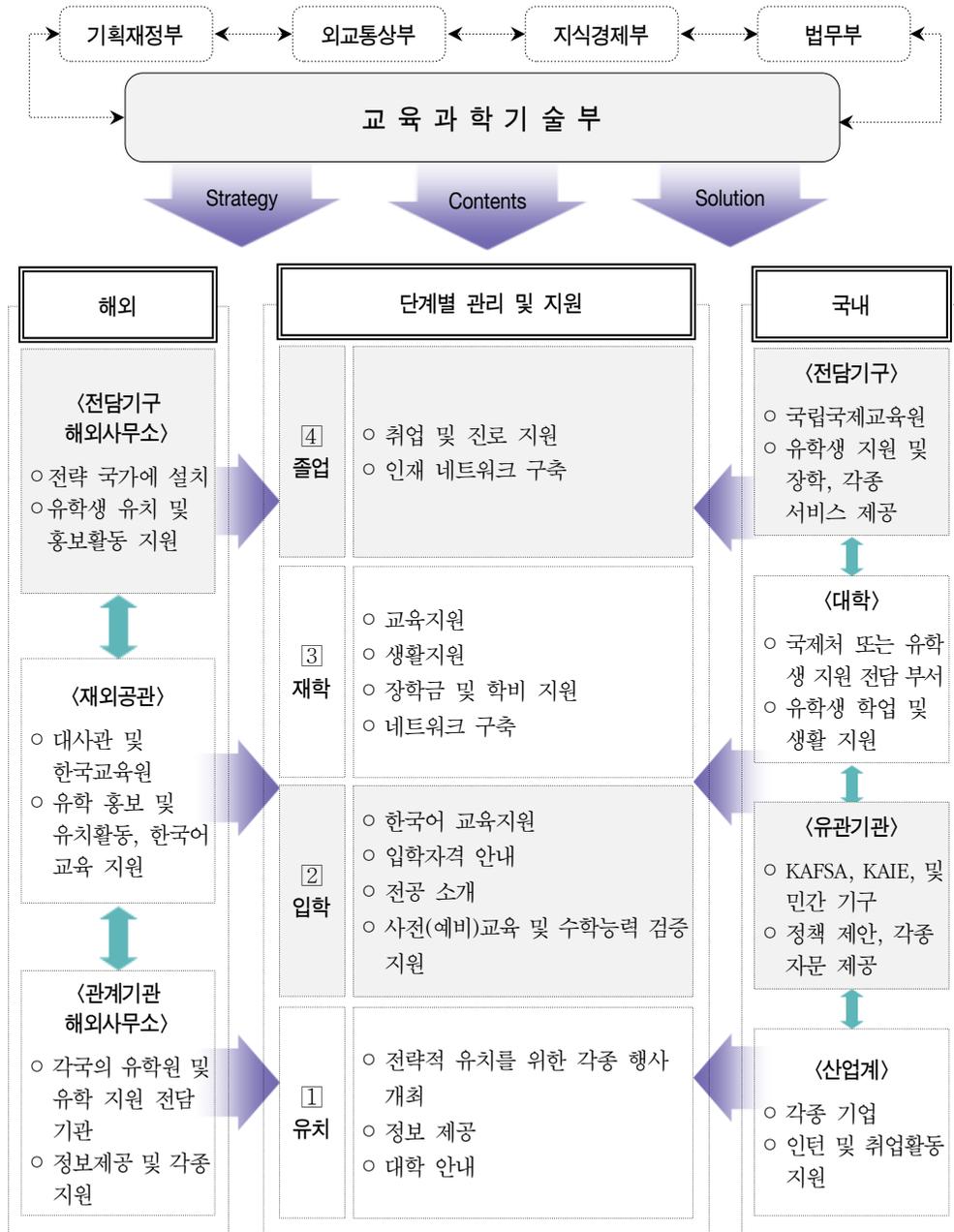
셋째, 위 두 번째와 같은 맥락에서, 유치단계에서부터 졸업 후 사후관리까지를 아우르는 단계별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 정립의 필요성 대두이다. 현재 유학생관련 업무는 대부분 대학의 국제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제교류 담당 부서가 학생의 유치와 입국시기에 필요한 비자관련 업무처리나 정보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는 것에 비해 유학생을 받아들인 경험이 많은 선진국의 경우는 학생의 필요에 따라 유치, 입국, 재학중, 졸업시기까지 포함한 전주기적 관리 및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한 예로, 호주의 경우는, 학과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유학생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여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학생이 목표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동문회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에만 중점을 둔 정책보다는 그들이 학업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 혹은 국내에 취업하는 시기까지를 포함하여 단계별 필요한 기관이나 부서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원하는 통합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넷째, 대학의 여건과 수준을 고려한 특성화된 지원체제 강화 방안노력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유학생 송출국인 한국은 대학의 국제화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각 대학의 여건과 현실에 적합한 유학관련 시스템 개발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고,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외국어 강의나 국제화 관련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대학별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유학생 지원 정책의 실효를 얻기 위해서 법적구속력을 갖는 구체적인 시행령의 수립 등의 법적·제도적 인프라가 마련되어야하고, 이와 함께 정책실행을 재정적 지원 등과의 연계시키는 등 관련 재정보호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나. 본 연구의 분석 틀

이상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분석틀을 다음 [그림 II-3]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분석틀은 연구 내용 구성은 물론 정책 제언을 위한 기본 토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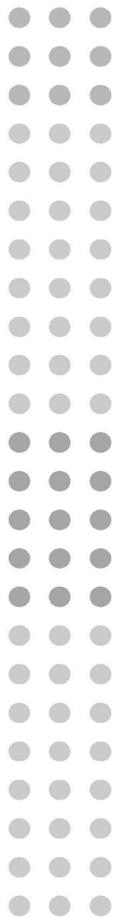
[그림 II-3] 연구의 분석 틀

본 연구에서는 유학생에 대한 지원의 범위를 유학의 전 단계를 포괄하는 유치-입학-재학-졸업과 같이 4단계로 설정하였다. 각각의 단계에서 외국인 유학생에게 필요한 적절한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의 관련 지원들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담기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각 대학의 국제처 또는 유학생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들이 제 역할을 할 것이다. 유관기관으로는 한국대학국제교류협의회(KAFSA), 한국국제교육자협회(KAIE),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 등 대학의 국제화 및 유학 정책에 관한 지문과 정책 제안을 하는 기관들이 포함된다. 또한 유학생에 대한 각종 장학금 및 학비지원을 해주는 민간 단체도 해당한다. 산업계의 경우 졸업 이후 유학생들의 취업 및 진로 지원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해외에서는 주요 지역에 유학생 전담기구의 해외 사무소를 설치하여 국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으며, 재외공관으로서 대사관 및 한국교육원이 해당된다. 이들은 한국 유학에 대한 홍보 및 박람회 개최, 한국어 교육 지원 및 자격 검증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한편, 관계 기관으로서 해당 지역의 유학원 및 유학 지원을 위한 각종 기관들 역시 해외 네트워크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유학생 정책 수립과 추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는 정부부처로서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범부처간 유기적인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유학생 정책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담당한다. 특히 관련 정책에 대한 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고 유학생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힘을 모을 것이다.



Ⅲ. 외국인 유학생 정책 및 관리·지원 현황



1. 외국인 유학생 일반 현황
2. 정부 정책 추진 현황
3. 대학의 관리 및 지원 현황
4. 성과 및 문제
5. 시사점

Ⅲ.

외국인 유학생 정책 및 관리·지원 현황

1. 외국인 유학생 일반 현황

가. 외국인 유학생 수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총 수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기 전 세계 변화 동향과 같이 분석하였다. [그림 III-1]은 OECD와 UNESCO가 함께 작성한 통계자료로 지난 30여 년 간 자신의 국적과 다른 국가의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학생 수의 장기적 증가 추이와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증가 추이를 동시에 보여준다.



© 자료 : KED(각 연도),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OECD(각 연도), Education at a Glance.

[그림 III-1] 외국인 유학생 수 변화 추세

이를 보면 1980년 108만 명에서 2009년 약 370만 명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하였고, 2000년 이래로 전 세계에 취학된 외국인 고등교육 학생 수는 연평균 6.6%의 성장률을 보이며 77% 증가했고, OECD 회원국에서는 연평균 6.7%의 성장률을 보이며 79% 증가하였다(OECD, 2001).

한국의 경우 1980년 1,015명에서 2011년 89,537명으로 약 88배 이상 증가하였고, 2000년 이래로 연평균 48.3%의 성장률을 보이며 22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1990년에는 전년대비 145.8%, 2001년에는 193.8%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가능 큰 폭으로 유학생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외국인 유학생의 급격한 증가세는 2001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을 시작으로 2004년부터 추진된 ‘Study Korea Project’ 등 고등교육 국제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 학생의 절대 규모로 분석과 함께 외국인 학생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율을 통해 국제화 수준을 알아볼 수 있다. 다음 <표 III-1>을 살펴보면 2009년 기준으로 전체 고등교육 학생 중 외국인 학생의 비율은 한국이 1.6%로 OECD 평균 8.7%보다 약 5배 이상 낮은 수준이다.

<표 III-1> 외국인 학생 비율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한국	0.1	0.2	0.2	0.3	0.5	0.7	1	1.3	1.6
OECD 평균	5.3	5.7	6.3	7.3	7.6	9.6	8.7	8.5	8.7

◎ 자료 : OECD(각 년도). Education at a Glance.

그러나 2000년을 100으로 보았을 때 2009년 전체 고등교육단계 외국인 학생 수의 변화지수는 한국이 1,483으로 OECD 평균 289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이는 호주 244, 일본 198, 미국 139, 영국 163 등 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OECD, 2011). 이러한 변화 지수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향후 유학생 유치 및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 수립에 경쟁국가 보다 선제적으로 대처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표 III-2> 외국인 학생 변화 지수(2000년=100)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한국	320	459	660	947	1,195	1,483
OECD 평균	161	193	211	235	263	289

나. 유학 형태별 현황

유학의 형태는 크게 자비유학, 한국 정부 초빙 유학, 대학 초청 유학, 자국 정부 파견, 기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학 형태별 현황은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을 포함한 전체 유학생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조사되기 시작했다. 2011년 현황을 보면 자비유학생이 75,325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대학 초청 유학 8,504명, 우리 정부 초빙 유학 2,513명, 자국 정부 파견 유학 573명, 그리고 기타 유형의 유학생이 2,622명으로 구성된다.

〈표 III-3〉 유학 형태별 외국인 유학생 수 변화 추세⁵⁾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자비유학생	17,599	26,342	42,273	54,934	64,271	71,843	75,325
대학초청 유학생	2,873	3,892	3,706	5,010	6,634	8,091	8,504
우리 정부 초빙 유학생	388	614	581	837	1,629	1,942	2,513
자국 정부 파견 유학생	309	465	511	587	503	493	573
기타	1,357	1,244	2,199	2,584	2,813	1,473	2,622
합계	22,526	32,557	49,270	63,952	75,850	83,842	89,537

◎ 자료 : KED(각 연도).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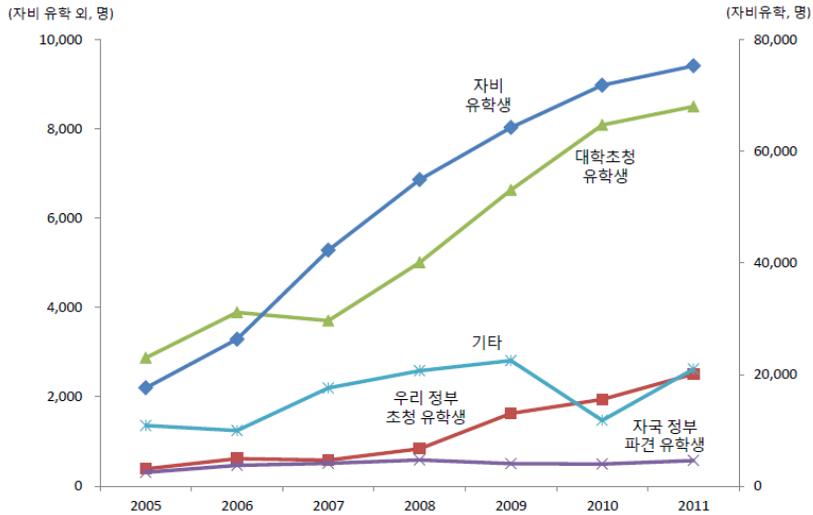
2005년 이후 평균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자비유학생이 84.6%, 대학 초청 유학이 9.8%, 우리정부 초빙 유학이 1.9%, 자국 정부 파견 유학 1.0%, 기타 2.7% 비율로 자비유학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2005년 대비 2011년 기준으로 증가율이 가장 크게 변한 것은 한국정부 초청 유학으로 547.7%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자비 유학 328%, 대학초청 196%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유학생 유치를 위한 그동안의 정부의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그림 III-2]를 살펴보면 2005년 이후 각 유형별 증가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자비 유학생은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한편, 대학 초청 유학생은 2006년과 2007년 약간의

5) • 자비 유학생 : 개인 경비로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

- 우리 정부 초빙 유학생 : 국가 간 협정 또는 약정에 의해 우리 정부가 초청하고, 보조하는 장학금 등을 받고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
- 대학 초청 유학 : 대학 초청에 의해 해당 대학이 보조하는 장학금 등을 받고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
- 자국 정부 파견 유학생 : 유학생의 출신 국가가 유학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한국에 파견한 유학생
- 기타 : 위 유학 형태에 속하지 않는 모든 유형의 유학생

감소세를 나타내다가 높은 비율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초청 유학생의 증가는 고등 교육의 국제화에 대한 개별 대학들의 관심과 노력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정부 초청 유학생은 2008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한편, 자국 정부 파견유학생은 2005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 자료 : KEDI(각 연도),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그림 III-2] 유학 형태별 외국인 유학생 수 변화 추세 비교

다. 출신 지역 및 국가별 현황

최근 10년간 출신 지역별 외국인 유학생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이후 타 지역과의 구성 비율 면에서 평균 88.4%가 아시아 지역의 학생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 <표 III-4>를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 학생들의 증가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전체 유학생 증가에 중요한 요인으로 매년 평균 30.3%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적인 규모 자체도 크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아시아 지역의 편향성이 강해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즉 2001년에는 아시아지역이 전체 중 75.2% 정도 비율이었으나 2007년 이후부터 90%를 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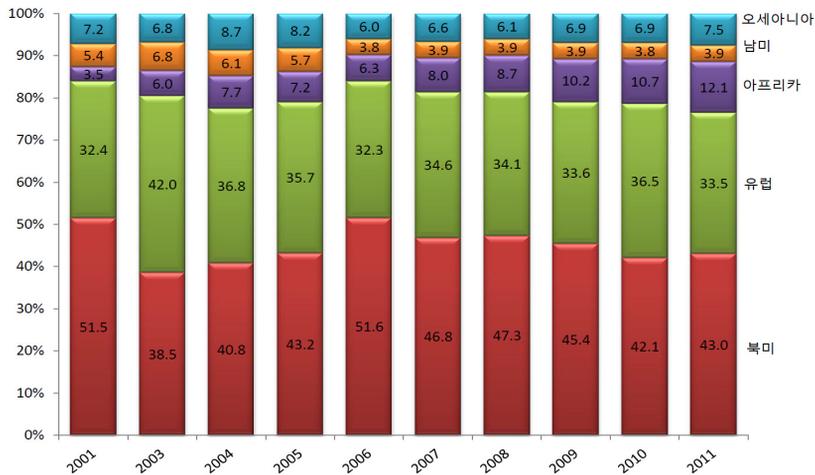
〈표 III-4〉 재학 유형별 외국인 유학생 수 변화 추이

구분	2001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아시아	8,755	10,436	14,563	19,969	29,227	45,652	59,375	70,133	76,483	80,766
아프리카	100	112	174	184	211	291	397	584	786	1,063
오세아니아	156	128	139	145	125	142	178	221	280	338
북미	1,488	723	925	1,105	1,717	1,692	2,165	2,594	3,095	3,769
남미	209	127	197	209	200	240	278	395	511	660
유럽	938	788	834	914	1,077	1,253	1,559	1,923	2,687	2,941
계	11,646	12,314	16,832	22,526	32,557	49,270	63,952	75,850	83,842	89,537

◎ 자료 : KEDI(각 연도),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아시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전체 유학생 수의 평균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아시아 외 국가들만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III-3]과 같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북미지역으로 최근 10년간 전체 지역에서는 평균 5.2%를 차지하나 그 외 국가들 사이에서는 평균 45.0% 비율을 차지한다.

그 다음은 유럽으로 전체 지역 중에는 평균 4.1%, 아시아 외 국가들 중에서는 평균 35.2% 비율을 차지하는 지역이다. 아시아 지역을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구조에서 아시아 외 국가들의 구성 비율을 별도로 살펴보는 것은 향후 국제화의 전략지역 모색에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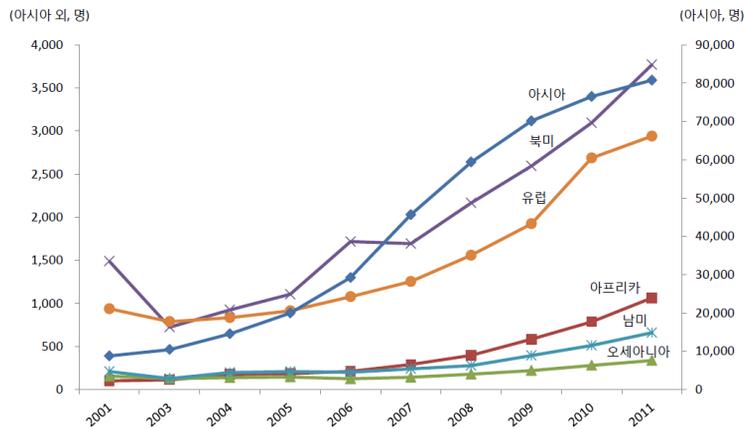


◎ 자료 : KEDI(각 연도),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그림 III-3] 아시아 외 지역별 외국인 유학생 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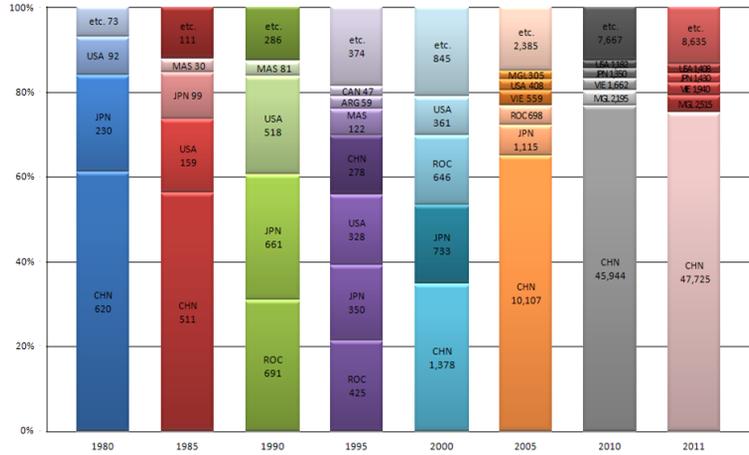
지역별 외국인 유학생 증가율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III-4]와 같다. 전체규모는 아시아 지역이 가장 높고, 북미 지역은 증감의 변화가 있는 편이지만 2007년 이후 평균 22.2%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아프리카, 남미, 오세아니아 지역은 작은 규모이지만 역시 2007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 이후 학위과정에 재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주요 출신국가들의 순위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유학생이 1,000명 안팎이었던 1980년대와 1985년도에는 중국, 일본, 미국 출신의 유학생들로 주로 구성되었다. 1990년에는 중국보다 대만의 학생들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던 점이 특징적이고, 1995년부터 주요국의 비율이 다소 낮아지면서 국가 구성이 다양해지기 시작해 2005년 이후에는 중국 출신의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중국 외의 국가들은 더욱 다양화 되었지만 그 규모가 매우 작아졌다. 2011년의 경우 중국 다음으로 몽골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임에도 그 규모가 중국의 1/19 정도로 작아, 중국 대 기타국가로 분류될 정도로 유학생 출신 국가의 편향성이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자료 : KEDI(각 연도).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그림 III-4] 아시아 외 지역별 외국인 유학생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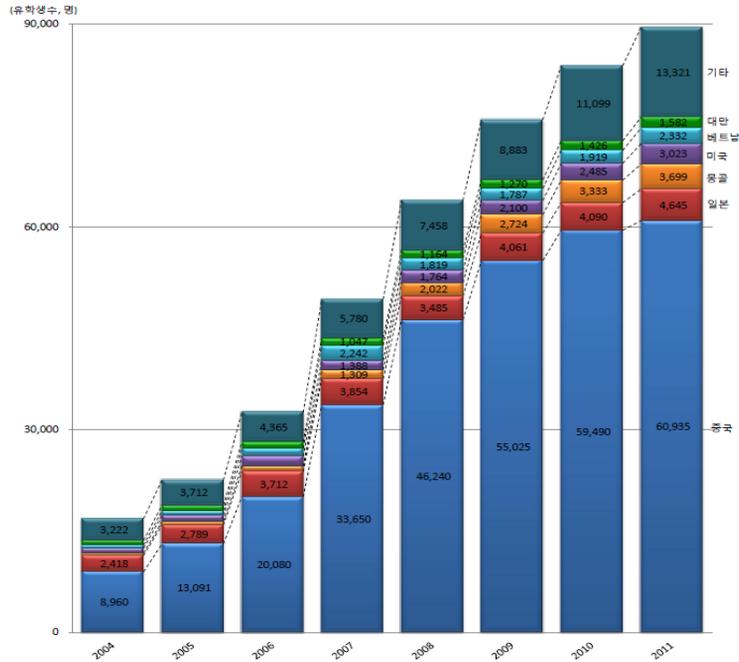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그림 III-5] 외국인 유학생 연도별·출신 국가 순위별 구성 현황⁶⁾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을 모두 포함한 출신국가별 구성현황은 2004년부터 분석할 수 있다. 최근 주요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중국, 일본, 몽골, 미국, 베트남, 대만 등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건너오고 있다.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증가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III-6]과 같다. 중국의 증가폭이 가장 크며, 특히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전년대비 53.4%, 67.6%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연도별·출신 국가별 구성 현황은 학위과정에 해당하는 유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고등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이 연도별로 차이가 있음.

- 1980 : 전문대학, 초급대학, 교육대학, 대학교, 대학원, 각종학교
- 1985, 1990 :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정규학생, 대학원(정규, 연구학생)
- 1995 : 전문대학, 대학교, 개방대학, 대학원
- 2000 : 전문대학, 대학교,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대학원
- 2005년 이후 :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모두 조사함.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그림 III-6] 주요 국가 증가 현황

몽골은 2004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 40.9%로 중국을 제외한 국가 중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베트남 역시 몽골과 비슷한 현상을 보이는 국가로 평균 31.4%로 증가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 역시 조금씩 증가하기는 하나 증가폭이 큰 편은 아니다. 일본의 경우 연평균 10.5%의 증가율을 보이며 꾸준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도 24.4% 증가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국가 점점 그 수는 많아지고 있어 국가 간 학생 이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각각의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아 전략국가로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라. 재학 유형 및 기관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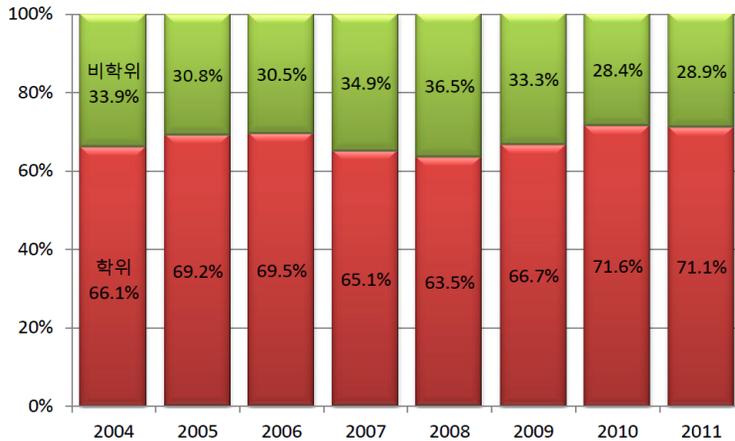
재학 유형별 변화는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학위과정은 (전문)학사 또는 석·박사 학위를 수여받는 과정이며, 비학위과정은 어학연수생과 교환 및 방문 연수생 등을 의미한다.7)

〈표 III-5〉 재학 유형별 외국인 유학생 변화 추이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계		16,832	22,526	32,557	49,270	63,952	75,850	83,842	89,537
학위 과정	(전문)학사	6,641	9,835	15,268	22,171	28,197	36,525	43,709	44,641
	석사	3,246	4,023	5,183	7,247	9,143	10,697	12,480	14,516
	박사	1,234	1,719	2,173	2,638	3,245	3,369	3,811	4,496
	계	11,121	15,577	22,624	32,056	40,585	50,591	60,000	63,653
비 학위 과정	어학연수	4,520	5,212	7,938	14,184	19,521	20,088	17,064	18,424
	기타연수	1,191	1,737	1,995	3,030	3,846	5,171	6,778	7,460
	계	5,711	6,949	9,933	17,214	23,367	25,259	23,842	25,884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다음 [그림 III-7]은 2004년 이후 학위과정 대 비학위과정의 구성 비율을 분석한 것이다.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학위과정이 평균 67.8%, 비학위과정이 32.2%로 나타난다. 2007년과 2008년에는 학위과정의 비율이 감소하고 비학위과정의 비율이 각각 4.4%와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2009년부터 다시 학위과정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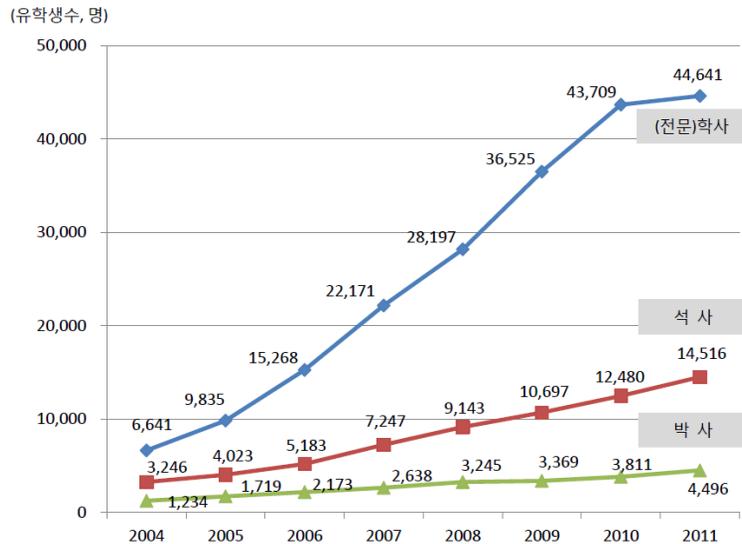


◎ 자료 : KEDI(각 연도).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그림 III-7]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의 구성 비율 변화 추이

- 7) • 어학연수생 : 대학부설 어학원 등 비학위과정(non-degree program)인 어학연수과정에 등록하여 수학과 있지만 학점은 취득하지 않는 유학생
- 교환연수생 :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에 의해서 1:1로 상호 학생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유학생
- 방문연수생 : 학교 간의 협정이 아닌 개인의 해당 대학 방문을 통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유학생

학위과정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문)학사 및 석·박사 과정에 재학하는 유학생의 변화 동향을 알 수 있다. 2004년 대비 2011년의 규모로 보면 (전문)학사 과정이 572.2% 증가하였고, 석사 347.2%, 박사 264.3% 증가하였다. 연평균 증가율로 보면 (전문)학사 과정이 32.4%, 석사 24.1%, 박사 20.7%로 역시 (전문)학사 과정의 증가율이 가장 높고 박사과정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과정별 비율을 분석해보면 (전문)학사 과정이 평균 68%, 석사 23.5%, 박사 8.5%로 구성된다.



◎ 자료 : KEDI(각 연도).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그림 III-8] 학위과정 유형별 유학생 수 변화 추이

학위과정에 재학하는 유학생들을 재학하고 있는 고등교육 기관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III-6>과 같다. 대체로 7개 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기타에 해당하는 기관은 각종학교(miscellaneous school), 원격대학(distance university), 전공대학(specialized college), 기능대학(polytechnic college) 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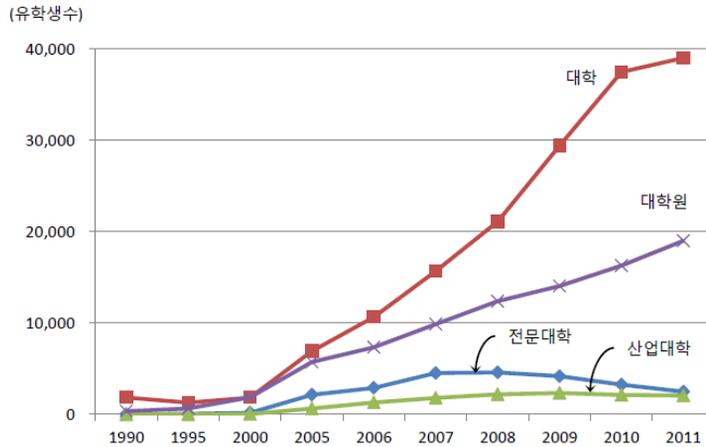
〈표 III-6〉 고등교육 기관별 외국인 유학생 수 변화 추이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학위	전문대학	26	59	183	2,153	2,906	4,538	4,591	4,186	3,262	2,492
	대학	1,859	1,279	1,846	6,926	10,670	15,696	21,114	29,422	37,491	39,029
	산업대학	-	2	41	649	1,306	1,805	2,208	2,347	2,133	2,062
	교육대학	-	-	-	3	8	9	8	-	9	8
	방송통신대학	-	-	16	17	279	-	-	263	419	543
	사이버대학	-	-	-	-	-	-	-	241	370	432
	대학원	352	643	1,877	5,742	7,356	9,885	12,388	14,066	16,291	19,012
	기타	-	-	-	87	99	123	276	66	25	75
	계	2,237	1,983	3,963	15,577	22,624	32,056	40,585	50,591	60,000	63,653
비학위	-	-	-	6,949	9,933	17,214	23,367	25,259	23,842	25,884	
전체	2,237	1,983	3,963	22,526	32,557	49,270	63,952	75,850	83,842	89,537	

◎ 자료 : KED(각 연도),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학위과정에 재학하는 유학생 중 유의미한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전문대학, 대학 및 산업대, 대학원의 변화 추이를 비교해 보았다. 대학에 재학하는 유학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각 기관에 재학하는 유학생의 규모에 급격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한 시점은 2005년이라 할 수 있다. 2005년 대비 2011년 대학에 재학하는 유학생 수는 463.5% 성장하였으며, 연평균 34.4%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대학원 2005년 대비 2011년 231.1%나 성장하였으나 연평균 성장률 22.3%로 대학과는 그 규모가 점점 벌어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산업대와 전문대학은 감소추세에 있는 기관으로 특히 전문대학은 2008년을 정점으로 이후 2009년에는 8.8%, 2010년 22.1%, 2011년 23.6%로 감소율이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대는 전문대보다는 감소율이 크지 않으나 2010년부터 전년대비 9.1%, 2011년 3.3% 비율 정도 감소 경향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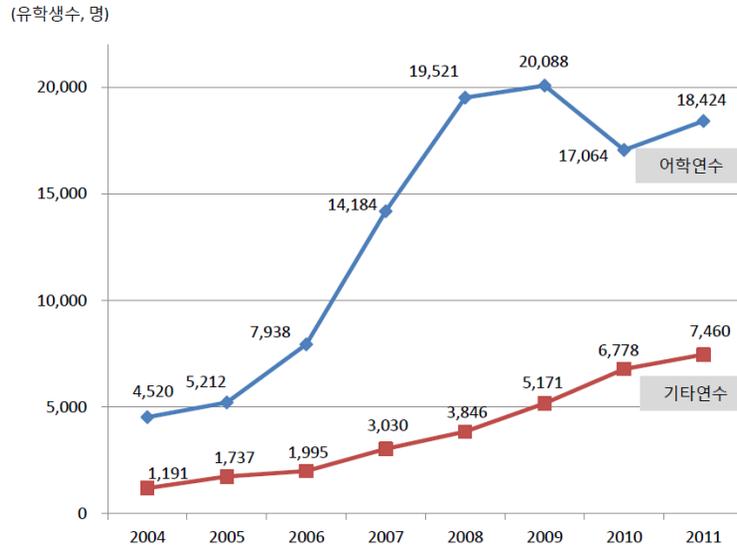
그 외에 [그림 III-9]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위의 〈표 III-6〉을 통해서 보면 사이버 대학과 방송통신대학은 2009년 이후부터 유학생 규모가 형성되었고, 교육대학 졸업 후 진로의 특수성으로 인해 수요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자료 : KEDI(각 연도).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그림 III-9] 학위과정 재학 유학생 수의 변화 추이

비학위과정은 어학연수와 기타연수로 구분된다. 어학연수는 2006년 이후 급증하여 하다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다소 증감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어학연수생이 가장 많았던 2008년은 2004년 대비 307.6% 증가한 규모였으며, 연평균 25.7%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기타연수생은 어학연수생보다 작은 규모이지만 지속적인 증가세를 타나내고 있다. 기타연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30.7%로 어학연수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어학연수생의 비율이 평균 77.8%, 기타연수생은 22.2%로 비학위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기타연수는 교환 및 방문학생으로 학점을 취득하는 유학의 형태임에 따라 이러한 증가추세는 향후 대학 간 교류 협력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 자료 : KEDI(각 연도),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그림 III-10] 재학 유형별 외국인 유학생 증가율 비교

마. 계열별 현황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학위과정에 재학하는 유학생을 계열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III-7>과 같다. 계열을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 및 의학계열 등 4개로 구분할 수 있다.

<표 III-7> 외국인 유학생의 재학 유형별·계열별 구성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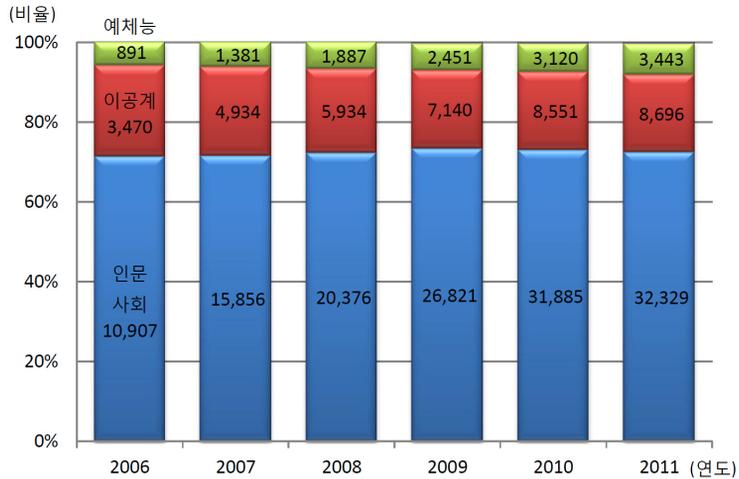
구분	인문사회계	이공계	예체능계	의학계	계	
학사	2006	10,907	3,470	891	-	15,268
	2007	15,856	4,934	1,381	-	22,171
	2008	20,376	5,934	1,887	-	28,197
	2009	26,821	7,140	2,451	113	36,525
	2010	31,885	8,551	3,120	153	43,709
	2011	32,329	8,696	3,443	173	44,641
석사	2006	3,339	1,558	286	-	5,183
	2007	4,690	2,117	440	-	7,247
	2008	5,984	2,598	561	-	9,143

구분		인문사회계	이공계	예체능계	의학계	계
	2009	7,342	2,532	619	204	10,697
	2010	8,865	2,690	728	197	12,480
	2011	10,257	3,284	756	219	14,516
박사	2006	683	1,438	52	-	2,173
	2007	822	1,770	46	-	2,638
	2008	1,039	2,145	61	-	3,245
	2009	1,106	1,986	73	204	3,369
	2010	1,299	2,162	113	237	3,811
	2011	1,433	2,694	129	240	4,496

◎ 자료 : KEDI(각 연도).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2006년 이후 학사과정을 계열별로 살펴보면 다음 [그림 III-11]과 같다. 인문사회계열이 평균 72.3%, 이공계 20.8%, 예체능 6.7%, 의학계 0.2% 비율로 구성되어 인문사회계열이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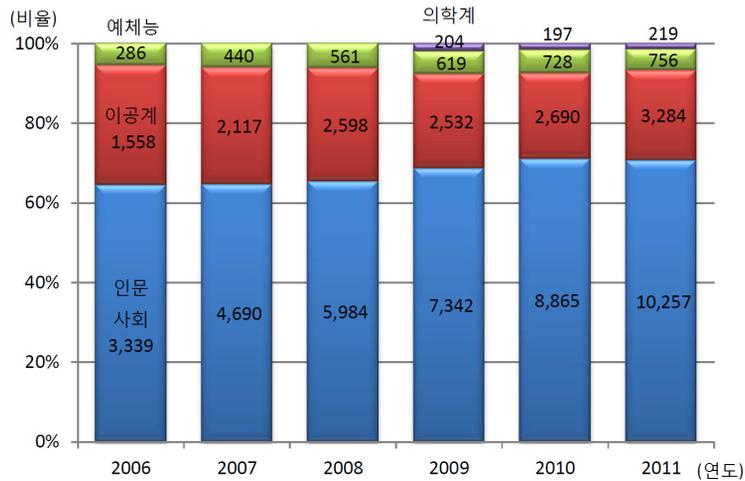
연도별로 큰 변화를 찾아볼 수는 없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이공계와 예체능계의 비율이 다소 낮아지고 인문사회 계열이 더 증가하는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 자료 : KEDI(각 연도).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그림 III-11] 학사과정 계열별 유학생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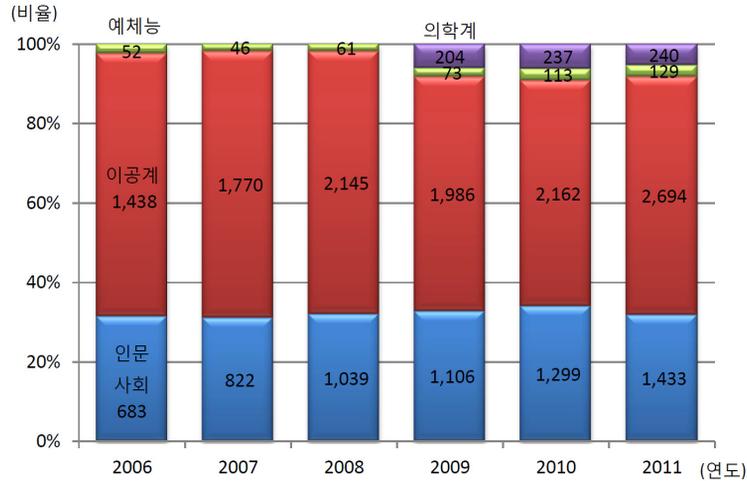
석사과정은 학사과정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다음 [그림 III-12]를 살펴보면 인문사회계가 평균 67.5%, 이공계 25.9%, 예체능 5.8%, 의학계 0.8%로 학사과정보다 인문·사회계열과 예·체능의 비율이 낮아지고 이공계와 의학계가 조금 높아졌다. 석사과정도 학사과정과 마찬가지로 인문·사회계열의 증가와 이공계 감소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 자료 : KEDI(각 연도).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그림 III-12] 석사과정 계열별 유학생 구성 현황

한편, 박사과정은 다음 [그림 III-13]과 같이 이공계의 비율이 학사나 석사과정보다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인문·사회 계열이 평균 32.2%로 전체 구성의 1/3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이공계는 62.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예체능계열이 2.3%로 다른 과정보다 훨씬 낮게, 의학계열은 2.9% 다소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 자료 : KEDI(각 연도).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그림 III-13] 박사과정 계열별 유학생 구성 현황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보다 대학원 과정으로 올라갈수록 이공계 및 의학계열에 재학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아 재학유형별로 계열 구성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 유형의 공통점으로 이공계 재학생의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바. 재학중 관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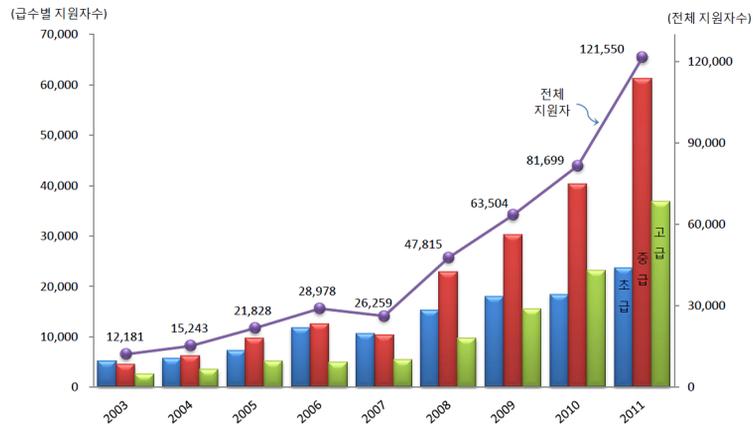
재학중 관련 현황은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 생활을 하면서 거쳐야 할 각종 사항에 대한 현황들을 소개한다. 이중 가장 기본적으로 한국어 시험을 들 수 있다. 한국어 능력은 한국에서의 유학생 생활에 필수적인 사항임과 동시에 외국인유치·관리역량 인증제에서 한국어 자격 능력시험(TOPIK)의 급수를 지표로 활용하면서 대학에서도 유학생 관리에 관심이 높은 사항이 되었다. 현재 한국어 자격 능력시험(TOPIK)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급수는 6단계로 구성되나 크게 초·중·고급 3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2003년 이후 연도별·급수별 지원자수를 살펴보면 다음 <표 III-8>과 같다. 지원자수가 곧 합격자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학생들의 어학 실력의 향상도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TOPIK 지원자수를 추정해봄으로서 학생들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간접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III-8〉 한국어 자격 능력시험(TOPIK) 지원자 수 변화 추이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초급(1-2급)	5,097	5,660	7,095	11,638	10,631	15,222	17,861	18,264	23,588	12,874
중급(3-4급)	4,473	6,139	9,599	12,501	10,275	22,937	30,132	40,332	61,160	35,273
고급(5-6급)	2,611	3,444	5,134	4,839	5,353	9,656	15,511	23,103	36,802	21,449
합계	12,181	15,243	21,828	28,978	26,259	47,815	63,504	81,699	121,550	69,596

◎ 자료 : 국립국제교육원 내부 자료.

전체 지원자수 및 급수별 지원자수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III-14]와 같다. 전체 지원자수의 경우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다소 감소했던 경향이 있으나 2003년 대비 2011년을 비교해보면 약 10배 증가한 규모이다. 같은 기간 초급 지원자수는 연평균 23%씩 증가했으며, 중급은 43.3%, 고급은 35.5%로 중급과정 지원자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의 입학자격으로 중급 이상의 과정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것과 특히, 최근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에서 4급 이상을 지표에 반영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7년 이후 전체 지원자수 증가와 중급 지원자수 증가가 같은 경향을 보이면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07년 이전에는 초급과 중급 간 지원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2008년부터 초급과 중급 지원자수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도 특징적이다.



[그림 III-14] 한국어 능력 자격시험(TOPIK) 지원자 수 변화 추이

재학중 기숙사 지원은 유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중요한 항목이다. 2007년 이후 전체 유학생 대비 기숙사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수용율을 분석해본 결과 2007년 49.7%였던 수용율이 2011년으로 오면서 38.2%까지 감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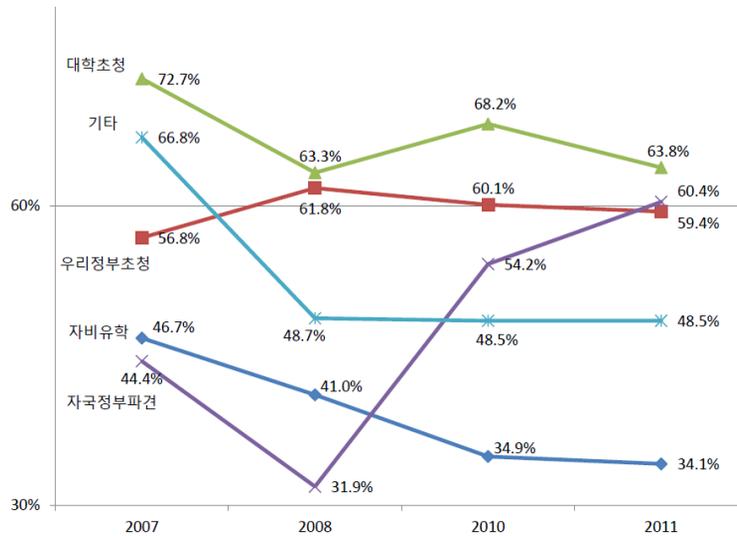
〈표 III-9〉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수용 현황⁸⁾

구분	유학 형태별 유학생 수 (명)						유학 형태별 기숙사 수용 인원수 (명)						수용율 (%)
	자비 유학	우리 정부 초청	대학 초청	자국 정부 파견	기타	계	자비 유학	우리 정부 초청	대학 초청	자국 정부 파견	기타	계	
2007	42,273	581	3,706	511	2,199	49,270	19,757	330	2,695	227	1,470	24,479	49.7
2008	54,934	837	5,010	587	2,584	63,952	22,550	517	3,172	187	1,259	27,685	43.3
2010	71,843	1,942	8,091	493	1,473	83,842	25,051	1,167	5,517	267	714	32,716	39.0
2011	75,325	2,513	8,504	573	2,622	89,537	25,708	1,493	5,428	346	1,271	34,246	38.2

◎ 자료 : KED(각 연도),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당해 연도 기숙사 수용인원 중 자비유학생이 평균 78.5% 비율로 기숙사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다음이 대학 초청 유학생이 13.8%, 정부초청 유학생 2.8%, 자국 정부 파견 0.9% 기타 4.1%로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각 유형의 유학생 수에 비례하므로 자비 유학생이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당해 연도 전체 자비 유학생 중에 기숙사 지원을 받는 자비 유학생의 비율을 따로 분석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 기숙사 지원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유형은 대학 초청 유학생으로 나타났다. 다음 [그림 III-15]를 살펴보면 2007년 전체 대학 초청 유학생 중 기숙사 지원을 받는 대학 초청 학생은 72.7%로 4개 연도 평균 67%로 기숙사 지원을 받고 있는 유학형태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우리정부 초청 유학생으로 전체 우리정부 초청 유학생 중 기숙사 지원을 받는 유학생이 평균 60% 정도 해당되며, 자비 유학생은 약 39%로 타 유형의 유학생보다 가장 지원이 적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8) 2009년은 통계 집계상의 오류로 본 분석에 포함하지 않음.



[그림 III-15]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수용률 변화 추이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역시 기숙사 지원과 함께 유학생생활에 중요한 지원항목에 포함된다. 다음 <표 III-10>은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수혜현황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유학 형태별 유학생 수 대비 장학금 수혜 인원수를 나타내고 있다. 당해 연도 전체 유학생 중 장학금 지원을 받은 인원수로 수혜율을 살펴보면 2007년 53.3%에서 2011년 62.9%로 약 17.9%가 증가하였다. 금액별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체 유학생의 50% 이상이 장학금 지원을 받고 있으며 수혜율도 향상되고 있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유학생에 대한 학비 감면이 내국인 대학생에 대한 부담 전가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차등·일괄 감면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III-10>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수혜 현황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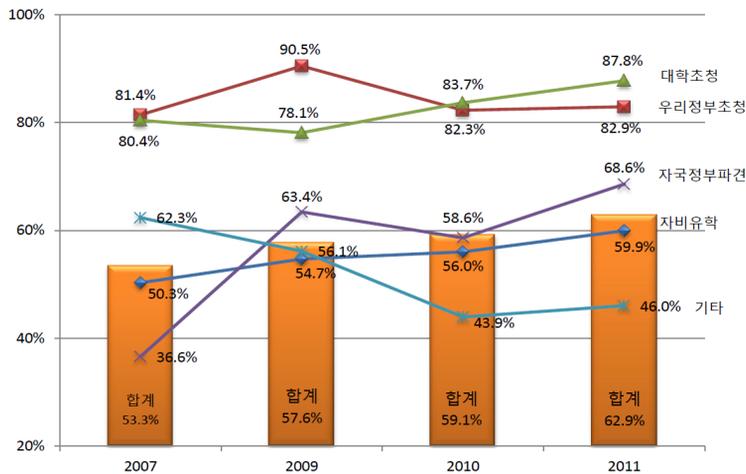
구분	유학 형태별 유학생 수 (명)						유학 형태별 장학금 수혜 인원수 (명)						수혜율 (%)
	자비 유학	우리 정부 초청	대학 초청	자국 정부 파견	기타	합계	자비 유학	우리 정부 초청	대학 초청	자국 정부 파견	기타	계	
2007	42,273	581	3,706	511	2,199	49,270	21,258	473	2,980	187	1,371	26,269	53.3
2009	64,271	1,629	6,634	503	2,813	75,850	35,147	1,474	5,182	319	1,579	43,701	57.6

9) 2008년은 통계 집계상의 오류로 본 분석에 포함하지 않음.

구분	유학 형태별 유학생 수 (명)						유학 형태별 장학금 수혜 인원수 (명)						수혜율 (%)
	자비 유학	우리 정부 초청	대학 초청	자국 정부 파견	기타	합계	자비 유학	우리 정부 초청	대학 초청	자국 정부 파견	기타	계	
2010	71,843	1,942	8,091	493	1,473	83,842	40,235	1,598	6,770	289	647	49,539	59.1
2011	75,325	2,513	8,504	573	2,622	89,537	45,137	2,084	7,464	393	1,207	56,285	62.9

◎ 자료 : KED(각 연도),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그러나 장학금 지원 사항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각 유학 형태별 유학생 총 수 중 장학금 지원을 받는 유학생을 따로 분리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 [그림 III-16]은 전체 수혜율의 증가와 함께 각 유형별 수혜율 변화 동향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 유형중 우리 정부 초청 유학생은 4개년도 평균 84.3%가 장학금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최고 90.5%까지 지원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2009년도에 한국에 들어온 정부초청유학생 10명중 9명은 장학금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학초청 유학생 역시 평균 82.5% 비율로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2010년부터 정부 초청 유학생의 지원율을 넘어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다. 자국정부 파견 유학생에 대한 지원은 초반에는 원활하지 않았으나 2009년 이후부터 크게 증가하여 2011년에는 68.6%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자비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도 꾸준히 증가하여 평균 55.2%의 자비유학 학생들도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되었다.



[그림 III-16] 유학 형태별 장학금 지원 현황 비교

이상에서 얼마나 많은 유학생들이 장학금 지원을 받는지 알아보았는데 이와 함께 실제 지원되는 장학금의 금액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 <표 III-11>과 같다. 최근 3년간 지원된 총 금액을 살펴보면 2009년 대비 2011년에는 62.4% 증가하여 약 1,830억원의 장학금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1인당 지원 금액으로 살펴보면 2011년 기준 유학생 1인당 약 326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원받는다고 할 수 있다.

<표 III-11> 유학 형태별 장학금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분	자비 유학	우리정부초청	대학초청	자국정부파견	기타	합계	
총 금액	2009	69,478,578	13,349,248	22,800,999	1,457,701	5,982,439	113,068,965
	2010	93,947,980	17,220,129	30,079,377	1,538,250	1,886,185	144,671,921
	2011	114,846,734	24,011,660	37,862,475	2,949,316	3,999,015	183,669,200
1인당 평균 금액	2009	1,977	9,056	4,400	4,570	3,789	2,587
	2010	2,335	10,776	4,443	5,323	2,915	2,920
	2011	2,544	11,522	5,073	7,505	3,313	3,263

◎ 자료 : KEDI(각 연도),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3년간 평균금액을 살펴보면 우리정부 초청 유학생이 1인당 평균 약 1,000만 원 정도로 가장 높은 지원을 받는 형태에 해당하며, 그 다음으로 자국 정부 파견유학생이 약 57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대학초청 유학생으로 약 460만원, 가장 낮은 수준은 자비 유학생으로 약 230만 원 정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졸업 관련 현황

유학생의 중도탈락률은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이수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다음 <표 III-12>는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탈락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중도탈락률 조사 대상은 대학의 학부과정에 재적하는 외국인 유학생이고 그 외에는 어학연수생과 기타연수생이 포함된다. 2009년에는 55,383명중 2,877명이 중도 탈락하여 탈락률이 5.2%에 이르나, 2010년에는 4.6%로 11.5% 포인트 감소하였다. 과정별로 살펴보면 탈락률이 가장 높은 과정은 어학연수로 2009년에는 6.0%에서 2010년 5.6%로 낮아지긴 했으나 학부 유학이나 기타유학생보다 탈락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III-12〉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 현황¹⁰⁾

구분	외국인 재적생 (명)				중도탈락 유학생 (명)				중도탈락률 (%)			
	소계	외국인 학생	어학 연수생	기타 연수생	소계	외국인 학생	어학 연수생	기타 연수생	소계	외국인 학생	어학 연수생	기타 연수생
2009	55,383	31,436	18,863	5,084	2,877	1,735	1,127	15	5.2	5.5	6.0	0.3
2010	62,503	39,647	16,165	6,691	2,850	1,934	905	11	4.6	4.9	5.6	0.2

◎ 자료 :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

대학의 설립 유형별로 살펴보면 2009년엔 국공립이 5.0%로 사립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으나 2010년에는 사립이 4.5%, 국·공립이 4.6%로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2009년 대비 2010년의 중도탈락률의 감소율을 보면 국·공립은 8.0%, 사립은 13.4% 포인트로 유학생 질 관리를 위한 사립의 노력도 찾아볼 수 있었다.

〈표 III-13〉 대학의 설립 유형별 유학생 중도탈락률 현황¹¹⁾

연도	국·공립				사립				기타			
	소계	외국인 학생	어학 연수생	기타 연수생	소계	외국인 학생	어학 연수생	기타 연수생	소계	외국인 학생	어학 연수생	기타 연수생
2009	5.0	4.2	7.7	0.4	5.2	5.8	5.7	0.3	1.6	2.3	N/A	0.0
2010	4.6	4.2	7.4	0.5	4.5	5.0	5.2	0.1	4.4	4.4	N/A	0.0

◎ 자료 :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

대학이 소재한 지역을 권역별로 분류하여 탈락률을 살펴보면 다음 〈표 III-14〉와 같다. 2009년에는 수도권이 4.0%로 가장 낮았으나 2010년에는 전라권이 3.7%, 제주가 3.5%로 탈락률이 훨씬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권역이 모두 2009년에 비해 탈락률이 감소하였으나 오히려 수도권은 4.0%에서 4.5%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의 이러한 변화는 특히 대학의 학부과정에 재학하는 유학생의 중도탈락률 증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2009년 4.6%에서 2010년 5.4%로 17.4% 증가한 영향으로 나타났다.

10) 본 분석에 포함된 기관은 일반대, 교육대, 산업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및 각종학교(한국예종, 전통문화대학교, 한민학교) 등으로 전문대학과 대학원은 제외되었으며, 대학알리미 2010년과 2011년에 공시된 자료임.

11) 본 분석에 포함된 기관은 일반대, 교육대, 산업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및 각종학교(한국예종, 전통문화대학교, 한민학교) 등으로 전문대학과 대학원은 제외되었으며, 대학알리미 2010년과 2011년에 공시된 자료임.

〈표 III-14〉 권역별 유학생 증도탈락률 현황

구분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경상권 (부산,대구,울산, 경북,경남)	충청권 (충북,충남,대전)	전라권 (전북,전남,광주)	강원권	제주권
2009	4.0	6.1	5.5	5.7	4.9	5.1
2010	4.5	5.0	5.1	3.7	4.0	3.5

◎ 자료 :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

졸업 현황은 유학생의 성공적인 수학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가 될 것이다. 2006년 이후 유학생의 졸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III-15〉와 같다. 2011년 고등교육기관¹²⁾ 전체 졸업생 559,000명 중 2.3%에 해당하는 12,793명이 외국인 유학생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기관의 졸업자 취업현황 조사에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시키기 시작한 2006년도에 비해 2011년은 전체 졸업자 중 유학생 졸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면에서 475% 증가했을 뿐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생 수에서는 485% 증가했다. 이는 2006년 32,557명 대비 2011년 89,537명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전체 규모가 175% 증가한 것에 비교하면 유학생들의 한국에서의 얻는 수학의 성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표 III-15〉 외국인 유학생 졸업 현황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졸업생(명)	561,203	560,632	558,964	547,416	539,996	559,000
졸업생 중 외국인 유학생(명)	2,186	3,601	4,719	7,580	9,860	12,793
비율(%)	0.4	0.6	0.8	1.4	1.8	2.3

◎ 자료 : KEDI(각 연도). 취업통계연보.

졸업 후 진로는 졸업률과 함께 고등교육의 성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항목이다. 유학생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조사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학 현장에서 유학생에 대한 사후관리의 어려움과 통계 집계상의 한계 등으로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점들이 있어 왔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2011년 자료에 한해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 〈표 III-16〉은 일반대학원, 전문 및 특수대학원 졸업생을 제외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중 유학생들의 진로를 조사한 결과이다.

12) 전문대,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 및 일반대학원까지 포함. 사내대학, 원격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대학원 대학은 포함되지 않음.(한국농수산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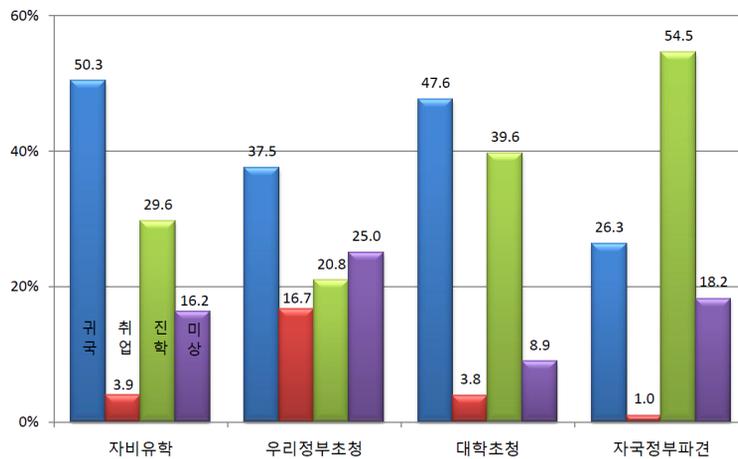
전체 졸업생 중 49.8%인 4,402명이 본국으로 귀국했으며, 그 다음으로 30.1%인 2,661명이 국내 진학으로 나타났다. 국내 취업은 3.9%로 매우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16〉 유학 형태별 유학생의 졸업 후 진로

구분	자비유학생	우리정부초청	대학초청	자국정부파견	기타	계
본국귀국	4,166	9	161	26	40	4,402
국내취업	320	4	13	1	3	341
국내진학	2,451	5	134	54	17	2,661
미상	1,343	6	30	18	39	1,436
계	8,280	24	338	99	99	8,840

◎ 자료 : KEDI(2011).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유학 형태별로 진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III-17]과 같다. 자비유학의 경우 귀국이 50.3%로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진학이 29.6%, 국내 취업 3.9%로 나타난다. 우리정부 초청 유학생은 국내 취업 비율이 16.7%로 다른 유학형태보다 취업률이 가장 높은 점이 특징적이다. 대학 초청 유학은 본국귀국이 47.6%, 국내진학이 39.6%로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국정부 파견은 국내 진학이 54.5%로 타 유형의 유학생보다 진학률이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그림 III-17] 유학 형태별 유학생 진로 현황 비교

유학생의 사후관리 및 진로에 대한 전망은 고등교육의 국제화에 있어 그 중요도가 점점 강조되고 있으며, 한국 고등교육의 영향력과 성과를 대변하는 결과로 국제 교육시장에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다. 특히 전략적인 유학생 유치와 국제 인재의 활용을 위해 향후 체계화된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적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2. 정부 정책 추진 현황

가. 현 정부의 주요 정책

현 정부가 시작된 2008년 이후부터는 고등교육 국제화에 관해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 처리요령'을 제정 시행하여 유학생에 관한 업무처리를 표준화하고 안정적으로 유학생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는 법령이 아닌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리지침에 해당하여 법적 실효성은 없지만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특정 집단에 대한 별도의 법적 보호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유학생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지침에는 유학생의 재정적 요건, 학습에 관한 기본 자격, 취업에 관한 규정 등 지원 보다는 최소한의 제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2008년에 발표된 'Study Korea Project' 발전방안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목표의 조기달성으로 '12년까지 중·장기 목표를 재설정하고 'Study Korea Project'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강구하였다. 2008년 개선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유학생에 대한 졸업 후 지원에 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점이다. 졸업 후 진로에 관한 방안은 유학생을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대안임과 동시에 외국인 유학생을 유인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치국가의 다변화 및 유학생 선발 절차 강화 등은 그동안 양적인 확대에 주력한 방안과 달리 질 관리 차원의 접근을 한 점에서 차이를 찾아볼 수 있으며, 생활지원에 문화생활 적응 지원 의료혜택 강화 등도 유학생의 한국 정착을 보다 안정적 포괄적으로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다.

2009년도에 추진된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대학 제재방안은 그동안 유학생의 양적인 확대를 통해 국제화를 달성하고자 했던 대학의 관행을 바로잡고자한 정책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대학의 구조 조정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었으며, 부실대학으로 선정될 경우 사증(VISA) 발급 제한

및 재정지원 배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수반하였다.

한편,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대학 제재방안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 지원 관리 개선 방안이 같은 해에 발표되었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의 질 관리에 좀 더 초점을 두는 정책으로 유학생 선발의 체계화 및 외국인 유학생 지원 전담 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또한 주기적인 유학생 실태조사 및 조사결과 공시를 통해 간접적 질 관리를 유도했으며 외국인 유학생 정책 전문기관 육성을 제안하여 유학생 정책의 전문화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2010년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발표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질 제고는 유학생에 대한 질 관리와 함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유치 선발단계에서 수학 및 정주여건 등 각종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무엇보다 졸업 후 귀국 단계에서 대학-기업 연계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개발로 유학생들의 취업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는 현 정부의 고등교육 국제화 관련 정책 중 가장 특징적인 정책에 속한다. 이는 대학평가인증제와 같이 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에 관한 기본적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증하여 유학생 관리의 질 제고는 물론 부실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재정수단으로 유치하는 관행을 단절하고자 한 정책으로, 2009년에 추진했던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대학 제재방안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강력한 조치라 볼 수 있다. 2011년 첫 인증 실시 후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2012년에는 2단계 평가를 3단계 평가로 절차를 더욱 체계화했으며, 평가결과를 유학생에 대한 재정지원 및 비자 발급 제한과 연계하여 인증결과 활용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현 정부는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고등교육 국제화 및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들은 기존의 정책보다 질적인 측면을 더욱 강조한 점과 졸업 후 지원까지 유학생 지원의 범주에 포함한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인증 방식을 통해 대학의 국제화 역량에 대한 질 관리를 제도화·정착화 했다는 점에서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정책 추진 성과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유학생 정책 관련 목표를 설정할 때 보다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III-17>과 같다.

〈표 III-17〉 현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방안

주요 정책	목적	주요내용				
		유치	학습관리	생활지원	행·재정 시스템	출업 후 지원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 처리요령' 제정·시행 (2008. 7)	• 유학생 등의 선발절차와 학업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 대학의 업무처리를 표준화하고, 안정적인 국내 유학을 지원	• 유학생 재정능력 입증기준 다양화 - 종전 지침 미화 \$10,000 이상 → 연간 평균 소요경비 이상 - 어학연수생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 76조 별표 5)에 따라 미화 \$3,000 이상	• 한국어 교육 강화 - 유학생의 경우 일정 기준 이상(TOPIK 3급 이상 등)의 한국어 능력 수준자 선발 권장 - 한국어 강사는 한국어 교원 유자 격자 채용 권장 (국어기본법령:한국어교원 자격부여 (1~3급))	• 외국인 유학생 취업활동 지원 - 재학생 시간제 취업 알선 및 졸업 후 취업 지원 - 체류외국인관리지침 (법무부)·유학(D-2), 연수(D-4) 자격 소지자의 시간제 취업 및 체류자격 변경 허가 범위 규정	• 입학하기까지 서식 표준화 - '유학생정보시스템' 구축·운영(입학허가서 온라인 제출) - 어학연수생도 적용	• 12년 미만 학제 이수자 국내대학 입학 허용 • 외국인 유학생 아간대학원 입학 허용
	'Study Korea Project' 발전방안 (2008. 7)	• 외국인 유학생 유치 목표 조기달성으로 '12년까지 중·장기 목표 재설정' • 'Study Korea Project' 시행 과정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토대로 미흡사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강구	• '12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10만명 유치 목표 •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 정부초청장학생 '12년까지 3천명 수준으로 확대 - 외국정부 파견 국비유학생 유치 노력 강화	• 유학생 관리와 재정 지원사업 연계 확대 - 대학재정지원사업 등 대학 평가시 '외국인 유학생 관리 현황' 평가지표 반영(유학중단자 및 학업이탈자 현황 등)	• 기숙사 수용율 제고 - 주요 거점 지역별 공동 기숙사 건립 유도 • 문화·생활 적응 지원 - 취사 가능 기숙사 시설 제공, 정기적인 상담, 멘토 지원 등 - 입국전 한국어, 한국 문화 등 이해 강화	• '유학생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유학생 정보 기록을 표준화하여 관계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시스템(시범운영: '08.3~6, 적용: '08.7)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관리 on-line화

주요 정책	목적	주요내용					기타
		유치	학습관리	생활지원	행·재정 시스템	졸업 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유학생 유치 국가 다변화 - 유럽 등 선진국 정부장학생 초청 확대 - 외국정부와의 교육교류약정 체결 등을 통해 유학생 교류기반 구축 - 외국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자율화 등 국내·외 대학 학간 학생 교류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 외국인 유학생 선발 절차 강화 - 유치 대학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심사 강화 (외국인 유학생 및 아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 요령' 개정·시행 (08.7) • 한국 유학 홍보 다양화 - 한국 문화, 관광, 취업 등과 연계 한국 유학 홍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전용강좌 및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지원 규모 확대 - '08년 이후 매년 20억원 (20교 이상) 규모 지원 - 정부 지원으로 개발된 교재 등 공동 활용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혜택 강화: 지역 의료보험 등 1인 1보험 가입을 대학이 주도적으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재정 시스템 - 교육과학기술부 - 법무부·대학 연계 • 외국인 유학생 DB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을 위한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범위 확대 - 체류자격 변경 허용대상을 전문학사까지 단계적 확대 -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구직활동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한도를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 외국인 유학생 귀국 후 추수지도 강화 - '국외인력지원 DB 구축' 사업과 연계 하여 귀국 후 관리 강화(전문학술지 및 소식이 등 발송, 동문회 등 현지 네트워크 구축·지원 등) 	

주요내용							
주요 정책	목적	유치	학습관리	생활지원	행·제정 시스템	졸업 후 지원	기타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대학 제재방안 (2009.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실대학 구분(학생 관리, 학사관리) 별 실효적인 제재 추진 단기적 제재와 중장기적 제도개선 병행 추진 공급적으로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 조정 유도 	<p>(부실대학 제재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1) 사증(VISA) 발급 제한 -대상 : 학생관리 부실 대학 12개교 중 유학생 모집 최근 2년간 이탈률이 50% 이상인 대학 9개교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에 의함) 2) 시정명령 등 행정 제재 -대상 : 학사관리 부실대학 17개교 (고등교육법 제 60조에 따라 시정·병정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학생 모집금지 및 대학별 행정제치에 반영) 2단계 제정 지원 배제 : 교과부의 각종 대학재정지원 및 학생지원 사업선정시 원칙적으로 배제 	<p><유학생 선발 체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유학생 선발·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내용: 유학생의 최소 수확요건과 대학의 이행사항 명시 -방법: 가이드라인 마련·권고 후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및 공시를 통해 자율적 이행 유도 	<p><유학생 수학 편의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 전담지원체계 구축 -기능: 유치·선발·입출국 담당, 학사·생활·에로상담 -구상: 전담인력은 유학생 50~200명인 대학, 전담조직(4명 이상)은 유학생 200명 이상인 대학에 설치·운영 	<p><유학생 정책 기반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기적 유학생 지원·관리실태 조사·분석 및 공시 ·한국 유학생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추진 -유학생: 입학지원, 입학허가, VISA신청·발급, 대학입학 및 수학, 출국 전 과정 온라인 서비스 제공 		
외국인 유학생 지원 관리 개선방안 (2009.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우수학생 유치 및 국내 대학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질적 관리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적 외국인 유학생 유치체계 강화 - 계의 한국교육원·한국문화원을 통한 on/off-line 한국 유학생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아학연수기관 지원·관리 검토 -대학(원) 입학 예비학생 중 한국어능력 제고가 필요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진, 학기중 아학과정 운영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유학생 콜센터 설치 ·외국인 유학생 정주 여건 및 취업환경 개선 -대학 공동기숙사 건립, 임대주택 공급 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기관(대학 등): 유학생 편입학·출국 등 변경사항을 실시간 정보 공유하여 효율적 학생관리체계 구축 ·외국인 유학생 정책전문기관 육성 		

주요내용							
주요 정책	목적	유치	학습관리	생활지원	행·재정 시스템	졸업 후 지원	기타
		- GKS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유학생 유치다변화	• TOPIK 활동도 제고 - 시험횟수 확대, 체점기간 단축 등	- 유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추진, 우수 외국인 석·박사 활용	- 기능: 국제인력교류 분야 정책개발, 현안 업무지원 - 방법: 국립국제교육원, 정부출연(연), 대학 등 관련 기관 중 1~2개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유학·연수 수치 개선 등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과 교육경쟁력 강화	<유치·선발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특성화 전략을 통한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유치지역 다변화 아시아: 간단회 개최, 미답사례 발굴 등을 통해 친한 정서를 제고 	<대학수학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 입학기준 상향조정 한국어교육, 외국어전용강좌 확대를 통한 수학·영어 개선 TOPIK 활동도 제고 시험횟수 확대, 체점기간 단축 등 	<국내 정주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대학의 유학생 기숙사 보급 유도 및 지자체·대학 공동기숙사 건립 지원 유학생 관리 우수대학에 대하여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어학연수증 대입허가를 받은 경우 공백기간 동안 체류 허용 	<지원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내 전담직원·전담 조직 설치, 주기적 실태조사 및 재정지원사업 연계 	<졸업·귀국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기업 연계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전년대 유학생: 기업수요에 따른 직업교육을 통해 현지기업 또는 국내기업 해외지사에 취업 지원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 방안 중, 추진과제 1.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및 질 제고 (2010. 8)	•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유학·연수 수치 개선 등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과 교육경쟁력 강화	- 중등·이포프리카, 중남미 등: 다아안 국제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GKS 지원을 개도국으로 확대하고, 모집 경로도 재외공관에서 국내대학까지 확대 	• 어학연수생 보편화를 유학생 수준으로 감면, 건강보험 미가입 유학생의 보험료 소급납부부부 한시적 면제를 증장기적으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학생 상담센터 확대 	• 어학연수생 보편화를 유학생 수준으로 감면, 건강보험 미가입 유학생의 보험료 소급납부부부 한시적 면제를 증장기적으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학생 상담센터 확대 	• 한국 유학생통합시스템(가칭) 구축 - 입학부터 출국까지 유학 전 과정 온라인 one-stop 서비스 - 법무부, 각 대학, 교과부 시스템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국제교육원의 기능 확대, 정부출연 	- 일반 유학생: 유학생-기업 간 구인·구직 정보 제공 기회 확대를 통한 유학생-기업 Match-Making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국 후 지속적 사후관리 강화 각 대학 유학생 	<추진과제> I. 국내유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질 제고 우수 외국학교 유치 II. 해외 진출

주요 정책	목적	주요내용					
		유치	학습관리	생활지원	행·재정 시스템	졸업 후 지원	기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2011.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생 유치·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제시하여 국내대학 유학생 관리의 질 제고 • 일부 부실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재정수단으로 인정하는 행태 단절 •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발판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격한 입학전형으로 질 관리 유도(유학생 가이드라인 개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정량지표에 따른 서면평가 - 2단계: 정성지표에 따른 현장평가 ※ 2012년부터 3단계 평가로 전환 (1단계: 정량지표에 따른 서면평가로 상위 70% 이상의 대학 선정 / 2단계: 절대지표평가로 인증대학 및 비자제한대학 후보군 선정 / 3단계: 2단계까지 통과한 대학의 자체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현장평가 실시, 인증 및 하위대학 선정) • 인증제 결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범사례(인증): 인센티브 강화(e.g. 정부조정 외국인 장학생 사업 등 유학생 대상 재정지원사업 우선 지원, 해외 대학 유학·박람회 개최 지원 등) - 하위 15% 부실대학: 법무부와 합동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컨설팅 및 시정명령 조치. 이 중 하위 5%는 비자발급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B를 활용한 한국 소식지발송, 현지 동문회 결성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국내대학 해외진출 지원 4. e-learning의 세계화

나. 예산 지원 현황

정부의 국제화 및 유학생 정책에 관한 관심과 추진 실적은 예산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표 III-18>은 고등교육 부문 예산 중 국제화 및 유학생 관련 사업에 관한 예산이다.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 사업은 2010년에 신규 사업으로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 학교 운영실태 조사·분석 및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를 위해 5억원 가량 지원되었으며, 2012년 다른 국제화 관련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됨에 따라 1억 6천 만 원으로 감소하였다. 2011년 글로벌 센터 건립지원, 한국 유학종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새로 시작되었다. 이중 유학종합 시스템은 외국인 유학생 입학 관리, 정주여건, 초기적응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으로 한국 유학의 이미지 제고 및 중도탈락 방지를 위해 추진되었다. 2012년에는 한국 유학 홍보, 인증제 실시, 교원양성기관 글로벌화 및 국제협력 선도 대학 육성·지원 사업들이 새로 추가됨에 따라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다.

<표 III-18> 최근 3년간 고등교육 부문 국제화 관련 예산 현황

		2010	2011	2012
고등교육부문 전체 (A)		5,054,795,000,000	5,131,700,000,000	5,013,100,000,000
국제화 관련	고등교육의 국제화지원(신규)	500,000,000	500,000,000	160,000,000
	글로벌교류센터건립지원	-	2,500,000,000	-
	한국 유학종합시스템 구축	-	1,600,000,000	150,000,000
	해외 한국 유학 홍보	-	(500백만원) 이관	420,000,000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지원	-	-	100,000,000
	교원양성기관 글로벌화 지원	-	-	200,000,000
	국제협력선도 대학 육성·지원	-	-	888,000,000
	계 (B)	500,000,000	4,600,000,000	1,918,000,000
(B)/(A)×100		0.01	0.09	0.04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각 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개요.

그러나 고등교육 부문 전체 예산에서 이들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에 0.01%에서 2011년 0.09%로 증가했으나, 2012년에는 0.04%로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고등교육 부문에서 국제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리 크지 못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유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종합시스템 지원은 2012년 1억 원이 감소되었고, 유학생 지원 및 관리의 질적 수준 제고와 관련 있는 인증

제 예산은 1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이 두 항목은 향후 증액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제화 및 유학생 정책에 관한 예산으로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국립국제교육원 지원 항목을 살펴볼 수 있다. 현재는 국립국제교육원이 유학생 지원 전담기구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중 국제교육 교류·협력 활성화는 교육교류 및 인재순환을 통해 국제사회 기여도를 제고하고, 국가 간 상호이해 증진 및 한국에 우호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원되는 항목으로 Global Korea Scholarship 및 세계 학생 교육 교류 지원을 위한 예산이다.

〈표 III-19〉 최근 3년간 평생·직업교육 부문 국제화 관련 예산 현황

		2010	2011	2012
평생·직업교육 부문 전체 (A)		537,787,000,000	649,012,000,000	594,900,000,000
국립 국제 교육원 지원	국립국제교육원 인건비 기본경비	7,483,000,000	6,812,000,000	6,400,000,000
	국제교육 교류·협력 활성화	51,948,000,000	47,190,000,000	54,700,000,000
	국립국제교육원 연수 및 교육과정 운영	5,414,000,000	6,314,000,000	8,300,000,000
	재외동포 한민족 정체성 확립	555,000,000	2,317,000,000	2,400,000,000
	한국어 능력 시험 개선 사업	-	-	400,000,000
계 (B)		65,400,000,000	62,633,000,000	72,200,000,000
(B)/(A)×100		12.2	9.7	12.1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각 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개요.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 국립국제교육원 지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12.2%에서 2011년 9.7%로 다소 감소하였다가 2012년 다시 12.1%로 증가하였다. 2012년 국제교육 교류·협력 예산이 증가한 점과 한국어 능력 시험 개선 사업이 새로 추가되었다는 점 등이 특징적이다.

3. 대학의 관리 및 지원 현황

대학차원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2011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모범사례 대학과 외국인 유학생 관리 대학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학생 지원 및 관리와 관련해 대학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명확히 분석고자 모집 및 선발부터 학생지

원에 이르는 4개 영역별로 두 유형의 대학군으로 묶어 살펴보았다. A유형은 인증제 평가결과 모범 사례 대학으로 2011년도 기준 유학생 유치 상위 10개 대학 중 7개 대학이 포함되며, B 유형은 이와 대조되는 사례로 실태조사 결과 정부로부터 비자발급 제한, 시정명령 또는 컨설팅 등의 조치를 받은 12개 대학이다. 이들 대학의 유학생에 관한 통계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III-20〉 주요 대학의 유학생 구성 비율 현황

(단위 : 명/%)

대학	재적 학생수(A)	재적 유학생수(B)	유학생 구성 비율				유학생비율 (B)/(A)*100	
			어학연수	학부	대학원	기타연수		
A 유형	A	44,025	4,049	28.8	50.2	17.0	4.1	9.2
	B	51,584	3,997	50.8	19.1	18.3	11.8	7.7
	C	24,913	3,284	59.3	6.0	7.8	26.9	13.2
	D	34,256	2,490	23.0	30.8	35.8	10.4	7.3
	E	50,864	2,433	31.3	19.4	29.8	19.5	4.8
	F	45,504	2,225	21.0	54.7	19.6	4.7	4.9
	G	15,953	1,018	56.1	12.2	18.3	13.5	6.4
B 유형	가	23,264	1,482	551	445	458	28	6.4
	나	19,323	911	113	671	76	51	4.7
	다	38,754	584	155	220	136	73	1.5
	라	11,698	515	61	402	37	15	4.4
	마	26,118	478	39	370	52	17	1.8
	바	11,810	373	95	150	128	-	3.2
	사	13,304	271	162	86	8	15	2.0
	아	10,245	178	19	144	9	6	1.7
	자	7,462	144	9	135	-	-	1.9
	차	8,518	71	19	43	2	7	0.8
	카	1,804	29	-	29	-	-	1.6
	타	7,973	26	-	26	-	-	0.3

© 자료 : KEDI(2011).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본 연구에 제시된 유학생 지원의 현황이 절대적인 모범사례라 할 수는 없지만 유학생 지원에 여러 항목 중 비교적 우수한 사례들은 타 대학이 벤치마킹하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주요 대학의 현황은 통계데이터 분석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질적인 부분으로 살펴봄으로서 대학 단위에서 이루어져야할 정책과 전략 및 보완사항을 도출하는데 시사를 얻고자 한다.

가. 모집 및 선발

모집 및 선발은 유학생이 들어오는 첫 관문에서의 질 관리 현황을 의미한다.모집방법, 어학능력 검증, 선발, 유학생의 구성 및 TOPIK 급수 소지율 등의 항목별로 A유형과 B유형 대학을 비교하면 다음 <표 III-21>과 같다.

<표 III-21> A-B 유형 대학 간 모집 및 선발 현황 비교

	A유형	B유형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안내 등을 통해 유학생 직접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한 유학생모집 기 국내체류 중인 어학연수생을 대상으로 모집 교류대학을 통해 유학생 모집 어학연수생 유치 시 국내 어학원 활용
어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학 후 한국어 능력에 따른 수강 학점 제한 및 한국어학당 수강 의무화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식적 한국어 능력 검증 한국어 및 수학능력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유치하여 학사관리에 어려움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학능력보다는 수학능력에 따라 학생 선발 (중도탈락률을 현저히 낮춤) 특별사유 인정되는 경우 화상이나 전화면접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학자격 심사 시 수학능력 심사 부재, 면접 중심 현지 면접을 하지만 수학능력에 대한 심사를 별도로 하지 않음 유학생 현지 모집 시 현지 업체의 도움을 받으나, 심사 및 관리가 엄격하지 못함 입학심사 절차 미흡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 및 모집 기준이 엄격하여 유학생 규모는 작되, 출신국가는 50개국 이상으로 다양함 저개발 국가 우수 여학생에게 한국 유학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학생 다양성 정도 낮음(출신 국가 편중 현상 심화) 대규모 중국인 유학생 유치했으나 상당수 학생이 수준 미달
TOPIK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학 후 1년 내 TOPIK 4급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휴학 후 자격을 갖추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TOPIK 3급 이상자 또는 4급 비율이 매우 낮음 특정 해의 경우 국제처에서 대거 학생을 입학시키면서 기준 완화 입학자격에 TOPIK 3급 이상을 적용하나, 예·체능, 국제학부, 자매결연 대학, 정부지원장학생은 적용 안함

	A유형	B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PIK 3급 보유자 비율이 낮고 한국어 전혀 못하는 유학생도 있음 ◦ TOPIK 점수 취득 등에 대한 사항 홍보 미흡 ◦ TOPIK 3급 미만 유학생선발

모집에서 두 유형의 대학 간 차이점은 공식적 네트워크를 이용하는지 여부이며, 어학능력에 있어서는 검증 절차와 그 과정의 엄격성에 있다. 선발의 경우 심사 절차 유무 및 엄격성이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발한 유학생이 출신국을 기준으로 얼마나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역시 선발의 절차를 가늠하게 해주는 지표가 된다. TOPIK은 어학역량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항목으로 고급 자격 소지 유학생의 비율과 TOPIK의 중요성 강조 및 홍보 등에서 두 유형의 대학 간 차이가 나타난다.

나. 생활 관리

생활 관리는 학업, 주거, 의료, 취업 및 기타 지원 등을 통해 A유형 대학과 B유형 대학 사례의 차이를 나타낸다. 학업은 유학생의 중도탈락을 최소화 하기 위한 학업지원 제도 운영 여부 및 방법으로 B유형 대학은 이미 중도탈락률이 높아 향후 개선책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이다. 기숙사 지원은 유학생들의 주거문제 해결에 가장 핵심적으로 기숙사 지원여부, 수용 규모 등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기숙사 내에 외국인들을 위한 특별 시설 구비 여부도 해당 대학의 지원 의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것이다. 의료 지원은 건강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으로 기본적인 비교를 할 수 있으며, A유형 대학의 경우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의료·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취업은 유학생의 법적인 신분과 관련이 높은 지원 항목으로서 A유형 대학의 경우 유학생들이 본국에서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B유형 대학에서는 이미 불법 체류율이 높은 수준에 유학생의 등록 신고 미흡과 취업활동에 대한 정확한 숙지 부재로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 외에 기타 지원에서 유학생 안전 지원, 동문회 및 각종 문화행사 및 오리엔테이션 등이 있으나 B유형 대학에서는 기본적인 지원 및 관리가 부실한 탓에 유학생들의 낮은 만족도 및 높은 불만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다음 <표 III-22>와 같다.

〈표 III-22〉 A-B 유형 대학 간 생활 관리 현황 비교

	A유형	B유형
학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 멘토제도 운영 (글로벌 튜터링, 언어교환 실시) ◦ 학업 우수 외국인 학생 언어, 문화 연수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생 3년간 중도탈락율 높음(최고 52.5 또는 30% 이상) ◦ 유학생선발·관리부분 보완을 통한 중도탈락률 연차적 하향 계획 ◦ 향후 유학생담당 멘토지정제도 시행, 한국어 지원 센터 및 유학생 상담센터 운영 예정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생이 기숙사 신청할 경우, 우선 배정 지원 ◦ 기숙사 내에 유학생 대상 조리실, 특별실 제공 ◦ 기숙사 내에 영어 가능 조교 상시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숙사 수용 인원 0명 ◦ 유학생 기숙사 없음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원 보험 필수 가입 ◦ 의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의무가입 공청회 실시 ◦ 교내 건강센터 무료 진료 확대, 필수 건강진단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의료보험 가입 학생 없음 ◦ 건강진단 미시행 ◦ 의료보험 가입율 및 건강진단율 낮음 ◦ 등록금 납부시 보험금 수납하여 보험가입 의무화 예정
취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학생 취업지원 프로그램 1차 전문가초청 특강 실시 ◦ 외국인학생 대상 취업 영어 및 한국어 경진대회 실시 ◦ 전문가초청 특강 및 이력서 클리닉 실시 ◦ 유학생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바이트 하는 유학생 대부분이 법무부 등록 여부에 대해 숙지하지 못함 ◦ 법무부 불법 체류율 높음 (18%이상) ◦ 법무부 유학생 등록, 신고 등이 미흡 ◦ 유학생들에게 법무부 소관의 체류자격의 취업 활동 등 행정조치를 숙지하도록 지원 필요
기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생 안전사고 대책 수립 및 운영 (외국인 유학생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 정기 소방훈련 실시 (학생생활관) ◦ 유학생의 경우 가사 사정을 고려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외국인 학생 지원 위해 노력 ◦ 유학생 동문회 운영 및 예산 지원 ◦ 각종 문화행사 참여 장려, 지원 ◦ 한국문화 조기적응 및 생활 적응 위한 프로그램 실시 ◦ 유학생 OT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생들 학교생활 만족도 매우 낮은 편 ◦ 학교측이 유학생 방치한다는 인식 등 불만 ◦ 국내 학생과의 차별적 대우 및 소통 부재 등으로 유학생 불만 높음

다. 학사 관리

학사관리는 교육과정 운영, 출결 및 성적 관리를 통해 대학의 상황을 나타낸다. 교육과정의 경우 A유형 대학에서는 한국어 학습지원 및 강의수준 세분화를 통해 유학생들의 학업에 어려움이 최소화 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학위과정 교과목 운영에 있어서도 내·외국인 구분을 두지 않고 있다. 반면 B유형 대학에서는 한국어 과목을 학부과정 교과목으로 개설하여 교육과정을 왜곡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이 없는 사례도 있다.

출결은 성과와 직결되는 학사관리 사항이다. 다음 <표 III-23>을 살펴보면 B유형 대학의 경우 출결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출석 미달자에게도 학점을 부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표 III-23> A-B 유형 대학 간 학사 관리 현황 비교

	A유형	B유형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어학교육기관을 통해 한국어 학습 지원 ◦ 강의수준을 세분화(6등급, 논문심사과정)하여 추진 중임 ◦ 학위과정 교과목 출결관리 내, 외국인 동일 원칙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과목 학부과정 개설 교육과정 왜곡 ◦ 한국어 교육과정 없으며,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한국어교육과정 졸업학점 인정 여부에 대한 개선 노력 필요
출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 학기말 출석부 수거 통한 직접 집계 ◦ 외국인 유학생 2주 이상 결석 시 교·강사가 행정실 통보 ◦ 행정실 연락 후, 연락불가 시 외국인지원센터에서 학생 학부모와 통화하여 거취 파악 ◦ 교과목 담당교수별 수업 시 출석 확인 ◦ 학기말 성적 제출 시 학생별 결석 시수를 함께 보고함 ◦ F/A제도 (6시간 이상 결석시 과목 낙제), 출결 조교제, 지정좌석제 실시 ◦ 학사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토대로 각 학생들에게 각 과목별 출결상황(FA 1,2차 경고, FA 확정)에 관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지하고, 각 개인별 포털사이트에 게시(과목별 결석/지각일자, 결석/지각일수, FA현황)하여 결석 허용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통지 ◦ 학사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토대로 담당교수가 과목별 출결상황을 포털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음 	-

	A유형	B유형
성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석부 및 성적평가 화면에 외국 국적자는 외국인으로 표시해 담당교수가 확인토록 함 구분 없이 상대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F학점 해당학생수가 많으나, 현재까지 학사 경고로 제적된 학생 없음 성적, 출석미달자 학점부여

그러나 A유형 대학의 경우 출결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이 철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정보 공유가 학교 구성원은 물론 유학생의 학부모에게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그 엄격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성적 부여에 있어 내·외국인의 구분 없이 상대평가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출석과 성적에 대해 담당교수가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라. 학생 지원

학생 지원에 대해서는 등록금 및 장학금, 유학생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 운영, 상담 서비스 제공 그리고 기타 학생 지원 항목 등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다음 <표 III-24>는 항목별 A-B 유형 대학의 사례를 비교한 것이다.

등록금 및 장학금에 있어 두 유형의 대학 간 차이는 등록금 감면 기준, 장학금 지급 기준 및 지급 규모, 등록금 선수납제 운영 여부 등이다. A유형 대학은 학비 지원에 대해 내·외국인 구분을 달리 하지 않으나, B유형 대학의 경우는 유학생 유치에 중점을 둔 나머지 과도한 감면과 지원으로 문제에 처한 상황이다. 유학생 전담 조직의 설치 여부 및 전담 지원의 규모, 상담센터의 운영과 지원 내용 등도 학생 지원에 있어 중요한 항목으로 B유형 대학에서는 이러한 서비스 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기타 지원에는 유학생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학사 안내 지원과 만족도 실시, 지도교수 배정 및 어학 학습 지원 등이 포함되나, 이 역시 B유형 대학과 A유형 대학 간에 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24> A-B 유형 대학 간 학생 지원 현황 비교

	A유형	B유형
등록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학생에게 내국인 학생과 다른 액수의 등록금을 책정하여 일률적인 등록금 감면 시행 없음 등록금 선수납도 시행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유학생 모두 등록금 50% 일괄감면 성적 낮은 학생을 포함한 거의 모든 학생이 등록금 감면 : 감면 기준 및 비율 개정 필요 등록금 2학기 이상 선수납

	A유형	B유형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유학생도 국내 학생의 장학금 수혜 비율과 유사하게 지급함 ◦ 국내학생과 똑같은 기준으로 학사관리 및 장학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 학생에 비해 외국인 학생 장학금 지원이 지나치게 높음(유학생 실제 성적은 나쁨) ◦ 장학금의 액수가 적음 ◦ 성적에 관계없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과도한 학비감면 제공
전담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개발센터와 연계하여 단과대 및 전공별 맞춤형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유학생 지원센터의 생활상담 등 대학의 지원 통해 애로 사항 주로 해결 ◦ 유학생 관리 교직원 대상 오리엔테이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관리 전담 직원 없음 (입학처 직원이 대행) ◦ 유학생 전담 관리 조직이 제 기능 하지 못하거나 직원 미흡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상담센터 운영, 전문상담원 운영 ◦ 지도교수 면담(단과대별 학기 중 1번 이상) ◦ 신입생 전원에 대해 면담 실시 ◦ 유학생 대상 경력개발책임지도교수제 운영 / 유학생 특별 지도 ◦ 상담결과를 E-커리어카드에 입력하여 관리 ◦ 다문화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생 대상별도 학사일정편람 구비 ◦ 영어강의 개설시 영문 syllabus 제공 ◦ 논문자격시험 지침, 학위논문심사에 관한 지침, 교과과정을 영문으로 구비 ◦ 수강편람, 학사일정, 커리큘럼을 영문 홈페이지에 안내, 영문수업책자(List of Courses in English) 제공 ◦ 매년 외국인 학생 만족도 조사 실시 후 대책 수립 / 관련 연구 프로젝트 실시 중 ◦ 재학생 전원에게 입학과 동시에 지도교수 배정됨 ◦ 언어교육원 어학연수생에게 도우미 학생 배정 ◦ 중국유학생 사전 예과반 운영 ◦ 중국유학생회 구성, 관리 및 지원 ◦ 외국 생활경험과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담심리 대학원생들이 상담 전문가이 지도-감독 하에 외국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지원(한국 문화 적응, 대학생활적응, 대인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개편 통한 유학생 관리 개선과 숙소 확보 및 재정건전성에 대한 개선 시급 ◦ 한국어 교육 담당 부서 없어 학생들 언어 적응이 어려움

4. 성과 및 문제

본 절에서는 이상에서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현황, 설문 및 면담조사 결과,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도출된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성과 및 문제점은 본 장에서 제시한 정책 방안 마련에 토대가 될 것이다.

가. 성과

이상에서 유학생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 및 실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국제화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며, 개별 대학에서도 국제화의 수준과 역량을 확대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시도해왔다. 이에 따라 나타난 주요 성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학생 정책과 관련해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유학생 수의 양적인 증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래로 연평균 48.3%의 증가율을 보이며 유학생 수가 증가하였고, Study Korea Project가 추진된 2004년부터는 성장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한국이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전체 고등교육 인구 중 외국인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5.4배나 낮은 상황이지만 외국인 학생 수 변화지수를 보았을 때는 OECD 평균보다 5.1배나 높은 수준이다. 또한 자비유학생이 가장 규모와 비율로 증가하는 것은 한국이 유학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유학의 성과에 대한 인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둘째, 유학생의 양적인 성장을 관리하기 위한 질 관리 체제의 구축을 들 수 있다. 이미 2008년 정보공시제가 운영되면서부터 외국인 유학생 수뿐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에 관한 일반 현황 등을 공개하면서 간접적인 질 관리를 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좀 더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를 2011년부터 도입하여 강도 높은 질 관리를 실시해오고 있다. 인증제는 대학의 국제화 수준에 대한 최소 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하면서 그 결과에 대한 보상 및 제재를 명확히 하여 유학생을 부실 대학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였다. 이는 그동안 양적인 성장에 주력한 나머지 부실한 질 관리로 발생해온 외국인 유학생 불법 체류, 엄격하지 못한 선발, 학업 지원 및 학위 수여의 문제 등을 다스림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 유학에 대한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셋째, 정부의 유학생에 대한 장학 사업이 확대되었다. 정부 초빙 유학생 수는 2005년 388명에서

2011년 2,513명으로 증가하였다. GKS(Global Korea Scholarship)을 실시하여 개발도상국의 인재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학위과정을 이수하거나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총 132개국으로부터 4,000여명의 외국인 장학생을 초청하였으며, 매년 100여개 국가로부터 우수한 외국인 학생을 초하고 있다. 국내의 한국어 연수기관에서 1여년의 한국어 연수를 마친 후 대학·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사, 석·박사 학위과정에 전념하도록 지원한다. 이 중 정부 초청 장학생수를 살펴보면 2005년도에 70명에 불과했으나 2010년 기준 696명으로 확대되었다. 체류장학생을 기준으로 보면 대학원 과정은 2009년 1,006명에서 2011년 1,411명으로 확대되었고, 학부과정도 402명에서 545명으로 확대되었다. GKS 사업 예산지원도 09년 304억원에서 2011년 528억원으로 증액되었으며, 2013년에는 605억원으로 편성함으로써 관련된 인원에 대한 수혜인원을 4,100명에서 4,5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자 계획중이다. 정부에서 당초 목표치를 공식적으로 설정하지 않아 달성도에서의 성과를 평가할 수 없으나 규모면에서의 급격한 성장은 국제화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노력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초청 국가수도 2005년 29개국에서 현재 100여 개국으로 증가했는데 정부 초청 장학 사업이 상대 국가와 외교적인 역할도 한다는 측면에서 우호협력관계 증진에 기여한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한국어 보급이 확대되었다. 이를 위해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성과 측정 및 한국어 보급 확대, 국내 유학 및 취업을 위한 한국어 능력 평가 시험(Standard TOPIK : S-TOPIK)을 강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미 분석한 바와 같이 응시자수가 2003년에 12,181명이었으나 2011년 121,550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시험의 결과는 한국어 학습 성과 측정, 국내 대학 유학인 유학생의 선발 및 학사 관리, 한국 기업체 취업 희망자의 취업비자 획득 및 선발 기준 활용함으로써 유학생들의 언어역량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TOPIK 학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한국어능력시험 학습자의 온라인 학습 지원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한국어능력시험 학습자의 자기 평가를 위한 모의고사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기존 한국어 학습 사이트와 차별화된 한국어능력시험의 이해와 실질적인 시험 준비에 활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유학생들의 효과적인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코스넷(KOSNET) 역시 온라인 한국어 학습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한국어 보급을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학습 관리 지원을 위해 4개 언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한국 유학 홍보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 및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활

동이 추진되고 있다. 홍보활동의 대표적인 예는 해외 유학박람회라 할 수 있는데, 다음 <표 III-25>를 살펴보면 2003년 이후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추진한 유학박람회의 성과를 알 수 있다. 매년 새로운 도시를 개척하여 한국 유학에 대한 꾸준한 홍보를 해왔으며, 참여대학이나 방문객의 규모도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집계에는 한계가 있으나 대학별로 실시되는 홍보활동까지 고려한다면 한국 유학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한편,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한국관광 활성화의 홍보 협력을 위해 ‘국립국제교육원’과 ‘한국관광공사’간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 확산되고 있는 한류(韓流)를 중심으로 유학생·관광객 유치 홍보를 연계하여, 유기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유학생과 관광객의 유치를 확대하는데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협약체결을 통해, 교과부·국립국제교육원과 한국관광공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협력 활동은 ①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 유학박람회와 한국관광공사 주관 관광박람회를 해외에서 공동 홍보·개최, ② 외국인 관광 우수 홈스테이 사업(코리아스테이)¹³⁾ 활성화를 통한 유학생 편의 제공 및 유학생의 한국관광 확대, ③ 한류이벤트를 유학생 유치 홍보와 연계하여 홍보 극대화, ④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및 원어민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한국에 대한 이해” 연수 공동 기획, ⑤ 그 밖의 한국 유학·한국관광 업무 협력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등이다.

<표 III-25> 해외 유학박람회 개최 실적

연도	국가 및 도시	신규 개척	참가 대학수	방문객 규모
2003	6개국 11개 도시	카자흐스탄	151개	7,500명
2004	6개국 8개 도시	캐나다, 모스크바, 태국	54개	13,200명
2005	8개국 10개 도시	몽골, 미국, 대만	129개	34,208명
2006	9개국 12개 도시 ¹⁴⁾	-	168개	22,100명
2007	7개국 11개 도시	사우디, 블라디보스톡	176개	27,000명
2008	7개국 10개 도시	앙카라, 카이세리	216개	46,000명
2009	7개국 8개 도시	이스탄불, 바쿠, 카트만두	219개	27,000명
2010	9개국 11개 도시	UAE, 체코, 폴란드	207개	34,500명

© 자료 : 국립국제교육원 2011.3.

13)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인증된 한국가정 체류를 제공하여 한국의 생활과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

14)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재단과 MOU 체결, 인도박람회 공동개최.

이 외에도 외국인 유학생 상담 센터를 운영하여 외국인에게 한국 유학 정보에 대한 안내와 한국 유학 생활 중 겪게 되는 애로사항 파악 및 고충 해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본 센터에서는 방문, 전화, 이메일 상담을 통한 질의 응답과 고충해결을 도모할 뿐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커뮤니티 활동, 졸업 후 취업연계를 위한 채용박람회 개최, 취업관련 정보 제공 등도 지원하고 있다.

여섯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활용이 확대되었다. 우선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 유학과 관련된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국 유학종합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본 시스템은 한국 유학 및 대학 정보 검색, 입학신청, GKS 장학생 신청, 온라인 한국어학습, 커뮤니티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며, 이용 대상은 외국인 유학생은 물론 국내 고등교육기관까지 확대되었다.

한편, 한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국제적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대학알리미 영문 및 중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영문 및 중문 홈페이지에서는 대학정보공시제도의 취지 및 목적을 설명하는 대학알리미 소개,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 선택 시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졸업생취업현황, 전임교원 논문실적 등 대학별 주요공시 16개 항목을 포함하고, 특히, 재학생 충원율·신입생 충원율·전임교원 확보율·취업률·전임교원 1인당 논문실적(SCI급) 등 5개 대학별 경쟁력지표는 양적수준을 5등급으로 구분하여 제공함으로써 잠재적 교육 수요자의 국내 대학 선택을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 대학별 입학전형계획 등의 주요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상세 정보는 대학의 개별 영문홈페이지를 통해 획득할 수 있도록 Hot-link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국내대학에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의 교육수요자 및 관련 정부기관 등에게 우리나라 대학에 대한 국제적 이해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나. 문제

이상에서 한국에서의 외국인 유학생 증가 및 수학여건 개선에 기여한 다양한 성과들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 유학생과 관련하여 고등교육의 국제화 수준 제고를 저해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하고 있다. 여기서는 유학생의 수학 단계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1) 유치

유학생의 유치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첫 관문이자 유학생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개별 대학차원에서 유학생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나 이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 및 계획이 대외적인 영향력이 더 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유치단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적 유치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현황 파악, 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이 미흡하다. 먼저 국제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이나 한국 유학에 대한 수요 및 한국을 기피하는 원인 등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 따라서 수요에 부합하는 전략 수립에 한계가 있으며, 유학생을 유치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확보의 논리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 유치 정책은 유학생에 관한 모든 정책의 첫 관문이자 국제사회에서 한국 고등교육의 입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어느 단계보다 면밀한 분석과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미래의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인력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그러나 유치 목표를 단순히 유학생 수의 규모로만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어 유학생 유치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성과에 대해 통계적 근거가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존 전략 및 정책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되어 있지 못해, 단순히 수적목표 달성 정도로만 효과를 평가하는 한계가 있다.

둘째, 특정 지역에 편중된 홍보 활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학생 출신국의 편향성 문제도 점점 심화되고 있다. 2003년 이후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해외유학박람회 개최를 위한 국가 및 신규 개척지를 보면 동아시아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학별 홍보에서는 제한된 기간 안에 가장 많은 학생수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보다 좀 더 다양화 하더라도 동남아 국가 정도이다. 특정 국가에 편중된 유치 경쟁은 유학생의 질 저하 문제와 직결되며, 다변화된 유학 수요에 전략적으로 부응하지 못한다.

셋째, 대학의 부적절한 유치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유학생에 관한 정부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B유형 대학의 유치 관행으로 대표적인 것이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한 유학생 모집, 기 국내체류 중인 어학연수생을 대상으로 한 유학생 모집, 교류대학을 통한 유학생 모집 그리고 어학연수생 유치 시 국내 어학원 활용 등이다. 이와 함께 유학생에 대한 일괄 학비감면 또는 근거가 부족하고 과도한 학비지원 등도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유치관행이 지속되는 것은 유학생 수의 규모로 대학

의 국제화 수준을 평가해온 관행과 부실대학의 경우 유학생을 재학 운영의 재원으로 보는 관행 등과 관계가 높다. 따라서 이러한 부적절한 유치관행에 대해서는 엄격한 질 관리와 평가 방식의 개선으로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입학시

입학시에 필요한 지원 및 관리는 정부 수준에서 관여하기 보다는 개별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 시기에는 어학에 관한 준비와 선발 및 수학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 등이 이루어지는데 이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학능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유학의 목적은 학문적인 것일 수도 있고 학문 외적인 것일 수도 있으나 유학 활동의 본질은 학습을 통해 학문적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역량과 전공 이수를 한 기본적인 선행학습 등이 체계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어 능력에 대해 형식적인 검증을 실시하거나, 그것도 예체능, 국제학부, 자매결연 대학, 정부지원 장학생 등은 검증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이 있다. 한국어 및 수학능력에 대한 미흡한 검증은 결국 대학에서 학사관리의 어려움으로 연결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유학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제한으로 작용하게 된다.

둘째, 선발과 관련해 입학자격 심사 시 수학능력 심사 절차가 부재하고, 면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대학이 다수이다. 현지 면접의 경우에도 수학능력에 대한 심사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현지 모집 시 업체의 도움을 받아 심사 및 선발 관리가 엄격하지 못한 사례가 많다. 입학 심사 및 선발 절차가 미흡한 것은 결국 유학생의 중도탈락률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 고등교육의 입지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자체적으로 선발 절차를 엄격히 강화해야 할 것이며, 정부차원에서 실시되는 대학의 실태조사 및 질 관리 평가 시 이에 대한 반영 방식 및 정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재학중

재학중에는 학업 지원과 생활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학업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학습 지원, 학사운영 및 학생 관리 등이 해당되며, 생활지원에는 기숙사 및 상담 지원 등이 해당한다. 각각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학생에 대한 방만한 학사운영이 관리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출결 관리 및 성적 등

은 수업을 직접 담당하는 교수-학생-직원(행정부서)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 출석 미달자에 대해 학점을 부여하거나, 성적 미달자의 진학 및 졸업을 승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부실 대학에서는 성적에 관계없이 유학생에 대한 학비지원이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유학생에 대한 성적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대학 구성원 모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따라서 유학생에 대한 대학 구성원들이 연계된 학사관리망이 체계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숙사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수도권외의 경우에는 지방에 비해 유학생의 수도 많은 뿐 아니라 고물가로 인해 기숙사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한편 지방의 경우 기숙사가 지원되더라도 외국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여건 조성 및 운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원룸 및 자취를 택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거 문제는 유학비용 중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그 지원에 대한 요구도 강한 항목이며, 정부 초청 장학생의 경우라도 생활비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편이라서 기숙사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정부에서 유학생 유치 목표를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기숙사 문제는 중요성 못지않게 시급성도 강한 항목이라 하겠다.

셋째, 유학생들의 학습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 유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분야가 한국어는 물론 선행(예비)학습에 대한 지원과 전공 이수에 필요한 학습 지원으로 나타났다. 유학생들의 요구와 별도로 한국 학생들이 수업활동이나 공동 작업 시 유학생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선행학습의 부족을 제시하였다. 일부 대학에서는 멘토링·튜터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유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나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고, 일부 대학에서는 입학 이후 학습에 관한 지원이 부족하여 만족도 조사 결과 학교 측이 유학생을 방치한다는 인식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학습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결국 중도탈락물이나 출석기피 등과 관계되므로 대학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유학생을 위한 학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대학을 유도하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영어강의 개설의 목적을 재정립하고, 전략적 개설 및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 국제화 제고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대학의 영어강의 개설 확대를 강조해왔고, 대학에서도 영어강의 개설에 대한 최소 비율을 고정시켜 운영하거나 교·강사 채용시 영어강의 역량을 평가에 무겁게 반

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한국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해도 영어강의는 교수나 학습자 모두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유학생의 경우 중국학생들의 대다수이므로 유학생을 위한 영어강의 확대가 목적과 대상이 일치하지 않아 효과를 제고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설문조사 결과 영어강의는 이해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격차가 확연하고 대상도 아시아 외 지역 출신 유학생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영어강의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영어강의가 필수적인 전공을 구분하여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그 외에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필요로 하는 학습자에게 깊이 있고,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대학차원에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유학생 친화적인 대학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유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데 필요한 지원 및 관리 외의 학교생활과 일반 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상담센터 및 유학생 지원 전담센터 운영, 대학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기회 확대, 한국 학생들의 인식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다. 현재는 대학의 국제처에서 유학생의 학업에서 생활에 이르는 거의 모든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또는 해당 대학의 한국 학생들이 멘토 및 버디 등과 같은 명칭으로 유학생의 생활지원을 도와주고 국제 활동 평가점수로 보상받는 형식으로 지원을 하기도 하나 체계성이나 지속성이 부족하고 수요를 충족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국제처의 인적 규모와 구성이 체계적인데 반해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아직까지도 타 행정부서에 비해 국제처의 비중이 그리 높지 못한 편이라 대학으로부터 국제처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여러 전담 부서에서 유학생에 관한 지원도 겸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를 추구해 가며, 전담기구 및 상담기구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졸업 후 지원

그동안 유학생 지원의 범주가 유치, 학업지원, 장학금 등 분절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졸업 후 단계는 지원 및 관리의 범위로 고려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또한 유학생을 인력으로 활용하거나 국익을 위한 글로벌 인적자원의 네트워크로 활용하는 차원의 요구나 수요가 높지 못해 졸업 후 지원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향은 해외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유학생에 대해 동문으로서 관리하는 차원의 사후 지원은 활발하게 이루어지나 취업 및 진로에 대한 지원 방안이

선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아직은 많지 못한 편이다. 따라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학생에 대한 진로 및 취업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고등교육의 성과가 학문적 성취에 국한되기 보다는 전공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상징하거나 직업 활동을 위한 경력 개발 및 자기계발의 범위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성과는 진학 및 취업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면서 성과를 얻기 위한 국경을 넘은 교류 역시 취업 시장의 국경도 허물어지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유학생에 대한 취업 및 진로 지원은 유학생의 유치 유인가로 작용하여 '유학생 유치 활성화→학업적 성과 제고→해외 고급인력으로서의 국내 경제적·사회적 기여 제고'로 연계된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데 핵심 요인이 된다. 따라서 유학생에 대한 취업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고, 정부-국내·외 기업-대학이 연계하여 인력 활용의 유연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유학생을 동문으로 대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과 이에 따른 동문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를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 유학생이 졸업 후 대학과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매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가더라도 지도교수와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한국 유학에 대한 어려움으로 유학생들 사이에 반한 정서가 확대되는 데에는 여러 주체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우선은 대학차원에서 유학생을 외부인으로 보지 않도록 인식을 전환한다면 그 이후에 유학생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내용과 유형도 달라질 것이다. 한국 유학 및 고등교육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대학차원의 사후관리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행·재정 시스템 / 법적 제도적 인프라

행·재정 시스템에는 유학생에 관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관련법을 제정하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유학생에 대한 학업 및 생활을 지원하는 제반 활동이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행·재정 시스템은 대학의 이러한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에 관해 개선되어야 할 점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학생에 대한 유치부터 지원 및 사후 관리까지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단기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인력, 관련부처 또는

추진 주체 간에 유기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부처 간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정책의 실행력이 향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교과부, 법무부, 외교부 간의 긴밀한 협조 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는 유학생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운영에 토대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정 및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교과부의 관계 부서(팀)와 전담 기구 역할을 하는 국립국제교육원이 총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조직 및 인력, 예산 부분에서 취약함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전담기구 지정 또는 설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는 총괄조정 기구 설치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 유학과 개별 대학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온라인 유학지원 서비스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조사결과 유학생들은 한국 대학에 관한 정보를 개별 대학을 통해 알아야 하나 외국어 서비스가 지원 폭이 넓지 않고, 본국의 유학원을 통해 정보를 확보하는 많은 사례의 경우 실제 한국의 상황과 맞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보수집의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현재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로 정부초청외국인 장학생들에게 맞추어진 정보가 대부분이며, 공통 지원 사항은 한국어 능력시험에 국한되어 있어 정보제공의 폭이 넓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 유학안내시스템이 구축 운영되고 있고, 여기서도 대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개괄적인 정보로 제한되며, 유학생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전공 및 학과에 관한 정보 수집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중국 및 아시아 지역 학생들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한국 유학안내 포털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유학생 출입국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법무부와 외교통상부는 유학을 빙자한 국내 불법체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유학 희망자에 대한 입국절차를 엄격히 관리해 왔다. 그러나 대학 및 교과부에서는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신속한 비자 발급 및 유학생에 대한 출입국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부처 간의 의견차이로 추진상의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비자발급 문제는 대학에서 유학생 지원 업무 중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다. 일관성이 없는 출입국 관리소의 비자발급 업무와 중국 유학생에 대한 과도한 서류 요구 등은 지원업무의 시간적 부담과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경제적인 위기 및 고등교육 재정 지원의 축소 등으로 공격적인 유학생 유치에 주력하여 유학생 입국 요건을 대폭 완화해가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출입국 규제 완화를 위한 부처 간의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넷째, 유학생 유치, 지원 및 관리에 대해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정부로부터 충분한 재정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 고등교육 국제화 지원에 예산을 배정한 것은 2010년부터로 비교적 최근의 변화라 할 수 있으며, 2012년 해외 한국 유학 홍보, 질 관리를 위한 인증제 등에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나 규모가 크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정부 초청 장학 사업을 위하여 꾸준히 예산을 증액해가고 있으나 34.8억원('05) 으로 일본(5,000억원)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인적자원부 내부 자료 참조).

다섯째, 유학생 지원 및 관리 업무의 일관성 제고와 유학생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호주 및 일본은 유학생의 권리 보호와 교육서비스 질 제고 및 유학생 지원을 위한 타 법과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법령으로서 유학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외로 나가는 한국 학생들을 위한 근거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및 시행령'을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법령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법무부 소관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통해 외국인 인권존중 법과 원칙에 따른 체류질서 확립하고 외국인 유학생 체계적 관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유학생에게 초점을 둔 근거가 아니며 법적 효력이 없는 계획으로서의 근거에 머무는 수준이다. 또한 교과부 차원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을 마련하여 유학생업무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유학생 보호의 역할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유학생에 대한 법령 제정은 유학생 보호와 지원, 국제 교육으로서의 질 관리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근거가 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한국 고등교육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것이다.

여섯째, 대학 현장의 실재를 반영하고 보상적·조성적 인센티브와 연계된 질 관리 체제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 그동안 양적인 성장 측면에서 유학생을 유치하고 고등교육의 국제화의 성과를 평가해 왔다면, 이에 비하여 질 관리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변화이다. 따라서 대학에서 국제화의 질 관리 시스템에 적응하는데 충분한 적응기간이 확보된 상태가 아니며, 질 관리를 위한 평가지표에도 대학의 실재를 반영하기까지 어느 정도 과도기를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2011년에 처음 시범으로 실시된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의 경우 의료보험 가입, 재정 건전성, 졸업요건으로서 TOPIK 4급 취득 등에 대한 요구는 아직까지는 대학의 현실과 상충되는 면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유학생에 관한 질 관리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 및 대학은 물론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지표달성에 곤란을 겪는 대학에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여 가능한 많은 대학들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질 관리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관리가 부실한 정도에 따라 비자발급제한, 시정명령, 컨설팅 의뢰 등의 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인증대학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GKS: Global Korea Scholarship) 등 유학생 대상 재정지원사업에 있어 우선 지원 하거나, 해외 유학박람회 개최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센티브와 질 관리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보상과 제한으로 지나치게 양분되어 있어 정책의 융통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 평가는 결과를 진단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도 있으나,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계도적인 기능도 발휘할 때 질 관리의 취지도 살리면서 질 관리 체제 도입의 실효성도 제고할 수 있다. 따라서 보상적인 지원과 함께 부족한 대학이 평가 및 모니터링을 재기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시사점

이상에서 유학생에 관한 통계 현황을 통해 거시적인 변화 양상과 현재 상황을 알아보았고, 정부에서 추진해온 주요 정책을 통해 유학생 지원에 관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 그리고 앞으로의 의지 등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별 현황을 통해서는 실제 유학생 지원 및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A-B유형 사례의 대조를 통해 미시적인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황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정책제언에 도움이 될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전체 고등교육 학생 수 대비 유학생 수의 비율이 OECD 평균에 비해 훨씬 떨어지지만, 외국인 학생 변화지수는 OECD 평균의 5배에 이를 정도로 증가 양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유학생 시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고등교육 국제화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고등교육 국제화의 성과 중 하나로 유학생 수 확대 유치를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으로도 유학수지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유학생 유치 목표를 ‘10만 명’, ‘20만 명’ 등과 같이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유학생 시장의 변화 동향과 함께 국내 유학생 수 변화 추이 및 향후 증가 가능성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등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목표를 수립한다면 예산 확보는 물론 정책 추진의 실효성

도 확대될 것이다.

둘째, 유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유학생은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국내 한국인 학생들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이들이 교육적 가치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력 또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특정 지역 및 국가에 편중되지 않도록 유치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아시아 중에서도 중국학생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편중된 점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얻어가는 고등교육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들이 한국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했을 때, 유학생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학생에 대해 전 주기적 지원 및 관리를 위해서는 전 주기의 단계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동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유학생 수, 출신국가, 재학 유형 및 유학생태별 현황은 비교적 오랫동안 정확하게 모니터링이 되어왔다. 그러나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보다 미시적이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항목인 장학금, 숙소, 대학에서의 학습 과정 및 성과, 졸업 후 진로 등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여 유학생에 대한 전략적 정책수립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유학생에 대한 주기적인 현황 파악을 위한 항목들을 보다 정교화 하고, 현재 대학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유학생에 관한 설문조사를 국가 수준의 표준화된 조사도구를 개발하여 일관성 있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한 다면 정책적 의사결정의 근거 뿐 아니라 간접적인 질 관리를 유도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정책추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책실행에 대한 성과 평가이다. 정부가 고등교육부문에서 국제화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한 것은 2010년부터로 그 시작은 얼마 지나지 않았다. 이는 국제화에 관한 다양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에 짧은 기간이라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 평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체계를 구축해두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으로 어느 정도의 국제화 성과를 달성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자료나 근거가 부족한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정책 개발은 물론 대학 현장의 질 관리,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과 연계되는 사항이므로 중요하게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유학생 지원 및 관리에 있어 대학 간 격차는 전체적인 통계로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유학생 유치 관리 역량 인증제를 도입한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의 입장에서는 국제화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도 외부로부터의 다양한 평가에 대

비해야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갑작스런 제도 도입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이 처한 환경과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결과 활용에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이 국제화 역량을 제고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보상적인 인센티브와 함께 조성적인 지원을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



IV.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실태 조사 분석



1. 조사의 개요
2. 실태분석 결과
3. 시사점

IV.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실태 조사 분석

1. 조사의 개요

가. 조사도구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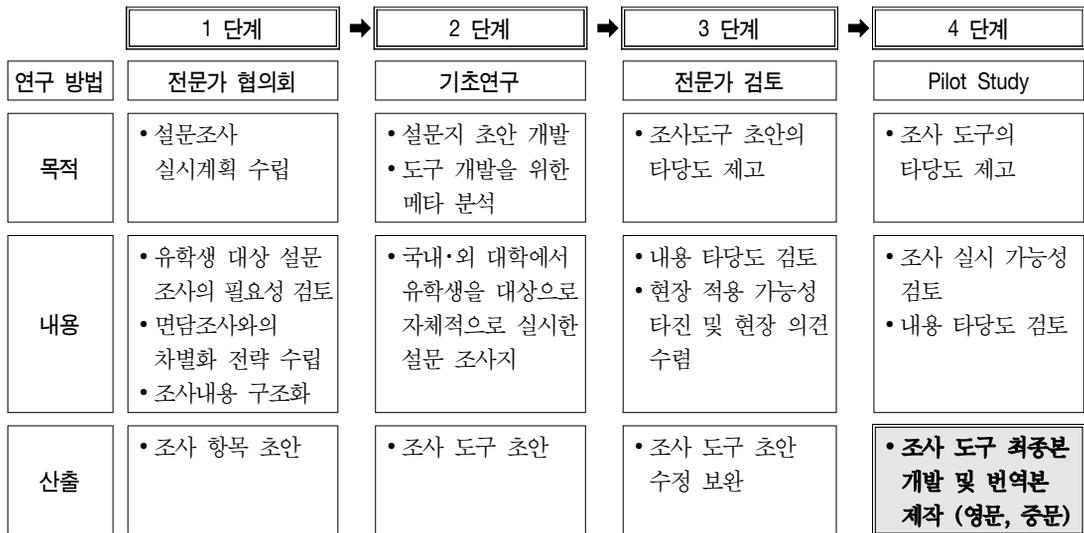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유학생들의 학업과 생활 전반을 알아보기 위해 면담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면담조사가 유학생 및 대학의 상황을 미시적으로 접근한다면, 설문조사는 면담조사보다는 일반화된 조사내용으로, 전국단위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 거시적인 접근이다. 유학생에 대한 지원이 적게는 대학 및 다양한 커뮤니티부터 크게는 국가 수준의 전담기구 또는 정부차원에 이르기 까지 그 단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원 및 관리체제 구축도 미시적인 접근과 거시적인 접근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 하에 본 설문조사 실시를 위해 다음 그림과 같이 4단계에 걸쳐 설문조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첫째,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하여 설문조사계획을 수립하였다. 협의회에는 유학생 정책 관계기관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 한국대학국제교류협의회(KAFSA),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 한국국제교육자협회(KAIE), 국립국제교육원 그리고 대학의 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 본 단계에서는 유학생이라는 집단의 특성상 전국 규모의 설문조사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면담조사와의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 내용이 구성되어야 할지 논의 후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기본적인 조사항목을 도출하였다.

둘째, 기초연구를 실시하여 유학생 설문조사 문항의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교육의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예와 같이 매년 주기적으로 유학생들의 생활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염두에 두고 본 조사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해외에서 실시하는 유학생

대상 설문조사 도구와 국내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 도구를 분석하여 본 연구의 조사도구 초안을 개발하였다. 특히, 호주의 International Student Survey, City of Melbourne International Student Survey, Survey of International and Australian VET and Univ. Graduates과 같은 조사도구와 그 결과를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중요한 시사를 얻었으며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연구에서 활용했던 설문지도 참고가 되었다.

셋째, 조사도구 초안의 내용 타당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실시해온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조사 관계자 및 대학의 국제교류 업무 관계자 및 교수들로 구성되었고, 이들의 검토를 통해 조사도구 초안에 대한 수정본이 개발되었다.



[그림 IV-1] 조사도구 개발 과정

넷째, 마지막 단계로 예비조사(pilot study)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조사도구의 타당성 제고와 실시 가능성 검토 및 내용 타당도 검토를 통해 보다 질 높은 도구 개발에 핵심적인 단계이다. 예비조사는 한국어 이해도가 비교적 높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예비조사 결과 문장의 이해도가 좀 더 쉽고 명확하게 수정하는 단계를 거쳐 최종 조사도구가 개발되었으며, 최종본은 중문과 영문으로 번역하여 가능한 많은 유학생들이 언어에 구애받지 않고 설문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

나. 표집

조사 대상 대학을 선정하기 위해 할당표집(quota sampling)을 실시하였다. 2011년 기준 대학알리미에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공시한 194개 4년제 일반대학들을 제주도 2개 대학을 제외하고 다음 <표 IV-2>와 같이 5개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각 권역 내에서 유학생수 규모가 가장 큰 순서대로 비율 표집 하였으며, 대학의 사정으로 조사실시가 어려운 경우를 반영하여 실제 조사대상 대학을 표집 하였다.

48개 대학을 규모, 소재지 및 설립유형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 <표 IV-1>과 같다. 대학의 규모는 재학생수를 기준을 1만 명 이상은 대규모, 그 미만은 중·소규모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국·공립 25%, 사립 75%, 수도권 47.9%, 비수도권 52.1%, 대규모 62.5%, 중·소규모 37.5%로 나타났다.

<표 IV-1> 규모, 소재지 및 유형에 따른 조사 대학 현황

구분	국·공립 및 법인		사립		계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대규모	2	8	12	8	30
중·소규모	0	2	9	7	18
계	2	10	21	15	48

설문조사 실시를 위해 총 1,000명의 유학생을 표집하였다. 먼저 권역별로 표집한 대학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다시 계열별로 비례할당을 실시하여, 지역과 계열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학생을 표집 하였다.

<표 IV-2> 학생 표집 현황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합계
강원권	22	1	2	1	3	29
경상권	128	14	47	25	6	220
수도권	307	37	60	32	7	443
전라권	81	13	21	7	1	123
충청권	130	12	21	15	7	185
전체	668	77	151	80	24	1,000

다. 배경 특성

표집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조사 대상 유학생들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남성이 54%로 조금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는 21-24세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분포하고 있었다.

출신지역은 역시 84.7%가 아시아였으며, 아시아 내에서의 국가별 분포를 별도로 살펴보면 중국이 72.3%, 몽골 5.0%, 일본 4.1%, 베트남 3.5%, 대만 2.4%의 순서로 나타났다.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은 1년 이상 2년 미만이 2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공계열은 66.8%가 인문·사회계열에 속해있었다.

등록학기는 1-2학기로 대체로 1학년 학생이 가장 많았고 3-4학기에 해당하는 2학년 학생들도 33.3%를 차지했다.

유학의 형태는 72.2%가 자비유학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대학초청유학과 한국정부초청유학이 각각 11.2%, 11.5%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기타 유형에는 기업체 지원, KOICA 지원, 자국의 민간 재단 및 개인적인 후원자를 통한 지원 그리고 대학+자비, 교수+자비 등 복합적 유형등이 있으며 이들은 전체 유형 중 1.4%를 차지한다.

유학생들의 학업성과를 알아보기 위해 직전학기 성적을 조사한 결과 32.2%가 평점 3.5-4.0 사이에 분포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4.0 이상이 27.4%로 나타났다. 한국어 어학능력을 알 수 있는 TOPIK 급수는 41.1%가 3-4급에 해당했으며, 20.6%는 아직 미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 응답자 배경별 현황 분석

배경	표집			배경	표집		
	항목	학생수(명)	비율(%)		항목	학생수(명)	비율(%)
성별	남성	460	46.0	등록 학기	1-2학기	372	37.2
	여성	540	54.0		3-4학기	333	33.3
연령	18세 이하	21	2.1		5-6학기	140	14.0
	19-20세	117	11.7		7학기 이상	155	15.5
	21-22세	319	31.9	유학 형태	자비유학	722	72.2
	23-24세	291	29.1		한국대학초청	112	11.2
	25세 이상	252	25.2		한국정부초청	115	11.5
출신 지역	아시아	847	84.7		자국정부과건	37	3.7
	북미	39	3.9	기타/무응답	14	1.4	

배경	표집		
	항목	학생수(명)	비율(%)
	아프리카	29	2.9
	유럽	56	5.6
	남미	20	2.0
	오세아니아	9	0.9
체류 기간	1년 미만	225	22.5
	1-2년 미만	285	28.5
	2-3년 미만	218	21.8
	3-4년 미만	134	13.4
	4년 이상	138	13.8
전공 계열	인문사회	668	66.8
	이공계	228	22.8
	기타	104	10.4

배경	표집		
	항목	학생수(명)	비율(%)
직전 학기 성적	3.0 미만	85	8.5
	3.0-3.5 미만	209	20.9
	3.5-4.0 미만	320	32.0
	4.0 이상	274	27.4
	모름/무응답	112	11.2
TOPIK 급수	5-6급	197	19.7
	3-4급	411	41.1
	1-2급	101	10.1
	미응시	206	20.6
	불필요	78	7.8
	모름/무응답	7	0.7

라. 조사 실시 및 자료처리

설문조사 기간은 2012년 7월 16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 총 5주간 실시되었다. 조사는 대학 지역별, 전공계열별 표집된 할당 수를 토대로 면접원이 질문하고 그 응답을 면접원이 기록하는 면접타계식(face to face interview) 방법을 활용하였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한국어 질문지를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신국가별 분석결과 아시아, 특히 중국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여 중국어 버전의 조사지를 제공하였고, 아시아 지역 외의 학생들을 위해 영문 버전의 조사지도 함께 제공하였다.

조사결과의 검증관리 및 자료처리는 두 단계의 절차를 거쳤다. 먼저 회수된 설문지에 대하여 전문 에디팅 요원에 의해 면접원별 설문 응답내용 누락 및 logic 오류, 진행부수, 일정준수 여부, 에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응답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설문지 에디팅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전문 편칭원의 편칭결과를 교차 비교하여 비표본 오차를 최소화하는 더블 편칭 방식을 활용하였다.

2. 실태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한국에서의 유학생화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에 대하여 설문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실태분석 결과는 크게 두 가지 형식으로 구분된다. 중요도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평균비교를 실시하였고, 선택형 문항에 대해서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적인 빈도는 분석 결과를 부록에 제시하였으며, 본 절에서는 문항별 특징을 부각시킬 수 있는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분석 내용은 크게 입학전 단계로서 유학국가 및 학교 선택과 입학전 유학준비, 재학중 학업 및 생활, 졸업후 계획 등 네 가지로 구성되며 각각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유학국가 및 학교 선택

1) 유학목적

유학목적으로서 취업 및 진학, 학문적 경험,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 외국어 역량 강화 및 자국에서 대학 진학의 어려움 등이 어느 정도 중요했는지 조사한 결과 다음 <표 IV-4>와 같이 나타났다. 전체 6개 항목 중 외국어 역량 강화를 위한 이유가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취업기회 획득 4.05, 다양한 학문적 경험 4.01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4> 유학목적별 중요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구분	N	M	S
1) 더 좋은 취업 기회를 얻기 위해	1,000	4.05	.905
2) 더 좋은 진학 기회를 얻기 위해	1,000	3.92	.925
3) 다양한 학문적 경험을 위해서	998	4.01	.874
4)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의 교류를 위해	999	3.96	.896
5) 외국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999	4.09	.878
6) 자국에서의 대학 진학이 어려워서	999	2.90	1.258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에 대해 응답자의 배경 변인별로 차이를 살펴본 결과 다음 <표 IV-5>와 같이 나타났으며 주요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외국어 역량, 취업 기회 확보 및 다양한 학문적 경험 세 가지 항목에서 아시아 지역의 학생들이 아시아 외 지역의 학생들보다 유학목적으로서 각 항목

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나타내고 있다. 외국어 역량은 1년에서 3년까지의 체류자의 경우 중요한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체류기간이 늘어날수록 취업기회 확보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학문경험은 1-2년 체류자들의 경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체류기간이 늘어갈수록 학문적 경험보다는 취업기회 확보라는 실질적인 목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알 수 있었다. 또한 취업 기회 확보에 대한 계열별 차이에서는 이공계 학생들이 4.08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외국어 역량의 경우 자비유학생들의 인식이 4.15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고, 취업기회 및 다양한 학문적 경험은 기타 유형의 유학생들이 각각 4.18과 4.07로 높게 나타났다.

성적별 차이를 보면 성적이 높을수록 각 항목에 대하여 인식하는 중요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학문적 경험은 3.0 미만이 3.85, 4.0 이상이 4.10으로 큰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제시된 항목 외의 기타 유형의 유학목적으로는 외국인 생활 체험을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친구관계, 나의 민족적인 배경에 대해 배우기 위해, 신앙적 요소 등이 있었다.

〈표 IV-5〉 유학목적에 대한 집단 간 평균 비교

구분		외국어 역량 강화				더 좋은 취업 확보				다양한 학문적 경험			
		N	M	S	t/F	N	M	S	t/F	N	M	S	t/F
지역	수도권	442	4.09	.884	-.115	443	4.00	.932	-1.576	442	3.98	.894	-.818
	비수도권	557	4.10	.874		557	4.09	.881		556	4.03	.857	
성별	남성	459	4.04	.893	-1.824	460	4.03	.946	-.432	460	3.97	.911	-1.106*
	여성	540	4.14	.863		540	4.06	.869		538	4.03	.841	
출신	아시아	846	4.12	.850	2.086*	847	4.06	.885	1.266	846	4.03	.836	1.788**
	아시아 외	153	3.94	1.008		153	3.96	1.006		152	3.87	1.053	
체류 기간	1년 미만	224	4.15	.868	2.652*	225	3.98	.949	.847	225	4.01	.858	2.765*
	1~2년 미만	285	4.18	.818		285	4.11	.843		283	4.11	.807	
	2~3년 미만	218	4.06	.888		218	4.03	.918		218	4.00	.806	
	3년 이상	272	3.99	.929		272	4.04	.920		272	3.90	.989	
계열	인문사회	667	4.11	.882	2.329	668	4.04	.886	.341	667	3.98	.875	1.387
	이공계	228	4.00	.905		228	4.08	.974		227	4.01	.885	
	기타	104	4.21	.772		104	4.00	.870		104	4.13	.837	

구분		외국어 역량 강화				더 좋은 취업 확보				다양한 학문적 경험			
		N	M	S	t/F	N	M	S	t/F	N	M	S	t/F
학년	1-2학기	371	4.14	.836	1,000	372	4.09	.871	.748	370	3.99	.841	.978
	3-4학기	333	4.09	.858		333	4.04	.897		333	4.06	.892	
	5학기 이상	295	4.04	.948		295	4.00	.955		295	3.96	.893	
유학 형태	자비유학	721	4.15	.820	4,391**	722	4.06	.851	3,037*	721	4.05	.821	3,241*
	한국대학 초청	112	3.88	1.006		112	4.11	.914		112	3.79	1.023	
	한국정부 초청	115	3.97	1.034		115	3.82	1.204		114	3.93	.993	
	기타	44	4.02	.952		44	4.18	.786		44	4.07	.818	
성적	3.0 미만	85	3.89	.926	2,029	85	3.88	.865	2,303	85	3.85	.906	2,675*
	3.0-3.5 미만	209	4.13	.889		209	3.97	1.011		209	3.93	.933	
	3.5-4.0 미만	320	4.03	.888		320	4.09	.855		320	3.96	.833	
	4.0 이상	274	4.12	.832		274	4.11	.859		272	4.10	.861	

* p<.05. ** p<.01. *** p<.001

2) 유학국가 선택

유학국가 선택 이유는 유학생 유치전략 수립에 중요한 참조자료가 된다. 다음 <표 IV-6>은 유학국가 선택 이유에 관한 11개 항목에 대하여 유학생들이 생각하는 중요도에 관한 조사 결과이다. 전체 항목 중 본국에서 더 좋은 취업기회 획득에 유리함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본인의 전공분야의 한국이 갖는 경쟁력 3.62, 한국에서 더 좋은 취업기회 획득에 유리함이 3.58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도에서 가장 낮은 항목은 ‘한국에 친지·친척이 거주하고 있으므로’로 2.46으로 나타났다.

<표 IV-6> 유학국가 선택 이유별 중요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구분	N	M	S
1) 학비(교육비)가 적절해서	999	3.48	.957
2) 생활비가 적절해서	1,000	3.51	.956
3) 본인이 원하는 전공분야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998	3.62	.931
4) 졸업 후 본국에서의 취업기회 획득에 유리해서	999	3.75	.900
5) 졸업 후 한국에서의 취업기회 획득에 유리해서	996	3.58	.982
6) 유학중 아르바이트(part-time job)를 구하기 쉬워서	996	2.99	1.069
7) 한국에 친지·친척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1,000	2.46	1.305

구분	N	M	S
8) 본국에서 거리상 비교적 가까운 국가이므로	998	3.02	1.251
9) 비자 발급 등 유학 절차가 비교적 쉬워서	998	3.09	1.105
10) 다른 국가에 비해 치안 및 안전이 우수해서	997	3.49	1.023
11) 한류에 따라 한국의 문화·언어를 배우기 위해	998	3.27	1.197

유학국가 선택 이유로 가장 높게 나타난 세 항목에 대해 유학생 배경 변인별로 분석하면 다음 <표 IV-7>과 같다. 세 항목 전체에서 비수도권의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중요도 인식에서 좀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신 국가별 비교결과 본국에서 취업기회 획득과 한국이 갖고 있는 전공분야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아시아 지역의 유학생들이 아시아 외 지역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한국에서 더 좋은 취업기회 획득에 대해서는 아시아 외 지역의 유학생들이 3.63으로 아시아 지역 유학생들보다 중요도 인식의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V-7> 유학국가 선택에 대한 집단 간 평균 비교

구분	본국에서 더 좋은 취업기회 획득				본인의 전공분야의 한국이 갖는 경쟁력				한국에서 더 좋은 취업기회 획득				
	N	M	S	t/F	N	M	S	t/F	N	M	S	t/F	
지역	수도권	442	3.64	.945	-3.373**	441	3.57	.927	-1.315	441	3.56	1.007	-.486
	비수도권	557	3.83	.853		557	3.65	.933		555	3.59	.961	
성별	남성	459	3.77	.927	.658	458	3.63	.978	.359*	457	3.62	.984	1.247
	여성	540	3.73	.876		540	3.61	.890		539	3.54	.979	
출신	아시아	846	3.76	.862	1.132***	845	3.64	.898	1.608**	845	3.57	.952	-.599**
	아시아 외	153	3.66	1.083		153	3.49	1.089		151	3.63	1.135	
체류 기간	1년 미만	225	3.77	.911	4.108**	225	3.58	.975	5.356**	224	3.50	1.016	1.197
	1~2년 미만	285	3.81	.931		285	3.69	.869		285	3.61	1.020	
	2~3년 미만	217	3.85	.793		217	3.76	.947		217	3.66	.899	
	3년 이상	272	3.59	.921		271	3.45	.921		270	3.54	.974	
계열	인문사회	667	3.72	.893	1.192	667	3.62	.923	.731	665	3.57	.967	.044
	이공계	228	3.79	.938		228	3.66	.969		227	3.59	1.002	
	기타	104	3.85	.856		103	3.52	.895		104	3.60	1.038	
학년	1-2학기	372	3.71	.927	1.226	371	3.61	.937	1.103	368	3.51	.999	3.083*
	3-4학기	332	3.81	.905		332	3.67	.928		333	3.68	.972	
	5학기 이상	295	3.73	.857		295	3.57	.927		295	3.55	.964	

구분		본국에서 더 좋은 취업기회 획득				본인의 전공분야의 한국이 갖는 경쟁력				한국에서 더 좋은 취업기회 획득			
		N	M	S	t/F	N	M	S	t/F	N	M	S	t/F
유학 형태	자비유학	721	3.77	.840	1.197	720	3.66	.898	2.183	720	3.56	.946	.341
	한국대학 초청	112	3.67	.972		112	3.47	.968		110	3.57	1.053	
	한국정부 초청	115	3.65	1.147		115	3.49	1.079		115	3.66	1.146	
	기타	44	3.89	.841		44	3.57	.950		44	3.61	.970	
성적	3.0 미만	85	3.73	.808	.251	85	3.51	.881	2.223	85	3.51	.921	1.670
	3.0-3.5 미만	209	3.73	.885		207	3.52	.886		209	3.51	.889	
	3.5-4.0 미만	319	3.79	.901		320	3.70	.942		318	3.67	.970	
	4.0 이상	274	3.77	.922		274	3.66	.963		273	3.53	1.047	

* p<.05. ** p<.01, *** p<.001

체류기간과 학년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세 항목 모두에 대해 2년 이상 3년 미만 체류 유학생들과 현재 3-4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세 항목에 대한 중요도 인식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유학형태별로 살펴보면 본국에서 취업기회 획득에 대해서는 기타 유형의 학생들이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공분야에서 한국이 갖는 경쟁력에 대해서는 자비유학생들이 3.6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한국에서 취업기회 획득에 대해서는 한국정부 초청 유학생들이 3.6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유학 형태별로 유학국가 선택에 차이가 있음을 반영한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이 외에 유학국가를 한국으로 선택한 기타 이유로 부모님 사업, 조상의 국가, 친구가 많아서, 한국이 많은 기술을 갖고 있어서, 문화가 달라서 등이 조사되었다.

3) 유학대학 선택

유학대학 선택에 대한 조사결과는 각 대학차원에서 유학생 정책 수립 시 참고해야할 내용 중 하나이다. 대학 선택에 이유가 되는 10개 항목에 대해 본인이 대학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정도를 조사한 결과 다음 <표 IV-8>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 항목 중 교육과정 및 교수진의 우수성이 3.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대학의 높은 순위 및 평판도가 3.72, 유학생에 대한 학비지원이 3.69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선택의 이유로 중요도가 가장 저조하게 나타난 항목은 고교 선생님의 추천 및 유학원 추천으로 모두 2.87로 나타났다.

〈표 IV-8〉 유학대학 선택 이유별 중요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구분	N	M	S
1) 유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이 잘 되고 있어서	1,000	3.69	.976
2) 유학생에 대한 생활비 지원이 잘 되고 있어서	1,000	3.63	.989
3) 대학의 순위(ranking) 또는 평판도가 높아서	994	3.72	.911
4) 교육과정 및 교수진이 우수하므로	999	3.83	.861
5) 영어강의 강좌 수가 많아서	996	3.46	1.038
6) 부모님, 친척, 선배 등이 추천해서	1,000	3.22	1.095
7) 고등학교 선생님이 추천해서	997	2.87	1.209
8) 유학원에서 추천해서	999	2.87	1.194
9) 입학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999	3.18	1.061
10) 홍보 등을 통해 평소에 많이 들어봐서	991	3.13	1.096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3개 항목에 대해 유학생 배경변인별로 차이를 보면 다음 〈표 IV-9〉와 같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 대학선택 이유로 교육과정 및 교수진의 우수성과 대학의 순위 및 평판도가 높게 나타났고,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유학생에 대한 학비지원의 중요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V-9〉 유학대학 선택에 대한 집단 간 평균 비교

구분	교육과정 및 교수진의 우수성				높은 대학의 순위 또는 평판도				유학생에 대한 학비지원				
	N	M	S	t/F	N	M	S	t/F	N	M	S	t/F	
지역	수도권	443	3.87	.854	1.418	440	3.82	.912	3.157	443	3.64	.980	-1.545
	비수도권	556	3.79	.866		554	3.64	.902		557	3.73	.972	
성별	남성	460	3.89	.869	2.225	456	3.75	.930	1.074	460	3.70	1.018	.429
	여성	539	3.77	.851		538	3.69	.894		540	3.68	.940	
출신	아시아	846	3.83	.846	.546	841	3.73	.876	.799**	847	3.70	.944	.916**
	아시아 외	153	3.79	.943		153	3.65	1.084		153	3.61	1.136	
체류 기간	1년 미만	225	3.79	.869	1.575	225	3.69	.877	4.087**	225	3.68	.980	1.758
	1~2년 미만	285	3.88	.837		284	3.81	.929		285	3.76	.978	
	2~3년 미만	218	3.88	.839		215	3.81	.829		218	3.74	.870	
	3년 이상	271	3.75	.892		270	3.57	.964		272	3.58	1.045	
계열	인문사회	667	3.81	.867	.526	666	3.70	.902	.807	668	3.67	.970	.651
	이공계	228	3.88	.872		226	3.78	.959		228	3.75	.994	
	기타	104	3.81	.801		102	3.66	.862		104	3.68	.978	

구분		교육과정 및 교수진의 우수성				높은 대학의 순위 또는 평판도				유학생에 대한 학비지원			
		N	M	S	t/F	N	M	S	t/F	N	M	S	t/F
학년	1-2학기	372	3.85	.841	.328	370	3.69	.913	1.499	372	3.74	.958	1,111
	3-4학기	332	3.83	.880		332	3.79	.906		333	3.70	.979	
	5학기 이상	295	3.79	.866		292	3.67	.913		295	3.62	.995	
유학 형태	자비유학	721	3.86	.802	.986	718	3.77	.845	3.280*	722	3.69	.899	1,315
	한국대학 초청	112	3.73	.870		112	3.60	.925		112	3.82	1.042	
	한국정부 초청	115	3.77	1.079		113	3.52	1.127		115	3.57	1.243	
	기타	44	3.77	1.031		44	3.68	1.137		44	3.70	1.133	
성적	3.0 미만	85	3.64	.857	1,652	85	3.58	.850	1,097	85	3.51	.811	1,892
	3.0-3.5 미만	208	3.88	.834		204	3.76	.796		209	3.63	.952	
	3.5-4.0 미만	320	3.79	.877		320	3.65	.948		320	3.73	.909	
	4.0 이상	274	3.80	.864		273	3.70	.958		274	3.76	1.076	

* p<.05. ** p<.01. *** p<.001

세 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이공계 학생들이 타 계열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비유학의 경우 교육과정 및 교수진의 우수성과 대학의 순위 및 평판도를 대학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성과와 관련해서는 성적이 높을수록 세 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 특정 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서, 학교간 학술 및 학생 교류가 활발해서 등이 대학선택의 기타 이유로 조사되었다.

4) 유학에 필요한 정보

유학에 필요한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획득하는지 조사해본 결과 한국 유학 경험이 있는 선배·친척·지인이 2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본국의 유학원 14.7%, 본국의 교육관련 정부기관 또는 유관기관 11.4%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유학생의 51.8%가 한국 유학의 정보획득 경로로 세 유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선배·친척·지인, 본국의 유학원 그리고 본국의 교육관련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을 유학생이 활용하는 주요 경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향후 유치 전략 수립에 참고가 될 것이다. 그 외에 7가지 경로에 대해서도 조사되었지만 빈도수가 높지 않은 편이다.

〈표 IV-10〉 유학 정보 획득 경로에 대한 빈도 분석

구분	N	빈도	퍼센트
1) 본국의 유학원	1,000	147	14.7
2) 고교 진학 상담 교사		40	4.0
3) 한국 유학 경험이 있는 선배·친척·지인		257	25.7
4) 본국에 방문한 한국 측의 유학 박람회·설명회		97	9.7
5) 본국의 교육 관련 정부기관 또는 유관기관		114	11.4
6) 한국의 유학 관련 종합 정보 시스템		99	9.9
7) 인터넷, 브로슈어, 각종 광고		84	8.4
8) 본인이 전공하는 분야에서 유명한 교수		69	6.9
9) 현재 유학하고 있는 대학에 다니는 한국 학생		43	4.3
10) 본국에서 다니던 대학의 국제 업무 담당 부서		50	5.0

한편, 위와 같은 경로를 통해 얻은 한국 유학 정보들이 한국 유학 생활 중에 알게 된 실제 내용과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항목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조사결과 다음 〈표 IV-11〉과 같이 주거 및 숙소 지원이 19.1%로 유학 전·후 가장 차이가 많았던 항목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생활비 및 물가에 관한 정보가 18.4%, 학비 및 생활비 지원 17.5%, 교육과정의 내용 및 질 16.3%, 그리고 대학의 평판도가 13.3%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앞서 제시한 유학대학 선택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교육과정의 우수성이나 대학의 순위 및 평판도는 유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두 개 항목으로 이 부분에서 유학 전·후에 차이를 느낀다는 것은 대학차원에서 좀 더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출입국 및 체류관련 제도와 의료, 건강 및 복지제도는 각각 6.3%와 9.0%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이 두 개 항목은 유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유형으로서 어느 정도의 중요도가 있는지와 함께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표 IV-11〉 유학 전 정보와 유학중 경험한 실제간 격차에 대한 빈도 분석

구분	N	빈도	퍼센트
1) 주거 및 숙소의 지원	993	190	19.1
2) 학비 및 생활비 지원		174	17.5
3) 생활비의 및 물가에 관한 정보		183	18.4
4) 대학의 평판도		132	13.3
5) 교육과정의 내용 및 질		162	16.3
6)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제도		63	6.3
7) 의료, 건강 및 복지 제도		89	9.0

나. 입학 전 유학준비

1) 한국어 공부 방법

입학전 유학준비를 위해 한국어 역량은 유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격이 된다. 유학생들이 한국어 공부를 위한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은 현재 재학 중인 대학의 어학당으로 전체 응답자의 41.0%가 선택했다. 그 다음으로 본국 대학의 어학 프로그램이 21.4%로 나타나 전체 유학생의 62.4%는 대학을 통해 한국어 학습에 대비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 본국의 학원 및 교습소, 유학원의 한국어 프로그램 그리고 지습 및 독학도 한국어 학습 방법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세 가지 방식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학습 방법에 대해 유학생 배경변인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IV-12>와 같다. 한국어 학습 방법의 집단 간 차이에서는 특징적인 현상은 없었으며, 전체적으로 현재 재학하고 있는 대학의 어학당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12> 한국어 학습 방법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

구분		본국의 학원, 교습소	유학원의 한국어 프로그램	본국대학 어학 프로그램	현재 재학 중인 대학어학당	지습 및 독학	전체	χ^2
지역	수도권	53(12.2)	49(11.3)	75(17.3)	189(43.6)	67(15.5)	433(100.0)	21.124***
	비수도권	80(14.7)	75(13.8)	134(24.6)	212(38.9)	44(8.1)	545(100.0)	
성별	남성	62(13.7)	62(13.7)	87(19.2)	190(42.0)	51(11.3)	452(100.0)	2.716
	여성	71(13.5)	62(11.8)	122(23.2)	211(40.1)	60(11.4)	526(100.0)	
출신	아시아	113(13.6)	108(13.0)	188(22.6)	338(40.6)	85(10.2)	832(100.0)	10.822*
	아시아 외	20(13.7)	16(11.0)	21(14.4)	63(43.2)	26(17.8)	146(100.0)	
체류 기간	1년 미만	36(16.5)	19(8.7)	56(25.7)	90(41.3)	17(7.8)	218(100.0)	30.240**
	1~2년 미만	43(15.5)	45(16.2)	57(20.5)	110(39.6)	23(8.3)	278(100.0)	
	2~3년 미만	28(12.9)	35(16.1)	45(20.7)	78(35.9)	31(14.3)	217(100.0)	
	3년 이상	26(9.8)	25(9.4)	51(19.2)	123(46.4)	40(15.1)	265(100.0)	
계열	인문사회	80(12.3)	80(12.3)	147(22.6)	264(40.6)	79(12.2)	650(100.0)	12.725
	이공계	35(15.6)	33(14.7)	50(22.2)	85(37.8)	22(9.8)	225(100.0)	
	기타	18(17.5)	11(10.7)	12(11.7)	52(50.5)	10(9.7)	103(100.0)	

구분		본국의 학원, 교습소	유학원의 한국어 프로그램	본국대학 어학 프로그램	현재 재학 중인 대학어학당	자습 및 독학	전체	χ^2
학년	1-2학기	58(16.0)	41(11.3)	78(21.5)	153(42.3)	32(8.8)	362(100.0)	15.684*
	3-4학기	37(11.3)	51(15.6)	80(24.5)	119(36.4)	40(12.2)	327(100.0)	
	5학기 이상	38(13.1)	32(11.1)	51(17.6)	129(44.6)	39(13.5)	289(100.0)	
유학 형태	자비유학	108(15.2)	99(14.0)	150(21.2)	267(37.7)	85(12.0)	709(100.0)	29.916**
	한국대학 초청	12(11.3)	6(5.7)	30(28.3)	45(42.5)	13(12.3)	106(100.0)	
	한국정부 초청	7(6.2)	16(14.2)	19(16.8)	64(56.6)	7(6.2)	113(100.0)	
	기타	5(11.6)	3(7.0)	8(18.6)	23(53.5)	4(9.3)	43(100.0)	
성적	3.0 미만	16(18.8)	10(11.8)	13(15.3)	35(41.2)	11(12.9)	85(100.0)	19.548
	3.0-3.5 미만	30(14.6)	21(10.2)	39(19.0)	93(45.4)	22(10.7)	205(100.0)	
	3.5-4.0 미만	45(14.4)	53(16.9)	69(22.0)	109(34.8)	37(11.8)	313(100.0)	
	4.0 이상	28(10.4)	28(10.4)	69(25.7)	116(43.3)	27(10.1)	268(100.0)	
전체		133(13.6)	124(12.7)	209(21.4)	401(41.0)	111(11.3)	978(100.0)	

* $p < .05$. ** $p < .01$. *** $p < .001$

이 외에 한국어 학습 방법으로 활용되는 기타 의견에는 부모님 및 친구들과의 대화, 학교 내 생활에서 한국어 사용, 한국 영화와 드라마 시청, 공모전 등의 다양한 대외활동, 스터디 활동, 외국인을 위한 인터넷 강의 등이 제시되었다.

2) 입학 전 단계의 지원

유학생들에게 입학 직전 단계에서 가장 지원이 필요한 항목이 무엇인지 알아본 결과 다음 <표 IV-13>과 같이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항목으로 27.5%가 한국어 교육 및 학습을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 학사 관련 정보 17.0%, 전공이수에 필요한 예비(사전)교육이 14.1%로 나타났다. 이들을 살펴보면 대학에서의 수학을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에 해당된다. 나머지 7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률이 나타났다.

〈표 IV-13〉 입학 전 단계에서 지원이 가장 필요한 항목

구분	N	빈도	퍼센트
1) 각종 학교시설 및 기자재 사용 안내	999	69	6.9
2) 학사 관련 정보 제공		170	17.0
3) 학교생활을 위한 각종 행정 지원 서비스 정보		98	9.8
4) 전공이수에 필요한 예비(사전) 교육		141	14.1
5) 한국어 교육 및 학습		275	27.5
6) 한국 문화 교육 (에티켓, 생활 방식 등)		62	6.2
7) 의료 및 복지 정보 제공		49	4.9
8) 숙소 및 주거 정보 제공		55	5.5
9) 멘토링 및 튜터링 지원		49	4.9
10)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정보 제공		31	3.1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원의 필요성에 비해 실제 지원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위의 10개 항목에 대해 대학에서의 지원 수준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 〈표 IV-14〉는 10개 항목별로 지원 정도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다.

〈표 IV-14〉 입학 전 단계에서 지원 정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구분	N	M	S
1) 각종 학교시설 및 기자재 사용 안내	998	3.39	.873
2) 학사 관련 정보 제공	995	3.53	.898
3) 학교생활을 위한 각종 행정 지원 서비스 정보	995	3.46	.828
4) 전공이수에 필요한 예비(사전) 교육	990	3.41	.894
5) 한국어 교육 및 학습	998	3.71	.929
6) 한국 문화 교육 (에티켓, 생활 방식 등)	995	3.59	.895
7) 의료 및 복지 정보 제공	996	3.38	.945
8) 숙소 및 주거 정보 제공	998	3.54	.899
9) 멘토링 및 튜터링 지원	998	3.47	.948
10)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정보 제공	998	3.55	.925

실제로 지원이 잘 되고 있는 항목은 한국어 교육 및 학습, 한국 문화 교육,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정보 제공 등으로 각각 3.71, 3.59, 3.55 순으로 나타났다. 앞의 〈표 IV-13〉과 비교해보면 유학생들이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항목으로 한국어 교육 및 학습은 실제로 지원이 잘 되고 있는 편이나, 학사관련 정보 제공은 3.53, 전공이수에 필요한 예비(사전) 교육은 3.41로 나타나 필요성 대 실제 지원 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세 개 항목에 대해 유학생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다음 <표 IV-15>를 살펴보면 수도권 보다 비수도권 지역의 유학생들이 한국어 교육 및 학습에 대한 지원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아시아지역 출신 학생들이 아시아 외 지역 학생들보다 지원 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계열에 따라서는 인문사회 계열이 3.73으로 이공계나 기타 계열의 학생보다 한국어 교육 및 학습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자비유학생과 학점이 우수한 학생들의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V-15> 대학의 지원이 높은 항목에 대한 집단 간 평균 비교

구분		한국어 교육 및 학습				한국 문화 교육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정보 제공			
		N	M	S	t/F	N	M	S	t/F	N	M	S	t/F
지역	수도권	441	3.61	.973	-2.927**	439	3.55	.892	-1.386	441	3.59	.939	1.368
	비수도권	557	3.78	.886		556	3.63	.897		557	3.51	.913	
성별	남성	460	3.65	.925	-1.807	457	3.60	.886	.279	460	3.53	.918	-.589
	여성	538	3.76	.931		538	3.58	.904		538	3.57	.932	
출신	아시아	846	3.75	.905	2.833*	844	3.60	.865	.366**	846	3.57	.906	1.283
	아시아 외	152	3.49	1.029		151	3.56	1.049		152	3.46	1.022	
체류 기간	1년 미만	225	3.62	.975	3.906**	223	3.54	.971	6.532***	225	3.50	.892	4.726**
	1~2년 미만	284	3.82	.921		284	3.70	.852		284	3.61	.990	
	2~3년 미만	217	3.79	.877		217	3.71	.829		217	3.70	.815	
	3년 이상	272	3.60	.924		271	3.42	.898		272	3.41	.944	
계열	인문사회	666	3.73	.947	.659	664	3.58	.905	.805	666	3.57	.922	2.805
	이공계	228	3.66	.913		228	3.65	.875		228	3.57	.943	
	기타	104	3.66	.843		103	3.52	.873		104	3.35	.890	
학년	1-2학기	371	3.69	.940	.218	370	3.61	.914	2.925	371	3.56	.929	.103
	3-4학기	332	3.73	.947		331	3.66	.888		332	3.56	.939	
	5학기 이상	295	3.69	.897		294	3.49	.873		295	3.53	.906	
유학 형태	자비유학	720	3.81	.851	10.004***	718	3.67	.841	6.890***	720	3.62	.877	5.997***
	한국대학 초청	112	3.42	1.079		112	3.34	1.009		112	3.39	.914	
	한국정부 초청	115	3.47	1.079		114	3.40	.984		115	3.35	1.147	
	기타	44	3.48	.976		44	3.48	.952		44	3.25	.811	
성적	3.0 미만	85	3.72	.717	.183	83	3.45	.845	2.023	85	3.54	.825	2.388
	3.0-3.5 미만	209	3.69	.910		208	3.55	.809		209	3.54	.860	
	3.5-4.0 미만	319	3.68	.937		319	3.68	.950		319	3.68	.931	
	4.0 이상	274	3.74	.989		274	3.62	.882		274	3.49	.946	

* p<.05. ** p<.01. *** p<.001

다. 재학 중 학업 및 생활

1) 거주지

유학생들의 거주지를 조사해본 결과 56.9%로 가장 많은 비율의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29.7%가 원룸 등 자취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비율이지만 유학생들의 거주지로 학교 제공 숙소, 하숙, 자택 등도 있었으며, 친척 및 친지집을 이용하는 유학생들은 1.2%로 소수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 대상 학생의 86.6% 기숙사 또는 원룸 등 자취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표 IV-16>은 유학생들이 선택하는 거주지에 대해 집단 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집단 별로 나누어 비교해보아도 대체로 기숙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원룸 등 자취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6> 유학생 거주지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

구분		기숙사	학교 제공숙소	원룸 등 자취	하숙	자택	친척 및 친지 집	전체	χ^2
지역	수도권	202(45.8)	27(6.1)	158(35.8)	24(5.4)	22(5.0)	8(1.8)	441(100.0)	50.917***
	비수도권	366(65.7)	28(5.0)	138(24.8)	17(3.1)	4(0.7)	4(0.7)	557(100.0)	
성별	남성	256(55.9)	32(7.0)	131(28.6)	20(4.4)	14(3.1)	5(1.1)	458(100.0)	4.705
	여성	312(57.8)	23(4.3)	165(30.6)	21(3.9)	12(2.2)	7(1.3)	540(100.0)	
출신	아시아	464(54.8)	42(5.0)	270(31.9)	36(4.3)	23(2.7)	11(1.3)	846(100.0)	17.719**
	아시아 외	104(68.4)	13(8.6)	26(17.1)	5(3.3)	3(2.0)	1(0.7)	152(100.0)	
체류 기간	1년 미만	157(70.1)	17(7.6)	37(16.5)	9(4.0)	3(1.3)	1(0.4)	224(100.0)	68.216***
	1~2년 미만	182(63.9)	12(4.2)	75(26.3)	7(2.5)	4(1.4)	5(1.8)	285(100.0)	
	2~3년 미만	107(49.1)	17(7.8)	77(35.3)	7(3.2)	6(2.8)	4(1.8)	218(100.0)	
	3년 이상	122(45.0)	9(3.3)	107(39.5)	18(6.6)	13(4.8)	2(0.7)	271(100.0)	
계열	인문사회	377(56.6)	38(5.7)	194(29.1)	23(3.5)	23(3.5)	11(1.7)	666(100.0)	13.044
	이공계	130(57.0)	11(4.8)	69(30.3)	14(6.1)	3(6.1)	1(0.4)	228(100.0)	
	기타	61(58.7)	6(5.8)	33(31.7)	4(3.8)	0(0.0)	0(0.0)	104(100.0)	
학년	1-2학기	233(62.6)	24(6.5)	89(23.9)	13(3.5)	10(2.7)	3(0.8)	372(100.0)	31.068**
	3-4학기	195(58.9)	21(6.3)	94(28.4)	9(2.7)	6(1.8)	6(1.8)	331(100.0)	
	5학기 이상	140(47.5)	10(3.4)	113(38.3)	19(6.4)	10(3.4)	3(1.0)	295(100.0)	

구분		기숙사	학교 제공숙소	원룸 등 자취	하숙	자택	친척 및 친지 집	전체	χ^2
유학 형태	자비유학	367(50.8)	47(6.5)	243(33.7)	31(4.3)	24(3.3)	10(1.4)	722(100.0)	51.132***
	한국대학 초청	85(75.9)	4(3.6)	18(16.1)	4(3.6)	0(0)	1(0.9)	112(100.0)	
	한국정부 초청	73(64.0)	4(3.5)	30(26.3)	5(4.4)	1(0.9)	1(0.9)	114(100.0)	
	기타	38(88.4)	0(0)	4(9.3)	1(2.3)	0(0)	0(0)	43(100.0)	
성적	3.0 미만	30(35.3)	7(8.2)	44(51.8)	2(2.4)	2(2.4)	0(0)	85(100.0)	50.693***
	3.0-3.5 미만	102(48.8)	4(1.9)	82(39.2)	12(5.7)	7(3.3)	2(1.0)	209(100.0)	
	3.5-4.0 미만	182(56.9)	24(7.5)	85(26.6)	17(5.3)	8(2.5)	4(1.3)	320(100.0)	
	4.0 이상	175(64.3)	18(6.6)	65(23.9)	9(3.3)	2(0.7)	3(1.1)	272(100.0)	
전체		568(56.9)	55(5.5)	296(29.7)	41(4.1)	26(2.6)	12(1.2)	998(100.0)	

* $p < .05$. ** $p < .01$. *** $p < .001$

특히, 아시아 외 지역의 학생들이 기숙사를 활용하는 비율이 68.4%로 아시아 지역 학생 54.8%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체류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원룸 등 자취를 선택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학 형태별로는 보면 한국대학초청학생의 75.9%가 기숙사를 활용하고 있으며, 기타 유형의 유학생들이 이보다 높게 88.4%가 활용하는 것도 특징적인 점이다.

한편, 기숙사 이외에 거주하는 경우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IV-17>과 같다. 전체 조사 대상 중 기숙사 이외에 거주하는 학생들 중 403명이 거주지 선택에 대한 이유에 응답하였다. 기숙사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것은 공동생활의 불편으로 전체의 34.2%가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기숙사의 부족이 25.8%, 기숙사 운영의 엄격성이 22.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숙사 비용이 비싸다는 의견도 10.7%로 나타났으며, 6.9%는 시설의 열악함을 지적하였다.

기숙사 외에 거주하는 이유에 대하여 집단 간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수도권외의 경우 기숙사 부족이 35.1%로 가장 높은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공동생활 불편이 33.7%로 가장 높은 이유로 나타났다. 이는 기숙사 운영에 대한 지역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출신지역 별로도 이와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다. 아시아 지역 학생들은 공동생활 불편이 34.3%로 나타난 반면 아시아 외 지역의 학생들은 기숙사 부족에 36.6%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또한, 한국 대학 초청 유학생의 경우 기숙사가 엄격해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28.0%로 가장 높게

나타난 점과, 성적이 3.0 미만의 집단에서는 39.6%가 기숙사의 엄격성을 거주지 이전의 가장 큰 이유로 응답한 점도 특징적이다.

그 외에 기숙사를 나오는 이유로 음식, 자유공간 필요, 동거인이 있으므로, 학기마다 신청해야하고 학기가 끝날 때 마다 옮겨야하는 불편함이 싫어서, 공간이 좁아서 등도 제시되었다.

〈표 IV-17〉 기숙사 외에 거주하는 이유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

구분		기숙사 부족	기숙사가 너무 엄격해서	공동생활 불편	시설이 열악해서	비용이 비싸서	전체	χ^2
지역	수도권	78(35.1)	40(18.0)	77(34.7)	9(4.1)	18(8.1)	222(100.0)	29.815 ***
	비수도권	26(14.4)	50(27.6)	61(33.7)	19(10.5)	25(13.8)	181(100.0)	
성별	남성	51(27.4)	44(23.7)	62(33.3)	12(6.5)	17(9.1)	186(100.0)	1.583
	여성	53(24.4)	46(21.2)	76(35.0)	16(7.4)	26(12.0)	217(100.0)	
출신	아시아	88(24.5)	82(22.8)	123(34.3)	26(7.2)	40(11.1)	359(100.0)	3.612
	아시아 외	16(36.6)	8(18.2)	15(34.1)	2(4.5)	3(6.8)	44(100.0)	
체류 기간	1년 미만	21(32.8)	9(14.1)	27(42.2)	1(1.6)	6(9.4)	64(100.0)	22.411 *
	1~2년 미만	16(16.7)	21(21.9)	37(38.5)	10(10.4)	12(12.5)	96(100.0)	
	2~3년 미만	36(34.6)	20(19.2)	34(32.7)	6(5.8)	8(7.7)	104(100.0)	
	3년 이상	31(22.3)	40(28.8)	40(28.8)	11(7.9)	17(12.2)	139(100.0)	
계열	인문사회	71(26.1)	61(22.4)	99(36.4)	14(5.1)	27(9.9)	272(100.0)	16.402 *
	이공계	27(30.0)	23(25.6)	25(27.8)	7(7.8)	8(8.9)	90(100.0)	
	기타	6(14.6)	6(14.6)	14(34.1)	7(17.1)	8(19.5)	41(100.0)	
학년	1-2학기	37(28.9)	20(15.6)	48(37.5)	13(10.2)	10(7.8)	128(100.0)	12.948
	3-4학기	35(26.9)	36(27.7)	37(28.5)	5(3.8)	17(13.1)	130(100.0)	
	5학기 이상	32(22.1)	34(23.4)	53(36.6)	10(6.9)	16(11.0)	145(100.0)	
유학 형태	자비유학	92(27.4)	74(22.0)	117(34.8)	17(5.1)	36(10.7)	336(100.0)	16.779
	한국대학 초청	4(16.0)	7(28.0)	6(24.0)	5(20.0)	3(12.0)	25(100.0)	
	한국정부 초청	5(14.3)	8(22.9)	13(37.1)	5(14.3)	4(11.4)	35(100.0)	
	기타	1(20.0)	1(20.0)	2(40.0)	1(20.0)	0(0)	5(100.0)	
성적	3.0 미만	12(22.6)	21(39.6)	16(30.2)	1(1.9)	3(5.7)	53(100.0)	39.017 ***
	3.0-3.5 미만	19(18.1)	24(22.9)	48(45.7)	7(6.7)	7(6.7)	105(100.0)	
	3.5-4.0 미만	50(38.5)	20(15.4)	39(30.0)	7(5.4)	14(10.8)	130(100.0)	
	4.0 이상	19(21.8)	20(23.0)	23(26.4)	11(12.6)	14(16.1)	87(100.0)	
전체		104(25.8)	90(22.3)	138(34.2)	28(6.9)	43(10.7)	403(100.0)	

* $p < .05$. ** $p < .01$. *** $p < .001$

2) 유학비용 및 생활비

한국에서 유학생생활을 위해 본국에서 1년 동안 송금되는 총액을 알아보았다. 여기에는 자국에서 본인 또는 소속대학으로 지급되는 각종 장학금 및 지원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조사결과 1,000만원 미만인 32.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이 30.1%로 나타났다.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은 22.8%, 2,000만원 이상은 14.7%로 나타났다.

유학비용에 대해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 IV-18>과 같다. 수도권인 경우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이 30.6%로 가장 높은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1,000만원 미만이 36.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지역간 차이를 반영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18> 유학비용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

구분		1,000만 원 미만	1,000~1,500만 원 미만	1,500~2,000만 원 미만	2,000만 원 이상	전체	χ^2
지역	수도권	121(27.8)	96(22.1)	133(30.6)	85(19.5)	435(100.0)	54.206***
	비수도권	200(36.0)	202(36.3)	93(16.7)	61(11.0)	556(100.0)	
성별	남성	158(34.6)	135(29.6)	97(21.3)	66(14.5)	456(100.0)	2.229
	여성	163(30.5)	163(30.5)	129(24.1)	80(15.0)	535(100.0)	
출신	아시아	226(31.6)	263(31.3)	200(23.8)	112(13.3)	841(100.0)	13.538**
	아시아 외	55(36.7)	35(23.3)	26(17.3)	34(27.7)	150(100.0)	
체류 기간	1년 미만	70(31.5)	68(30.6)	45(20.3)	39(17.6)	222(100.0)	23.631**
	1~2년 미만	83(29.3)	102(36.0)	61(21.6)	37(13.1)	283(100.0)	
	2~3년 미만	57(26.3)	67(30.9)	61(28.1)	32(14.7)	271(100.0)	
	3년 이상	111(41.3)	61(22.7)	59(21.9)	38(14.1)	269(100.0)	
계열	인문사회	198(30.0)	203(30.8)	160(24.2)	99(15.0)	660(100.0)	7.309
	이공계	84(36.8)	67(29.4)	48(21.1)	29(12.7)	228(100.0)	
	기타	39(37.9)	28(27.2)	18(17.5)	18(17.5)	103(100.0)	
학년	1-2학기	124(33.8)	118(32.2)	73(19.9)	52(14.2)	367(100.0)	13.616*
	3-4학기	86(26.0)	105(31.7)	87(26.3)	53(16.0)	331(100.0)	
	5학기 이상	111(37.9)	75(25.6)	66(22.5)	41(14.0)	293(100.0)	
유학 형태	자비유학	185(25.7)	242(33.7)	186(25.9)	106(14.7)	719(100.0)	67.215***
	한국대학 초청	51(45.5)	23(20.5)	13(16.6)	25(22.3)	112(100.0)	
	한국정부 초청	56(50.9)	24(21.8)	21(19.1)	9(8.2)	110(100.0)	
	기타	25(58.1)	8(18.6)	5(11.6)	5(14.7)	43(100.0)	

구분		1,000만 원 미만	1,000~1,500만 원 미만	1,500~2,000만 원 미만	2,000만 원 이상	전체	χ^2
성적	3.0 미만	17(20.0)	38(44.7)	20(23.5)	10(11.8)	85(100.0)	31.669***
	3.0-3.5 미만	63(30.6)	61(29.6)	49(23.8)	33(16.0)	206(100.0)	
	3.5-4.0 미만	89(27.9)	94(29.5)	90(28.2)	46(14.4)	319(100.0)	
	4.0 이상	117(43.0)	69(25.4)	48(17.6)	38(14.0)	272(100.0)	
전체		321(32.4)	298(30.1)	226(22.8)	146(14.7)	991(100.0)	

* p<.05. ** p<.01. *** p<.001

체류기간이나 학년에 따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체류 1-3년, 학년으로는 3-4학기에 해당하는 집단에서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을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는 대부분이 1,000만원 미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 형태별로는 역시 자비유학이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에 33.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나머지 유형은 1,000만원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학비용과 함께 생활비 역시 유학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월세 및 숙소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해 유학생들이 한 달 생활비로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다음 <표 IV-19>와 같다.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0.9%가 40~60만원 정도를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27.2%가 이보다 많은 60~80만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만원 미만이 13.4%, 80~100만원 미만이 12.5%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100만원 이상은 6.0%로 나타났다.

생활비 사용에 있어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IV-19>와 같다. 특징적인 점은 수도권에 재학하는 유학생들은 60~80만원을 사용한다는 비율이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비수도권은 40~60만원을 사용한다는 비율이 50.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지역간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유학 형태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유형의 학생들이 40~60만원 정도 생활비를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한국 정부 초청 유학생의 경우 60~80만원을 사용한다는 비율이 2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부 초청 유학생의 경우 학비 지원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V-19〉 생활비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

구분		40만 원 미만	40~60만 원	60~80만 원	80~100만 원	100만 원 이상	전체	χ^2
지역	수도권	22(5.0)	127(28.7)	167(37.7)	83(18.7)	44(9.9)	443(100.0)	148.773***
	비수도권	112(20.1)	282(50.6)	105(18.9)	42(7.5)	16(2.9)	557(100.0)	
성별	남성	74(16.1)	174(37.8)	121(26.3)	58(12.6)	33(7.2)	460(100.0)	8.773
	여성	60(11.1)	235(43.5)	151(28.0)	67(12.4)	27(5.0)	540(100.0)	
출신	아시아	117(13.8)	360(42.5)	227(26.8)	97(11.5)	46(5.4)	847(100.0)	12.359*
	아시아 외	17(11.1)	49(32.0)	45(29.4)	28(18.3)	14(9.2)	153(100.0)	
체류 기간	1년 미만	47(20.9)	86(38.2)	60(26.7)	21(9.3)	11(4.9)	225(100.0)	33.000**
	1~2년 미만	38(13.3)	131(46.0)	70(24.6)	34(11.9)	12(4.2)	285(100.0)	
	2~3년 미만	20(9.2)	96(44.0)	65(29.8)	26(11.9)	11(5.0)	218(100.0)	
	3년 이상	29(10.7)	96(35.3)	77(28.3)	44(16.2)	26(9.6)	272(100.0)	
계열	인문사회	80(12.0)	287(43.0)	177(26.5)	90(13.5)	34(5.1)	668(100.0)	20.782**
	이공계	44(19.3)	86(37.7)	63(27.6)	17(7.5)	18(7.9)	228(100.0)	
	기타	10(9.6)	36(34.6)	32(30.8)	18(17.3)	8(7.7)	104(100.0)	
학년	1-2학기	52(14.0)	142(38.2)	109(29.3)	56(15.1)	13(3.5)	372(100.0)	23.561**
	3-4학기	48(14.4)	146(43.8)	92(27.6)	31(9.3)	16(4.8)	333(100.0)	
	5학기 이상	34(11.5)	121(41.0)	71(24.1)	38(12.9)	31(10.5)	295(100.0)	
유학 형태	자비유학	88(12.2)	316(43.8)	201(27.8)	81(11.2)	36(5.0)	722(100.0)	37.020***
	한국대학 초청	24(21.4)	44(39.3)	27(24.1)	9(8.0)	8(7.1)	112(100.0)	
	한국정부 초청	13(11.3)	30(26.1)	32(27.8)	28(24.3)	12(10.4)	115(100.0)	
	기타	8(18.2)	18(40.9)	10(22.7)	6(13.6)	2(4.5)	44(100.0)	
성적	3.0 미만	10(11.8)	32(37.6)	22(25.9)	12(14.1)	9(10.6)	85(100.0)	15.182
	3.0-3.5 미만	34(16.3)	79(37.8)	60(28.7)	29(13.9)	7(13.9)	209(100.0)	
	3.5-4.0 미만	33(10.3)	140(43.8)	93(29.1)	40(12.5)	14(12.5)	320(100.0)	
	4.0 이상	41(15.0)	121(44.2)	66(24.1)	31(11.3)	15(5.5)	274(100.0)	
전체		134(13.4)	409(40.9)	272(27.2)	125(12.5)	60(6.0)	1,000(100.0)	

* p<.05. ** p<.01. *** p<.001

3) 직업 활동

직업 활동은 유학 생활 중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부족한 유학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유학생들에게 매우 필요한 항목이기도 하다. 현재 학업 이외에 참여하고 있는 직업 활동을 알아본 56.5%는 직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44.5%는 교내·외 다양한 직업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활동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경우는 교외 시간제 활동으로 전체 조사대상의 21.7%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교내 시간제 근무는 9.2%로 나타났다. 교외 전일제 근무를 하는 학생도 8.7%로 나타나 직업 활동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직업 활동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분석 결과 다음 <표 IV-20>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적인 점을 찾아볼 수 있다.

<표 IV-20> 직업 활동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

구분		교내 시간제	교내 전일제	교외 시간제	교외 전일제	하지 않음	전체	χ^2
지역	수도권	33(7.4)	18(4.1)	112(25.3)	32(7.2)	248(56.0)	443(100.0)	9.438
	비수도권	59(10.6)	21(3.8)	105(18.9)	55(9.9)	317(56.9)	557(100.0)	
성별	남성	41(8.9)	21(4.6)	94(20.4)	40(8.7)	264(57.4)	460(100.0)	1.791
	여성	51(9.4)	18(3.3)	123(22.8)	47(8.7)	301(55.7)	540(100.0)	
출신	아시아	83(9.8)	38(4.5)	195(23.0)	83(9.8)	448(52.9)	847(100.0)	31.994***
	아시아 외	9(5.9)	1(0.7)	22(14.4)	4(2.6)	117(76.5)	153(100.0)	
체류 기간	1년 미만	14(6.2)	10(4.4)	27(12.0)	9(4.0)	165(73.3)	225(100.0)	86.502***
	1~2년 미만	17(6.0)	6(2.1)	61(21.4)	32(11.2)	169(59.3)	285(100.0)	
	2~3년 미만	22(10.1)	6(2.8)	52(23.9)	36(16.5)	102(46.8)	218(100.0)	
	3년 이상	39(14.3)	17(6.3)	77(28.3)	10(3.7)	129(47.4)	272(100.0)	
계열	인문사회	71(10.6)	22(3.3)	167(25.0)	63(9.4)	345(51.6)	668(100.0)	38.340***
	이공계	18(7.9)	15(6.6)	34(14.9)	21(9.2)	140(61.4)	228(100.0)	
	기타	3(2.9)	2(1.9)	16(15.4)	3(2.9)	80(76.9)	104(100.0)	
학년	1-2학기	18(4.8)	11(3.0)	62(16.7)	29(7.8)	252(67.7)	372(100.0)	45.919***
	3-4학기	33(9.9)	16(4.8)	69(20.7)	35(10.5)	180(54.1)	333(100.0)	
	5학기 이상	41(13.9)	12(4.1)	86(29.2)	23(7.8)	133(45.1)	295(100.0)	
유학 형태	자비유학	68(9.4)	26(3.6)	185(25.6)	79(10.9)	364(50.4)	722(100.0)	57.233***
	한국대학 초청	12(10.7)	8(7.1)	13(11.6)	1(0.9)	78(69.6)	112(100.0)	
	한국정부 초청	8(7.0)	5(4.3)	12(10.4)	6(5.2)	84(73.0)	115(100.0)	
	기타	3(6.8)	0(0)	6(13.6)	1(2.3)	34(77.3)	44(100.0)	
성적	3.0 미만	10(11.8)	3(3.5)	28(32.9)	4(4.7)	40(47.1)	85(100.0)	64.277***
	3.0-3.5 미만	25(12.0)	3(1.4)	72(34.4)	9(4.3)	100(47.8)	209(100.0)	
	3.5-4.0 미만	19(5.9)	12(3.8)	56(17.5)	48(15.0)	185(57.8)	320(100.0)	
	4.0 이상	26(9.5)	18(6.6)	42(15.3)	24(8.8)	164(59.9)	274(100.0)	
전체		92(9.2)	39(3.9)	217(21.7)	87(8.7)	565(56.5)	1000(100.0)	

* p<.05. ** p<.01. *** p<.001

아시아 지역의 유학생들은 47.1%가 직업활동 경험을 갖는 반면 아시아 외 지역의 유학생들은 23.5%에 그쳐 출신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직업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같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학 형태별로 한국정부 초청 유학생 및 기타 유형의 유학생들은 직업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20%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자비유학생들은 49.6%, 한국 대학 초청 유학생은 31.4%가 직업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교내 및 교외 시간제 직업 활동에 참여하고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주일 평균 몇 시간 정도 직업 활동에 할애하고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교내 시간제 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33.7%가 5시간미만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시간이상~10시간미만 31.5%, 10시간이상~15시간미만은 15.2%로 나타났다. 한편, 교외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는 유학생의 경우 5시간이상~10시간미만이 31.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5시간미만 30.1%, 10시간이상~15시간미만 18.8%, 15시간이상~20시간미만 10.9%로 대체로 교내 시간제 근무에 참여하는 유학생 보다는 직업 활동에 비교적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V-21〉 직업 활동에 유형별 참여시간에 대한 빈도 분석

	5시간 미만	5시간이상~10시간미만	10시간이상~15시간미만	15시간이상~20시간미만	20시간 이상	전체
교내 시간제	31(33.7)	29(31.5)	14(15.2)	10(10.9)	8(8.7)	92(100.0)
교외 시간제	69(30.1)	73(31.9)	43(18.8)	25(10.9)	19(8.3)	229(100.0)

교내 시간제 근로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집단별로 분석하면 다음 〈표 IV-22〉와 같다.

〈표 IV-22〉 교내 시간제 직업 활동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

구분		5시간 미만	5시간~10시간미만	10시간~15시간미만	15시간~20시간미만	20시간 이상	전체	χ^2
지역	수도권	9(27.3)	11(33.3)	5(15.2)	4(12.1)	4(12.1)	33(100.0)	1.452
	비수도권	22(37.3)	18(30.5)	9(15.3)	6(10.2)	4(6.8)	59(100.0)	
성별	남성	16(39.0)	9(22.0)	7(17.1)	5(12.2)	4(9.8)	41(100.0)	3.155
	여성	15(29.4)	20(39.2)	7(13.7)	5(9.8)	4(7.8)	51(100.0)	
출신	아시아	28(33.7)	27(32.5)	10(12.0)	10(12.0)	8(9.6)	83(100.0)	7.826
	아시아 외	3(33.3)	2(22.2)	4(44.4)	0(0)	0(0)	9(100.0)	

구분		5시간 미만	5시간~10시간미만	10시간~15시간미만	15시간~20시간미만	20시간 이상	전체	χ^2
체류 기간	1년 미만	5(35.7)	4(28.6)	1(7.1)	3(21.4)	1(7.1)	14(100.0)	6.921
	1~2년 미만	6(35.3)	5(29.4)	3(17.6)	1(5.9)	2(11.8)	17(100.0)	
	2~3년 미만	7(31.8)	6(27.3)	6(27.3)	1(4.5)	2(9.1)	22(100.0)	
	3년 이상	13(33.3)	14(35.9)	4(10.3)	5(12.8)	3(7.7)	39(100.0)	
계열	인문사회	22(31.0)	24(33.8)	11(15.5)	10(14.1)	4(5.6)	71(100.0)	17.838*
	이공계	8(44.4)	5(27.8)	3(16.7)	0(0)	2(11.1)	18(100.0)	
	기타	1(33.3)	0(0)	0(0)	0(0)	2(66.7)	3(100.0)	
학년	1-2학기	6(33.3)	4(22.2)	2(11.1)	4(22.2)	2(11.1)	18(100.0)	5.418
	3-4학기	12(36.4)	11(33.3)	6(18.2)	1(3.0)	3(9.1)	33(100.0)	
	5학기 이상	13(31.7)	14(34.1)	6(14.6)	5(12.2)	3(7.3)	41(100.0)	
유학 형태	자비유학	24(35.3)	22(32.4)	10(14.7)	6(8.8)	6(8.8)	68(100.0)	11.995
	한국대학 초청	4(33.3)	3(25.0)	2(16.7)	3(25.0)	0(0)	12(100.0)	
	한국정부 초청	1(12.5)	4(50.0)	2(25.0)	1(12.5)	0(0)	8(100.0)	
	기타	2(66.7)	0(0)	0(0)	0(0)	1(33.3)	3(100.0)	
성적	3.0 미만	2(20.0)	5(50.0)	0(0)	2(20.0)	1(10.0)	10(100.0)	25.343*
	3.0-3.5 미만	6(24.0)	5(20.0)	9(36.0)	1(4.0)	4(16.0)	25(100.0)	
	3.5-4.0 미만	8(42.1)	9(47.4)	0(0)	2(10.5)	0(0)	19(100.0)	
	4.0 이상	13(50.0)	5(19.2)	3(11.5)	2(7.7)	3(11.5)	26(100.0)	
전체		31(33.7)	29(31.5)	14(15.2)	10(10.9)	8(8.7)	92(100.0)	

* p<.05. ** p<.01, *** p<.001

수도권 지역 유학생들은 5시간이상~10시간미만이 33.3%로 가장 높은 반면 비수도권 지역 유학생들은 5시간미만이 37.3%로 가장 높아 수도권 지역 학생들이 직업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의 경우 39.0%가 5시간 미만으로 직업활동을 하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39.2%가 5시간이상~10시간미만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남성보다는 여성의 활동 시간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체류 기간에서는 3년 이상 되는 집단이 5시간이상~10시간미만에 35.9%가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집단은 5시간 미만에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냈다.

계열별로는 이공계 학생의 경우 44.4%가 5시간미만 활동하는 것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은 33.8%로 가장 많은 비율이 5시간이상~10시간미만 정도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형태별로는 대부분이 5시간미만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한국정부 초청 유학생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인 50.0%가 5시간이상~10시간미만으로 직업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에 따라서는 3.0미만으로 성적이 낮은 집단에서는 5시간이상~10시간미만으로 직업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고 성적이 높을수록 직업 활동 시간이 5시간미만으로 조사되어 직업 활동과 성적과의 관계를 뚜렷이 나타냈다.

〈표 IV-23〉 교외 시간제 직업 활동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

구분		5시간 미만	5시간~10시간미만	10시간~15시간미만	15시간~20시간미만	20시간 이상	전체	χ^2
지역	수도권	29(24.0)	39(32.2)	29(24.0)	13(10.7)	11(9.1)	121(100.0)	7.127
	비수도권	40(37.0)	34(31.5)	14(13.0)	12(11.1)	8(7.4)	108(100.0)	
성별	남성	25(25.8)	34(35.1)	20(20.6)	9(9.3)	9(9.3)	97(100.0)	2.505
	여성	44(33.3)	39(29.5)	23(17.4)	16(12.1)	10(7.6)	132(100.0)	
출신	아시아	61(29.3)	68(32.7)	38(18.3)	23(11.1)	18(8.7)	208(100.0)	1.660
	아시아 외	8(38.1)	5(23.8)	5(23.8)	2(9.5)	1(4.8)	21(100.0)	
체류 기간	1년 미만	11(39.9)	7(24.1)	5(17.2)	4(13.8)	2(6.9)	29(100.0)	5.103
	1~2년 미만	16(2.54)	24(38.1)	12(19.0)	7(11.1)	4(6.3)	63(100.0)	
	2~3년 미만	18(34.0)	15(28.3)	9(17.0)	7(13.2)	4(7.5)	53(100.0)	
	3년 이상	24(28.6)	27(32.1)	17(20.2)	7(8.3)	9(10.7)	84(100.0)	
계열	인문사회	57(31.8)	56(31.3)	34(19.0)	17(9.5)	15(8.4)	179(100.0)	7.936
	이공계	8(23.5)	10(29.4)	9(26.5)	5(14.7)	2(5.9)	34(100.0)	
	기타	4(25.0)	7(43.8)	0(0)	3(18.8)	2(12.5)	16(100.0)	
학년	1-2학기	16(24.6)	23(35.4)	14(21.5)	7(10.8)	5(7.7)	65(100.0)	4.691
	3-4학기	25(34.7)	22(30.6)	11(15.3)	10(13.9)	4(5.6)	72(100.0)	
	5학기 이상	28(30.4)	28(30.4)	18(19.6)	8(8.7)	10(10.9)	92(100.0)	
유학 형태	자비유학	55(28.4)	61(31.4)	37(19.1)	22(11.3)	19(9.8)	194(100.0)	7.984
	한국대학 초청	7(43.8)	5(31.5)	2(12.5)	2(12.5)	0(0)	16(100.0)	
	한국정부 초청	4(33.3)	5(41.7)	2(16.7)	1(8.3)	0(0)	12(100.0)	
	기타	3(50.0)	1(16.7)	2(33.3)	0(0)	0(0)	6(100.0)	
성적	3.0 미만	5(17.2)	9(31.0)	9(31.0)	3(10.3)	3(10.3)	29(100.0)	7.944
	3.0-3.5 미만	23(31.9)	27(37.5)	11(15.3)	7(9.7)	4(5.6)	72(100.0)	
	3.5-4.0 미만	18(29.5)	20(32.8)	11(18.0)	8(13.1)	4(6.6)	61(100.0)	
	4.0 이상	16(34.8)	11(23.9)	9(19.6)	7(15.2)	3(6.5)	46(100.0)	
전체		69(30.1)	73(31.9)	43(18.8)	25(10.9)	19(8.3)	229(100.0)	

* $p < .05$. ** $p < .01$. *** $p < .001$

교외 시간제 직업 활동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결과 수도권 학생들이 비수도권 학생들보다 5시간~10시간미만으로 활동하는 학생들이 더 많았고, 남성이 여성보다 5시간~10시간미만으로 활동하는 비율이 높았다. 아시아 지역 학생들은 5시간~10시간미만으로 활동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아시아 외 지역의 학생들은 5시간미만으로 활동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체류기간에서는 1-2년 미만과 3년 이상 집단이 직업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으며, 계열에 따른 분석에서는 기타 계열 학생들의 43.8%가 5시간~10시간미만으로 직업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자비유학생과 한국정부 초청 유학생의 경우 교외 직업 활동으로 가장 많이 할애하는 시간이 5시간~10시간미만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대학 초청 유학생은 5시간미만으로 나타났다.

4) 학습 및 수업

유학생들의 수업 및 학습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연습·복습 및 과제수행에 할애하는 시간을 알아보았으며, 수업에 대한 이해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유학생들은 연습·복습을 위해서 일주일 평균 5시간~10시간미만 정도 할애하는 비율이 2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5시간미만으로 21.0%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를 조사한 결과 특별한 특징을 나타내는 집단은 없었으며 대체로 5시간~10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과제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일주일 평균 시간으로는 5시간~10시간미만이 2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10시간~15시간 미만이 22.5%로 나타났다. 그리고 20시간 이상 필요하다는 비율도 18.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연습·복습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보다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집단 간 차이를 보면 수도권 지역의 유학생들은 20시간 이상 과제수행을 한다는 응답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나 과제수행시간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5시간~10시간미만이 33.6%로 가장 높아 지역 간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표 IV-24〉 일주일 평균 연습·복습 시간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

구분		5시간 미만	5시간~10시간미만	10시간~15시간미만	15시간~20시간미만	20시간 이상	전체	χ^2
지역	수도권	79(18.5)	96(22.4)	73(17.1)	97(22.7)	83(19.4)	428(100.0)	45.821 ***
	비수도권	126(23.0)	187(34.2)	112(20.5)	62(11.3)	60(11.0)	547(100.0)	
성별	남성	89(19.9)	111(24.8)	87(19.4)	90(20.1)	71(15.8)	448(100.0)	13.829 **
	여성	116(22.0)	172(32.6)	98(18.6)	69(13.1)	72(13.7)	527(100.0)	
출신	아시아	186(22.4)	246(29.7)	149(18.0)	125(15.1)	123(14.8)	829(100.0)	14.208 **
	아시아 외	19(13.0)	37(25.3)	36(24.7)	34(23.3)	20(13.7)	146(100.0)	
체류 기간	1년 미만	42(18.8)	79(35.3)	36(16.1)	33(14.7)	34(15.2)	224(100.0)	19.480
	1~2년 미만	67(24.2)	85(30.7)	47(17.0)	35(12.6)	43(15.5)	277(100.0)	
	2~3년 미만	45(21.1)	55(25.8)	47(22.1)	43(20.2)	23(10.8)	213(100.0)	
	3년 이상	51(19.5)	64(24.5)	55(21.1)	48(18.4)	43(16.5)	261(100.0)	
계열	인문사회	142(21.9)	201(31.0)	131(20.2)	99(15.3)	76(11.7)	649(100.0)	26.156 **
	이공계	42(18.9)	46(20.7)	41(18.5)	46(20.7)	47(21.2)	222(100.0)	
	기타	21(20.2)	36(34.6)	13(12.5)	14(13.5)	20(19.2)	104(100.0)	
학년	1-2학기	74(20.1)	107(29.1)	67(18.2)	57(15.5)	63(17.1)	368(100.0)	9.111
	3-4학기	70(21.9)	96(30.0)	55(17.2)	62(19.4)	37(11.6)	320(100.0)	
	5학기 이상	61(21.3)	80(27.9)	63(22.0)	40(13.9)	43(15.0)	287(100.0)	
유학 형태	자비유학	159(22.5)	212(29.9)	117(16.5)	122(17.2)	98(13.8)	708(100.0)	25.760 *
	한국대학 초청	25(22.7)	31(28.2)	22(20.0)	14(12.7)	18(16.4)	110(100.0)	
	한국정부 초청	11(10.0)	28(25.5)	31(28.2)	20(18.2)	20(18.2)	110(100.0)	
	기타	9(22.0)	9(22.0)	14(34.1)	3(7.3)	6(14.6)	41(100.0)	
성적	3.0 미만	19(22.6)	29(34.5)	20(23.8)	8(9.5)	8(9.5)	84(100.0)	23.439 *
	3.0-3.5 미만	52(25.5)	59(28.9)	40(19.6)	30(14.7)	23(11.3)	204(100.0)	
	3.5-4.0 미만	68(21.7)	91(29.1)	54(17.3)	62(19.8)	38(12.1)	313(100.0)	
	4.0 이상	47(17.5)	71(26.4)	53(19.7)	42(15.6)	56(20.8)	269(100.0)	
전체		205(21.0)	283(29.0)	185(19.0)	159(16.3)	143(14.7)	975(100.0)	

* p<.05. ** p<.01. *** p<.001

한편, 계열에 따라서는 기타계열 학생들이 10시간~15시간 미만에 30.1%의 응답을 나타내 비교적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한국대학 초청 유학생과 기타 유형의 유학생들 역시 10시간~15시간 미만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성적은 3.0 미만의 낮은 집단에서 10시간~15

시간 미만에 30.9%의 응답을 나타내 이보다 높은 성적에 해당하는 집단에서 5시간~10시간 미만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IV-25〉 일주일 평균 과제수행 시간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

구 분		5시간 미만	5시간~10시간미만	10시간~15시간미만	15시간~20시간미만	20시간 이상	전체	χ^2
지역	수도권	57(13.8)	84(20.4)	80(19.4)	73(17.7)	118(28.6)	412(100.0)	83.477 ***
	비수도권	121(22.1)	184(33.6)	136(24.9)	49(9.0)	57(10.4)	547(100.0)	
성별	남성	85(19.1)	114(25.7)	98(22.1)	64(14.4)	83(18.7)	444(100.0)	3.703
	여성	93(18.1)	154(29.9)	118(22.9)	58(11.3)	92(17.9)	515(100.0)	
출신	아시아	155(19.0)	227(27.9)	187(23.0)	96(11.8)	149(18.3)	814(100.0)	4.814
	아시아 외	23(15.9)	41(28.3)	29(20.0)	26(17.9)	26(17.9)	145(100.0)	
체류 기간	1년 미만	40(18.2)	67(30.5)	46(20.9)	30(13.6)	37(16.8)	220(100.0)	7.706
	1~2년 미만	57(21.0)	77(28.3)	59(21.7)	27(9.9)	52(19.1)	272(100.0)	
	2~3년 미만	38(18.0)	49(23.2)	54(25.6)	30(14.2)	40(19.0)	211(100.0)	
	3년 이상	43(16.8)	75(29.3)	57(22.3)	35(13.7)	46(18.0)	256(100.0)	
계열	인문사회	116(18.2)	198(31.1)	144(22.6)	80(12.6)	98(15.4)	636(100.0)	25.131 **
	이공계	49(22.3)	44(20.0)	41(18.6)	32(14.5)	54(24.5)	220(100.0)	
	기타	13(12.6)	26(25.2)	31(30.1)	10(9.7)	23(22.3)	103(100.0)	
학년	1-2학기	66(18.3)	97(26.9)	74(20.6)	44(12.2)	79(21.9)	360(100.0)	6.946
	3-4학기	59(18.6)	90(28.3)	72(22.6)	41(12.9)	56(17.6)	318(100.0)	
	5학기 이상	53(18.9)	81(28.8)	70(24.9)	37(13.2)	40(14.2)	281(100.0)	
유학 형태	자비유학	139(19.9)	202(28.9)	146(20.9)	82(11.7)	130(18.6)	699(100.0)	24.490 *
	한국대학 초청	23(20.9)	27(24.5)	30(27.3)	13(11.8)	17(15.5)	110(100.0)	
	한국정부 초청	9(8.6)	27(25.7)	26(24.8)	24(22.9)	19(18.1)	105(100.0)	
	기타	7(17.9)	7(17.9)	14(35.9)	3(7.7)	8(20.5)	39(100.0)	
성적	3.0 미만	17(21.0)	24(29.6)	25(30.9)	6(7.4)	9(11.1)	81(100.0)	23.985 *
	3.0-3.5 미만	42(21.0)	63(31.5)	45(22.5)	27(13.5)	23(11.5)	200(100.0)	
	3.5-4.0 미만	60(19.5)	78(25.4)	64(20.8)	43(14.0)	62(20.2)	307(100.0)	
	4.0 이상	37(13.9)	78(29.2)	63(23.6)	27(10.1)	62(23.2)	267(100.0)	
전체		178(18.6)	268(27.9)	216(22.5)	122(12.7)	175(18.2)	959(100.0)	

* p<.05. ** p<.01. *** p<.001

수업의 이해도를 세분화 시켜 조사하기 위해 한국어 강의 이해도와 영어강의 이해정도를 분리하여 조사하였다. 한국어 강의 이해정도는 60~80% 미만 이해도에 28.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40~60% 미만 정도 이해한다는 비율이 25.8%로 나타났다.

집단별 차이 분석결과 특징적인 것은 남성보다는 여성의 한국어 강의 이해도가 좀 더 높아 남성은 40~60%미만에 27.0%로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여성은 60~80% 미만에 31.0%가 응답하였다. 또한 아시아 지역 유학생의 이해도 역시 60~80% 미만이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시아 외 지역에서는 이보다 낮은 40~60%미만에 22.8%가 응답하였다.

체류기간이 높을수록 강의 이해도가 높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조사결과 1년이 넘을 경우는 대체로 60~80% 미만 정도 이해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에 따라서는 인문사회 계열이 이공계보다 수업 이해도가 약간 높았다. 한국대학 초청 유학생의 경우 20% 미만에 29.7%가 응답하여 집단 간 차이 검증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이해도를 나타냈고, 성적이 높을수록 강의 이해도 역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V-26〉 한국어 강의 이해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

구분		20% 미만	20~40% 미만	40~60% 미만	60~80% 미만	80% 이상	전체	χ^2
지역	수도권	47(10.7)	60(13.7)	118(26.9)	135(30.8)	78(17.8)	438(100.0)	12.110*
	비수도권	60(10.8)	123(22.1)	138(24.8)	151(27.2)	84(15.1)	556(100.0)	
성별	남성	63(13.8)	94(20.7)	123(27.0)	119(26.2)	56(12.3)	455(100.0)	20.436***
	여성	44(8.2)	89(16.5)	133(24.7)	167(31.0)	106(19.7)	539(100.0)	
출신	아시아	78(9.2)	142(16.8)	222(26.3)	253(29.9)	150(17.8)	845(100.0)	30.784***
	아시아 외	29(19.5)	41(27.5)	34(22.8)	33(22.1)	12(8.1)	149(100.0)	
체류 기간	1년 미만	39(17.6)	61(27.5)	59(26.6)	38(17.1)	25(11.3)	222(100.0)	56.787***
	1~2년 미만	28(9.9)	55(19.5)	63(22.3)	93(33.0)	43(15.2)	282(100.0)	
	2~3년 미만	17(7.8)	35(16.1)	58(26.6)	75(34.4)	33(15.1)	218(100.0)	
	3년 이상	23(8.5)	32(11.8)	76(27.9)	80(29.4)	61(22.4)	272(100.0)	
계열	인문사회	59(8.9)	115(17.4)	153(23.1)	208(31.4)	127(19.2)	662(100.0)	28.914***
	이공계	31(13.6)	45(19.7)	73(32.0)	55(24.1)	24(10.5)	228(100.0)	
	기타	17(16.3)	23(22.1)	30(28.8)	23(22.1)	11(10.6)	104(100.0)	
학년	1-2학기	43(11.6)	93(25.1)	88(23.8)	98(26.5)	48(13.0)	370(100.0)	24.481**
	3-4학기	35(10.6)	55(16.7)	87(26.4)	99(30.0)	54(16.4)	330(100.0)	
	5학기 이상	29(9.9)	35(11.9)	81(27.6)	89(30.3)	60(20.4)	294(100.0)	

구분		20% 미만	20~40% 미만	40~60% 미만	60~80% 미만	80% 이상	전체	χ^2
유학 형태	자비유학	44(6.1)	114(15.9)	185(25.7)	241(33.5)	135(18.8)	719(100.0)	101.834***
	한국대학 초청	33(29.7)	29(26.1)	28(25.2)	13(11.7)	8(7.2)	111(100.0)	
	한국정부 초청	17(14.9)	27(23.7)	33(28.9)	22(19.3)	15(13.2)	114(100.0)	
	기타	10(23.3)	10(23.3)	10(23.3)	10(23.3)	3(7.0)	43(100.0)	
성적	3.0 미만	4(4.7)	20(23.5)	25(29.4)	28(32.9)	8(9.4)	85(100.0)	60.150***
	3.0-3.5 미만	16(7.7)	38(18.4)	70(33.8)	57(27.5)	26(12.6)	207(100.0)	
	3.5-4.0 미만	25(7.9)	57(17.9)	92(28.9)	107(33.6)	37(11.6)	318(100.0)	
	4.0 이상	44(16.1)	52(19.0)	42(15.3)	68(24.8)	68(24.8)	274(100.0)	
전체		107(10.8)	183(18.4)	256(25.8)	286(28.8)	162(16.3)	994(100.0)	

* $p < .05$. ** $p < .01$. *** $p < .001$

영어강의 이해도는 한국어 강의 이해도보다 이해수준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40~60% 미만이 27.3%로 가장 높았지만 80% 이상이 25.0%로 나타났다. 또 다른 특징으로 이해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차이가 극명하는 점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집단 간 차이를 통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표 IV-27〉 영어 강의 이해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

구분		20% 미만	20~40% 미만	40~60% 미만	60~80% 미만	80% 이상	전체	χ^2
지역	수도권	36(8.4)	55(12.9)	93(21.8)	118(27.6)	125(29.3)	427(100.0)	26.767***
	비수도권	50(9.1)	102(18.5)	174(31.6)	105(19.1)	119(21.6)	550(100.0)	
성별	남성	38(8.4)	70(15.5)	118(26.2)	88(19.5)	137(30.4)	451(100.0)	14.525**
	여성	48(9.1)	87(16.5)	149(28.3)	135(25.7)	107(20.3)	526(100.0)	
출신	아시아	85(10.3)	146(17.6)	253(30.6)	190(22.9)	154(18.6)	828(100.0)	130.546***
	아시아 외	1(7)	11(7.4)	14(9.4)	33(22.1)	90(60.4)	149(100.0)	
체류 기간	1년 미만	17(7.7)	29(13.2)	53(24.1)	60(27.3)	61(27.7)	220(100.0)	13.183
	1~2년 미만	21(7.5)	47(16.8)	88(31.5)	63(22.6)	60(21.5)	279(100.0)	
	2~3년 미만	20(9.3)	41(19.1)	57(26.5)	47(21.9)	50(23.3)	215(100.0)	
	3년 이상	28(10.6)	40(15.2)	69(26.2)	53(20.2)	73(27.8)	263(100.0)	
계열	인문사회	59(9.1)	108(16.7)	190(29.3)	146(22.5)	145(22.4)	648(100.0)	14.365
	이공계	15(6.6)	38(16.8)	56(24.8)	54(23.9)	63(27.9)	226(100.0)	
	기타	12(11.7)	11(10.7)	21(20.4)	23(22.3)	36(35.0)	103(100.0)	

IV.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실태 조사 분석

구분		20% 미만	20-40% 미만	40-60% 미만	60-80% 미만	80% 이상	전체	χ^2
학년	1-2학기	21(5.7)	57(15.5)	91(24.7)	99(26.9)	100(27.2)	368(100.0)	24.707 **
	3-4학기	30(9.3)	42(13.0)	107(33.2)	64(19.9)	79(24.5)	322(100.0)	
	5학기 이상	35(12.2)	58(20.2)	69(24.0)	60(20.9)	65(22.6)	287(100.0)	
유학 형태	자비유학	72(10.2)	120(17.0)	224(31.8)	163(23.2)	125(17.8)	704(100.0)	92.264 ***
	한국대학 초청	8(7.2)	19(17.1)	23(20.7)	16(14.4)	45(40.5)	111(100.0)	
	한국정부 초청	3(2.7)	11(9.8)	14(12.5)	27(24.1)	57(50.9)	112(100.0)	
	기타	2(4.7)	6(14.0)	6(14.0)	14(32.6)	15(34.9)	43(100.0)	
성적	3.0 미만	13(15.7)	19(22.9)	26(31.3)	14(16.9)	11(13.3)	83(100.0)	69.915 ***
	3.0-3.5 미만	30(14.9)	52(25.9)	53(26.4)	34(16.9)	32(15.9)	201(100.0)	
	3.5-4.0 미만	15(4.8)	41(13.1)	97(31.1)	87(27.9)	72(23.1)	312(100.0)	
	4.0 이상	20(7.4)	31(11.4)	68(25.0)	60(22.1)	93(34.2)	272(100.0)	
전체		86(8.8)	157(16.1)	267(27.3)	223(22.8)	244(25.0)	977(100.0)	

* p<.05. ** p<.01, *** p<.001

수도권 지역은 80% 이상이 29.3%로 가장 높은 반면 비수도권은 40~60% 미만이 31.6%로 가장 높았다. 역시 남학생은 80% 이상이 30.4%, 여학생은 40~60% 미만이 28.3%로 성별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출신 지역별로도 나타났는데 아시아 외 지역학생들의 영어강의 이해도가 아시아 지역 학생들보다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자비유학 학생들의 영어강의 이해도는 40~60% 미만이 31.8%로 가장 높았던 반면 나머지 유형의 유학생들은 80% 이상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성적이 높을수록 영어강의 이해도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다음 <표 IV-28>을 살펴보면 한국어 능력이 부족이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공 특성상 수업 내용이 어려워서가 3.62, 선행·기초학습의 부족이 3.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7가지 요인들이 3.0 이상으로 수업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통 이상의 영향의 미치고 있으나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인 세 가지 항목에 대해 집단 간 평균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IV-28〉 수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구분	N	M	S
1) 나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서	995	3.68	1.011
2) 나의 영어 능력이 부족해서	995	3.41	1.137
3) 나의 선행학습 또는 기초학습이 부족해서	993	3.43	.920
4) 내가 예습·복습을 하지 않아서	995	3.35	.958
5) 교수 및 강사의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995	3.10	1.032
6) 수업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서	996	3.38	.963
7) 전공 특성상 수업 내용이 어려워서	995	3.62	.984

한국어 능력이 수업을 어렵게 하는 정도는 수도권 보다는 비수도권 유학생들에게 더 높게 나타났고, 선행·기초학습 부족도 역시 비수도권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전공수업의 특성상 수업 내용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수도권학생들이 더 좋은 비율로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아시아 지역 학생들은 전공의 어려움과 선행학습의 부족이 수업을 어렵게 한다고 한 반면 아시아 외 지역 학생들에게는 한국어 능력 부족이 수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응답하였다.

한국어 능력과 선행·기초 학습의 부족은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전공 수업의 특성으로 인한 수업의 어려움은 기간과 상관없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표 IV-29〉 수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에 대한 집단별 평균 비교

구분	한국어 능력이 부족				전공수업이 어려워서				선행·기초학습 부족해서				
	N	M	S	t/F	N	M	S	t/F	N	M	S	t/F	
지역	수도권	438	3.64	1.009	-1.249	438	3.68	1.084	1.605***	438	3.37	.974	-1.662
	비수도권	557	3.72	1.013		557	3.57	.896		555	3.47	.873	
성별	남성	457	3.71	1.018	.643	456	3.54	1.047	-2.170**	454	3.38	.953	-1.509
	여성	538	3.67	1.006		539	3.68	.924		539	3.47	.890	
출신	아시아	846	3.68	1.012	-.353	846	3.66	.944	2.508***	845	3.46	.898	2.770
	아시아 외	149	3.71	1.009		149	3.40	1.168		148	3.24	1.019	
체류 기간	1년 미만	221	3.77	1.063	6.925***	220	3.56	.970	9.278***	220	3.43	.988	5.311**
	1~2년 미만	284	3.76	1.011		285	3.69	.972		285	3.55	.901	
	2~3년 미만	218	3.78	.887		218	3.84	.947		216	3.50	.857	
	3년 이상	272	3.45	1.030		272	3.40	.993		272	3.25	.908	

구분		한국어 능력이 부족				전공수업이 어려워서				선행·기초학습 부족해서			
		N	M	S	t/F	N	M	S	t/F	N	M	S	t/F
계열	인문사회	664	3.67	1,022	.483	665	3.66	.937	5.150**	663	3.48	.923	2,728
	이공계	228	3.68	1,001		227	3.62	1,055		227	3.34	.929	
	기타	103	3.78	.969		103	3.33	1,079		103	3.31	.864	
학년	1-2학기	369	3.77	1,016	2,123	368	3.63	1,025	3.360*	367	3.40	.986	1,439
	3-4학기	333	3.66	1,010		333	3.71	.971		333	3.50	.880	
	5학기 이상	293	3.61	1,003		294	3.50	.937		293	3.39	.875	
유학 형태	자비유학	720	3.72	.992	.858	721	3.74	.922	13.239***	721	3.51	.877	8,371***
	한국대학 초청	111	3.66	1,074		110	3.35	1,046		110	3.30	.973	
	한국정부 초청	114	3.59	1,029		114	3.25	1,125		112	3.10	1,031	
	기타	43	3.56	1,076		43	3.37	.952		43	3.26	.875	
성적	3.0 미만	85	3.61	.888	4.895**	85	3.61	.803	5.699**	85	3.40	.790	5,024**
	3.0-3.5 미만	208	3.74	.984		208	3.64	.857		207	3.48	.841	
	3.5-4.0 미만	320	3.86	.955		319	3.76	1,006		319	3.56	.933	
	4.0 이상	274	3.56	1,061		274	3.43	1,071		274	3.28	.963	

* p<.05. ** p<.01. *** p<.001

5) 상호 교류

유학생들의 교수와의 상호교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다음 각 항목에 대한 교류 정도를 알아보았다. 유학생들은 수업내용 및 과제수행에 대해 교수와 가장 많은 교류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도는 3.54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시험 및 성적 3.27, 진학·취업 등 진로 지도 3.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수·학습 외의 개인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교수와의 교류가 2.85로 매우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IV-30〉 교수와의 상호교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구분	N	M	S
1) 과목 선택 및 수강신청	998	3.14	1,075
2) 시험 및 성적	998	3.27	1,009
3) 수업 내용 및 과제 수행	995	3.54	.941
4) 진학 및 취업 등 진로 지도	997	3.15	1,024
5) 교수·학습 외 개인 생활 지도	997	2.85	1,047

교수와의 교류에 있어서는 세 개 항목 모두 수도권 학생보다 비수도권 학생의 교류가 더 높았으며, 성별에 따른 비교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1〉 교수와의 상호교류에 대한 집단 간 평균 비교

구분		수업 내용 및 과제 수행				시험 및 성적				진학·취업 등 진로 지도			
		N	M	S	t/F	N	M	S	t/F	N	M	S	t/F
지역	수도권	438	3.48	1.000	-1.789**	441	3.16	1.062	-3.056	441	2.91	1.014	-6.651
	비수도권	557	3.59	.890		557	3.36	.958		556	3.33	.993	
성별	남성	455	3.59	.980	1.560	458	3.32	1.037	1.333	457	3.19	1.046	1.309
	여성	540	3.50	.907		540	3.23	.985		540	3.11	1.004	
출신	아시아	844	3.54	.922	-.433*	846	3.27	1.001	-.312	845	3.19	1.003	3.046
	아시아 외	151	3.58	1.048		152	3.30	1.060		152	2.91	1.110	
체류 기간	1년 미만	221	3.62	.910	4.686**	224	3.29	.975	4.919**	224	3.09	1.027	1.393
	1~2년 미만	284	3.48	.934		284	3.35	1.014		284	3.22	.997	
	2~3년 미만	218	3.71	.939		218	3.39	.997		218	3.20	.971	
	3년 이상	272	3.42	.957		272	3.08	1.020		271	3.07	1.088	
계열	인문사회	663	3.50	.928	3.980*	666	3.25	1.024	.450	665	3.08	1.037	4.929**
	이공계	228	3.56	.958		228	3.32	.989		228	3.28	.956	
	기타	104	3.78	.965		104	3.29	.962		104	3.32	1.045	
학년	1-2학기	369	3.56	.948	.829	372	3.32	.984	1.193	371	3.06	1.028	2.150
	3-4학기	331	3.58	.977		331	3.28	1.086		331	3.20	1.011	
	5학기 이상	295	3.48	.892		295	3.20	.950		295	3.19	1.030	
유학 형태	자비유학	718	3.58	.915	3.702*	720	3.34	.982	4.639**	720	3.24	.967	9.145***
	한국대학 초청	112	3.54	1.003		112	3.16	1.000		112	3.00	1.090	
	한국정부 초청	114	3.44	.969		115	3.13	1.072		115	2.95	1.115	
	기타	44	3.14	.979		44	2.86	1.153		43	2.56	1.181	
성적	3.0 미만	85	3.45	.893	1.626	85	3.25	.925	1.396	85	3.28	.908	1.015
	3.0-3.5 미만	208	3.53	.868		209	3.30	.975		209	3.17	1.019	
	3.5-4.0 미만	319	3.66	.875		320	3.39	.980		320	3.12	.986	
	4.0 이상	272	3.59	1.016		272	3.24	1.043		272	3.25	1.074	

* p<.05. ** p<.01. *** p<.001

출신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외 지역의 학생들이 아시아 지역 학생보다 더 높은 편으로 나타나지만 진학·취업 등 진로 지도에 대해서는 아시아 지역 학생들이 3.19인 반면 아시아 외 지역 학생들은 2.91로 나타나 출신지역에 따라 교류 내용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공계 학생들이 다른 계열의 학생들보다 교수와의 교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비유학 학생들이 다른 형태의 유학생들보다 교수와의 교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이 높음에 따라 교류 빈도도 높게 나타나지만 진로·취업 등 진로지도에 있어서는 3.0 미만의 학생들이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난 점도 특징적이다.

교수 이외의 학교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은 같은 국가 출신의 유학생과의 교류가 3.9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같은 학교의 한국 대학생이 3.57, 다른 국가 출신의 유학생이 3.52로 나타났다.

〈표 IV-32〉 교수 외의 학교 구성원과의 상호교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구분	N	M	S
1) 같은 학교의 한국 대학생	1,000	3.57	.901
2) 같은 국가 출신의 유학생	1,000	3.97	.949
3) 다른 국가 출신의 유학생	1,000	3.52	.918
4) 행정 직원 및 국제 업무 담당 직원	990	3.02	.960

세 유형의 상호교류에 대해 집단 간 평균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IV-33〉과 같다. 같은 학교의 한국 대학생과의 교류는 비수도권 대학의 유학생들이 수도권 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좀 더 상호교류에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상호교류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문계열 학생들이 이공계 학생들보다 기타 교류에서는 좀 더 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공계 학생들이 다른 계열의 학생들보다 교수와의 교류가 더 많았던 점과는 대비되는 현상으로 계열의 특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학 형태별로는 자비 유학생이 본국출신 유학생이나 같은 학교 한국 학생과의 교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국 출신 유학생과의 교류는 한국 정부 초청 유학생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3〉 교수 외의 학교 구성원과의 상호교류 집단 간 평균 비교

구분		본국 출신 유학생				같은 학교 한국 대학생				타국 출신 유학생			
		N	M	S	t/F	N	M	S	t/F	N	M	S	t/F
지역	수도권	443	4.09	.971	3.380*	443	3.51	.911	-1.859	443	3.58	1.022	1.768***
	비수도권	557	3.88	.922		557	3.61	.892		557	3.47	.823	
성별	남성	460	3.96	.970	-.409	460	3.62	.890	1.910	460	3.58	.947	1.956
	여성	540	3.98	.931		540	3.51	.909		540	3.47	.889	
출신	아시아	847	4.03	.883	3.437***	847	3.56	.899	-.054	847	3.46	.902	-4.601
	아시아 외	153	3.67	1.213		153	3.57	.916		153	3.83	.944	
체류 기간	1년 미만	225	4.08	.986	4.717**	225	3.44	1.008	2.828*	225	3.57	.869	3.032*
	1~2년 미만	285	3.93	.941		285	3.58	.875		285	3.42	.929	
	2~3년 미만	218	4.11	.849		218	3.54	.870		218	3.65	.900	
	3년 이상	272	3.83	.981		272	3.68	.849		272	3.48	.949	
계열	인문사회	668	3.95	.952	1.709	668	3.56	.895	1.039	668	3.48	.902	4.999**
	이공계	228	3.96	.942		228	3.54	.931		228	3.68	.928	
	기타	104	4.13	.935		104	3.68	.873		104	3.39	.960	
학년	1-2학기	372	4.06	.968	5.105**	372	3.49	.918	1.996	372	3.52	.930	.009
	3-4학기	333	4.00	.939		333	3.62	.913		333	3.51	.904	
	5학기 이상	295	3.83	.921		295	3.60	.863		295	3.52	.921	
유학 형태	자비유학	722	4.10	.849	21,048***	722	3.60	.877	3.070*	722	3.47	.883	5.552**
	한국대학 초청	112	3.75	1.053		112	3.39	.999		112	3.46	1.021	
	한국정부 초청	115	3.43	1.109		115	3.41	.945		115	3.80	.993	
	기타	44	3.89	.993		44	3.64	.810		44	3.75	.866	
성적	3.0 미만	85	3.85	.838	1.691	85	3.49	.811	2.264	85	3.39	.901	.714
	3.0-3.5 미만	209	4.02	.914		209	3.46	.935		209	3.52	.904	
	3.5-4.0 미만	320	4.07	.924		320	3.53	.878		320	3.54	.891	
	4.0 이상	274	3.95	.976		274	3.66	.932		274	3.55	.964	

* p<.05. ** p<.01. *** p<.001

6) 만족도

한국 유학생들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학업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전체 평균은 두 유형의 만족도 모두 3.62로 나타나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만족도에 대해 집단 별 평균을 비교하면 다음 〈표 IV-34〉와 같다.

〈표 IV-34〉 만족도에 대한 집단 간 평균 비교

구 분		학업 만족도				생활 만족도			
		N	M	S	t/F	N	M	S	t/F
지역	수도권	443	3.71	.801	3.174	443	3.73	.915	3.581***
	비수도권	557	3.55	.775		557	3.53	.759	
성별	남성	460	3.64	.817	.780	460	3.65	.877	.929
	여성	540	3.60	.768		540	3.60	.801	
출신	아시아	847	3.59	.791	-3.138*	847	3.58	.812	-3.194
	아시아 외	153	3.80	.764		153	3.82	.942	
체류 기간	1년 미만	225	3.62	.788	.551	225	3.60	.860	.936
	1~2년 미만	285	3.62	.794		285	3.64	.813	
	2~3년 미만	218	3.67	.833		218	3.68	.910	
	3년 이상	272	3.57	.755		272	3.56	.780	
계열	인문사회	668	3.64	.795	.920	668	3.68	.839	5.319**
	이공계	228	3.56	.769		228	3.52	.815	
	기타	104	3.62	.804		104	3.45	.835	
학년	1-2학기	372	3.65	.810	2.118	372	3.65	.819	1.088
	3-4학기	333	3.66	.808		333	3.64	.904	
	5학기 이상	295	3.54	.741		295	3.56	.780	
유학 형태	자비유학	722	3.63	.777	.525	722	3.63	.813	1.672
	한국대학 초청	112	3.54	.804		112	3.47	.939	
	한국정부 초청	115	3.59	.867		115	3.71	.896	
	기타	44	3.57	.759		44	3.59	.816	
성적	3.0 미만	85	3.42	.807	6.962***	85	3.48	.666	4.990**
	3.0-3.5 미만	209	3.47	.785		209	3.50	.809	
	3.5-4.0 미만	320	3.72	.772		320	3.76	.869	
	4.0 이상	274	3.70	.803		274	3.61	.858	

* p<.05. ** p<.01, *** p<.001

학업 만족도에 대해서는 수도권 지역의 유학생이 3.71로 비수도권 3.55보다 높았으며, 남학생들의 만족도가 여학생 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아시아 지역의 학생들은 3.59로 아시아 외 지역의 3.80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체류기간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증가하였다가, 3년 이상의 집단에서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계열별로는 인문사회 계열의 만족도가 3.64로 전체 계열

중에 가장 높았으며, 학년은 체류 기간과 같이 증가 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학 형태 별로 살펴보면 자비유학생의 만족도가 3.63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대학 초청 유학생이 3.54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생활 만족도에 역시 학업만족도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수도권, 남성 그리고 아시아 외 지역의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체류기관은 2-3년 정도 되는 집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2학기에 해당하는 집단이 3.65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학업만족도와는 다른 경향을 나타냈으며, 유학 형태에 따라서는 자비유학생의 학업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경향과 달리 한국 정부 초청 유학생들의 생활 만족도가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 <표 IV-35>는 학업에 관한 사항들을 세분화 하여 각 항목별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모두 15개 항목 중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학교 시설 및 교육여건이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교·강사의 수업의 질이 3.70,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3.64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의 등록금 및 교육비 수준은 3.31, 직업 및 진로지도 서비스 3.24, 심리 상담 서비스 3.23으로 이들은 15개 학업관련 항목 중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이다.

<표 IV-35> 학업 관련 항목별 만족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구 분	N	M	S
1) 우리 대학의 등록금 및 교육비 수준	999	3.31	.969
2)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혜택	1,000	3.37	1.054
3) 교육과정의 구성 및 내용	998	3.57	.793
4) 교수 및 강사의 수업의 질	1,000	3.70	.782
5) 영어 강의의 질적 수준	994	3.45	.920
6) 우리 대학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998	3.64	.841
7) 유학생에 대한 학업 지원 서비스	1,000	3.40	.915
8) 학문 및 학업적 성취	998	3.51	.832
9)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	998	3.41	.856
10) 실험실습 및 교육 관련 기자재	999	3.50	.842
11) 학교 시설 및 교육 여건 조성	998	3.71	.774
12) 각종 행정 지원 서비스	996	3.56	.838
13) 심리 상담 서비스	992	3.23	.934
14) 직업 및 진로 지도 서비스	992	3.24	.943
15) 우리 대학의 각종 문화 행사	988	3.62	.848

학교 시설 및 교육여건 조성은 수도권이 3.73으로 비수도권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교·강사 수업의 질과 한국의 교육 프로그램은 비수도권 대학에 속한 유학생들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6〉 학업 관련 항목별 만족도에 대한 집단 간 평균 비교

구분		학교 시설 교육 여건 조성				교수·강사의 수업의 질				본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N	M	S	t/F	N	M	S	t/F	N	M	S	t/F
지역	수도권	441	3.73	.756	.780	443	3.67	.770	-1.293	441	3.60	.844	-1.417
	비수도권	557	3.69	.788		557	3.73	.790		557	3.68	.837	
성별	남성	460	3.71	.786	.004	460	3.74	.801	1.312	458	3.65	.822	.104
	여성	538	3.71	.764		540	3.67	.764		540	3.64	.857	
출신	아시아	845	3.67	.780	-3.904***	847	3.68	.787	-2.743*	845	3.64	.833	-.583
	아시아 외	153	3.92	.707		153	3.86	.738		153	3.68	.886	
체류 기간	1년 미만	225	3.64	.750	4.034**	225	3.73	.696	2.149	225	3.62	.869	5.675**
	1~2년 미만	284	3.79	.835		285	3.72	.803		284	3.74	.821	
	2~3년 미만	217	3.79	.751		218	3.78	.797		218	3.74	.819	
	3년 이상	272	3.61	.731		272	3.61	.808		271	3.48	.834	
계열	인문사회	666	3.68	.773	1.539	668	3.71	.782	1.850	667	3.64	.850	.348
	이공계	228	3.79	.752		228	3.74	.780		227	3.67	.842	
	기타	104	3.67	.818		104	3.57	.773		104	3.59	.783	
학년	1-2학기	371	3.71	.767	1.769	372	3.74	.783	.761	371	3.65	.822	2.144
	3-4학기	332	3.76	.821		333	3.70	.788		333	3.70	.884	
	5학기 이상	295	3.64	.724		295	3.66	.773		294	3.56	.810	
유학 형태	자비유학	721	3.70	.774	2.039	722	3.71	.769	2.224	721	3.71	.808	8.207***
	한국대학 초청	111	3.60	.766		112	3.60	.832		112	3.31	.930	
	한국정부 초청	115	3.85	.764		115	3.83	.737		115	3.63	.883	
	기타	44	3.70	.765		44	3.57	.900		43	3.47	.797	
성적	3.0 미만	85	3.52	.750	8.213***	85	3.65	.812	.532	85	3.55	.794	4.219**
	3.0-3.5 미만	209	3.53	.832		209	3.67	.707		209	3.48	.844	
	3.5-4.0 미만	319	3.73	.775		320	3.74	.814		319	3.72	.820	
	4.0 이상	273	3.84	.725		274	3.68	.797		274	3.69	.856	

* p<.05. ** p<.01. *** p<.001

출신지역별로 살펴보면 교육여건, 수업의 질 및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모두 아시아 외 지역 유학생들이 아시아 보다 높게 나타났다.

체류기간 및 학년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학년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높아졌다가 기간 3년 이상, 5학기 이상의 집단에서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계열별로는 이공계 집단인 타 계열의 학생들보다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으며, 수업의 질에 대해서는 1-2학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유학 형태에 따라서는 한국정부 초청 유학생들의 경우 교육여건과 수업의 질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자비유학생들은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교육여건에 대해서는 성적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다른 항목에서는 4.0 이상의 집단에서 약간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표 IV-37>은 생활관련 항목별 만족도를 나타낸다. 모두 11개 생활관련 항목들에 대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안전 및 치안에 대한 만족도가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이라는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문화 체험 기회에 대해서 3.63, 기숙사 시설 및 서비스 3.58로 이들은 생활 관련 항목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항목이다. 한편, 생활비의 적정성(물가) 3.26, 교외 일자리 얻기 3.15, 교내 일자리 얻기 3.13으로 이 세 항목은 경제적인 부문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V-37> 생활 관련 항목별 만족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구분	N	M	S
1) 주거 및 숙소(housing) 구하기	995	3.46	.849
2) 교내 일자리 얻기(on-campus)	996	3.13	.971
3) 교외 일자리 얻기(off-campus)	994	3.15	.902
4) 기숙사의 시설 및 서비스	989	3.58	.826
5) 안전·치안	997	3.90	.798
6) 의료·건강 관련 제도	995	3.57	.906
7) 출입국·체류 관련 각종 법률 지원	995	3.57	.885
8)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	993	3.40	.900
9) 생활비의 적정성 (물가)	997	3.26	.931
10)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이웃, 친구 사귀기)	998	3.58	.852
11) 한국 문화 체험 기회	991	3.63	.875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세 개 항목에 대해 집단 간 평균 비교를 하면 다음 <표 IV-38>과 같다.

<표 IV-38> 학업 관련 항목별 만족도에 대한 집단 간 평균 비교

구분		안전·치안				한국 문화 체험 기회				기숙사의 시설 및 서비스			
		N	M	S	t/F	N	M	S	t/F	N	M	S	t/F
지역	수도권	440	3.95	.799	1.923	437	3.61	.906	-.726	432	3.55	.813	-1.245
	비수도권	557	3.85	.795		554	3.65	.850		557	3.61	.836	
성별	남성	458	3.95	.812	1.743	455	3.65	.854	.631	453	3.59	.819	.364
	여성	539	3.86	.783		536	3.62	.893		536	3.57	.833	
출신	아시아	845	3.86	.778	-3.456**	840	3.59	.864	-3.383	838	3.58	.826	-.632
	아시아 외	152	4.12	.868		151	3.85	.905		151	3.62	.831	
체류 기간	1년 미만	224	3.91	.834	1.793	222	3.60	.827	1.328	223	3.68	.813	4.185**
	1~2년 미만	284	3.98	.744		281	3.66	.928		282	3.67	.819	
	2~3년 미만	217	3.88	.770		218	3.72	.849		214	3.53	.809	
	3년 이상	272	3.82	.838		270	3.57	.876		270	3.46	.843	
계열	인문사회	667	3.89	.800	1.037	663	3.60	.873	1.473	660	3.60	.828	.632
	이공계	226	3.87	.817		225	3.72	.865		225	3.56	.822	
	기타	104	4.00	.737		103	3.66	.903		104	3.51	.824	
학년	1-2학기	371	3.98	.780	3.526*	367	3.70	.845	1.719	367	3.65	.818	3.545*
	3-4학기	332	3.87	.776		330	3.62	.926		330	3.59	.828	
	5학기 이상	294	3.82	.836		294	3.57	.850		292	3.48	.827	
유학 형태	자비유학	720	3.88	.758	4.264**	715	3.64	.861	4.165**	713	3.59	.797	1.187
	한국대학 초청	112	3.79	.874		111	3.40	.947		112	3.49	.880	
	한국정부 초청	114	4.13	.936		114	3.80	.843		114	3.58	.921	
	기타	44	3.93	.759		44	3.59	.923		43	3.77	.868	
성적	3.0 미만	85	3.67	.851	4.628**	84	3.68	.894	2.946*	82	3.55	.863	.857
	3.0-3.5 미만	208	3.86	.798		204	3.48	.879		206	3.51	.819	
	3.5-4.0 미만	319	3.88	.788		318	3.70	.852		316	3.59	.848	
	4.0 이상	273	4.01	.752		273	3.61	.846		274	3.63	.803	

* p<.05. ** p<.01. *** p<.001

안전 및 치안은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한국문화 체험 기회 및 기숙사에 대한 만족도는 비수도권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출신 지역은 아시아 외

지역의 학생들이 만족도가 상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기숙사에 대한 만족도는 1년 미만 체류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학년별로는 1-2학기에 해당하는 집단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자비유학생들은 기숙사의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7) 차별

유학생할 중에 학교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집단으로부터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가장 높은 집단은 타국 출신의 외국인 유학생으로 이들로부터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정도는 평균 3.74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교수 및 강사가 3.67, 행정직원 3.65로 나타났다. 교·강사 및 행정직원을 학교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집단이므로 이들이 차별을 느끼는 주요 집단이라는 점은 대학차원에서 중요하게 살펴야 할 부분이다.

〈표 IV-39〉 구성원 별 차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구분	N	M	S
1) 같은 학과 친구 또는 룸메이트	1,000	3.64	.826
2) 교수 및 강사	998	3.67	.879
3) 행정 직원	997	3.65	.878
4) 같은 학교 한국 대학생	999	3.56	.882
5) 다른 나라 출신의 외국인 유학생	999	3.74	.855
6) 학교 밖에서 만나는 일반 한국인	999	3.35	.831

이러한 세 집단으로부터 느끼는 차별에 대해 배경 변인별로 평균 비교를 실시한 결과 다음 〈표 IV-40〉과 같이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이 비수도권 보다 세 개 집단으로부터 차별을 받는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아시아 외 지역 학생들은 타국 출신의 외국인 유학생들로부터 4.09 수준의 차별을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수 및 강사로부터는 3.97, 행정직원 4.04로 아시아 지역 학생과는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학년에 따라서는 1-2학기에 해당하는 유학생들이 차별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체류기간에 따른 비교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 정착한지 얼마 되지 않은 유학생들의 적응이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결과이다.

〈표 IV-40〉 구성원 별 차별에 대한 집단 간 평균 비교

구분		타국 출신의 외국인 유학생				교수 및 강사				행정 직원			
		N	M	S	t/F	N	M	S	t/F	N	M	S	t/F
지역	수도권	443	3.88	.873	4.775	442	3.77	.890	3.330	441	3.77	.874	3.971
	비수도권	556	3.63	.823		556	3.59	.862		556	3.55	.869	
성별	남성	460	3.80	.833	2.150*	458	3.75	.888	2.535	458	3.78	.863	4.401
	여성	539	3.69	.870		540	3.61	.867		539	3.54	.875	
출신	아시아	847	3.68	.837	-5.462	845	3.62	.873	-4.659**	845	3.58	.856	-6.080
	아시아 외	152	4.09	.876		153	3.97	.854		152	4.04	.898	
체류 기간	1년 미만	225	3.79	.864	.370	225	3.78	.851	2.024	224	3.70	.946	.559
	1~2년 미만	285	3.71	.901		285	3.68	.884		284	3.62	.851	
	2~3년 미만	218	3.73	.822		217	3.64	.893		218	3.68	.857	
	3년 이상	271	3.74	.826		271	3.59	.881		271	3.62	.865	
계열	인문사회	667	3.67	.844	6.244**	666	3.67	.845	1.742	666	3.62	.849	1.372
	이공계	228	3.88	.867		228	3.73	.892		227	3.73	.934	
	기타	104	3.88	.855		104	3.54	1.042		104	3.67	.929	
학년	1-2학기	372	3.80	.838	1.182	372	3.74	.868	3.920*	371	3.67	.880	.691
	3-4학기	333	3.71	.873		332	3.69	.874		333	3.67	.871	
	5학기 이상	294	3.71	.855		294	3.55	.891		293	3.60	.885	
유학 형태	자비유학	722	3.76	.829	.686	722	3.68	.861	1.604	721	3.63	.859	2.147
	한국대학 초청	112	3.64	.985		112	3.79	.885		112	3.71	.953	
	한국정부 초청	114	3.74	.863		113	3.54	.955		114	3.76	.834	
	기타	44	3.68	.909		44	3.59	.948		43	3.40	1.003	
성적	3.0 미만	85	3.62	.723	3.608*	85	3.51	.734	5.150**	85	3.56	.747	3.523*
	3.0-3.5 미만	209	3.70	.838		208	3.66	.853		208	3.64	.856	
	3.5-4.0 미만	319	3.87	.787		319	3.83	.846		319	3.77	.843	
	4.0 이상	274	3.68	.909		274	3.60	.893		274	3.56	.913	

* p<.05. ** p<.01. *** p<.001

어떤 요인으로 인해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다음 〈표 IV-41〉과 같이 성별이 3.77로 가장 높았으며, 종교가 3.70, 영어능력이 3.58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적이거나 한국어 능력은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수준의 차별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표 IV-41〉 차별의 요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구분	N	M	s
1) 성별	997	3.77	.851
2) 국적	996	3.31	.989
3) 인종	996	3.52	.966
4) 종교	995	3.70	.910
5) 한국어 능력	996	3.48	.923
6) 영어 능력	996	3.58	.917

차별의 요인별 집단 간 차이 분석 결과를 보면 성별, 종교 및 영어능력으로 인한 차별의 인식 정도는 수도권이 비수도권 보다 높게 나타났고 남성이 여성보다, 아시아 보다는 아시아 외 지역의 유학생들이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42〉 구성원 별 차별에 대한 집단 간 평균 비교

구분		성별				종교				영어 능력			
		N	M	S	t/F	N	M	S	t/F	N	M	S	t/F
지역	수도권	440	3.85	.823	2.668*	438	3.79	.918	2.705	439	3.61	.907	.944
	비수도권	557	3.70	.868		557	3.64	.899		557	3.55	.925	
성별	남성	457	3.81	.883	1.365	456	3.74	.930	1.170	456	3.65	.913	2.345
	여성	540	3.73	.822		539	3.67	.892		540	3.51	.917	
출신	아시아	845	3.74	.846	-2.562	844	3.67	.905	-2.788	845	3.52	.889	-5.053
	아시아 외	152	3.93	.862		151	3.89	.918		151	3.92	.997	
체류 기간	1년 미만	224	3.80	.897	.500	224	3.68	.944	1.241	224	3.61	.872	.664
	1~2년 미만	283	3.79	.818		282	3.73	.901		283	3.62	.888	
	2~3년 미만	218	3.74	.785		217	3.79	.877		217	3.56	.891	
	3년 이상	272	3.72	.898		272	3.64	.915		272	3.52	1.002	
계열	인문사회	665	3.75	.823	2.399	664	3.69	.897	.224	665	3.55	.892	.927
	이공계	228	3.86	.851		227	3.74	.949		227	3.65	.954	
	기타	104	3.64	1.004		104	3.69	.915		104	3.59	.991	
학년	1-2학기	372	3.82	.810	1.269	371	3.68	.898	.318	372	3.63	.815	1.380
	3-4학기	331	3.72	.880		330	3.70	.966		330	3.57	.928	
	5학기 이상	294	3.76	.867		294	3.74	.860		294	3.52	1.021	

구분		성별				종교				영어 능력			
		N	M	S	t/F	N	M	S	t/F	N	M	S	t/F
유학 형태	자비유학	720	3.77	.808	.230	719	3.74	.885	2.217	720	3.56	.866	.955
	한국대학 초청	112	3.71	.999		112	3.70	.938		112	3.66	1.036	
	한국정부 초청	115	3.80	.829		114	3.57	.959		114	3.65	1.022	
	기타	43	3.72	1.161		43	3.47	1.099		43	3.44	1.119	
성적	3.0 미만	85	3.68	.676	.774	85	3.65	.719	3.945**	85	3.51	.895	.704
	3.0-3.5 미만	208	3.77	.848		207	3.71	.883		208	3.54	.972	
	3.5-4.0 미만	319	3.82	.789		318	3.85	.870		318	3.64	.809	
	4.0 이상	273	3.74	.905		273	3.61	.972		273	3.59	.932	

* p<.05. ** p<.01, *** p<.001

체류기간이 낮을수록 차별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나 종교의 경우 체류기간 2-3년에 해당하는 집단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이공계 학생들의 차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았으며, 학년별 분석결과는 체류 기간과 같이 학년이 낮을수록 인식수준이 높았으나 종교에 대해서는 5학기 이상의 집단에서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8) 유학의 성과

앞서 제시된 유학 전 단계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유학의 목적으로 외국어 역량 강화, 더 좋은 취업 기회 확보, 다양한 학문적 경험 등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다음 <표 IV-43>을 살펴보면 유학의 성과로 외국어 역량 확대 3.88, 다양한 배경의 사람과의 교류 3.85, 다양한 학문적 경험 3.70으로 목적 대비 성과가 어느 정도 일관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좋은 취업 기회 확보에 관한 성과는 3.51로 가장 낮게 나타나 중요한 유학목적인데 반해 성과가 쉽게 나타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43> 유학 성과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구분	N	M	s
1) 다양한 학문적 경험	999	3.70	.750
2) 더 좋은 취업 기회 확보	998	3.51	.889
3) 더 좋은 진학 기회 확보	999	3.61	.793
4)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의 교류	999	3.85	.810
5) 외국어 역량 확대	1,000	3.88	.817

성도가 가장 높게 인식된 세 개 항목에 대해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하면 다음 <표 IV-44>와 같다. 유학의 성과에 대해서는 수도권 지역 학생들의 인식 수준이 더 높았다. 외국어 역량은 여학생들의 더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었고 아시아 외 지역의 학들이 아시아 지역 학생들보다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외국어 역량과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는 이공계 학생들이 더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다양한 학문적 경험에 대해서는 기타 계열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한국정부 초청 유학생들의 성과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나, 다양한 학문적 경험에 있어서는 기타 유형의 유학생들의 성과가 가장 높게 나타난 점도 특징적이다.

<표 IV-44> 유학 성과에 대한 집단 간 평균 비교

구분		외국어 역량 확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의 교류				다양한 학문적 경험			
		N	M	S	t/F	N	M	S	t/F	N	M	S	t/F
지역	수도권	443	3.91	.841	1.113	442	3.86	.818	.290	442	3.74	.739	1.432
	비수도권	557	3.86	.796		557	3.84	.806		557	3.67	.757	
성별	남성	460	3.87	.845	-.367	460	3.85	.811	-.043	459	3.71	.767	.162
	여성	540	3.89	.793		539	3.85	.811		540	3.70	.736	
출신	아시아	847	3.87	.797	-.651	846	3.82	.796	-2.656	847	3.68	.750	-2.159
	아시아 외	153	3.92	.921		153	4.01	.870		152	3.82	.738	
체류 기간	1년 미만	225	3.92	.807	.302	224	3.90	.777	.808	224	3.70	.724	1.489
	1~2년 미만	285	3.86	.788		285	3.87	.799		285	3.76	.773	
	2~3년 미만	218	3.89	.774		218	3.79	.791		218	3.72	.720	
	3년 이상	272	3.87	.887		272	3.82	.864		272	3.63	.767	
계열	인문사회	668	3.86	.808	1.170	667	3.83	.805	.616	667	3.70	.729	.563
	이공계	228	3.91	.827		228	3.90	.841		228	3.68	.802	
	기타	104	3.98	.847		104	3.84	.777		104	3.77	.766	
학년	1-2학기	372	3.91	.794	.385	372	3.84	.772	.263	372	3.74	.723	2.273
	3-4학기	333	3.86	.795		332	3.87	.814		332	3.73	.764	
	5학기 이상	295	3.87	.869		295	3.82	.855		295	3.62	.763	
유학 형태	자비유학	722	3.89	.794	1.966	721	3.81	.799	2.187	721	3.72	.726	.608
	한국대학 초청	112	3.76	.819		112	3.84	.766		112	3.63	.838	
	한국정부 초청	115	4.00	.889		115	4.02	.898		115	3.65	.795	
	기타	44	3.77	.912		44	3.91	.830		44	3.73	.788	

구분		외국어 역량 확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의 교류				다양한 학문적 경험			
		N	M	S	t/F	N	M	S	t/F	N	M	S	t/F
성적	3.0 미만	85	3.98	.786	.557	85	3.86	.758	.251	85	3.68	.694	.688
	3.0-3.5 미만	209	3.87	.929		208	3.84	.867		209	3.66	.818	
	3.5-4.0 미만	320	3.92	.732		320	3.87	.766		320	3.74	.728	
	4.0 이상	274	3.87	.806		274	3.81	.789		273	3.73	.756	

* p<.05. ** p<.01. *** p<.001

라. 졸업 후 계획

졸업 후 계획에 대한 조사 결과 조사대상 1,000명 중 88.6%가 졸업 후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나머지 11.4%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88.6%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계획은 다음 <표 IV-45>와 같다. 전체 유학생의 32.5%가 본국에서의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은 한국에서의 진학과 취업이 각각 20.1%, 19.3%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른 국가에서의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12.9%로 나타나 본국에서의 진학 9.0%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빈도를 살펴보면 본국에서의 취업을 준비하거나 또는 한국에서의 진학 및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다수를 이루는 경향을 찾아낼 수 있다.

졸업후 계획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결과를 통해 몇 가지 주요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본국 취업을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한국 진학을 선호하고 있으나 수도권외의 경우 본국취업 다음으로 한국취업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아시아 지역 학생들은 본국취업 다음으로 한국에서의 진학을 선호한 반면 아시아 외 지역의 학생들은 한국에서의 취업이 더 높게 나타난 점도 특징적이다. 그러나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본국 취업에 대한 빈도는 낮아지고 한국에서의 취업에 대한 빈도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체류기간이 1-2년에 해당하는 유학생들은 한국에서의 진학이 25.3%로 다른 체류기간에 해당하는 유학생들 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학년별 변화 역시 체류기간에 따른 변화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그러나 유학 형태별 분석에서는 한국 정부 초청 유학생들은 타국으로의 진학을 계획하는 비율이 25.0%로 가장 높게 나타나 본국 취업이나 한국에서의 취업 및 진학을 계획하는 전반적인 경향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표 IV-45〉 졸업 후 계획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

구분		한국 진학	본국 진학	타국 진학	한국 취업	본국 취업	타국 취업	전체	χ^2
지역	수도권	71(17.6)	44(10.9)	68(16.9)	88(21.8)	97(24.1)	35(8.7)	403(100.0)	40.350 ***
	비수도권	107(22.2)	36(7.5)	46(9.5)	83(17.2)	191(39.5)	20(4.1)	483(100.0)	
성별	남성	80(19.5)	39(9.5)	61(14.9)	79(19.3)	127(31.0)	24(5.9)	410(100.0)	3.427
	여성	98(20.6)	41(8.6)	53(11.1)	92(19.3)	161(33.8)	31(6.5)	476(100.0)	
출신	아시아	154(20.3)	63(8.3)	88(11.6)	146(19.3)	262(34.6)	44(5.8)	757(100.0)	17.671 **
	아시아 외	24(18.6)	17(13.2)	26(20.2)	25(19.4)	26(20.2)	11(8.5)	129(100.0)	
체류 기간	1년 미만	34(17.4)	26(13.3)	29(14.9)	29(14.9)	64(32.8)	13(6.7)	195(100.0)	29.364 *
	1~2년 미만	63(25.3)	19(7.6)	28(11.2)	36(14.5)	90(36.1)	13(5.2)	249(100.0)	
	2~3년 미만	35(17.6)	21(10.6)	20(10.1)	45(22.6)	65(32.7)	13(6.5)	199(100.0)	
	3년 이상	46(18.9)	14(5.8)	37(15.2)	61(25.1)	69(28.4)	16(6.6)	243(100.0)	
계열	인문사회	117(19.6)	57(9.5)	55(9.2)	124(20.8)	205(34.3)	39(6.5)	597(100.0)	27.362 **
	이공계	43(21.4)	14(7.0)	40(19.9)	34(16.9)	56(27.9)	14(7.0)	201(100.0)	
	기타	18(20.5)	9(10.2)	19(21.6)	13(14.8)	27(30.7)	2(2.3)	88(100.0)	
학년	1-2학기	55(17.4)	31(9.8)	46(14.6)	50(15.8)	114(36.1)	20(6.3)	316(100.0)	15.491
	3-4학기	67(22.2)	30(9.9)	33(10.9)	54(17.9)	96(31.8)	22(7.3)	302(100.0)	
	5학기 이상	56(20.9)	19(7.1)	35(13.1)	67(25.0)	78(29.1)	13(4.9)	268(100.0)	
유학 형태	자비유학	133(20.5)	53(8.2)	62(9.6)	127(19.6)	234(36.1)	39(6.0)	648(100.0)	43.656 ***
	한국대학 초청	20(20.8)	9(9.4)	17(17.7)	17(17.7)	27(28.1)	6(6.3)	96(100.0)	
	한국정부 초청	21(21.0)	11(11.0)	25(25.0)	20(20.0)	16(16.0)	7(7.0)	100(100.0)	
	기타	2(5.3)	7(18.4)	9(23.7)	7(18.4)	10(26.3)	3(7.9)	38(100.0)	
성적	3.0 미만	15(18.8)	11(13.8)	11(13.8)	18(22.5)	24(30.0)	1(1.3)	80(100.0)	24.228
	3.0-3.5 미만	37(19.3)	19(9.9)	30(15.6)	29(15.1)	63(32.8)	14(7.3)	192(100.0)	
	3.5-4.0 미만	67(24.1)	19(6.8)	24(8.6)	59(21.2)	87(31.3)	22(7.9)	278(100.0)	
	4.0 이상	39(16.6)	20(8.5)	31(31.2)	42(17.9)	92(39.1)	11(4.7)	235(100.0)	
전체		178(20.1)	80(9.0)	114(12.9)	171(19.3)	288(32.5)	55(6.2)	886(100.0)	

* p<.05. ** p<.01. *** p<.001

유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어떠한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다음 〈표 IV-46〉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 유학생의 40.6%가 유학생 인턴십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취업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29.9%, 대학-기업-지역사회가 연계한 각종 행사 확대가 19.9%로 나타났다.

〈표 IV-46〉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서비스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

구분		유학생 인턴십 기회 확대	취업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	대학-기업- 지역사회가 연계한 취업 행사 확대	지도교수의 취업지도 역할 확대	전체	χ^2
지역	수도권	199(45.1)	116(26.3)	78(17.7)	48(10.9)	441(100.0)	10.523*
	비수도권	206(37.1)	182(32.7)	120(21.6)	48(8.6)	556(100.0)	
성별	남성	184(40.3)	136(29.8)	94(20.6)	43(9.4)	457(100.0)	.288
	여성	221(40.9)	162(30.0)	104(19.3)	53(9.8)	540(100.0)	
출신	아시아	329(38.9)	263(31.1)	175(20.7)	78(9.2)	845(100.0)	9.640
	아시아 외	76(50.0)	35(23.0)	23(15.1)	18(11.8)	152(100.0)	
체류 기간	1년 미만	88(39.3)	62(27.7)	53(23.7)	21(9.4)	224(100.0)	6.402
	1~2년 미만	114(40.1)	85(29.9)	55(19.4)	30(10.6)	284(100.0)	
	2~3년 미만	81(37.2)	27(33.0)	43(19.7)	22(10.1)	218(100.0)	
	3년 이상	122(45.0)	79(29.2)	47(17.3)	23(8.5)	271(100.0)	
계열	인문사회	277(41.6)	201(30.2)	132(19.8)	56(8.4)	666(100.0)	10.792
	이공계	82(36.0)	76(33.3)	46(20.2)	24(10.5)	228(100.0)	
	기타	46(44.7)	21(20.4)	20(19.4)	16(15.5)	103(100.0)	
학년	1-2학기	136(36.7)	113(30.5)	79(21.3)	43(11.6)	371(100.0)	5.435
	3-4학기	142(42.8)	97(29.2)	64(19.3)	29(8.7)	332(100.0)	
	5학기 이상	127(43.2)	88(29.9)	55(18.7)	24(8.2)	294(100.0)	
유학 형태	자비유학	270(37.4)	233(32.3)	142(19.7)	76(10.5)	721(100.0)	17.293*
	한국대학 초청	57(51.4)	2(19.8)	25(22.5)	7(6.3)	111(100.0)	
	한국정부 초청	54(47.4)	27(23.7)	23(20.2)	10(8.8)	114(100.0)	
	기타	20(45.5)	15(34.1)	7(15.9)	2(4.5)	44(100.0)	
성적	3.0 미만	28(33.3)	30(35.7)	17(20.2)	9(10.7)	84(100.0)	9.585
	3.0-3.5 미만	88(42.1)	62(29.7)	39(18.7)	20(9.6)	209(100.0)	
	3.5-4.0 미만	114(35.6)	101(31.6)	67(20.9)	38(11.9)	320(100.0)	
	4.0 이상	119(43.8)	78(28.7)	57(21.0)	18(6.6)	272(100.0)	
전체		405(40.6)	298(29.9)	198(19.9)	96(9.6)	991(100.0)	997(100.0)

* $p < .05$. ** $p < .01$. *** $p < .001$

취업 지원을 위한 서비스에 대하여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인턴십 기회 확대에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된 경향을 알 수 있다. 특히, 아시아 외 지역 학생들의 경우 유학생 인턴십

기회 확대에 50.0%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응답률이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유학생들에 비해 아시아 외 지역 학생에 대한 사후관리의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한편,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기타 의견으로 유학생에 대해서도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선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다.

다음은 한국에서의 진학 확대를 위해 강화되어야 할 서비스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표 IV-47>을 살펴보면 전체 유학생에 44.5%가 교육비에 대한 재정지원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이 유학생에 대한 학업지원 강화로 20.2%로 나타났다.

<표 IV-47> 진학지원 강화를 위한 서비스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

구분		교육비에 대한 재정 지원	영어 강의 개설 확대	한국대학의 경쟁력 강화	대학에 대한 학업 지원 강화	전체	χ^2
지역	수도권	199(45.1)	116(26.3)	78(17.7)	48(10.9)	441(100.0)	10.523*
	비수도권	206(37.1)	182(32.7)	120(21.6)	48(8.6)	556(100.0)	
성별	남성	184(40.3)	136(29.8)	94(20.6)	43(9.4)	457(100.0)	.288
	여성	221(40.9)	162(30.0)	104(19.3)	53(9.8)	540(100.0)	
출신	아시아	329(38.9)	263(31.1)	175(20.7)	78(9.2)	845(100.0)	9.640*
	아시아 외	76(50.0)	35(23.0)	23(15.1)	18(11.8)	152(100.0)	
체류 기간	1년 미만	88(39.3)	62(27.7)	53(23.7)	21(9.4)	224(100.0)	6.402
	1~2년 미만	114(40.1)	85(29.9)	55(19.4)	30(10.6)	284(100.0)	
	2~3년 미만	81(37.2)	72(33.0)	43(19.7)	22(10.1)	218(100.0)	
	3년 이상	122(45.0)	79(29.2)	47(17.3)	23(8.5)	271(100.0)	
계열	인문사회	277(41.6)	201(30.2)	132(19.8)	56(8.4)	666(100.0)	10.792
	이공계	82(36.0)	76(33.3)	46(20.2)	24(10.5)	228(100.0)	
	기타	46(44.7)	21(20.4)	20(19.4)	16(15.5)	103(100.0)	
학년	1-2학기	136(36.7)	113(30.5)	79(21.3)	43(11.6)	371(100.0)	5.435
	3-4학기	142(42.8)	97(29.2)	64(19.3)	29(8.7)	332(100.0)	
	5학기 이상	127(43.2)	88(29.9)	55(18.7)	24(8.2)	294(100.0)	
유학 형태	자비유학	270(37.4)	233(32.3)	142(19.7)	76(10.5)	721(100.0)	17.293*
	한국대학 초청	57(51.4)	22(19.8)	25(22.5)	7(6.3)	111(100.0)	
	한국정부 초청	54(47.4)	27(23.7)	23(20.2)	10(8.8)	114(100.0)	
	기타	20(45.5)	15(34.1)	7(15.9)	2(4.5)	44(100.0)	

구분		교육비에 대한 재정 지원	영어 강의 개설 확대	한국대학의 경쟁력 강화	대학에 대한 학업 지원 강화	전체	χ^2
성적	3.0 미만	28(33.3)	30(35.7)	17(20.2)	9(10.7)	84(100.0)	9.585
	3.0-3.5 미만	88(42.1)	62(29.7)	39(18.7)	20(9.6)	209(100.0)	
	3.5-4.0 미만	114(35.6)	101(31.6)	67(20.9)	38(11.9)	320(100.0)	
	4.0 이상	119(43.8)	78(28.7)	57(21.0)	18(6.6)	272(100.0)	
전체		443(44.5)	199(20.0)	153(15.4)	201(20.2)	996(100.0)	

* p<.05. ** p<.01. *** p<.001

영어강의 개설 확대는 20.0%로 학업지원 강화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대학의 경쟁력 강화도 15.4%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수도권인 경우 교육비에 대한 재정지원이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수도권에서는 교육비에 대한 재정지원 37.1% 함께 영어강의 개설 확대에 대해서도 32.7%로 비슷한 수준의 응답률이 나타났다. 또한 아시아 외 지역 학생들의 교육비 지원에 대한 응답률이 50.0%인 것으로 보아 앞의 취업 지원에서와 같이 아시아 외 지역 학생들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가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한국 대학 초청 유학생의 경우도 교육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51.4%로 나타났다.

한편, 유학생들의 진학을 확대하기 위한 기타 의견으로 외국 학생들과의 원활한 관계 형성을 위한 한국 학생들의 문화적인 인식 변화가 제시되었다.

3.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통해 고등교육의 성과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지원과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설문조사 결과는 유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의 실태를 파악하는 거시적인 접근으로 미시적인 실태파악과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면담조사와는 차별화된 분석을 시도했다.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정책 제언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학생들이 학업의 성과가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취업기회 확보는 유학의 목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항목이자 유학국가 선택에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유학생들의 학업에 관한 만족도 조사결과 취업기회 확보에 관한 만족도가 학업 관련 만족도를 진단하는 타 항목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유학에 대한 성과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외국어 역량 강화 및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의 교류와 다양한 학문적 경험은 높게 나타난 반면 취업기회 확보는 유학목적으로 가장 높게 고려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달성도가 낮게 나타났다. 취업기회 획득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취업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습득도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만족도도 높지 않게 나타난 점을 미루어 보면 학업 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에 있어 성공적인 학업은 한국어 활용 역량과 관계가 깊다. 유학생들의 한국어 학습이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의 어학당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학당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유학생들의 학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원으로 어학당 운영 및 프로그램의 질 관리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유학생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평가 및 모니터링에 어학당 운영에 대한 항목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과정 및 교수진의 우수성과 대학의 평가 순위 및 평판도는 유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항목이다. 그러나 유학 전 알고 있던 정보와 유학중 경험한 실제간 격차에 대한 분석결과 교육과정의 내용 및 질과 대학의 평판도가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유학생들에게 한국 유학에 관한 정보 수집의 주요 경로가 한국 유학 유경험자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유학생들의 이러한 인식은 향후 한국 대학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한국 유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엄격한 질 관리는 물론 국제화 부문에 대한 질 관리를 통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유학생 정책을 좀 더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수립·추진하기 위해서는 유학생들의 학업 및 생활에 대해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표준화 된 조사도구 개발 및 실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의 국제화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 마련과 예산 확보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오랜 기간 축적된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 된다면 기존과 같이 유학생 10만 명, 20만 명 등 양적인 유치목표로 국제화의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학업에 관한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입학 전 단계에서 가장 지원이 필요한 항목으로 한국어 교육 및 학습 다음으로 학사관련 정보제공과 전공이수에 필요한 예비(사전)교육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입학 전 단계에서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정도를 알아본 결과 한국 문화교육이나 출입국 및 체류관련 정보 제공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공이수에 필요한 예비(사전)교육은 수업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조사된 만큼 유학의 본질적인 목적인 학업적 성취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원이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직업활동에 할애하는 시간과 성적이 반비례 한다는 점과, 전공 이수에 필요한 예비(사전)교육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예습·복습 보다는 과제수행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점 등도 학업 지원에 다양한 방식을 모색해야함을 시사한다.

여섯째, 한국이 국제 고등교육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조사결과 한국은 치안·안전 면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치안 및 안전은 생활 부분의 경쟁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와 함께 학업적인 면에서의 경쟁력만 갖춘다면 국제 교육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조사결과 유학생들에게 특정 전공분야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높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한국이 국제시장에서 비교 우위를 차지할 수 학문 분야를 더욱 특화시키고, 해당 분야의 졸업 및 자격에 이 취업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취업과의 연계를 강화시킨다면 유학생에 대한 지원의 내용과 질적 수준도 달라질 뿐 아니라 유학생들을 활용한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 구축에 좀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유학생들의 기숙사 의존도가 매우 높음에 따라 기숙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유학생들 지원 영역이 크게 학업과 생활이라는 두 범주로 나눌 수 있다면, 기숙사 지원은 생활 지원에서 그 중요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수도권 지역은 기숙사 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는 기숙사의 시설 및 비용에 대한 불편함을 나타냈다. 따라서 가능한 유학생들이 생활에 드는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대학은 시설 및 비용 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고, 정부에서도 국제화 관련 평가 및 질 관리 시 기숙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영어강의 개설의 규모 확대와 내용의 다양화도 추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어 강의는 체류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이해도가 조금씩 향상될 수 있으나, 영어강의는 수요자 특성이 명확하여

이해도의 높고 낮음의 차이가 극명할 뿐 아니라 이해도 향상에 변화가 크지 않는 특징이 있다. 영어강의 개설은 유학생에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국 대학생들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되므로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선택의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V.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례 분석



1. 분석 개요
2. 분석 결과
3. 논의 및 시사점

V.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례 분석

1. 분석 개요

가. 분석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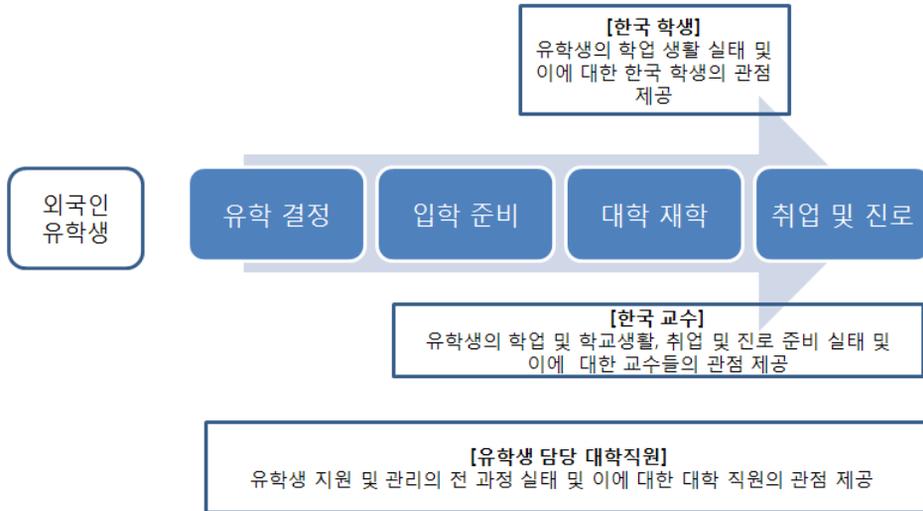
지난 십년간 국내 대학에서 학위·비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하 ‘유학생들’이라 함)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관심이 대학의 안과 밖에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국인’인 우리 대학 사회에서 유학생들은 ‘마이너리티(minority)’로서 대학생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나임순, 2006; 권양이, 2008; 하정희, 2008). 이들은 한국이라는 새로운 국가만이 아니라, 한국 대학의 교육방법과 캠퍼스 문화 등에도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에서 수학하면서 어떠한 고충과 도전을 겪으며, 이를 어떻게 극복해나가는 가를 이해하는 것은 외국인 유학생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전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학생들의 적응 문제는 그동안 정부나 개별 대학에 의해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해 왔다. 「유학생 10만명 유치」라는 정책 구호 속에서 “유학생 유치”만이 강조되었고, 정작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 캠퍼스에서 수학하고 생활하면서 겪는 고충은 간과되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도 유학생들, 또는 대학직원들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의 거시적(macro) 측면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거나(박태호, 2000; 노종희, 2003; 주현진, 2007), 아니면 유학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 유학생들의 한국 문화나 대학생활 적응 과정에만 주목하고 있다(장혁심, 2005; 나임순, 2006; 하정희, 2008). 그에 따라 정작 유학생들과 대학 캠퍼스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한국인 학생이나 교수들’이 수업과 수업외의 활동을 통해서 유학생들과 접하면서 겪는 고충이나 문제점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유학생 문제는 유학생만의 관점이 아니라,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한국인 학생과 교수, 그리고 유학생들을 지원하는 대학 직원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유학”이라는 현상은 해당 학생의 대학생활 경험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경험이기도 하지만, 유학생과 함께 같은 대학 캠퍼스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한국 학생들과 교수들의 경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이기 때문이다. 또한, ‘유학생’은 동질적인 학생 그룹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한국 대학의 행정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효과적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유학생뿐만 아니라, 이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한국인 학생, 교수 및 대학 직원들이 느끼는 이슈와 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그림 V-1]과 같은 분석틀을 적용하여 ‘유학생’을 주 면담 대상자로 설정하되, 이들과 대학 캠퍼스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대학 구성원들(한국인 학생, 교수 및 유학생 업무 담당 직원)도 같이 면담함으로써 유학생의 관리 및 지원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림 V-1]에서 알 수 있듯이, ‘유학생의 한국 유학의 전 과정’을 사례분석의 중심축으로 설정하였다. 반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을 통해서 ‘유학 결정, 입학 준비, 대학 재학, 취업 및 진로 준비 과정’에 대한 유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들과 대학 캠퍼스에서 긴밀히 상호작용을 하는 대학 구성원들(유학생 담당 직원, 한국인 학생, 교수)이 유학생에 대해서 갖는 인식도 함께 조사하였다.

유학생 업무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대학 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유학생 지원 및 관리의 전 과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더불어 유학생과 관련한 대학 직원들의 관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국 교수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유학생의 학업 및 학교생활, 취업 및 진로준비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와 더불어 유학생과 관련한 교수들의 관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림 V-1]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례 분석틀

마지막으로, ‘한국인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유학생들의 학업생활과 학업외의 활동(동아리 참여 등)에 관한 정보를 보완할 수 있었고, 아울러 유학생과 관련한 한국인 학생들의 관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다면적 면담’을 실시함으로써 유학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실태 및 이와 관련된 대학 구성원들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나. 사례 대상 선정기준

1) 대학 및 피면담자 선정기준

유학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례 조사를 실시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전체적인 대학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3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면담 대학 4개교를 선정하였다.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첫째는 ‘대학에 재학하는 유학생의 구성 비율’이다. 2011년 현재 4년제 일반 대학 중에서 해당 대학의 전체 유학생 중에 ‘학부’에 재학하는 유학생 비율이 50% 이상 넘는 대학을 선정하였다. ‘외국인 대학원생’의 경우 우리 정부의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이공계 학생 중심으로 유치되고 있으며, 한국어 능력 보다는 ‘영어능력’과 ‘연구능력’이 강조되는 특성이 있어 유학생 유치와 관련된 일반적인 이슈를 보여주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부 유학생 비율이 50% 이상 넘는 대학들을

선정하였다. 둘째는 대학이 위치한 ‘지역’으로서, 전국적인 대표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수도권,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지역에서 각각 1개교를 선정하였다. 당초 전라도 지역에 있는 대학도 섭의를 시도하였으나 대학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면담을 실시하지 못했다. 셋째는 ‘대학 설립 유형’으로, 설립 유형에 따른 단위 대학 차원의 유학생 지원 시스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국립대 1개교, 사립대 3개교를 선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기준을 통해서 선정한 대학들의 유학생 현황은 <표 V-1>과 같다.

<표 V-1> 면담 대상대학의 유학생 현황

대학	유형	2011 외국인 유학생 현황 (명/%)				
		어학연수	학부	대학원	기타연수	계
A 대학	수도권, 사립대	467 (21.0%)	1,217 (54.7%)	436 (19.6%)	105 (4.7%)	2,225 (100%)
B 대학	강원권, 사립대	105 (18.7%)	356 (63.3%)	38 (6.8%)	63 (11.2%)	562 (100%)
C 대학	충청권, 사립대	27 (3.9%)	513 (74.1%)	75 (10.8%)	77 (11.1%)	692 (100%)
D 대학	경상권, 국립대	158 (11.7%)	695 (51.4%)	422 (31.2%)	77 (5.7%)	1,352 (100%)

대학별 면담 대상자는 면담 대학에서 유학생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표 V-2>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하였다. 첫째, ‘유학생’의 경우 3~4학년으로서 학부과정(이공계열, 인문사회계열)에 재학하고 있으며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 중국 유학생과 기타 국가들의 유학생을 대학별로 4~6명을 선정하였다. 각 대학의 면담과정에서 중국인 학생을 포함시킨 이유는 전체 유학생 중에 약 7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표 V-2> 대학별 면담 대상자 선정 기준

면담 대상		면담자 수	선정 기준
학생	외국인 유학생	4~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공계열, 인문사회계열 혼합 ◦ 그룹 면담 진행 ◦ 학부 3, 4학년 생 ◦ 중국·영미권 유학생 혼합

면담 대상		면담자 수	선정 기준
	한국 대학생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공계열 및 인문사회계열 혼합 ◦ 그룹 면담 진행 ◦ 학부 3, 4학년 생 ◦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수업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 (단, 국제학부 제외, 외국에서 수학 경험자 제외)
교직원	일반 교수	1~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공계열, 인문사회계 각 1명 ◦ 외국인 유학생을 지도해 본 한국인 교수
	담당직원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처 관계자

둘째, ‘한국 대학생’의 경우 3~4학년으로서 학부과정(이공계열, 인문사회계열)에 재학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수업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학교별로 3명씩 선정하였다. 단, 언어능력과 외국생활 경험 등의 면에서 일반 한국인 학생들과 차이가 있는 국제학부에 재학하는 한국인 학생들과 외국에서 장단기 해외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는 한국인 학생들은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교수의 경우, 학부과정에 등록된 유학생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교수 중에 학교별로 가급적 이공계열, 인문사회계열로 1명씩을 면담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대학별로 유학생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과장급(또는 팀장) 1명과 실무직원 1명을 면담하였다.

2) 내용 및 방법

면담 대학을 방문하기 전에 각 대학의 국제협력처(또는 대외협력처) 등과 같은 유학생 업무 담당 부서의 홈페이지, 그리고 유학 안내 웹사이트 등을 숙지하여 각 대학의 유학생 지원체제의 특징을 면담 전에 상세히 파악하였다. 아울러, 각 대학의 유학생 업무 담당자들에게 연구의 취지 및 면담을 희망하는 학생과 교수들의 특성을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서 설명하였고, 원활한 면담 섭의를 위해서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면담비를 지급한다는 의사도 전달하였다. 면담 시간의 제약을 고려하여 각 대학의 협조를 얻어 피면담자들 모두에게 사전에 면담지를 전달하였다.

면담은 각 대학을 연구진 4명이 2012년 5~6월에 직접 방문하여 유학생 업무 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사무실에서 실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면담을 첫 번째로 실시한 A 대학에서는 유학생 6명을 면담해야 했기 때문에, 연구진 2명씩이 유학생 3명씩을 2시간 정도 면담하였고, 나머지 피면담자들(한국인 학생들, 교수들, 국제협력처 직원들)은 연구진 4명이 함께 면담 그룹별로 약 2시간씩 면담하였다. 하루 종일이 소요된 A 대학 면담 경험을 토대로, 그 이후에 진행된 대학별 면담

에서는 대학 관계자들의 시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구진을 2팀(2인 1팀)으로 나누어 각각 2개의 면담 집단을 담당하였고, 집단별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면담을 실시하였다.

각 대학별로 실시한 면담 현황은 <표 V-3>과 같다. 수도권에 위치한 대규모 사립대학인 A 대학에서는 유학생 6명, 한국인 학생 3명, 교수 2명, 교직원 2명을 포함하여 총 13명이 면담에 참여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유학생들이 다른 대학들보다 많았던 이유는 A 대학의 경우 총 유학생 수가 2,225명으로 면담 대학 중에 가장 많았고, 유학생의 출신국도 다른 대학들보다 다양했기 때문이다. 강원도에 있는 중소규모 사립대학인 B 대학에서는 유학생 4명, 한국인 학생 3명, 교수 2명, 교직원 2명을 포함하여 총 11명이 면담에 참여하였다. 이 대학에서는 주로 중국 유학생을 타겟으로 유치하기 때문에 학위과정에 재학하는 중국 학생들을 위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충청도에 위치한 중소규모 사립대학인 C 대학에서는 유학생 4명, 한국인 학생 3명, 교수 2명, 교직원 2명을 포함하여 총 11명이 면담에 참여하였다. 이 대학도 B 대학처럼 중국 대학들과의 협약을 통해서 중국인 학생들을 주로 유치하고 있어서 중국인 학생들을 주로 면담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상도에 위치한 대규모 국립대학인 D 대학에서는 유학생 4명, 한국인 학생 3명, 교수 1명, 교직원 2명을 포함하여 총 10명이 면담에 참여하였다.

<표 V-3> 면담 실시 현황

장소	일시	피면담자				총계
		외국인유학생	한국인학생	교수	교직원	
A 대학	'12. 5.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명 ◦ 국적: 중국(3), 토고(1), 말레이시아(1), 파라과이(1) ◦ 학년: 2학년(2), 3학년(1), 4학년(3) ◦ 계열: 인문사회(4), 이공계(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명 ◦ 학년: 3학년(3) ◦ 계열: 인문사회(2), 이공계(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명 ◦ 계열: 인문사회(1), 이공계(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명 ◦ 국제협력팀 ◦ 보직: 팀장(1), 팀원(1) 	13명
B 대학	'12. 5.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명 ◦ 국적: 중국(3), 몽골(1) ◦ 학년: 3학년(2), 4학년(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명 ◦ 학년: 3학년(2), 4학년(1) ◦ 계열: 인문사회(2), 이공계(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명 ◦ 계열: 인문사회(1), 이공계(1) ◦ 활동: 학과 내 국제 IT 담당(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명 ◦ 국제교류팀 ◦ 보직: 팀장(1), 팀원(1) 	11명

장소	일시	피면담자				총계
		외국인유학생	한국인학생	교수	교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 인문사회(2), 이공계(2) 				
C 대학	'12. 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명 ◦ 국적: 중국(3), 필리핀(1) ◦ 학년: 2학년(1), 3학년(1), 4학년(2) ◦ 계열: 인문사회(2), 이공계(1), 예체능계(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명 ◦ 학년: 3학년(1), 4학년(2) ◦ 계열: 이공계(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명 ◦ 계열: 인문사회(2) ◦ 활동: 중국어교육원장(1), 국제교육교류본부장(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명 ◦ 국제교육교류 본부 ◦ 보직: 팀장(1), 팀원(1) 	11명
D 대학	'12. 6.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명 ◦ 국적: 중국(4) ◦ 학년: 4학년(4) ◦ 계열: 인문사회(3), 이공계(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명 ◦ 학년: 3학년(2), 4학년(1) ◦ 계열: 인문사회(1) 이공계(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명 ◦ 계열: 이공계(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명 ◦ 국제교육원 ◦ 보직: 팀원(2) 	10명
계						45명

면담은 질적 연구방법 중의 하나인 '반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 방법에 의해서 진행하였다. 사전에 면담 대상별로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질문들을 구조화하였으나, 면담의 흐름과 면담 과정에서 제기된 새로운 이슈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면담을 진행하였다. 피면담자별로 면담 내용은 조금씩 상이하나, 앞서 제시한 분석들에 맞추어 유학생들의 대학결정, 입학준비, 재학, 취업 및 진로 모색 단계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대상별로 중점 면담 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유학생'의 경우 한국 유학결정 요인, 입학 전 준비 과정, 학습 관련 고충 및 동아리 활동, 취업 및 진로 준비 등에 중점을 두었다. '한국인 학생'의 경우 유학생들과 함께 학습하고 생활하는 경험, 학교의 유학생 정책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하여 주로 질의하였다. '교수'의 경우 유학생으로 인한 수업 및 학생 지도의 변화, 유학생 지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 등을 알아보았으며, '유학생 업무 담당 직원'에게는 학교의 국제화 정책, 유학생 인증제가 유학생 유치에 미치는 영향, 유학생 지원 관련 고충 등을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이상의 질문 내용을 면담 대상별로 정리하면 <표 V-4>와 같다.

〈표 V-4〉 피면담자별 주요 면담 내용

구분	내용
외국인 유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유학결정] 정보획득, 결정요인, 대학선택, 한국 정부 또는 대학에게 연고자 하는 정보 및 도움 등 ◦ [입학 전] 입국과정에서의 대학측 도움, 어려움, 한국어 공부, 숙소, 입학 시 어려움, 한국 정부 또는 대학으로부터 연기를 희망하는 지원 등 ◦ [재학 중] 생활관련, 학업관련, 교수 및 다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기타 고충 ◦ [취업 및 진로] 취업 또는 진학 계획, 결정 이유, 정보획득 방법 등
한국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생의 영향] 수업의 질, 팀 프로젝트 수행, 성적평가, 유학생들의 장·단점, 영어강의 확대에 대한 의견, 유학생들과의 교류관계 등 ◦ [유학생 정책 관련 개선] 유학생 확대에 따른 대학교육의 질 제고 방안, 유치과정에 관한 제언, 학생간 갈등 해소 전략 등
유학생 지도경험이 있는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생 교육] 유학생 확대에 따른 수업의 질 변화, 한국재학생과 유학생 간 융합을 위한 노력, 유학생들의 장·단점, 지도 관련 고충, 유학생 증가에 따른 질 제고를 위한 학교 측의 지원 방안 등 ◦ [상담 및 지도] 주요 상담내용, 유학생 상담 시 특별히 고려하는 점, 상담 관련 고충, 학교 차원의 지원 등 ◦ [취업 및 진로] 유학생들의 진로 지도 및 현황, 후속 관리, 지도 시 고려사항, 학교 및 정부 차원의 지원 등
대학의 유학생 업무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생 유치] 해당 대학의 유학생 유치 목적 및 전략, 유치 방법, 유치 관련 고충, '유학생 관리인증제'가 유학생 유치에 미치는 영향 등 ◦ [입학전 지원] 비자 발급, 하숙, 한국어 능력, 입학 준비 과정과 관련한 대학 측의 지원 및 어려움 등 ◦ [재학 중] 유학생 학원 지원, 상담, 학비 및 생활비 지원, 불법 아르바이트 예방, 유학생 네트워킹 구축, 담당 직원의 고충, 유학생 이해 및 관리에 관한 학교 구성원들의 협조 및 정책적 노력 등 ◦ [취업 및 진로] 상담체계 졸업생 후속 관리, 졸업생이 유학생 유치에 미치는 영향, 선후배 네트워크 구축, 담당직원의 고충 등

면담 자료의 정확한 기록을 위하여 면담 장소에서 즉시 녹음하였으며, 전사(transcription) 작업을 거쳐서 대학별·면담 대상별로 정리하였다. 전사한 자료는 수차례 분석과정을 통해 대주제, 소주제, 핵심어 중심으로 범주화를 하였고, 범주 수정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영역 분석(domain analysis)과 분류 분석(taxonomic analysis)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의 밀도를 높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입학전 과정 - 재학 과정 - 취업 및 진로 지도'에 대해서 유학생들이 직면하는 도전

과 기회를 선행연구와 연계하여 논의하였고, 한국인 학생 및 교수, 대학 직원들의 면담 결과를 더하여 논의를 발전시켰다. 이와 같이 유학생과 관련된 한국인 학생 및 교수, 대학 교직원에 대한 면담과정은 자연스럽게 본 연구결과의 타당도를 높여주는 ‘삼각 검증(triangulation)’의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아울러, 연구결과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자 2명이 돌아가면서 면담 내용에 대한 교차점검을 실시하였고, 면담 내용과 선행연구 결과의 일치여부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학생 정책 관련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연구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받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분석결과를 최종 수정·보완하였다.

2. 분석 결과

이하에서는 앞서 제시한 연구 분석들에 따라 면담 결과를 유학생의 1) 유학 결정 단계, 2) 입학 준비 단계, 3) 대학 재학 단계, 4) 취업 및 진로 준비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각 단계별로 외국인 유학생이 직면하게 되는 고충과 이의 극복을 위한 가능성을 유학생 본인의 시각만이 아니라, 이들과 대학생활을 통해서 밀접히 상호작용을 하는 한국인 학생, 교수 및 유학생 담당 교직원의 관점을 더하여 논의하였다.

가. 유학 결정 단계

1) ‘한류’ 등의 영향 및 한국 대학들의 적극적인 유치

1990년대부터 불어온 ‘한류(韓流)’의 영향으로 인해 유학 국가로서의 한국의 매력도는 최근 몇 년 동안에 급격히 증가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문홍호 외, 2010; 호세전·구기보, 2010). 면담한 유학생 대부분이 일본 보다 저렴한 한국의 물가나 지리적 근접성, 한국의 경제발전 성과 등을 한국 유학을 선택한 이유로서 제시하였지만, ‘한류(韓流)’의 영향도 빼놓지 않았다. 한국 드라마나 K-Pop을 즐기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한국 유학에 대한 관심도 커지게 된 것이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오기 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떤 길을 가야 할까 고민해보다가, 한국이 나라가 경제 발전이 잘 되어있고, 아시아에서는 어느 정도 대표적인 국가니까... 그리고 또한 저 개인적으로 한국의 음식이랑 영화를 좋아해서... 한류 영향을 좀 받아서... 아시아권에서 그래도 가까운 것 같고...(A대 조선족 학생 1)

저는 고등학교 때 한국 친구 통해서 한국정보 알게 되었고, 한류 때문에 한국에 오고 싶었어요.. [한국어 왜 배웠어요?] 한국 드라마 때문에..(B대 중국 학생 1)

이로 인해 유학생 수가 지난 몇 년간 급격히 늘어났지만, 아직은 ‘중국인 유학생’이 전체 유학생의 7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유학생 출신국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높은 중국인 학생 의존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때, 국내 대학의 유학생 비율이 급격히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에 재정위기에 봉착한 미국 대학들이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발급 규제를 완화하면서 한국으로 유학 오는 중국 학생들이 줄어든 데에서도 알 수 있다(조선일보, 2012).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유학생 유치의 다변화’는 유학생 유치 전략의 핵심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에 K-Pop의 영향 등으로 인해 다양한 국가 출신의 ‘교환 학생’이 늘어나는 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K-Pop 등을 그 본산인 한국에서 직접 즐기기 위해서 6개월~1년 정도 교환 학생으로서 한국에 체류하면서 한국 문화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이인영, 2011). 이는 한국 생활이나 한국 대학의 매력도가 증가한다면 유학생 유치의 양적 확대만이 아니라, 유학생의 구성도 다양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교환학생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인지도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숫자가 적었다가 요즘에는 이제 한국이 조금 많이 알려지고 문화적인 측면.. K-pop 이런 게 부상됨에 따라서 오히려 증가되고 있어요. 저희 학교는 증가세가 더디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D대 국제처 직원 2)

이와 같이 한류의 영향 등으로 인해 유학생이 증가하면서 한국 대학들의 ‘유학생 유치 전략’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주로 중국 현지에서 운영되는 ‘유학원’을 통해서 유학생을

유치했으나, 유학생 유치의 확대와 질 관리를 위하여 외국에 직접 유치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현지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유학생을 직접 유치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면담한 대학 중에 서울에 있는 대규모 대학인 A대학과 C에서는 중국 등에 직접 사무소를 설치하여 공격적으로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었고,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소규모 사립대학들인 B, C 대학에서는 중국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1(1년 중국 어학연수)+4(4년 한국에서 과정이수), 1+3 과정, 2+2 과정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전략들은 유학생 유치와 관련된 국내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유치 전략도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에 중국 남경에 현지사무소를 설치하여 직접 유치하고 있어요.... 많은 대학들이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유치를 할 때 우리는 주로 '프로그램'으로 많이 운영을 했어요. 중국대학에서 2년 공부를 하고 우리 대학으로 편입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일정정도 한국어를 그 쪽에서 습득을 하고 우리 대학으로 올 수 있게끔... [불법 아르바이트를] 처음부터 배제하기 위해서 중국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로 데려왔죠. (C대 직원 1)

한편, 한류 등으로 인한 유학생 확대는 '대학의 소재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유학생의 절대 규모가 커지면서 면담 대학 모두에서 유학생 비율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학의 위치가 수도권과 멀어질수록 유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학생들 역시 한국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문화 중심지인 수도권 지역에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 국립대의 경우 사립대학에 비하여 등록금이 많이 저렴하지만, 경직적인 예산구조로 인해 사립대학들처럼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이나 생활비 지원 등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학생 유치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가장 어려운 점은 대부분의 교환학생들은 문화적인 체험을 원하기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가려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학교 위치에서 대해서 학생들에게 설명해주고 이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일단은 첫 번째로 어려운 점이고요. 그리고 재정적인 거.. 사실 사립대학에서는 유치를 하려면 항공료 지원해준다. stipend(생활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치를 하시는데 저희는 국고를 받아서 쓰는..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는 예산도 국고에서 받아서 쓰고 하나까 상당히 경직된 예산 구조여서... 자유롭게 오퍼(offer)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D대 직원 2)

2) 한국 대학은 여전히 한국인 학생 위주로 대학 정보 제공

위와 같이 한국 유학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대학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 대학들은 여전히 소수인 것으로 보인다. 면담에 참여한 유학생 대부분이 한국 대학과 전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겪은 고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다. 한국 대학들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탈 등이 없기 때문에, 면담한 유학생 대부분이 한국 유학 중인 친구들이나 유학원의 추천에 의존하여 한국 대학에 관한 정보를 획득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에 학교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는 스스로 알아서 검색하거나, 대학들을 일일이 방문해서 알아야 되는데... 입학처에서 개인적으로 질문해보고 했는데, 같은 정보를 똑같은 곳에 공유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한국 정부가 정보지원에서 편의를 제공해준다면 좋을 것 같아요 (A대 조선족 학생 2)

학생이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직접 찾아보는 경우에도 대학 및 전공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만이 영어로 되어 있고, 전공별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전공을 선택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한국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과거 보다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유학생 입장의 관점’에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정보를 찾다보면 한국어 모르는 상태에서 대부분 학교에서 영문 홈페이지 있고, 그나마도 학교에 관한 정보이고, 다른 과라던지 커리큘럼 내용은 없어요. 미국 학교 검색하면 그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경영학과 검색하면 어떤 것들을 배우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오는데 그런 정보가 거의 없어요...(B대 몽골 학생 1)

반면에, 면담 대학 중에 A 대학에서는 ‘중국어’로 입학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서비스가 중국인 학생들이 한국 대학을 선택할 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 학생 입장에서는 설사 중국어로 제시된 설명이 부실하더라도 ‘중국어 홈페이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당 대학이 중국 학생들을 배려한다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대학들

이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육 공급자인 대학’의 입장이 아닌, ‘교육 수요자인 유학생’의 관점에서 기존의 한국인 학생 위주의 대학 행정 서비스가 유학생들에게도 적절한 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학교 홈페이지에 중국어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어서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검색하다보니까... 한국어 되는 정보와 중국어 되는 정보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마 그런 점이 어려운 점이었어요. (A대 중국 학생)

나. 입학준비 단계

1) ‘유학원 도움’ 없이는 여전히 높은 한국 입국의 문턱

최근 몇 년 동안에 유학생 비자 발급 절차 등이 많이 간소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수많은 서류 준비 및 공증 절차가 요구되는 비자 발급은 대부분의 유학생들, 특히 중국인 유학생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었다(문흥호 외, 2010; 이인영, 2011). 면담에 참여한 중국인 유학생 대부분은 직접 비자 발급을 준비하기 보다는 ‘현지 유학원’을 통해서 대리 발급 신청을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유학원에 제출해야 하는 여러 서류들도 준비하고, 아울러 상당한 금액의 비용도 부담해야 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많이 바꿨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한국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졸업장 같은 증명서를 공증해야 되는데... 그러한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옛날 다녔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찾아가야 되는데... 전에 다녔던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그러한 증명서를 얻어서, 졸업한 학교를 가서 서류를 떼야 되는 상황이... 또 공증을 하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2~3개월... 그러한 것들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A대 조선족 학생 2)

최소한의 서류만.. 제정보증서나. 잔고 증명 그런 것 한두가지는 이해가 되는데, 친족 증명서.. 이런 것을 고등학교 것부터 다시 요구하니까... 저희도 힘들지만, 학생들이 힘들고, 비용 들고.. 근본적으로 서류를 다시 달라는 것에 따지면 저희도 할 말이 없어요.. (B대 직원 1)

대부분의 중국 현지 유학원에서는 비자 발급 신청 업무만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한국 대학들과 연결하여 유학생에게 한국 대학을 알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국 유학생은 “비자발급과 한국어 유학, 한국 대학 입학”이라는 토탈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 그에 따라 유학 준비만을 위해서도 상당한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과정은 한국 유학의 준비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켜서 한국 유학의 매력도를 떨어뜨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가장 고충을 많이 호소한 피면담자는 유학생 본인이 아니라, 유학생 유치를 담당하는 ‘한국 대학의 교직원’이라는 것이다. 유학생의 경우, 시간을 들여서 유학원에서 요청하는 서류들을 준비하고 관련 비용을 지급하면 되지만, 대학 교직원 입장은 지역 출입국관리소를 통해서 소속 대학에 유학오기를 희망하는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을 최종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책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유학생 업무 관련 부서가 서로 다른 정책 목적을 가진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입장에서는 최근에 발표한 「20만명 유학생 유치 계획」에서 나타나듯이,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법무부는 이민정책 등과 관련하여 불법 체류자 금지 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비자발급 정책의 잦은 변경은 유학생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대학 직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법무부 사람이랑 말도 안합니다.... 이게 약간은 통일되게,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에게 미리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바뀌었다. 아니면 무엇을 더 요구해 달라. 저희는 기준으로 해왔는데 예전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또 다시 학교 측에 시간은 없는데, 학생들은 입학해야 되는 시기에.. 급작스럽게 원본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깐.. 그쪽 학교에서도 불만이 생기고.. 우편물을 보내야 되고, 무언가를 번역하고 공증해야 되는데 돈이 들고.... 가장 힘든 부분이 이런 겁니다.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가 지역마다 있는데 기준이 달라요 (B대 직원 2)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 교직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지역에서 누가 최종적으로 유학생 비자 발급 업무를 담당하느냐에 따라 비자 발급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출입국관리법의 해석에 있어서 담당자 주관이 굉장히 폭넓습니다. 이거는 명문화 되어 있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야 물론 모든 사항을 명문화하기는 어려워서 그렇다는 게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그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서 과거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또 우리 학교 측에 보면 전임자라든지 출입국에서 보면 전임자라든지 인정해줬던 사항을 그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 담당자가 바뀌므로 해가지고 그것이 전부 바뀌버려요..(C대 직원 1)

이와 같이 변화하는 비자발급 정책에 맞추어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을 지원해주어야 하는 교직원들은 일관성이 있는 유학생 유치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입장에 놓이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과부와 단위 대학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교과부와 법무부간의 협력과 연계가 보다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2) 유학생들로부터 외면 받는 기숙사

한국 비자를 발급받은 후에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에 입학할 준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숙소 정하기'라고 할 수 있다(이인영, 2011). 유학생들이 고려할 수 있는 숙소 형태는 대학 기숙사, 하숙, 자취 등인데, 면담 결과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주택이나 아파트를 임대하지 않는 한 거주 불편함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 문제였다.

기숙사가 제일 싸죠...(그런데 왜 안 들어가요?) 음... 일단 학생이 너무 많고요. 자기 차례가 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자취하면 자유로워요... 기숙사는 지켜야 되는 게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자취가 편하죠.(A대 중국 학생)

면담한 대학은 모두 유학생들에게 '대학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는데, 면담한 유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은 보통 1학기나 1년 정도 기숙사에 입주한 후에는 기숙사를 나와서 하숙이나 자취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거주 형태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 차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 기숙사가 가진 공통의 문제점도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 기숙사비가 유학생들이 부담하기에 비싼 편이고, 지방대의 경우 기숙사비는 저렴하지만 유학생들의 다양한 음식 취향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한식 위주로 의무 급식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 음식을 선호하지 않는 유학생의 입장에서는 하루

두 끼를 기숙사에서 먹어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고역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습관을 가진 여러 명의 학생들이 기숙사 방을 공유해야 함으로써 견뎌야 하는 불편함 역시 유학생들로 하여금 기숙사를 외면하게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유학생들은 어느 정도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면 혼자, 또는 동포 친구들과 함께 자취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숙사는 좋은데, 그래도 불편해요. 해 먹을 수 없으니까. 부엌 같은 게 없으니까.. 외국 음식에 익숙해졌지만.. 저한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A대 토고 학생)

이러한 실태와 관련하여 면담에 참여한 대학 교직원 대부분은 최근에 정부에서 도입한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중의 평가요인 중의 하나로서 포함된 ‘유학생 기숙사 수용률’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주할 기회를 제공하여도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은 지표라는 것이다.

외국인 학생들이 원하지 않아서 [기숙사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거든요..사실은 밥이 제일 문제인데..그래서 안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그게 지표가 낮으면 기숙사 시설이 없다는 식으로 [유학생 인증제] 평가가 돼 버린다거나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D대 직원 1)

이러한 지적을 고려할 때 유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숙사에 우선 입학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숙사 수용률을 인증제의 지표로서 삼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기숙사가 유학생들에 의해서 외면되는 상황에서 기숙사 수용률을 인증제의 지표로서 삼을 경우 대학들이 유학생들의 의사에 반하여 자칫 기숙사 거주를 ‘의무화’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한국어 습득과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가교, 어학당

단위 대학에서 운영하는 유학생을 위한 지원 시스템이 취약한 가운데,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어학당은 유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가교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면담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한국 대학 입학에 필요한 한국어 실력을 갖추고, 미리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한국 대학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어학당(또는 어학원)을 6개월~1년 정도

다닌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어학당 과정을 이수하면서 해당 대학의 캠퍼스에도 익숙해지고, 같이 공부할 유학생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면서 학비 부담이나 입학조건 등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경우, 해당 대학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또한, 유학생들은 어학당 생활을 통하여 한국어 능력만이 아니라, 자취나 하숙을 구하는 법, 아르바이트 하는 법 등과 같이 한국 생활을 꾸려가는 데에 필요한 방법과 지식도 배우고 있었다.

그건 제가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2년 동안 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다보니까... 한국 생활에 적응도 되고 해서... 자기 스스로 알아서 방을 구해보면 남아 있는 집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어서... 그래서 방을 하나 구해봤어요 (A대 조선족 학생 2)

실제 면담한 유학생 대부분이 어학당 경험을 자신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지적하였다. 어학당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 생활과 한국대학에의 적응 문제를 어느 정도 미리 겪고 해소함으로써 이른바 ‘준비된 유학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어를 어디서 배우냐를 소개받을 때, 우리 대학교 한국어 어학당에 와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너무 좋아서 여기 있다 놀러 왔은 것이 셋 중에 둘 정도 될 거예요 (A대 직원 1)

이러한 경험들은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어학당이 한국어 교육만이 아니라, 질 높은 한국 문화와 한국 대학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해준다면 유학생들의 한국 유학 경험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 대학 재학 단계

1) 수많은 걸림돌 앞에서 아스러지는 한국 유학의 꿈

가)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학업과 소통 장애

유학생 대부분이 입학 초기에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학업을 따라 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조혁수·전경태, 2009; 주휘정, 2010; 이인영, 2011). 대학 입학 전에 한국어를 배운 기간

이 1~2년에 불과한 상태에서 학업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나임순, 2006; 문홍호 외, 2010). 대부분의 한국 대학에서 입학요건으로서 요구하는 한국어 능력이 대학 학업을 따라가는 데에 충분하기 보다는 한국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인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유학생의 상당수가 1, 2학년 때에는 교수가 강의하는 내용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채 조용히 침묵만 지키므로써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고 있었다.

원래 한국어 어렵잖아요. 그런데 교수님 말씀 너무 어려워요... 인사말 다음부터는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다시 한국어로 외우고.. 시험 할 때도 한국어로 써야 되니까.. 알고 있는데도 한국어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교수님이 가끔씩 영어로 하라고...그리고 한자가 너무 많아요 (A대 말레이시아 학생)

제 생각에는 제일 큰 거는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학수학을 듣는데요, 저도 한국인 교수님 말이 이해가 안가요. 교수님 말이 빨라가지고요. 옆에 애(유학생)는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분명히 누군가 좋다고 해서 들었을 거예요. 인기 있는 교수님인데.. 그렇게 해서 힘들게 해서 들어왔을 건데, 자기는 출석도 안 해버리고 결국에는 못 알아들으니까요.. 그리고 수업시간에 들어와 봤자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D대, 한국 학생 1)

이와 같이 학업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이 있어도 유학생들 입장에서는 신입생 시절에 한국인 학생들이나 교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김선남, 2007). 한국어로 자신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표현할 줄 알아야 하고, 상대방의 표현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도움을 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학과에 동포 선배가 있거나 자신의 모국어에 익숙한 한국인 학생이 있을 경우에 유학생의 학업지속 가능성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중국 학생들도 상담이 필요해서 교수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언어 문제’예요. 그리고 교수님의 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교수님을 찾아 가야겠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있어요.. 호감이 있는 분, 언어적으로 문제가 없는 분을 찾아갑니다 (C 대학 교수 2).

대부분의 수업에서 팀 프로젝트, 실험 등과 같은 ‘협동 과제’가 늘어나는 추세도 유학생의 부족

한 한국어 능력을 더욱 문제가 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한 유학생들의 경우 한국인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유학생들과의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협동 과제에 기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왜 중국 학생하고만 팀 프로젝트해요? 근데 거의 같은 나라 사람끼리 해요.. 이미 아는 사이니까.....[다른 나라 사람은 왜 불편해요]: 의사소통... 언어 때문에 잘 모르니까...(B대 중국 학생 1)

제가 외국인 하고 같은 조가 되면, 저 같으면 저 혼자 해야 되거든요. 저 혼자 뭐 어떻게든지 찾아서.. 제가 연습해오고 하는데.. 또 사람이 그렇잖아요. 제가 혼자 연습 해 와서 하는데 옆에 와서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제가 '아아~'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화를 낼 수도 없고...그래서 한국인 친구를 딱 학년에 있는 친구를 불러와서 같이 하든가.. 그렇게 해서 하는데....(D 한국 학생 3)

면담한 교수 중에는 유학생들이 '팀 활동'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적어도 팀별로 유학생을 1명씩 배정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도 있었으나, 소위 '취업 스펙'을 쌓기 위해 치열한 학점 경쟁을 벌이는 한국인 학생들에게 소통하기 어려운 유학생들이 환영받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유학생의 경우, 팀 활동에 소극적이게 되고, 그에 따라 거의 노력하지 않고 점수를 받는 '무임 승차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 IT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팀 작업이 단순히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거나 오프라인 미팅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카페' 활용 등과 같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 부족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다.

팀 프로젝트 유형마다 다르지만, 싸이 클럽이나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서 자료를 올리는데, 외국인 학생들은 그런 것이 익숙하지 않고, 가입도 좀 힘들고.. 그런 것도 있고.. 참여도 잘 안하고..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또 언어적인 문제도 있으니까...한국어를 잘하는 학생도 있지만, 못하는 학생도 있어서...(A대 한국 학생 3)

학생들이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배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교수한테 컴플레인을 하기도 하고, 걱정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면 그 학생들의 참여도가 낮아짐으로써 전체적인 조의 평가 점수가 낮아지기 때문이죠. (C대 교수 2)

이러한 문제는 ‘전공 지식의 위계성’이 강한 학과일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수학 전공’과 같이 1학년 때 듣는 전공수업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2학년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경우에 1학년 수업을 거의 이해하지 못한 유학생들은 2학년 수업도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와 같은 악순환이 반복될 경우, 졸업에 필요한 최소 평점을 받지 못해서 제적상황에 놓일 위기도 커지게 된다.

한편, 한국어 능력 부족은 비단 유학생의 학업만이 아니라, ‘동아리 참여’와 같은 수업 외 교내활동의 참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조혁수·전경태, 2009).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유학생들의 경우 동아리에 가입하기 어렵고, 설사 한국어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2~3학년 시기에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어도 대부분의 동아리가 1학년만을 신입 회원으로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설사 유학생들이 적극성을 발휘하여 가입을 하더라도 한국 학생들이 ‘소통 장애’를 고려하여 선뜻 유학생들에게 다가서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동아리 활동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 그나마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유학생의 경우 글로벌 체험 등을 지향하는 동아리에 가입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소통 장애로 인해 가입을 해도 오래 버티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고등학교 때부터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고 대학 와서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유학생들이 [동아리에서] 못 버티는 이유가 한국어가 연습되려면 3, 4학년인데... 그때 가입하면 선 후배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 못 버티고... 술 때문에도 그렇고... (A대 조선족 학생 1).

유학생이 들어오잖아요.. 애들(한국 학생들이) 경계하는 면이 있어요.. 그 마인드를 풀면 외국인 학생들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데.. 일단 외국인이 들어오면 한국인들이 긴장해요. 재가 말 걸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한국 애들이 피하니까.. 개네도 사람이다 보니까.. 눈치를 아니까.. 서로 피하다가 적응 못하고 나가고.. 그런.. 서로 긴장하고.. (B대 한국 학생 2)

이와 같이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유학생이 겪는 고충을 줄여주기 위해서 면담한 대학들에서는 ‘유학생 별도반 구성, 중국어 강의 진행, 한국어 학점 인정제’ 등과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었다. B 대학의 경우, IT 전공에서는 중국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과 선행지식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한국인 학생과 별도로 반을 구성하여 2학년 때까지 운영하고, 3학년 때부터 한국인 학생들과

합쳐서 운영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략은 중국인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학습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유학생들의 학업적응 지원 면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보통 학생들이 가장 많이 친해지는 신입생 시기에 유학생들과 한국인 학생들과 분리함으로써 이들이 서로 융합하지 못하고 ‘섬처럼’ 따로 지내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저희는 과정 자체를 만들었던 취지 자체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저학년일 때 별도의 수업을 진행하겠다, 하는 걸로 과정을 만든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1기 학생들 8명 들어왔을 때는 1~2학년 전공수업 중심으로 별도의 수업을 진행했어요. 그 학생들이 한국어 많이 늘은 상태에서 한국어 학생 수업 같이 들어 왔고요....[그런데 문제는] 3학년이 되다보니.... 3학년 와서 합쳐졌는데 한국 학생들을 잘 아는 친구가 없어요.. 저희 과에 들어와 있는 수가 소수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섬처럼’ 따로 지내요 (B대 교수 1)

또한, 면담한 직원 대부분은 외국인 유학생의 부족한 한국어 실력을 고려하여 ‘교양 한국어 과목’에 대한 학점을 종전과 같이 유학생들이 인정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현재는 유학생들(교환학생 제외)이 ‘교양 한국어’를 이수할 경우에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유학생 관리 지침에 따라 정규학위 과정에 등록된 유학생이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비싼 학비를 내고 어학당 등을 별도로 다녀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유학생은 학비와 시간 부담으로 어학당을 다니지 않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활 한국어 실력’은 늘고 있지만, 실제 수업을 따라가는 데에 필요한 ‘고급 한국어 능력’은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유학생 정책의 ‘이상’과 ‘현실’이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대학교육을 충실히 받기 위해서는 유학생들이 한국어 교양 대신에 일반 교양을 수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유학생 입장에서는 대학 1학년에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대학 학업과 적응을 위해 일차적으로 필요한 과제일 수 있다

한국어 교육과 전공교육을 4년 내지는 5년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보장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졸업한 다음에 그 아이들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개가 어느 대학을 졸업했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능수능란한 ‘한국어’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잘하는 애들을 보면은 개가 4년 동안 학점이 어땠었건, 전공을 뭘 했었던 간에 한국어로만으로 그 아이의 유학 4년을 평가합니다. (C대 교수 2)

한편 B 대학에서는 중국 학생들이 입학 초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학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중국어’로 진행되는 교양강좌를 개설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면담에 참여한 B 대학의 관계자간에도 찬반 논란이 있었다. 한국 대학에 유학을 왔다면 한국어로 수업을 듣게 해야 한다는 ‘원칙론적’ 입장과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유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는 ‘현실론적’ 입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중국어’로 [수업을] 듣게 되면 한국어로 습득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우리가 미국 가서 어렵더라도 자기가 그걸 극복해야지, 거기서 한국 사람들 교포들 해가지고 한국어로 가르쳐 버리면 글썄요 그게 무슨.. 송도 같은 경우에는 국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와 가지고 강의하는데, 우리가 미국까지 가서 한국어로 들을 바에야 굳이 뭘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으로 본다면... 여기 와가지고 중국 애들이 안된다고 중국어를 하는 것은 당장은 쉬울지는 모르나 중국애들의 한국어 실력이 늘지 않지요 (C대 교수 1)

여기 와서 4년을 공부하는 경우라면 영어강의가 그 아이들(중국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까 중국어 강의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중국어 강의도 일정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학년인 경우에 학교에 적응할 때까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중국어로 강의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면 그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할 때의 시간, 그리고 전공과목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C대 교수 2)

위와 같은 갈등은 유학생 확보를 위해서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요구하지 못하는 ‘한국 대학의 딜레마’에서 근본적으로 유래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대학들처럼 유학생 모집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어학능력을 요구할 수 있지만, 유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 대학들의 경우 한국어 능력 수준을 대학 수학에 실제 필요한 수준으로 높일 경우에 유학생 모집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유학생 입장에서 국제통용성이 적은 한국어를 열심히 학습할 이점이 적고, 그렇다면 다른 나라로의 유학이 보다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작년부터 정부에서 도입하는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에 포함된 ‘한국어 능력 수준’은 앞으로 유학생 유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능력을 너무 낮게 설정하면 유학생의 질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비현실적으로 높게 설정할 경우 유학생 유치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유학생의 질 확보와 유학생 유치 간에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수준에서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의 요건으로서 ‘한국어 능력 수준’이 설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또 하나의 언어 장벽, 영어 진행 강좌

‘한국어’ 외에 ‘영어’는 대부분의 비영어권 유학생들에게는 또 하나의 언어 장벽이 되고 있다(주희정, 2010). 각종 대학평가에 ‘영어진행 강의 비율’이 포함되면서 대부분의 대학에서 영어진행 강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 학습 부담도 크게 느끼지는 비영어권 유학생들에게는 ‘영어 진행 강좌’는 또 다른 학습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비영어권 학생들의 경우 한국대학 입학조건으로서 한국어 또는 영어능력 기준 중의 하나를 충족시키면 되는 상황에서 영어 보다는 한국 대학의 주요 학습언어인 ‘한국어’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어 진행 강좌가 늘어나면서 유학생들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의 경우 한국어 수업만이 아니라 영어 수업에서도 뒤쳐지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한편, 중국 유학생들이 영어수업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본인의 영어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네이티브(native)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한국인 교수들 때문이기도 하다.

저도 똑같이 경영학과라서... 우리 학과 특징이 영어라든지 전문 용어가 많아요... 특히 교수님이 '한국식 영어'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힘들어요... 영어 발음할 때 한국 발음이 나와요... 우리는 전혀 이해가 안돼요..(A 대 중국 학생)

교수의 한국식 영어를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 데다가, 영어 실력이 부족한 한국인 학생들을 위하여 영어와 한국어를 혼용하는 형태로 영어수업이 운영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대부분의 유학생들에게는 영어 수업은 한국어 수업보다 더욱 따라가기 힘든 수업이 되고 있었다.

이번 영어 수업은 두 타입으로 나누어지는데.. B타입은 30%는 한국어를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교수님이 영어로 수업을 먼저하고.. 한국어로 요약하고.. 그런데 마지막 수업이 될수록 한국어 사용이 많아져요. 한국어 학생들이 한국어로 하면 안되냐, 라고 해서 그다음부터는 한국어로 해요. 그런데 유학생이 두 명 밖에 없으니까.. 컴플레인 안하고 (A대 토고 학생)

한국 학생들이 한국어를 하니가 영어강의가 안돼요.. 그러면 외국인 몇 명을 위해서 영어를 하다 보니까, 한국 학생들은 멍청하게 있는 거라.. 결과적으로 한국어를 하고 그 다음에 핵심 포인트는 영어로 해요 (D대 교수)

이러한 영어진행 강좌의 문제에 대해서 면담에 참여한 한국 학생이나 교수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었다. 이들에 의하면, 영어로 의사표현이 능통하지 않은 교수들이 영어로 강의함으로써 강의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고, 교수가 능숙하게 영어로 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영어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아서 수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지금 이번 학기에는 영어 전용 강좌를 세 개를 신청해서 듣고 있는데... 한 강의 같은 경우는 영어 전용으로 하신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 교수님은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 분 같은 경우는 약간... 전달하는데 있어서... 한국어로 했으면 더 많은 것을 전달하실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교수님마다 편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A대 한국 학생 1)

수업 자체가 영어로 진행되고 한국 학생도 영어를 써야 되니까 한국 학생들이 많이 주눅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영어 실력 부족으로]에.. 그걸로 인해서 조금 그랬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참여도 자체가 오히려 외국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을 이끌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이랬던 것 같아요. (C대 한국 학생 1)

면담한 교수 중에도 대학교육의 국제화와 유학생 유치를 위하여 영어 수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의 교수들은 학생이나 교수의 영어실력이 낮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영어강의는 오히려 수업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의견들이 피력하였다. 한국어로 표현하면 100%로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영어로는 50~60% 밖에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 분야에서는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는 지식인데... 이것을 정말 내가 가장 편하게 또 이쪽에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가르쳐도 이게 될까 말까 한 것을... 나도 불편하고... 듣는 학생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영어를 매개체로 해서 지식이 전달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A대 교수 1)

이러한 영어 수업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 간에 ‘영어실력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영어권 유학생의 경우에는 당연히 교수 보다 영어실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고, 비영어권 유학생간에도 영어실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수업 난이도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중국 학생들도 한국 학생이랑 비슷하게 반반인 거 같아요. 영어 잘하는 학생은 영어가 굉장히 편하구요.. 중국 학생 중에는 한국 학생들처럼 정말 영어 못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제가 멘티들 2명 있다고 했는데 한 명은 정말 영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대요. 한국어도 못하는데 영어도 못하고... 중국어로만 하고 싶다고 그래요 (B대 한국 학생 3)

이러한 문제점을 직접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담에 참여한 한국인 학생이나 외국인 학생 중에는 ‘영어진행 강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다수 있었다. 글로벌 시대에 영어실력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힘들기는 하지만 영어수업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저희가 배우는 게 거의 다 미국자료를 변형해서 배우는 거니까 당연히 원천을 잘 알아야 공부가 잘 이루어지니까...그래야 응용이 잘 되니까...유학을 온 본질이 타국 문화를 흡수하는 것인데... 한국에 왔다고 해서 한국말만 배우는 게 아니라 영어도 배우고 다른 나라 언어도 배우고.. (A대 조선족 학생 2)

영어강의가 늘어나면 일단 외국인 학생들한테도 좋다고 생각하고.. 외국인 학생들 유치할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원어 수업이 많이 없으면 그 친구들이 듣는 수업도 많이 없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오려고 하다가도 가지 말아야겠다는 친구도 같이 들으면서.. 좀 글로벌 의식 같은 것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수업 통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어가 공통어잖아요. (B대 한국 학생 1)

다만, 영어 진행 수업 비율에 대해서 학교 측이 유학생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점은 문제로 보인다. 면담에 참여한 대부분의 중국 학생들은 입학 후 당황스러웠던 점 중의 하나로서 영어진행 강좌수가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영어강의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학생 입학기준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영어 진행강좌가 확대되는 만큼 학과에 따라서는 유학생 입학기준으로서 ‘한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의 ‘영어

능력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한국어 능력 또는 영어 능력이 일정 수준만 되면 입학이 가능한 것이다.

한국어 수업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일단 한국어를 좀 해야 되고, 한국어, 영어를 다 잘하는 중국인 학생을 뽑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한국에서 공부를 하려면 영어 강좌를 20%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본인들이 사전에 알고 들어왔으면 좋겠고..그런 걸 알면 대비를 할 거 아니예요. 영어공부를 하던지...(A대 교수 2)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대학에 다니고 있는] 언니한테 '한국어'도 잘 해야 하지만 '영어'는 꼭 해야 된다는 교육을 받았어요....그래서 한국어 공부할 때 저는 사전을 한국어사전, 영어사전, 중국어사전 3개로 공부했어요. 그때부터 영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A대, 조선족 학생).

한편, 피면담자 중에서 영어진행 강의의 확대를 가장 많이 지지한 집단은 유학생 업무를 담당하는 '대학 직원들'이었다. '영어 강좌 비율'은 언론사 등에 의한 대학평가의 국제화 척도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중국 외의 국가로부터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에 핵심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한류 등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 대학 진학에 관심을 갖는 '영어권 또는 영어 가능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영어 강좌 비율 자체가 유학생 유치를 다변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을 받으려면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데 언어가 가장 중요한... 영어권 학생들을 데리고 오는 데는 우리 학교에 영어강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느냐 이런 게 이제 .. 자유롭게 애들이 자기 전공을 동일하게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아직까지는 할 수 있는 데는 많지 않죠. (C대 직원 1)

저희가 좀 전에 조사를 했더니, 1년에 열리는 영어강좌가 100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학생들에게 소용이 없어요. 그냥 와서 잠깐 영어수업 듣다가 한국어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어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아랍 학생들은 들어와 있지만 한국어 공부하는데 2년이 걸리는데... 한국어 4급 따는데... 아주 미치겠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영어강좌가 있어야 되구요 (A대 직원 1)

대학 직원들도 교수나 학생들이 지적하는 영어진행 강의의 문제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영어진행 강의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양적 확장'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와 같

은 영어진행 강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유학생 유치와 관련하여 영어진행 강의를 어떠한 형태로 운영해나갈 것인가는 지속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 또 다른 학업 결핍들, 학습준비도의 차이

한국어와 영어 외에도 유학생들의 학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서 한국인 학생들과의 현저한 ‘학업준비도 차이’를 들 수 있다(조혁수·전경태, 2009; 호세전·구기보, 2010). 면담 결과, 학생별로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학 진학 직전인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습한 내용의 차이로 인해 한국인 학생들과 유학생들 간에 대학 학업준비도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저는 공대 전자공학파인데요.. 유학생 같은 경우 한 반에 30명인데 외국인 4명 있어요. 외국인이 있고 없고 크게 차이나는 게.. 예를 들어 function 이라는 걸 설명할 때 한국 학생들만 있을 때는 잘 설명하는데.. 외국인 학생 있으면 아무리 한국말을 잘해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그러면 설명 더 하시니까 수업 진도가 더디고 그런 게 있어요. (B대 한국 학생 2)

제가 공업수학 같은 것을 가르칠 때, 제 클래스로 수업 들으러 온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애네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0점이니까... 그러니까 애네들은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전부 영어책으로 하는데... 자기가 봐도 쫓아올 수가 있는데, 애네들은 아예 중고등학교에서 미적분을 공부를 안 하고.. (A대 교수 1)

이러한 문제는 한국 대학들이 유학생 선발기준으로서 언어능력만을 고려하고, 고등학교 성적이나 고등학교 계열(인문계, 자연계 등)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더라도 전공 이수에 필요한 선수지식이 부족하거나 고등학교 시절의 선택계열과 다르게 대학 전공을 교차 지원한 유학생은 학업을 따라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근본적으로 아직도 대부분의 한국 대학이 유학생 선발을 위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가 원래는 문과인데,, 그래서 한국말 공부 못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잘 못해서...[학교에 외국인 학생만을 위한 보충수업 있어요?]: 있어요. 많이 해줘요. 침에 미분적분 이런 거 다 까먹었어요, 지금 다시 공부해서...(B대 중국 학생 3)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시험을 통과해야 입학할 허락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선발과정에서 학습능력이 없는 친구가 들어오고요. 자꾸 알바 이야기를 하는데 알바도 문제지만 선발 과정도 문제예요.. 학습동기가 없는 애들이 선발 되면 알바 할 거예요.. 대부분 그런 걸로 이어지고요 (B대 교수 2)

면담 결과, 선수지식 부족으로 인한 적응의 문제는 '전공별'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자연계 과목에서는 미적분 등과 같이 기초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고, 경영대나 사회과학대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나 경영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업 곤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 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중국 학생이 자본주의를 전제로 하는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왜냐면 [중국] 시장이 크고 수요가 많을 거라고 예측하는 거죠. 근데 가르쳐 보면 시장에 대한 개념이 없죠..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차 미안하다 그런 수업 들어본 적 없지.. 그런 수업 들어 본적 없으니까 그 학생들은...(B대 교수 2)

이와 같이 유학생들이 학업을 따라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과목당 수강 학생수가 50~60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학생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수에 따라서는 유학생들을 배려하여 수업 전반부의 일정한 시간을 기초지식을 설명하는 데에 할애하는 경우도 있는 데, 이는 종종 한국인 학생들의 불만 사항이 되고 있었다. 이미 해당 내용을 고등학교에서 학습한 한국인 학생 입장에서는 대학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듣는 것은 시간낭비이기 때문이다.

한국 학생은 문제가 없고요... 교수님께서 잠깐 이런 것들은 안 배웠으니까 잠깐 설명을 해 주셨다 이러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국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니까... 한국 대학교를 오는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한국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더군다나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느 정도 갖춘 상태에서 입학할 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A대 한국 학생 1)

이러한 문제는 허술한 유학생 선발과정으로 인해서도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대학에서 아직은 미국 대학들처럼 ‘학업보충 프로그램(remedial education)’을 보편적으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학생 선발’에만 관심이 있고, 입학 후 ‘학생의 적응 여부’를 학생의 탓만으로 돌리는 공급자 중심의 대학 문화가 한국 대학 사회에 팽배해 있고, 그로 인해 학업 부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최근에 일부 대학에서는 유학생을 위한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로 수요를 충족하기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라) 학업의 걸림돌이 되는 학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

우리나라의 비싼 물가로 인해 면담한 유학생 중에는 학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해본 적이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일부 지원받더라도 여전히 나머지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유학생에게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학업에 몰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하정희, 2008; 문홍호 외, 2010).

왜 알바 이야기가 자꾸 나오냐면.. 이놈들이 알바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니까 학습도 떨어지고.. 아주 간단해요.. 면담할 때 말을 해보면 말이 잘 안 통해.. 그럼 알바하는 친구예요.. 그게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알바 안하도록 장학금을 줄 거냐, 그것도 문제라고 (B대 교수 2).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면담한 유학생 대부분이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학비와 생활비 마련’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문제는 비단 유학생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 학생들도 학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와 ‘학업’ 사이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학생들의 경우 더욱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어와 기초 학업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르바이트가 학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학생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학생에 관한 재정 지원체계’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한국 대학에서 유학생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장학금을 제

공하고 있지만, 교내 일자리 제공 등의 면에서는 여전히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유학생들이 교내에서 공장 시간을 활용하여 시간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긴다면, 학교 밖의 아르바이트 장소로 가기 위해 추가로 들여야 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마) 비영어권 유학생에 대한 한국인 학생들의 무관심

앞서 제시한 요인 외에도 유학생들의 학업 적응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서 ‘비영어권 유학생’에 대한 한국인 학생들의 무관심을 들 수 있다. 이는 영어권이나 영어가 능통한 외국 학생들이 주 대상인 '교환학생을 위한 버디 프로그램(buddy program)'의 경우, 신청하는 한국인 학생들이 많아서 선별해야 하는 반면에, 중국이나 기타 아시아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경우 신청 학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서도 알 수 있다.

중국 학생에 대한 버디는 신청자가 적어요. 저희가 단기 문화연수라고 중국에 방학 동안 한국 학생들 선발해서 가는 게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 가서 문화 체험을 하고 오는 프로그램인데, 아무래도 갔다 오면 중국에 대한 인식이 와요 (D대 직원 1)

멘토를 활성화했으면 좋겠어요. ... 선후배 멘토... 국제협력처에서 하기는 하는데... 영미권 학생만 선호하는 한국 학생들의 선호 때문에... 그래서 멘토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A대 조선훈 학생 1)

이는 아시아 국가들 보다는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 국가 등에 대한 한국인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른 바 ‘영어 능력’이 취업 스펙으로서 중요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는 한국인 학생들이 수업 및 과제 준비, 아르바이트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스펙’을 쌓기 위해서 버디 프로그램 등과 같은 국제화 프로그램에는 열심히 지원을 하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글로벌 빌리지에 왜 살기로 결정했어요?] 영어공부도 많이 하고 싶고, 또 외국인 친구를 사귀면 자연스럽게 회화나 이런 부분이 많이 늘잖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랑 회화 쪽 이유가 첫째예요... 좋은 점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고, 그 문화나.. 저희가 영어를 배워도 그 쪽에서 쓰는 영어랑 저희가 배우는 영어는 다르잖아요. 그런 것도 궁금할 때마다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영어공

부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기고...(C대 한국 학생 3)

저 때에 비하면 요즘 대학생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중국학생들하고 친해지면서 내가 뭐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중국어를 배운다든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 동기부여가 안 되죠. 내가 왜 중국학생한테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지...(B대 교수 2)

이러한 한국인 학생들의 태도는 비영어권 학생들에게는 '인종 차별'로서 인식될 수 있다. 영어권 학생들에게는 한국인 학생들이 먼저 다가가서 말도 걸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반면에, 비영어권 학생들에게는 아예 다가서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학부과정에 진학하는 유학생의 대부분이 '중국인 학생'인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중국 학생이 유학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이에 따라 중국 유학생끼리 캠퍼스내에서 몰려다니는 것을 빈번히 목격하면서, 이들을 서로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학우로서 인식하기보다는, 한국인 학생들과는 어울리지 않고 그들끼리 살아가는 "외인 구단"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면담한 한국인 학생의 대부분이 "중국 학생만 너무 많은 것"에 대한 심적 부담감을 표현한 데에서도 나타난다.

아무래도 중국 친구들이나 몽골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친구만의 바운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그 친구들을 터치 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가는 정도로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어권이나 일본어권 친구들은 충분히 학교에서 케어가 가능하고 규제가 가능한데.. 중국 친구들이나 몽골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가 너무 많아져서 그 친구들은 어떻게 규제하기도 힘들고.. 본인들이 꼭 우리에게 도움을 얻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워낙 형성이 잘 되어 있으니까 굳이 저희랑 협력하지도 않고...(B 한국 학생 1)

이와 더불어 중국 학생과 한국인 학생간의 심리적 거리를 더 벌리게 하는 데에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를 자주 언급하는 '한국 언론'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야 하는 뉴스의 특성상 중국 사회나 문화의 장점을 소개하기 보다는 '화제 거리가 될 수 있는 부정적인 사건' 위주로 중국에 관한 뉴스를 다루다 보니 중국에 대한 한국인 학생들의 시각도 편향되기 쉬운 것이다.

제 생각에는 언론의 영향도 큰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 실제로 그런데 그런 일은 극히 일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 너무 이슈화 시켜 버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나라다, 라는 인식이 박혀버리는 것 같아요. (D대 직원 2)

이에 더하여 “중국과 한국 학생간의 문화 차이” 역시 학생 상호간의 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 같다(허춘영·김광일·이장한, 1999). 시간관념, 역할 분담, 공동생활 규범 등과 같이 생활문화가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갈등이 빈번이 생기는데다가 언어소통으로 인한 제약이 더해져서 양측 학생간의 화합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 학생들은 더럽다. 잘 안 씻는다. 청결하지 못하다는 부분이 되게 강하고, 좀 말이 많고 수다스럽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학생들이 좀 꺼리는 것 같아요. 좀 저도 놀랐던 게 이제 층장을 하면 방을 검사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중국 학생 방을 검사하러 들어갔는데, 밖에서 신는 슬리퍼가.. 저희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 방이 3개가 있고 거실이 있고 이쪽에도 3개가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신는 슬리퍼를 방문 앞에까지 갖다 놓는 거예요 (C대학 한국 학생 3)

[문화 차이로 인한 경험 뭐 있어요?] 참 많아요... 일단 보기에는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은 친구 사귀는데 차이가 있어요. 한국 사람은 맛장구 자주 쳐줘야 돼요... 중국 사람들은 그런 거 잘못해요... 첩에는 많이 힘들어요...(A대 조선족 학생)

이와 같은 차이들은 중국인 학생의 학업적응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전공 수업이나 과제를 이해하지 못할 때, 또는 수강신청시 교·강사에 관한 정보가 필요할 때, 같이 수업을 듣는 ‘한국인 친구’의 도움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과에 중국 선배가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같이 수업을 듣는 한국인 동급생만큼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비영어권 학생들, 특히 중국인 학생들에 대한 한국인 학생들의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는 유학생 정책의 주요 과제로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바) 유학생의 특성을 무시하고 ‘한국 학생’ 위주로 진행되는 강의

학과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아직은 대부분의 학과에서 유학생 비율은 극히 낮은 편이다. 면담 결과, 경영학이나 동아시아 문화 전공 등과 같이 중국 유학생들이 선호해서 다수를 차지하는 일부

학과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수업에 있어서 유학생의 존재감은 극히 미미한 편이다. 이에 따라 교수들도 대부분 자신이 담당하는 수업을 유학생이 듣든 경우에도 유학생의 문화적, 언어적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한국인 학생’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선생님들이 거기[유학생]에 크게 배려를 안 해서인지는 몰라도.. 전체 숫자가 아예 적어서 크게 영향은 없어요. 그 학생에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준비한다고 그러면 다른 학생한테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D대 교수)

강의 내용에 따라서는 유학생들에게 한국적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듣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어나 한국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유학생들의 경우, 강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한국인 학생들에 비해 뒤쳐지게 되는 것이다(하정희, 2008).

(전공수업이나 교양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예, 많이 힘들었어요. 일단 전공은 제가 경영학과인데 살짝 응용하는 학과라고 들었는데... 선진기업사례를 분석하고, 부분적으로 자기만의 방법으로 풀어야하는데... 그게 굉장히 한국어 실력이 바탕이 되어있고, 머리로는 열린 사고를 하는데 그걸 잘 표현 못하면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수업을 따라 갈 때 많이 힘들었어요....(A대 조선족 학생 2)

이러한 상황이 ‘교수들’에게도 편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교수 본인이 유학생에 관심이 없더라도 자신의 수업에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유학생이 있으면 신경이 쓰이기 때문이다. 유학생이 수업에 전혀 따라오지 못하거나 팀 과제 등의 같은 수업활동에서 한국인 학생들로부터 소외될 때, 교수로서 완전히 무시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면담한 교수 대부분은 외국인 학생들은 ‘추가적인 부담’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업을 못 따라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한국어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답답하고... 그리고 인제 교수님들이 좀 fair하게 성적을 주다보니까. 이 친구들이 F도 많이 맞고, D도 많이 맞고... 그래서 전에 교수회의 때 중국 학생들은... 외국 학생들은 봐 줘서... 개네들 나름대로 하자고도 했었는데... 그러면 fair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A대 교수 2)

하지만, 교수들이 수업시간에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소수의 유학생에 대한 배려는 자칫 한국인 학생 입장에서는 ‘역차별’로서 인식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아직 대부분의 학과에서 유학생 수가 소위 ‘임계치’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아직은 학과별로 유학생 수가 3~4명 이하인 경우가 많은 데, 그럴 경우 실제 수업 당 유학생 수는 1~2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나 같이 수업을 듣는 한국인 학생들 입장에서 극소수의 유학생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기 어렵다. 그 결과 한국어 능력이나 수학능력이 부족한 유학생들의 학업부적응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다.

많아지면 당연히 관리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많다는 것이 10분의 1을 넘어가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적어도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하면 교수님들이 방심을 못하겠죠.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될 건데.. 50명 중에 한두 명 앉아 있으니까.. 애들 얼굴이 가려서 보이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가죠 (D대 교수)

사) 유학생은 국제처 소관으로만 보는 비국제화된 대학행정 문화

이와 같이 유학생들이 한국인 학생 위주의 대학 캠퍼스에서 마이너리티(minorities)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유학생의 학업과 생활 지원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여전히 국제협력처(또는 대외협력처 등)의 일로만 간주되고 있었다. 유학생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은 수강신청, 학점 관리, 학업 문제, 동아리 활동, 취업 등으로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학내에서 유학생들의 모든 문제와 요구는 소위 ‘유학생 업무를 위한 특공대’인 국제협력처에서 일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관행’이 자리 잡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면담한 대학들의 국제협력처 직원 대부분이 유학생 유치와 입국 및 정착 지원만이 아니라, 학업 및 생활 지원, 취업 상담까지도 모두 맡고 있었다.

취업지원센터의 과장님이셨나.. 누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쪽에 담당하시는 분이랑 이야기를 하셨더니 외국인인 우리가 할 수 없다. 국제교류원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화가 저희.. 그냥 제 생각에는 국제교류원만 국제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서는 다들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그냥 외국인, 해외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이걸 국제교류원에서 알아서 해야지 하는 분위기.. (D대 직원 1)

집주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 저희에게 컴플레인을 하면... 저희가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는 경우도 있구요... 거꾸로 집주인이 애들이 왔는데 돈을 안내고 갔다...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죠...(A대 직원 1)

이와 같이 대학 캠퍼스에서 유학생 친화적인 대학문화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제협력처 직원들이 유학생들의 요구와 대학 현실간의 간극을 매워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학별로 유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여전히 '단과대학'이나 '학과' 차원의 유학생 지원체계가 취약하여 국제협력처의 업무가 날로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학과 조교'들이 유학생의 수강신청이나 서류 작성 등을 돕고 있으나 그 역할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 면담한 대학 중에도 단과대학내에 유학생 업무를 지원하는 주임교수를 지정한 경우는 1개교에 불과했으며, 이 대학 역시 최근에는 '주임교수제'를 도입하였다.

학생수가 일정 이상이 되면 그 학생을 전담하는 전공주임교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학들이 보면 상당 규모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는 대학이 태반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20명 정도 되는데.. 지금은 50명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그 애들은 지도 교수 이런 얘기 그만하고 책임 있는 전공주임교수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있어야 움직이겠죠.. 그런 고민을 하는 교수가 생겨나겠죠.. 그래야지 지나치게 개인적인 어떤 교수는 성향이 그래서 케어하고 어떤 교수는 안 케어하고 이거는 문제 있는 거 같아요.. 뭔가 구체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해요 (B대 교수 2)

한편 유학생에 대한 대학 차원의 지원은 '대학 유형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립대학의 경우 유학생이 '별도 정원'으로 입학하고 있기 때문에 유학생의 증가는 바로 등록금 수입의 증가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면담한 사립대학들(A, B, C 대학)에서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유학생에 대한 대학 본부나 교수들의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였다. 반면에, 정부 예산 지원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국립대인 D 대학의 경우, 회계구조상 유학생 유치 자체가 등록금의 수입 증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인지 유학생 유치에 대한 학교 본부나 교수들의 관심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이는 D 대학의 경우 대학평가에 포함된 대학 국제화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 서구권 출신의 교환학생들을 유치하는 데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학부 과정 유학생 수를 단기간에 높일 수 있는 중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에는 관심이 적은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어떤 사립대학은 등록 학생들을 충원을 못하니까 필사적으로 학교차원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교수들을 현지에 파견하고 해서 학생들을 충원해오는데.. 국립 대학교는 사실 충원 문제가지고 고민하는 교수들은 없거든요. 그 다음에 국립 대학교에서 그런 예산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과부에서 허용을 안 합니다 (D대 교수)

이러한 대학 유형별 차이는 유학생 업무를 지원하는 '국제협력처의 인력 구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면담한 사립대학들(A, B, C 대학)의 경우 외국어에 능숙한 전문 인력들이 비교적 장기간 유학생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국내외 대학들과의 네트워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학생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전문성도 축적되고 있었다. 반면에, 국립대(D 대학)의 경우, '순환보직 관행'에 따라 국제협력처장만이 아니라 담당과장도 자주 변경이 되어서 국내외 대학들과의 네트워크는 물론 업무 연계성이나 전문성이 축적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저희 조직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윗분들이 자주 바뀌세요..처장님 포함해서 과장님부터 해서 윗분들은 보직 순환 때문에..모든 부서가 그래요. 다 짧으면 1년 길어야 2년 사이에 다 바뀌시거든요. 뭔가 추진하려고 하다가 새로운 분 오시면 또 다른 의견을 내 놓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일 추진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잘 안되고..공무원이시고. 순환 보직하시고 따로 국제 협력의 전문가 이시거나 이런 거는 아니세요. 1년에서 1년 반 정도.. 바뀌세요. (D대 직원 2)

이러한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유학생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국립대의 인사 및 예산 구조'였다. 조직, 인원 및 예산이 모두 정부에 의해서 통제되는 국립대의 경우, 유학생 유치 및 지원 업무가 기존 대학행정과 그 성격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경직적인 인사와 예산 구조로 인해서 인재를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에 국립대학에서도 '기성회 직원'으로서 유학생 업무 전담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나, '실무자급' 채용만이 가능하여 교내 유학생 정책 등을 수립하는 데에 미칠 수 영향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저희도 사실 처음에는 계약직으로 들어왔다가 한 번 바뀌었어요. 기성회직은 정년 보장이 되고, 공무원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보상이라고 해야되나.. (D대 직원 2)

아무래도 유치를 많이 해야 된다.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싶고, 강의를 개설했으면 좋

겠고.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있지만 돈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윗분들이] 말씀들로는 정말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재정적인 거는 그렇게.. 올리면 다 깎아버리시고 하니까.. 예산을 올리면 깎아버리고 외국인 학생을 위한 행사 이런 거를 해놓으면 이런 거는 필요 없는 행사다. 문화 체험 행사.. 다 깎고.. 정말 크게 중요한 어떤 게 아니면은 예산 부분에서 다 밀려 나 버리는 거예요 (D대 직원 1)

2) 보다 나은 한국 유학 생활을 위한 희망과 가능성

가)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한국 학생들의 인식

유학생들은 낯선 문화와 대학 캠퍼스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수많은 허들(huddle)을 직면하지만, 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학우들이 있어서 버티어 나간다(Sherry et al., 2010). 이는 면담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는데, 강의실에서, 기숙사에서, 또는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만난 한국인 학우들이 학교가 미처 채워주는 못하는 유학생들의 요구와 필요를 채워주고 있었다. 유학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수업 내용을 가르쳐주면서, 또는 팀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취미활동을 같이 하면서 한국인 학생들은 유학생을 위한 ‘서포터즈(supporters)’로 변화되고 있었다.

한국 학생들도 경영에 대한 전문용어를 모르는 상태고.. 저희도 어려운데.. 중국 학생은 더 어렵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설명해 달라고 하면.. 경영이 뭐라고 하면 한국 학생도 못 풀어 말하듯이.. 설명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문화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중국 학생 같은 경우는.. 경영대 학생들은 한명의 멘토를 찾아서 수업을 개네한테 배워요. 수업시간 이외에...(B대 한국 학생 2)

이러한 과정은 최근에 대학마다 활성화하고 있는 유학생을 위한 버디,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었다. 한국인 학생이 유학생을 돕고 싶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없으면 서로 연결되기 어려운데,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멘토링 프로그램 등은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간의 개별적인 만남도 주선하지만, 이들 학생 전체가 모여서 함께 우애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었다.

저희 학교에는 international coffee hour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 학기에 네 번 정도.. 중동에 서 온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소수이지만 몇 명 있었고, 그래서 이번 주는 이 친구들에게 그 나라에 대한 문화 소개하면서 친해질 수 있는.. 얘기도 하고 인사도 하게 되면서.. 또 진짜 친구 같은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서로 더 이해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또 만나고...(C대 한국 학생 2)

이러한 점에서 유학생의 존재가 한국인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과 마인드 학습을 위한 촉매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한국인 학생들은 유학생들을 쉽게 접함으로써 외국어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관점에서 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수업시간에 유학생들이 소개하는 자국의 사례는 유학생들에게 출신국에 따라 각기 '다른 관점'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인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일단 새로 배운 것은 문화 차이... 뭐 이야기하면, 좀 다르구나... 대학생활도 다르고, 근데... 겪어 보면 사는 건 다 똑같구나... 정말 친해지고 나면, 정도 많고... 아무리 외국인이라도,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다고 하잖아요? 외국인보다는... 외국인도 정이 많고...(A대 한국 학생 3)

일단 장점은 영어권에서 서양권에서 오는 친구들의 뚜렷한 장점은 우리 학생들한테 없는 본인의 사 표출하는 게 굉장히 뚜렷해요. 한국 학생들은.. 외국인 학생들이 말하는 건데.. 수업 들을 때 발표를 시켜서 한다거나 굳이 대답을 하면서 수업들 듣는다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나중에 질문한다거나 이런 경우인데.. 이 친구들은 모르는 것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고.. 교수님이랑 1:1 이야기도 하고...(B대 한국 학생 2)

이와 같이 수업시간에 외국인 교수를 상대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유학생들의 모습은 한국인 학생들에게는 신선한 자극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다양해지는 유학생의 출신국으로 인해 이들과 활발히 상호작용을 하는 한국인 학생들은 '해외유학'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회 자체는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시야를 제공해줌으로써 국제무대로의 진출을 꿈꾸는 계기도 되고 있었다.

저는 외국인 친구랑 같이 하나 안하냐가 많이 차이 나서.. 일본어 공부하고 영어로 공부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랑 영어랑 토크 진행하고 일어로 진행하는 게 간접적으로 유학 온 거 같은.. (B대 한국 학생 2)

저는 글로벌 빌리지 생활하면서 바뀐 거는 미래 진로에 대해서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전공이 스포츠의학과라고 병원이나 필드 나가서 경기장 같은데서 치료하는.. 예.. 재할하는 직업인데요. 조금 배짱이 생겨가지고요, 당장 이제 졸업한 다음에 좀 해외 쪽으로 시야를 돌려서 한번 도전해보고 마음이 생기거든요. (C대 한국 학생 2)

이러한 기회들은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여 대학교육을 국제화시키려는 대학들의 노력에 의해서 더욱 많아지고 있다. 면담한 대학 중에 C 대학에서는 한국인 학생들이 유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외국어를 습득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키울 수 있도록 국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실제 유학생들과 함께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험은 한국인 학생들에게 ‘역지사지(易地思之)’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직접 겪어보면서, 그리고 기숙사 식당에서 제공하는 한국 음식을 먹지 못하고 소시지 등으로 끼니를 때우는 유학생들을 목격하면서 유학생의 고충을 직접 느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갖는 한국인 학생들이 늘어날수록 유학생들에게 한층 다가가는 캠퍼스 문화도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설적인 측면에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중국 친구들이 많다보니까 한 기숙사에서 다른 기숙사에서 중국인을 위한 메뉴가 나와요. 그 친구들은 별 문제없이 밥을 해결하는 것 같은데 서양권 친구들은 없더라고요. 달랑 매점에 소시지....(C대 한국 학생 1)

나) 낯선 캠퍼스에서 유학생들의 오아시스, 유학생회

유학생들이 낯선 한국 대학 생활에 적응하는 데에는 한국인 학생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유학생들’의 도움은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이인영, 2011). 한국인 학생이 아무리 유학생의 고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제3자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본인이 유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나날의 한국 대학 생활에서 느끼는 고충을 실제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학생 입장에서도 아무리 친하더라

도 한국인 학우에게 일일이 물어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유학생회'는 고된 유학생회에 지친 유학생들에게는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유학생끼리 만나서 '모국어'로 수강신청, 강의, 졸업학점 취득 등과 같이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서로가 겪는 어려움을 기탄없이 토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학생들이 비슷한 어려움이 있는데... 타지에서 고향 친구 만나면 반가워요. 서로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위로가 되요. (A대 조선족 학생 1)

(학교에 안 묻고 유학생 학회에 많이 물어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같은 학생이니까 다 선배니까... 그리고 중국어로 질문 가능 하니까...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것 보다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편하니까...(A대 중국 학생)

면담 결과, 다른 유학생들과의 네트워킹 여부는 유학생의 한국 유학생회 적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입학할 학교에 다니고 있는 유학생 친구나 형제자매 등이 있을 경우 입학 전에 대학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얻을 수 있고, 입학 후에도 학업과 관련된 고충을 의논함으로써 쉽게 좌절하지 않고 학업을 지속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유학생회는 유학생들과 한국 대학간의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학내에 유학생 지원 시스템이 잘 구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학생회가 유학생들의 요구와 불만을 수용해줌으로써 이들과 대학 간의 잠재적인 갈등을 줄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런 것(유학생회)이 일종의 '완충지대'... 아직 학교시스템이 정교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학생들에게는 그런 것이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아요 (A대 직원 2)

이러한 순기능에 주목하여 면접한 대학 중에는 '유학생회'에서 진행하는 행사들에 필요한 경비들을 부분적으로 지원해주는 경우들이 있었다. 유학생회가 유학생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줄 뿐만 아니라, 유학생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자해소동 같은 여학생 같은 경우는... 유학생 회장이 와서 다 도와주고.. 또 자기네들끼리 모임도 하고... 학생회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합니다 (A대 직원 1)

하지만 유학생회를 어느 정도 활성화할 것인가는 추후 각 대학이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아직은 모든 유학생을 아우르는 형태로 유학생회가 조직되기 보다는, 절대 다수인 중국인 유학생들로 구성된 '중국 유학생회'만이 조직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신국가별 유학생회를 지원할 경우, 자칫하면 자기끼리만 소통을 하는 '단힌' 유학생회들을 만들게 되고, 그 결과 유학생들과 한국인 학생 간에, 다른 나라 유학생끼리의 소통이 어려울 수 있다.

중국 유학생회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못하고 있어요...중국 유학생회를 인정하고 분리시키면, 정말 국제화가 아니다. 학생들은 단과대 학생회, 총학생회에서 섞여야 되는데...중국인끼리 뭉치는 것을 공식화해버리면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공식적으로는 행사할 때, 버스도 지원해주고 힘든 것 있으면 지원을 해주죠. 동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유학생 동아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학생들이 대학에 유학 와서 감혀 버리는 거죠. 한국어도 안 늘뿐더러, 유학은 진짜 목적을 잃게 돼서...(B대 직원 1)

다) 유학생에 대해 관심을 갖는 교수들의 증가

대학 캠퍼스에 유학생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교수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대학이 겪게 될 위기가 자주 논의되면서 면담한 대학들에서도 유학생 유치 문제가 자주 언급되고, 그에 따라 유학생에 대한 교수들의 관심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분명히 우리 대학은 [학생수 감소될 경우에] 직격탄을 맞을 겁니다. 그걸[유학생을] 싫어하고 좋아하고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사항입니다. 그것을 좋아해야만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교과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막 늘리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늘어나니까 막 줄이는...어떻게 보면.. 그래서 왜 [유학생 확대를] 좋아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좋아해야 합니다 (C대 교수 1)

사실 유학생들을 제외한 피면담자들 중에서 유학생의 입장을 비교적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교수들'이었다. 본인이 외국대학에서 '마이너리티 유학생'으로서 공부하면서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고충을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한국에 유학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지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도 석사, 박사를 미국에서 했거든요. 어떤 과목은 전부 미국 애들이고, 저 혼자 딱 유학생인 적도 있었죠. 그러면 그 때 느끼는 나만이 느끼는 뭔가가 있죠...제가 강의를 하러 들어갔을 때, 외국인 유학생이 앉아 있으니깐... 이게 애가 [제가] 옛날에 느꼈던 것을 여기서 느끼고 있겠구나. 첫 번째는 뭐냐면, 수업에 대한 불안감이죠. 교수가 하는 이야기를 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는 언어에서 오는 불안감. 우리는 외국인 학생이 있으면 영어 강의를 하는 것으로 영어전용 강의, 또는 영어 전용 강의를 아니더라도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를 많이 써주죠. 꼭 summary를 영어로 해주고...(A대 교수 1).

그에 따라 면담한 교수 중에는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유학생들을 돕는 경우들이 다수 있었다. 예를 들어,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유학생을 고려하여 영어로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영어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한국인 학생들로 하여금 유학생들의 과제를 돕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면... 문제를 영어로도 낼 수도 있고, 중간고사를 영어로 냈으면, 기말고사는 한글로 내는데... 한글로 내도 거기에다가 영어로 꼭 해주죠... 그리고 애들한테 따로 설명을 해 주고... 이 문제에서 내가 요구하는 것은 뭐다 이렇게... 그리고 영어로 답안지를 써도 내가 채점을 할 수 있으니깐...(A대 교수 1)

저 쪽에서는 그냥 일상적으로 대하는데, 내가 [유학생이] 제 자신을 차별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을 가지고 채내들이 나를 차별한다고 느끼고, 고립되었다고 느끼니까...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조를 짜줘요. 중국 애들끼리만 조를 못 짜게 하고, 꼭 하나씩 넣어주고... 그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까지 제가 컨트롤 하기는 어렵고... 아무튼 형식상 그렇게 짜주죠. (B대 교수 2)

특히, 유학생의 절대 다수인 중국인 학생들과 한국인 학생들이 잘 섞이지 못하는 점에 주목하여 수업시간에 중국의 성장가능성 등을 설명하면서 한국인 학생들이 중국인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독려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2002년도에 부임했는데... 그 때 제 클래스가 작았는데... 한국 학생들만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때는 경영학이니까, 저가 상품 이야기할 때 중국산 제품을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데 지금은 못하

좋아요. 중국 학생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중국 관련된 이야기는 조심스럽게 하게 되구... 중국 경제 발전 이야기 많이 하고... 중국의 부자 숫자가 남한 인구 숫자보다 많다. 뭐 이런 이야기... 그렇게 긍정적인 이야기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는 안하게 되죠. (A대 교수 2)

이러한 노력은 비단 중국 학생의 학업 적응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수들에게는 ‘교수법’을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었다. 기존의 한국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던 교수들에게는 유학생 존재 자체가 ‘긴장’을 주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면담한 교수 대부분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맥락에 익숙하지 않은 유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제고하기 위해서 수업 내용과 방법을 변화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었다.

우리 학생들이 의외로 무시해요. 유학생들을... 무시하고 상대를 안 한다고요. 애들이... 근데 이제 중국 학생들 같은 경우... 저는 막 수업 시간에 중국어를 조금 배운 걸 가지고, 막 쓰면서 애들한테 한문도 일부러 써 가면서... 기를 좀 살려 줄라고, 왜 뻘하니까.. 애가 실험실에서 어떻게 있다 왔는지... 말 한마디도 없어요... 애들끼리... 앞으로 중국어 필요하다고 말해요. 너희들이 중국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는 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른다. 친하게 지내라고 하고. (A대 교수 1)

라) 유학생을 소홀히 대할 수 없게 하는 대학행정 환경의 변화

유학생 업무는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여전히 국제협력처만 신경을 쓰는 대학행정의 '열외 업무' 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그 위상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국내 대학들이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시작했고, 그에 따라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해외 사무소'도 설치하고 있다(김선남, 2007). 실제 면담한 대학 중에 사립대학인 A대학과 C대학은 모두 중국에 해외 사무소를 설치하여 현지 유학원을 거치지 않고 중국 유학생을 직접 유치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사립대학들이 적극적으로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에는 현재까지 유학생이 별도 정원으로 인정되어서 유학생 수의 증가는 바로 대학 수입의 증가로 이어지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다.

[유학생이] 아무래도 재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작년에 A대학교... 글썄요, 이것들은 보고서에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160억 정도 등록금 수입이 정원 외로 잡히니까 그 금액이 사실은 상당히 큰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10,000명당 교과부에서 산출하는 것은 1,600억으로 잡혀 있

는데... 교육적자가... 지금 적자가 5조, 6조 난다고 보면 들어오는 학생들이 1조 이상을 한국으로 갖고 온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구요 (A대학 직원 1)

이와 더불어, 최근에 언론기관의 대학평가나 정부 정책사업의 지원기준으로서 '외국인 유학생 수'가 포함되면서 유학생 유치에 관심을 가지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학평가나 재정지원사업 기준에 민감한 국내 대학의 입장에서 평가지표에 포함된 유학생 수를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제화 지표도 아시다시피 중앙일보 시작해서... QS... 뭐 모든 것들이 다. 평가 지표에 포함되어 있어요. 외국인 학생, 외국인 교원, 영어 강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실질적인 Practical 한 목표가 되는 거죠 (A대 직원 1)

특히 작년부터 정부에서 '유학생 유치 제한 대학 명단'을 발표하고,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를 실시하면서 유학생 유치 및 관리에 더 이상 국제협력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행정의 주요 이슈로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단위 대학 입장에서는 유학생 관리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에 비단 유학생 유치에만 지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학교 명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총장님이나 임원분이.. 이거는(유학생은) 솔직하게 말하면 만만하게 봐왔던 거죠.. 중국 애들 오는 것 대충 하면 오는 것 아닌가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바뀌어서 학생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보고하면 제가 엄살부리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딱 나오니까, 더 군다나 비자발급 제한까지 들어오니까.. 이것(유학생)을 통해서 국고사업.. 재정사업에 반영이 된다고 하니 두 번 놀라신 거죠... 특히 결정권을 가진 분들... 기획, 예산, 총장님 이런 분들이 생각이 바뀌어 간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B대 직원 1)

이에 따라 유학생 교육과 지도에 대한 교수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단과대학 평가'나 '학과 평가'에 외국인 유학생 수를 포함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학생 유치 및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처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고, '단과대학과 학과 차원의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과별로도 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수, 외국인 학생 수, 외국인 교원 수... 지표가 있는 단과대학이 있고 없는 대학이 있는데... 대부분의 대학이 다 지표를 넣어놓고요.... 일부 학과 빼고는 전체적인 학과가 대부분이 다 KPI에 들어가 있습니다. (A대 직원 1)

같은 맥락에서 면담 대학 중에 B 대학에서는 학과 교수들이 유학생들에게 관심과 배려를 기울일 수 있도록 2012년부터 유학생이 있는 학과에 ‘외국인 학생 실험실습비’를 별도로 배정하여 유학생들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A대학과 D 대학도 실험실습비 형태는 아니지만, 각 학과에 유학생을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예산을 제공하고 있었다.

유학생이 많은 학과에는 예산을 더 배정합니다. 학생 실험실습비를..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을 더 지원해서 그 비용을 다시 외국인 학생한테 장학금을 주든지, 학과 행사에 쓰든지, 아니면 외국인 학생을 많이 도와주는 한국인 학생한테 장학금을 주든지 마음대로.. 그런데 이걸 했더니 분위기가 확 바뀌더라고요. (B대 직원 1)

이와 같이 유학생에 대해 확대되는 대학 행정 차원의 노력은 유학생을 위한 ‘멘토링, 튜터링’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면담한 대학들은 모두 유학생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인 학생이나 조선족 학생들을 활용하여 멘토링(mentoring), 튜터링(tutoring) 프로그램, 국제 학생의 날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중국 학생들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되었을 때 가지는 상실감들이 있는데, [멘토링은] 그런 학생들에 대한 구제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시간을 통해서 얻은 교수의 강의의 내용을 즉각적으로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해야 한다든지, 준비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누구한테 선뜻 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리고 교수한테 직접 찾아가기도 그렇고. 바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게 해소가 되었을 때 아이들한테 학교로서 교육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고려된 거죠. (C대 교수 2)

특히, C 대학의 경우, 멘토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멘티(mentee)인 유학생의 성적이 향상될 경우, 한국 멘토(mentor) 학생에게 인센티브(장학금 등)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A 대학에서는 유학생에 대한 한국인 학생들의 튜터링과 사회봉사활동 점수를 연계하는 프로

그램을 운영하여 한국인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한국 대학들이 ‘유학생 친화적인 캠퍼스’로 변모해가는 동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취업 및 진로 준비 단계

1) 유학생들에게도 취업과 진로는 일차적 관심 대상

면담에 참여한 유학생들은 모두 3~4학년으로 ‘취업이나 인턴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집안 형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한국 유학을 결심한 이유 중의 하나는 한국 대학의 학위를 취득할 경우 졸업 후에 보다 나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이익수·지봉구, 2006; 호세전·구기보, 2010).

저는 대학 졸업하면 한국에서 취직하려고요..그 이유는 제가 한국에서 경영학과를 나오다 보니까 한국기업에 잘 맞는 거 같아요...그래서 제가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한국에서의 회사 취직 경험이 있으면 앞으로 진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취업하면 봉급도 꽤 매력적이니까...(A대 조선족 학생 2)

그러나 ‘취업’은 유학생과 대학 교직원간의 인식차가 가장 큰 분야인 것으로 보인다. 유학생들에게는 한국 유학을 결정하는 단계부터 고려하는 문제이지만, 대학 차원에서는 거의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이다. 면담한 대학 모두 취업지원처가 있고,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과평가에 취업률이 핵심 지표로서 포함됨에 따라 학과 차원의 취업 지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유학생의 특성’을 배려한 취업상담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유학생의 언어적, 문화적 특성 등을 살려서 이들을 필요로 하는 취업처를 별도로 발굴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대부분 채용하지 않고 있었다.

취업이나 인턴십 같은 거 외국인 학생 제한 많이 받아요. 한국 학생 우선위주로 하고. 좀 그런 기회가 꾸준히 있으면 좋겠어요. 외국인 학생도 그래야 서로서도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예전에 한국 여기 취업센터 작년에 인턴쉽하는 거 있어서 가서 지원했는데.. 외국인 학생 안 된다고 해서 지원못 해서요.. 그래서 다시는 안 갔어요...(B대 몽골 학생)

사실은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 주시는 분이 안 계세요. 저희 쪽에 취업 안내문을.. 기업이나 필요 하면 저희 쪽으로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안내는 해 주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면담을 해 줄 수도 없고.. 저희는 이제 취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저희만 관심을 가진다고 될 것이 아니라 취업 쪽에 연계도 되어야 하고, 전문 인력도 필요하고 한데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D대 국제처 직원 1)

이에 따라 유학생 취업 문제도 단위 대학에서는 국제협력처 직원이나 학과 교수에게 떠 맡겨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협력처 직원의 경우 유학생의 유치 및 입국 지원, 대학생활 적응 지원만으로도 과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취업까지 지원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인 교수들의 경우도 한국인 학생을 취업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유학생의 취업까지 지원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취업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유학생 취업까지 배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로 보인다.

요즘에는 유학생들이 졸업하고 취업 부분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서, 취업을 도와주기 위한 어떤 정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여력이 미치지 못해서.. 한국 학생들 취업을 담당해주는 부서에서도 외국 학생은 배제시키고, 또 국제교류원에서도 입학부터 관리까지 몇 명에서 다하고 있는데.. 취업까지 관리를 하자니 지금 여력이 없고.. (D대 직원 1)

2)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유학생 진로 및 후속 관리

한국 대학생들의 취업률도 낮은 상태에서 유학생들을 위한 취업 지원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엿보인다. 면담한 대학 중에 유학생 수가 가장 많은 A 대학의 경우 유학생들의 취업 지원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유학생들을 위한 인턴십 개발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최근에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한국 기업에서 취업이나 인턴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기소개서 작성, 한국어 발표 등을 도와주고, 외국인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외국인을 위한 취업 정보를 지원하는 단체가 학생취업지원센터랑, 국제협력처 OIC 라는 부서가 있는데, 기업이랑 학생들의 컨택을 잘해주세요...(A대 조선족 학생 2)

D 대학에서도 한국인 학생들과 함께 유학생들이 지역의 공기업 등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유학생들이 취업이 될 때, 해당 대학에 대한 유학생들의 선호도도 올라가고, 그에 따라 더 좋은 유학생이 유치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유학생 취업은 사실 대학이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치만 신경 쓰고 교육만 신경을 썼지, 앞으로는 아이들의 진로, 취업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이들이 동문 의식을 갖고 있고, 각 지역별로 동문회를 조직해 주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계획하고 있고,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C대 교수 2)]

취업 지도와 함께 '유학생에 대한 후속 관리'도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유학생 업무라고 할 수 있다.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졸업한 유학생들을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학교를 다녀본 졸업생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유학생들을 추천할 가능성이 높으며, 아울러 해외 분교 설치를 추진하는 국내 대학들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 출신의 유학생의 도움은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중국에 00센터를 만들려고 [유학생 동문회] 한번 모였습니다. 30명 모였는데... 좋은 케이스들이 많죠... 중국 상해 가서서, 우리은행, 신한은행 한국지역 특구 은행에 가시면 그곳에 앉아 있는 애들 중에서... 어는 은행이건 우리 대학 졸업생은 한명씩은 있어요.. (동문 관리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첫 번째는 서로 상호 윈윈... 학교에서 도울 수 있는 것들... 아무래도 지역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면 홍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A대 직원 1)]

하지만, 아직은 면담한 대학 대부분은 '개별 교수 차원'에서 일부 유학생들과의 연락이 시도되고 있고, 학교 차원에서는 체계적으로 유학생 동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만 해외 분교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A 대학의 경우 해당 국가 출신의 동문 관리를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학생들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 같은 거는.. 데이터는 저희가 다 다지고 있는데, 동문회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 (D대 직원 1)]

이와 같이 졸업한 유학생에 대한 후속 관리는 아직은 대부분의 한국 대학에서 신경을 쓰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제로서 보인다. 최근에 영국과 미국 대학들이 재정위기 속에서 중국 유학생을 적극 유치함에 따라 한국으로 유학오는 중국 유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유학생 후속 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유학생 유치를 위한 기반을 굳건히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논의 및 시사점

가. 결과의 요약 및 논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류나 K-Pop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한국 대학으로 유학을 오는 외국인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한국 대학들이 여전히 한국인 학생 위주로 대학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유학생들은 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학원'의 도움 없이는 한국 입국의 문턱은 아직까지도 높은 편이며, 유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운영되는 기숙사들은 유학생들로 부터 외면을 받고 있으며, 그나마 '대학 어학당'이 유학생들의 한국어 습득과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가교(架橋)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대학에 입학한 이후, 유학생들은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학업 장애뿐만 아니라 한국 학생 및 교수들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날로 늘어나고 있는 영어 강좌는 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언어 장벽이 되고 있다. 또한, 한국 학생들과의 학습준비도의 차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포기하지 못함으로써 학업 고충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리고 영어권 유학생을 주로 선호하는 한국 학생들, 유학생들의 문화적, 언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대학 강의, 유학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대학행정 문화로 인하여 유학생들이 당초 품었던 한국 유학의 꿈은 아스러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보다 나은 유학 생활을 위한 희망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유학생들과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는 한국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유학생들의 심리적 지지처가 될 수 있는 유학생회들이 생기고 있다. 유학생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는 교수들도

늘어나고 있고, 각종 대학평가에 유학생 수가 포함됨으로써 대학 차원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유학생들을 위한 취업과 진로 지원 등의 후속 관리도 시작되고 있으나, 아직은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한 편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학생 관리 및 지원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학생 정책의 목표’와 관련된 이슈로, 유학생 확대와 질 관리(quality control)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이다. 출산을 저하로 인해서 대학학령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유학생 유치는 대부분의 지방 사립대학에서는 생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등록금 수입이 대학 전체 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에서 학생 수 감소는 바로 대학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개별 대학만의 문제는 아니며, 전체 고등교육체제의 운영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미충원 문제를 겪는 사립대학 비율이 높으면 고등교육 전체의 발전가능성과 역량도 취약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유학생 수의 양적 확대만을 추구할 경우 고등교육의 질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유학생 유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분별한 유학생의 양적 확대는 일시적으로 개별 대학의 재정난을 해소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대학교육의 질을 저하시켜 학생 충원을 더욱 어렵게 하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유학생의 질 관리에만 치우쳐 유학생에 대한 입학 기준을 비현실적으로 높게 설정할 경우 국내로 유학 오는 유학생 수는 현저히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미 미국 대학으로 유학 가는 중국 학생이 급격히 증가하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의 고등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유학생 유치 확대와 질 관리(quality control)간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유학생의 질 관리에 관한 이슈로, 졸업기준으로서 어느 정도의 한국어 능력을 요구할 것인가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 요령」에 의하면 한국어 성적기준을 통과하여 입학한 유학생 졸업기준으로서 TOPIK 4급 합격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면접한 대학 중에서 서울에 위치한 A대학 유학생 담당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현실적인 기준이라는 지적을 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유치 단계부터 ‘졸업기준으로서’ TOPIK 4급 합격을 강조할 경우 유학생의 입장에서는 제 때에 졸업하기 어려울 거라는 심적 부담을 갖게 되고, 그에 따라 한국 유학을 기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유학생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하려는 정부

목적과 유학생 유치를 해야 하는 개별 대학의 현실적인 이해가 충돌할 수 있음을 극명히 보여준다. 하지만 정작 '유학생 교육의 질 관리 주체'가 누구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유학생의 한국어 졸업자격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유학생에 대한 학위 수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개별 대학'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고등교육법상 학위 수여 권한을 개별 대학의 총장이 갖고 있는 한, 유학생의 졸업 자격도 원칙적으로 개별 대학에서 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이러한 상식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그동안 등록금 수입 증가를 위하여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유치를 해온 일부 대학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학업수학 능력과 관련된 이슈로, 입학조건으로서 언어 능력 외에 '학업수학능력'을 별도로 검증하는 절차를 도입할 것인가이다. 앞서 제시한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한국어 능력의 부족 외에도 대학수학에 필요한 학업능력을 갖추지 못해서 학업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과 자국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간의 차이로 인하여 한국 학생들과 유학생들 간에 학업준비도 면에서 상당한 편차가 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유학생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학업을 하는 한국 학생, 그리고 이들의 교육을 맡아야 교수들에게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전공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한 유학생들을 위하여 교수들이 수업 도입 부분에 한국 학생들이 이미 고등학교 등에서 배운 지식을 다시 강의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서 한국 학생이나 교수 관점에서는 수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유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전공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학업능력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영어 강의와 관련된 이슈로, 유학생 교육과 관련하여 영어 강의를 어느 정도 확대해나갈 것인가이다. 면담 대학들은 모두 유학생 유치와 각 대학의 국제화 지표값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어 강의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는 면담한 교수나 학생 모두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부분의 유학생이나 한국 학생, 그리고 교수들이 영어를 완벽히 구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어 강의를 늘어남으로써 수업의 질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영어 수업의 경우, 교수와 학생 모두 영어에 능숙하지 않을 경우 교수와 학생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한국어로 진행되는 강의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다루어지는 수업 내용이 현저히 줄어들어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유학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 학생들의 경우 영어 보다는 '한국어'가 편해서 한국

대학을 선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영어 강의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영어 전공트랙’처럼 특정 전공의 강의 전체가 영어가 제공되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어 수업은 영어권 유학생들을 유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거의 모든 전공에 영어 강의를 확대하는 것이 ‘유학생 유치 전략’으로서 적합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유학생 관리 및 지원의 내용으로서 ‘취업 지도’를 포함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종전까지는 유학생 수의 확대가 유학생 정책의 핵심내용이었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유학생이 늘어나면서 ‘관리 및 지원’도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학생의 취업 지도는 면담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대부분의 한국 대학에서 아직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는 아니다. 이는 단위 대학 내에서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업무를 국제협력처에서만 전담하고, 취업부서에서는 전혀 관리하지 않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협력처에서 유학생의 취업지원도 담당할 것이 기대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유학생의 유치, 입국 지원, 학업생활 지원만으로도 과부하가 걸린 상황에서 취업 지도까지 담당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한국 대학에서 유학생의 취업 지도는 유학생 업무의 현안조차도 되고 있지 못하지만, 학위과정에 진학하는 대부분의 유학생들에게 ‘취업’ 자체가 한국 유학을 결정한 동인(動因)인 경우가 많다. 실제 면담한 유학생중에 한국 대학에서 연마한 한국어 능력을 활용하여 한국에서 취업하거나, 자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등에서 취업하기 위해서 한국 대학에 진학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러한 기대의 불일치가 커질수록 유학생들에게 한국 유학의 매력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 시사점

이상의 분석 결과 및 논의는 유학생 정책을 개선하는 데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앞서 제시한 유학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례 분석들에 맞추어 정부 차원과 개별 대학 차원으로 구분하여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부 차원의 시사점

무엇보다도 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유학생 정책의 범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유학생 유치를 넘어서 관리 및 지원까지 유학생 업무 영

역이 확장되고 있으나, 여전히 유학 경험의 단편적 측면에 집중하고 총체적인 면을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앞서 면담 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유학생들에게 한국 유학 경험은 한국 대학에 관한 정보를 탐색하는 순간부터 시작되고 취업 및 진로를 통해서 완료되는 장기적인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정부의 유학생 정책도 유학생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관점에서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선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 및 전공을 선택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국 유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온라인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면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한국 유학이나 세부 전공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한국 유학에 관한 정보를 일부 제공하고 있으나, 주로 한국어 능력 시험(TOPIK)과 한국 정부 장학금 등에 관한 정보만을 소개하고 있고, 정작 개별 대학을 소개하는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학생 대부분은 현지 유학원, 개별적인 인터넷 조사 등을 통하여 한국 대학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만을 획득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현재는 ‘영어’로만 한국 유학에 관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는데, 실제 유학생의 절대 다수인 중국인 학생들은 영어 실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한국 대학에 관한 정보를 직접 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유학방법과 한국 대학에 관한 정보를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등으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유학정보 포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학생들의 비자발급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교과부에서 유학생 유치 확대 정책을 추진한 이래 개별 대학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로서 여전히 유학생 유치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면담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개별 대학의 유학생 업무 담당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업무 중의 하나는 지역 출입국 관리소에서 비자 발급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었다. 비자 발급 관련 규제의 성격상 출입국 관리소 담당 직원의 판단에 따라서 발급 여부가 결정될 소지가 많고, 그에 따라 개별 대학 입장에서는 유학생들에게 일관성을 가지고 입국 안내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 유학생들에게는 특히 비자발급과 관련하여 많은 서류가 요구되고 있어서 상당한 경제적, 시간적 부담 요인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따라 미국, 영국 등에서 공격적으로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고, 그에 따라 입국 요건 등도 대폭 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비자 발급 규제를 완화하되, 유학생 관리에 관한 개별 대학의 책무

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학생 비자 관리 정책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외국인을 위한 졸업자격 요건으로서 TOPIK(한국어능력 시험) 4급 취득을 요구하는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정책은 질 관리를 위해서 도입된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유학생 유치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면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국가를 비교하여 유학 국가를 결정하는 유학생 입장에서는 한국어 능력이 졸업자격과 연계되어 있는 것 자체가 상당한 심적 부담이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TOPIK 4급 취득 가능 여부를 떠나서 다른 나라들을 유학 국가로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한국어 능력과 관련된 졸업요건은 유학생에 대한 학위 수여 권한이 총장에게 있는 현재의 고등교육 시스템과는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 유학생 질 관리를 위해서는 졸업조건으로서 한국어 능력이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같은 대학협의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유학생 유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영어 강의를 ‘전략적으로’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대학 국제화나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영어 강의의 확대가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강조되었으나, 유학생 확대나 고등교육의 국제화에 기여하는 바는 불확실하며 오히려 교육의 효과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수나 학생 모두 영어가 능숙하지 못할 경우에 한국어 강의에 비해 그 효과성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서 제시된 면담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중국인 유학생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영어 강의는 유학생 유치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전 학과에서 ‘부분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는 영어 진행 강의는 ‘모든 강의’를 영어로 수강하기를 원하는 영어권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모든 학과를 대상으로 영어 강의를 확대하기 보다는 영어권 학생들이 관심이 있는 전공의 교과목을 모두 영어로 제공하는 전략적인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각 대학들이 ‘유학생을 위한 학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유학생은 언어(한국어, 영어)만이 아니라 대학학업 준비도의 부족으로 인해 학업을 따라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면담한 대학 중에서는 멘토링(mentoring), 튜터링(tutoring) 등을 통해서 학업이 부진한 학생들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유학생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대학에서 학업능력이 부족한 유학생들을 위해서 보충수업 프로그램이나 튜터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

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업을 마친 유학생들이 국내 기업 등에서 인턴십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학생들처럼 대부분의 유학생들에게도 ‘취업’은 중요한 관심사이며, 이에 따라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 ‘유학생 취업 지원’은 아직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 학생들을 취업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학생 취업 지원까지 고려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유학생들이 졸업 전에, 혹은 졸업 후에 단 기간의 인턴십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취업과 관련한 유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콜 센터’ 등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유학생을 고용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체들과 국내외 한국기업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유학생들을 연결시켜줌으로써 상호 윈윈(win-win)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2) 단위 대학 차원의 시사점

개별 대학 차원에서 효과적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학생의 한국 대학 정보 탐색부터 졸업 및 후속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유학생 유치-입국 지원-교육-취업 및 진로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때, 국내로 유입되는 유학생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첫째, ‘유학생의 관점’에서 개별 대학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면담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유학생 입장에서는 대학 현황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도 궁금하지만,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전공의 교육 과정 운영 및 취업 전망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기를 원한다. 최근에 우리나라 대학들도 영어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서 대학 및 학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학교별로 상당한 편차가 존재한다. 학과 단위별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는 대학도 있지만, 개괄적인 정보만을 영어로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중국 유학생이 다수인 점을 감안하여 영어 외에도 ‘중국어’로도 학교 홈페이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국인 친화적인 기숙사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고물가로 인해 기숙사에 들어가려는 경쟁이 치열하지만, 지방대학의 경우는 학교에서 기숙사를 제공하더라도 자취 등을 선호하는 유학생들이 다수 있다. 면담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유학생의 문화적인 특

성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 학생 위주로 기숙사가 운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 유학생이 유학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기숙사 식당 메뉴 개발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임대료 등이 저렴한 지방의 경우에는 기숙사가 학생들로부터 외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유학생 친화적인 기숙사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및 학업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면담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1~2학년 때에 수업을 따라가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특히 한국 학생들과의 선행 지식 차이로 인해서 그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는 한국인 학생이나 조선족 학생 등을 활용하여 튜터링이나 멘토링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나, 모든 학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과별/전공별로 멘토-멘티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학과의 학생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 보다는 같은 학과의 학생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경우 교육 효과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유학생들에 대한 ‘상담기능’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면담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유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학업 부적응 외에도 교우 관계, 심리적 문제 등과 같이 복잡한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상담을 유학생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협력처 직원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과 교수도 유학생의 학업 문제에 대해서는 상담을 할 수 있으나 기타 문제에 대해서는 그 복잡성으로 인하여 상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부적응 문제를 상담하는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유학생과 한국 학생들이 서로 이해하고 활발히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서로 잘 모르는 신입생 시기에 학생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사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경우 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Sherry et al., 2010). 이러한 점에서 ‘학업 외의 활동/공간’을 통해서 유학생과 한국 학생들을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수업은 경쟁적 공간으로서 학생들이 친교를 쌓는 데에 한계가 있는 반면에, 학업 외의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이 사람과 사람으로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서로 대학생으로서의 공통점을 찾고, 같은 취미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유학생에 대한 ‘한국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앞서 면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학생들이 영어 스펙 쌓기 등을 이유로 영어권 학생들에게는 먼저 다가가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중국 학생 등을 포함한 아시아 저개발국 학생들에게는 관심이 적은 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인 학생 등의 경우 주변에 친한 한국 학생들이 적고, 그 결과 한국어 실력도 향상되지 못하고 전공 수업을 따라가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유학생들은 한국 학생들로부터 ‘소외’되고, 그 결과 학업 중단 위기를 겪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러한 문제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감수성’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수업, 세미나, 학교행사 등을 통해서 타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분위기를 학내에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단과 대학, 학과 차원에서 유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직은 대부분의 학과에서 유학생이 극히 소수인 상황에서 이들을 배려하기 위한 학과 차원의 자발적인 노력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단과대학 차원의 유학생 전공주임 교수 배정, 유학생 지원 예산 등을 편성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학과나 단과 대학 차원에서 유학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하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실제 면담한 대학 중에는 유학생 주임교수제 도입이나 특별 예산 지원 등을 실시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유학생에 대한 교수들의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학교 차원의 유학생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교수 개인의 관심 여부에 따라 유학생에 대한 지원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단과대나 학과 차원에서 유학생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 본부 차원의 행·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유학생 친화적인 대학행정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앞서 제시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유학생을 배려하는 대학행정 문화가 학내에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유학생에 관한 일이 비단 국제협력처만의 소관이 아니라, 대학 본부의 주요 부서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단 학생만이 아니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고 타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유학생의 고충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문화가 확산될 때 유학생을 위한 학사관리, 교육, 학생 서비스, 취업 및 진로 지도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졸업한 유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적극 권유하여 유학생이 확대되는 선순환 효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 VI. 주요국의 유학생 정책

1. 호주
2. 캐나다
3. 일본
4. 시사점

VI.

주요국의 유학생 정책

OECD 정의에 의하면 ‘유학생’이란 ‘면학을 목적으로 전 거주국 혹은 출신국으로부터 다른 국가로 이동하여 살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공부를 하고 있는 국가의 영주자 혹은 정주자가 아닌 학생으로 학생 비자 또는 학생 체재허가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입학 전 교육을 다른 국가에서 받은 학생을 말한다. ‘외국인학생’이란 ‘자료를 제출한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으로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포함하게 된다.

〈표 VI-1〉 고등교육단계 유학생 비율(2005, 2010)

구분	전체 고등교육 학생 중 유학생 비율					
	전체 고등교육	B유형 고등교육 프로그램	A유형 고등교육 프로그램	전문 연구 프로그램	전체 고등교육 단계 유학생/ 외국인학생 비율 변화 지수 (2005=100)	전체 고등교육 단계 외국인 학생 수 변화 지수 (2005=100)
	(1)	(2)	(3)	(4)	(5)	(6)
OECD 평균	8.0	6.0	7.8	21.1	150	192
한국 ⁴	1.8	0.4	2.1	7.1	375	382
일본	3.4	4.0	2.9	17.3	118	112
중국	0.2	0.0	0.4	0.8	m	m
호주	21.2	17.3	21.8	28.7	123	153
영국 ³	16.0	5.4	17.6	41.7	115	168
프랑스 ⁴	11.6	4.2	12.8	42.0	107	110
캐나다 ^{1,2}	6.6	4.3	7.1	20.5	m	132
미국 ³	3.4	1.0	3.3	27.8	98	116

◎ 주 1. 2009년도 자료임

2. 변화 지수는 2004=100을 기준으로 함

3. column(6)의 학생 수는 유학생임

4. 학생들의 국적에 따른 외국인 학생의 수입

◎ 출처: OECD(2012), Education at a glance, Table C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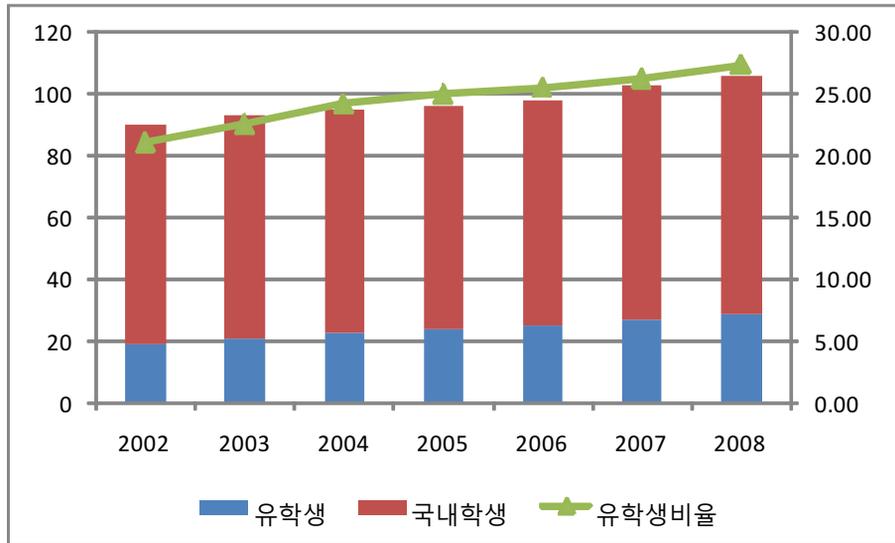
OECD 자료를 통해 전체 고등교육기관 재적 학생 중 유학생 비율을 보면 OECD 평균은 8.0%로 전체고등교육 학생 대비 유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호주 21.2이다. 우리나라는 평균 1.8에 지나지 않아 OECD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 일본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의 유학생 비율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이 3.4로 아시아에서는 가장 유학생 비율이 높은 걸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유학생 비율이 높은 호주와 최근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캐나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호주

영국의 식민지였던 호주는 항상 영국의 에토스를 내면화하여 고등교육 역시 영국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아시아 태평양 국가로서의 자기상을 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1951년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경제·교육 원조를 목적으로 호주 정부장학금 지원의 유학생 유치 정책인 콜롬보 계획을 시작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부터의 이민이 시작된 1970년대부터 유학생 유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84년 잭슨보고서를 계기로 종래의 원조 차원에서의 유학생 유치 정책을 전환하여 일부 지원을 제외하고 유학생으로부터 교육비용 전액을 징수하게 되면서 호주의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특히 2000년대 세계무역기구(WTO)의 GAT(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교섭으로 교육서비스의 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유학생 유치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호주는 이민 국가로 현재에도 장기적인 노동력부족, 기술부족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유학생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가. 호주의 유학생 현황

호주는 전체 고등교육기관 중 외국인 유학생이 21.2%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는 국가이다. 2010년 현재 39개 주립대학을 필두로 120여개 고등교육기관에 100만 명이상이 고등교육을 받고 있으며, 실제 유학생의 평균 증가율은 9%로 국내 학생 증가율 1.7%보다 급격하다(그림 VI-1 참조).



© 자료 : 杉本和弘(2011) 『アジア太平洋地域を舞台にした国際教育の展開と質保証』
リクルートカレッジマネジメント161, 42-46

[그림 VI-1] 호주 고등교육기관의 유학생 현황

유학생의 출신 국가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유학생을 호주에 송출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으로 122,897명이며 인도(48,507명) 다음으로 한국 출신의 유학생이 많다. 유학생의 80%가 아시아 학생으로 인도와 중국이 40%를 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베트남, 네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의 유학생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표 참조).

〈표 VI-2〉 2011년 상위 10위권의 출신국가별 유학생 수 및 구성비

순위	국가·지역명	유학생 수(명)	구성비(%)
1	중국	122,897	28.8
2	인도	48,507	11.4
3	한국	22,439	5.3
4	말레이시아	20,901	4.9
5	베트남	18,193	4.3
6	태국	14,211	3.3
7	인도네시아	14,170	3.3

국가·지역명		유학생 수(명)	구성비(%)
8	네팔	11,871	2.8
9	브라질	10,526	2.5
10	사우디아라비아	10,084	2.4

◎ 출처 : 호주교육고용부 홈페이지(<http://aei.gov.au>)

〈표 VI-3〉 상위 10위권의 출신국가별 유학생 재학기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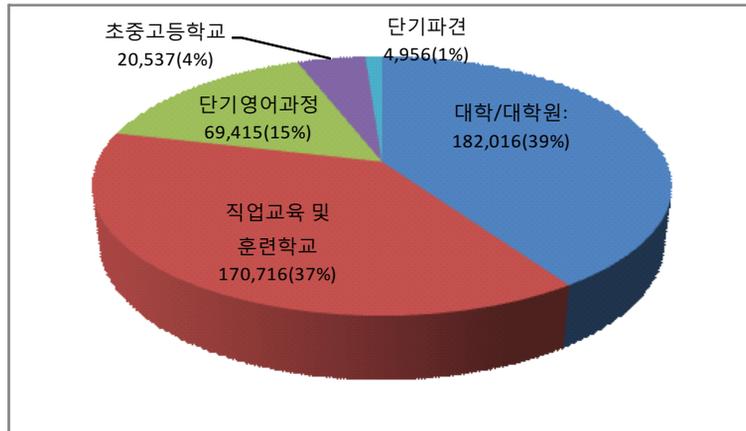
국가·지역명	유형					
	고등교육 (대학/대학원)	직업교육 및 훈련학교	단기 영어과정	초중고등학교	기타	
1	중국	61.5	9.7	17.7	6.4	4.7
2	인도	29.1	67.7	2.7	0.2	0.3
3	한국	32.6	28.3	25.1	11.3	2.6
4	말레이시아	80.9	10.2	2.7	2.9	3.3
5	베트남	48.7	20.4	17.8	10.5	2.6
6	태국	21.9	44.2	30.1	3.1	0.8
7	인도네시아	55.9	26.8	10.3	1.9	5.0
8	네팔	46.9	46.6	6.1	0.1	0.3
9	브라질	6.1	35.0	56.5	1.8	0.5
10	사우디아라비아	24.1	12.2	0.2	0.9	62.6

◎ 출처 : 호주교육고용부 홈페이지(<http://aei.gov.au>)

또한 상위 10위권 출신국가별 유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교육기관 유형을 보면, 인도나 네팔, 태국과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의 유학생은 주로 직업교육 및 훈련학교(VET)에 재학하고 있는 데 반해, 중국은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하거나 조기 유학이라 할 수 있는 초중등 교육기관에 재적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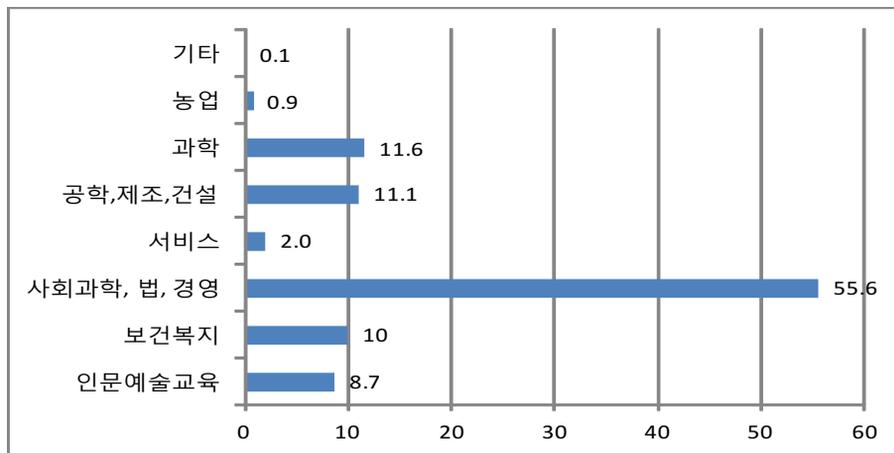
재학단계별로 살펴보면, 대학이나 대학원은 39%로 그 중 60%가 학사 과정에 재학하고 연구중심대학의 대학원에 재학하는 유학생은 4%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전액 납부 학생(full-fee paying students)인 유학생이 2010년 전체 대학원 연구과정 학생의 26.9%를 차지하고 있어 호주의 고등교육에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최근에는 직업교육훈련(VET)이 급성장하여 대학과 대학원과 맞먹는 37%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기 어학 과정을 이수하기 위

해 찾아드는 외국인 유학생 수도 2만 명을 넘어서 전체 유학생의 4%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참조). 이를 전공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과학, 법, 경영 부분에 가장 많은 55.6%가 재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과학, 공학, 제조, 건설 등의 이공계에 22.7%의 유학생이 재적하고 있다.



출처: 호주교육고용부 홈페이지(<http://aei.gov.au>)

[그림 VI-2] 호주의 유형별 유학생 분포



출처: OECD(2012). Education at a glance, Table C4.2

[그림 VI-3] 호주의 전공별 유학생 분포

IDP의 분석(2007)에 의하면 세계의 유학생 규모는 연간 2.7%로 증가하고 2025년에는 372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호주의 유학생은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전망이어서 호주가 최정상 유학생 유치국으로 계속 남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표 VI-4〉 호주의 교육기관 유형별 유학생 분포

유형	2010년	2011년	증가율
고등교육(대학/대학원)(Higher Education)	226,125	226,420	0.1%
직업교육 및 훈련학교(VET)	146,335	119,318	-18.5%
단기영어과정(ELICOS)	96,679	79,997	-17.3%
초중고등학교(Schools)	23,973	20,727	-13.5%
기타 ^a	30,949	27,787	-10.2%
계^b	468,694	426,748	-8.9%

a '기타' 유형은 Australia Qualifications Framework에서 자격 인정을 해주지 않는 파운데이션, 인정과정(enabling course) 및 비학위 과정(non-award course)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b 총 학생수는 각 유형별 학생 수의 총합과 다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1년 동안 하나 이상의 유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출처 : 호주교육고용부 홈페이지(<http://aei.gov.au>)

나. 호주의 유학생 유치 배경

호주에서 처음으로 유학생을 유치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 콜롬보 플랜으로 개발원조의 관점에서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유학생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1980년대의 경제 불황으로 원조가 아닌 사비 유학생 획득 강화를 위한 정책(Policy on the Export of Education Services)을 통해 사비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대에는 교육산업이 석탄, 철광석과 더불어 호주의 3대 수출품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2008년 인도인 유학생에 대한 연속 폭행사건(카레 바싱)을 계기로, 악질적인 칼리지, 영주권 취득 사기 등이 불거지면서 호주 유학생 교육에 대한 평판이 악화되자 이를 개선하여 호주의 유학생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991년 제정한 ESOS법을 개정하여 유학생 유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2002년 'Study in Australia'를 호주의 고품질 교육서비스를 상징하는 국가브랜드로 지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유학생 유치정책을 펼치고 있다. 교육을 산업이라고 보고 유학생을 소비자로 하여 유학생 시장을 경제적인 시점에서 비영리조직 IDP를 통해 2003년, 2005년, 2007년 계속하여 'Global Student Mobility 2025'라는 보

고서를 공표할 정도로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이다. IDP 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호주의 유학생 전망은 MESDCs(Major English Speaking Study Destinations)인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의 4개국을 교육의 질(Quality of Education), 고용전망(Employment Prospects), 코스트(Affordability), 개인 안전(Personal Security/Risk), 라이프스타일(Life Style), 입학의 용이함(Education Accessibility)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동아시아 유학생이 전체의 70%를 점유한다는 전망 아래 이들을 타깃으로 하여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중국, 한국으로부터의 유학생을 다수 유치하고 있으며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학생 비자로 취로가 가능한 호주로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어,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만 연간 5만 명 이상이 호주의 워킹홀리데이에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 수출사업의 하나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교육고용부에서는 국제교육지원(International Program Support) 사업의 목적을 ①호주의 국제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고 호주의 교육시스템이 세계적 수준으로 인정받도록 한다, ②다양한 외국인 유학생 장학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세계 최고의 인재를 모아 미래 인재를 확보한다, ③호주 지역 내 국제교육연결망(International Education Links)을 구축한다, ④국제교육 협력 분야에서 호주를 세계 리더로 삼는다는 4가지로 들고 유학생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특히 호주의 경우 다른 영어권 국가에 비해 생활비와 학비가 쌀 뿐 아니라 2011년 6월부터 최저 시급이 16 달러로 책정되고 3학기 제도로 인해 방학이 길어 취업할 수 있으며 2012년부터 호주의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에게는 2년 동안의 취로 비자를 부여하기(호주대사관 홈페이지) 때문에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호주에 몰려들고 있다.

다. 호주의 유학생 유치 정책

호주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해 2000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육서비스법(ESOS: Education Service for Overseas Act 2000)’을 발표하고 2007년에는 ‘외국인 유학생 교육기관 및 등록기관을 위한 행동지침(National Code of Practice for Registration Authorities and Providers of Education and Training to Overseas Students)’, 2009년 ESOS법 개정 등,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해 질 높은 교육 훈련을 법적으로 확보하고 소비자로서의 유학생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 정책이 시작된 것은 하워드 보수연합정부의 교육 수출산업 지원 정책(1996-2007)이라 할 수 있다(황정미 외, 2011). 당시 호주는 자연인구의 증가보다 이민에 의한

인구 증가 비중이 높고, 고령화 사회로 인해 청년 노동인구 부족현상이 심각해지자 해외유학생의 기술이민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기술노동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다. 학업을 마친 해외유학생이 기술이민자로 전환할 경우 영주권 취득을 용이하도록 이민정책을 전환함으로써 호주 유학이 영구 이민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교육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출삭감에 따른 재정 곤란을 해외 유학생 산업을 통해 극복한다는 전략 하에 정부 산하 기관 뿐 아니라 교육기관, 민간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를 만들어 해외 유학생 유치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해외 유학생의 급증에 따라 유학생의 사회 통합이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되었다. 유색인 유학생에 대한 인종차별주의적 폭력, 부실 사립교육기관의 폐교, 교환율·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저임금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착취 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노동당 정부는 Bruce Baird 자유당 소속 전연방의원을 중심으로 ESOS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호주 교육산업의 개혁 뿐 아니라 호주 교육산업의 소비자로서 해외 유학생의 권리 보장, 양질의 정보 제공, 교육서비스의 질 제고, 위협에 처한 유학생의 거처 지원 보장 등을 강조하여 ESOS 법을 개정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향후 2년간 50개 부실 전문대를 폐교하기로 결정하고 각 주에서도 상당 수 부실 민간교육기관을 폐교하거나 등록을 취소하고 있다. 특히 2009년 인도 학생들에 대한 폭력(카레 바싱) 발생 이후 해외 유학 국가라는 호주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해외유학생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위원회를 발족시키고, 호주정부위원회를 통해 전국해외유학생전략을 수립하였다(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 2010).

유학생전략(International Students Strategy for Australia: 2010-2014)에서는 전략 목표를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고품격 유학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호주 내 고품격 국제교육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유학생은 ① 호주 내 유학 및 생활에 대해 사전에 정보를 듣고 선택할 수 있다, ②호주에서 긍정적인 유학 및 생활을 체험할 수 있다, ③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이를 통해 호주 역시 ①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제교육 영역을 확보한다, ②고품격 교육에 대한 명성을 쌓는다, ③질적 교육을 담보하는 규제 프레임에 갖춘다는 것이다.

〈표 VI-5〉유학생 전략 중점 과제

학생 복지	교육의 질	수요자 보호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개인 안전 가이드 수립 ◦ 교육기관의 학생안전 계획 수립 ◦ 의료보험 혜택 강화 ◦ 전국 공동체 참여 전략 수립 ◦ 해외유학생 상담위원회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QTF(Australian Quality Training Framework) 강화 ◦ ESOS법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관 폐쇄 TF팀 구성 ◦ 학생들의 불만 처리 및 분쟁해결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udy in Australia 포털 강화 ◦ 정부서비스 및 등록금 할인 등의 정보제공 ◦ 외국인 유학생 대상 조사 실시

© 출처 :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2010), International Students Strategy for Australia: 2010-2014

해외유학생을 위한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과 이를 통해 호주 국제교육의 미래를 공고히 하겠다는 목적으로 학생복지, 교육의 질, 수요자 보호, 정보제공 등의 4가지 영역에서의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표 참조). 이들 전략은 MCTEE(the Ministerial Council on Tertiary Education and Employment)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다른 연방정부 각 부처, 주와 자치 정부 등이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다(황정미 외, 2011).

라. 호주의 유학생 지원

1) 입국(입학) 지원

가) 비자 및 보험

호주 이민국적부에서는 유학생의 특성에 따라 평가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평가 등급이란 특정 국가의 비자 지원자들의 전년도 비자 지원 조건과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으로, 190여 개 국가에 서로 다른 평가등급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 유학생의 경우에는 어학연수 프로그램 비자에 대해서는 2등급,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과정 비자 1등급, 직업 교육 및 훈련 과정 비자 2등급, 고등 교육 과정 1등급, 대학원 연구 과정 1등급, 비학위 교육 과정 1등급, 호주 정부 해외 지원 프로그램 및 국방성에서 지원하는 학생 대상 교과과정 비자는 2등급으로 나누어진다.

호주에서는 유학생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의료보험(OSHC)이 있다.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호주 입국 전에 OSHC에 가입해야 하며 학생들은 이민성의 규정에 따라 학생비자로 체류하는 기간 동안 반드시 OSHC를 유지해야 한다. OSHC는 의료 서비스 및 병원 치료비용과 대부분의 처방약, 비상시 앰블런스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비용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VI-6〉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의료 서비스

서비스	세부 사항
외래 진료 서비스	국민건강보험(MBS: Medicare Benefit Schedule)에 명시된 금액 전액 지불
앰블런스 서비스	응급 치료를 위해 앰블런스 및 기타 인증된 유사 교통수단을 사용했을 때의 비용 전액 지불 (병원 간 이동 포함)
공공 병원	병실의 공공 편의시설, 당일 제공 서비스, 사고 및 응급 진료, 수술 후 서비스, 외래 진료를 모두 포함
제휴 개인 병원	제휴 개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병원 편의 시설과 제반 비용에 대해 전액 지원하며 해당 병원과 본 보험사가 계약한 사항에 한하여 모든 처방과 부속 서비스에 대하여 혜택 제공
회원 우대 병원	회원 우대 병원에서 1인 병실 입원을 원할 경우 반드시 입원 24시간 전까지 1인 병실 예약할 수 있으며, 입원 가능한 1인 병실이 없을 시 1인 병실에 입원하기 전까지 병원이 매일 \$50 지불
비 제휴 개인 병원	비 제휴 개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병원이 요구하는 금액과 OSHC 옵션과의 어떠한 차액에 대해서도 환자 본인 부담
수술 시 이식하는 인공 기관 및 기구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가 지정한 인공기관 및 기구이며 OSHC 보험 항목에 포함된 치료에 관계하여 이식된 경우 지원하는 것으로 지정된 기구와 다른 금액의 기구를 사용할 경우 병원 측에서 부과한 요금에 대하여 지정된 기구와의 차액은 환자 본인 부담
투약 처방 관련	정부가 지정한 처방 금액(GPS: government pharmaceutical scheme) 중 최고 금액을 환자가 지불한 후 보험사가 실제 비용과 정부 지정 금액과의 차액을 처방 당 \$50까지 지불

나) 입학 전 어학 교육

대부분의 유학생은 집중영어프로그램(English Language Intensive Courses of Overseas Students: ELICOS)이나 FP(Foundation Program)을 받는다. 호주 정부는 2009년 National Code에 FP를 위한 국가기준을 책정하였다. FP 국가기준에 의하면 FP란 ‘유학생이 호주 고등교육 프로그램에 입학하

기 위해 필요한 스킬과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코스'로 일반적으로 '대학 학부 1학년,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이행을 위한 진로(Academic Entry Pathway)'라 할 수 있다. 2011년 현재 CRICOS 등록기관 중 111코스가 FP로 등록되어 있으며 82개 코스는 정규 교육자격이나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코스이지만 나머지는 학위와 같은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있다(National Standards for Foundation Programs and Explanatory Guide, 2011). 이들 프로그램 운영기관은 프로그램 제공 기관이지만 시드니 대학, 스윈번공과대학, 서호주대학 등은 Study Group Australia Pty. Ltd. 라는 민간 기업이 제공한다(AEI 홈페이지).

2) 학업지원 정책

가) 영어 교육

학업에 필요한 영어 교육을 위해 호주 정부는 비영어권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for New Arrivals'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있다. 2008년의 경우 지원 대상 학생 1인당 호주달러 5,784 달러를 지원하였다고 한다(호주교육고용부, 2010).

나) 외국인 유학생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등록제도 운영

호주 국내의 교육기관은 크리코스(CRICOS)라는 DB등록부를 통해 정부차원에서 교육 질 관리를 한다. ESOS법에서도 호주의 교육기관들이 유학생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와 서비스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오리엔테이션과 학생들이 공부하고 호주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학생지원 서비스, ②외국인 유학생들의 연락 담당자, ③학점 신청, ④등록의 연기, 일시 중지 및 취소, ⑤공부하는 과정에서 만족스런 성과를 얻기 위한 교육기관의 요건 및 학생의 성적이 부진할 때 제공될 수 있는 지원, ⑥학생이 등록한 과정의 출석이 체크되는지에 대한 정보, ⑦불만 및 이의 제기 과정 등이다.

뿐만 아니라 등록금을 지불하기 전이나 지불할 때 교육기관과 제공될 서비스, 지불할 비용 및 수업료 환불에 대한 정보가 명시된 서면 계약서에 반드시 학생이 서명하도록 하고, 학생이 수업료를 지불한 수업을 받을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교육기관에서 학생이 등록한 강좌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학생에게 환불을 하거나 다른 과정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소비자 권익보호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3) 생활지원 정책

가) 장학금 사업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호주정부의 주요 생활지원사업은 장학사업이라 할 수 있다. 호주 정부가 제공하는 장학금은 호주 국제개발부(AusAID)와 호주 교육고용부(DEEWR)의 관리 하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존 장학금 프로그램들을 모아 발전시킨 것으로 호주 리더십어워드(Australian Leadership Awards)와 엔데버 프로그램(Endeavour Program) 등이 있다.

엔데버프로그램(Endeavour Program)은 외국의 우수한 학생, 연구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해 호주에서의 장단기의 학업, 연구 및 전문성개발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호주의 교육, 과학, 훈련분야에 대해 그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해외에서 공부하려는 호주인도 지원대상이다). 2008-2009 회계연도에 아태지역, 중동, 북남미 등지의 483명이 이 장학금을 받았고 특히 아시아 국가 학생들을 위해 호주달러 1,490만불의 기금을 2008년부터 4년간 집행한다고 하며(호주교육고용부, Annual Report 2008-2009). 2010년 엔데버어워드의 혜택을 받은 외국인 유학생은 1,969명이다(www.ausaid.gov.au/scholar).

호주 리더십어워드(ALA)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사회경제 개발 및 개혁에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호주 교육기관 재학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호주개발장학금(ADS)은 호주와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경제성장 및 인적개발을 진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호주 교육기관에서 고등교육 이상의 수학을 통해 출신국가 발전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제공한다.

좀 더 특이한 정부지원금 보조제도로서 호주 이민을 원하는 외국의 전문인력이 호주에서 자격시험을 치르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보조해주는 ASDOT(Assessment Subsidy for Overseas Trained Professionals)제도가 있다. 이를 위해 2008-2009년도에 호주 달러 743,000불이 지급되었다.

호주 정부는 매년 20억 달러 이상을 유학생 장학금에 투자하여, 대학원 연구 과정 학생들을 포함한 유학생들에게 <표 VI-7>과 같은 다양한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다.

〈표 VI-7〉 2010년 유학생들을 위한 Endeavour 장학금 지원

유형	수	총 금액	평균 금액
Prime Minister's Australia Asia Postgraduate Award	12	\$2,5 백만	\$208,500
Endeavour Postgraduate Awards	113	\$19,6 백만	\$173,500
Endeavour Research Fellowships	137	\$3,2 백만	\$23,500
Endeavour Cheung Kong Research Fellowships	5	\$0,1 백만	\$23,500
Endeavour Europe Awards	15	\$0,6 백만	\$38,500
Endeavour VET Award	63	\$7,5 백만	\$119,500
Endeavour Executive Award	102	\$2,0 백만	\$20,000
계	447	\$35,5 백만	

또한 호주의 혁신산업과학연구부(The Department of Innovation, Industry, Science and Research)에서는 330명의 대학원 연구 과정 유학생들에게 1년에 2억 달러에 달하는 IPRS(International Postgraduate Research Scholarship)를 수여하고 있다. 또한 2009/10 회계연도에 AusAID는 2010년분 Australia Awards로 국제적으로 2,924명에게 \$183,200,000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이 중 63%는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의 장기 장학금(long-term scholarships)이다.

나) 학업 중 인턴 및 취업 장려

호주에서는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실무 훈련이나 실습 등의 인턴을 장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8년 2월부터 학생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이 학기 중에 일주에 20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학업 중 취업을 장려하고 있다. 단, 학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일을 시작할 수 없고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으나 학과 과정 요건에 따라 수행하는 실습과 보수를 받지 않는 봉사활동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호주의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임시직 또는 자원 봉사일을 통해 경력을 쌓는 것은 자신에게 많은 도움이 되며 특히 전공과 관련된 경력은 단순한 학문적 역량 이상을 갖춘 직원을 구하고 싶어 하는 고용주들에게 장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http://www.studyinaustralia.gov.au>).

다) 외국인유학생 등록금 보증기금(ESOS Assurance Fund) 운영

호주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 교육기관이 1,300여개에 이르다보니 매년 폐교되는 기관도 적지 않

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1년 호주 정부에서 100만 달러(약 10억 원)를 투자하여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환불을 위한 보증기금(ESOS Assurance Fund)을 만들었다. 2010년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각 교육기관은 기본료 550불에 학생 등록금 수입의 0.189%를 이 보증기금으로 정부에 지불해야 한다(호주연방정부, 2010).

라) 기숙사

호주의 경우에는 유학생이 많아 선택할 수 있는 숙소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교육기관이 설치하고 있는 기숙사는 적은 편이다. 물론 대부분의 대학교와 직업교육기관들은 캠퍼스 근처에 아파트나 기숙사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숙소를 제공하고 있지만 수요가 너무 많아 조기에 신청하지 않으면 들어가기 힘들다(한상연, 2010).

〈표 VI-8〉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주거 서비스

종류	가격	참고 및 유의 사항
홈스테이	주당 \$180 ~ 290	교육기관 적극 활용
호스텔 및 게스트하우스	주당 \$90 ~ 160	호주유스호스텔과 YMCA 활용
캠퍼스 숙소	주당 \$150 ~ 280	레지덴셜 칼리지와 기숙회관 중 선택
공동숙소	주당 \$100 ~ 250 (공동숙소) 주당 \$250 ~ 500 (임대숙소)	

3) 졸업 후 취업 지원

호주의 가장 대표적인 유학생을 위한 졸업 후 취업지원프로그램은 전문직과 기술직을 위한 이민프로그램(Professionals and Skilled Migrants)이다. 2010년 2월에는 기술이민프로그램(Skilled Migration Program)에 적용되는 새로운 직업군을 발표하면서 특히 아시아 학생들이 가장 많은 요리와 미용을 181개 직업군에서 제외함에 따라 유학생들이 많은 요리와 미용 관련 직업기술학교(VE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가 폐쇄될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한상연 외, 2010).

또한 회계사, 세무사, 도시계획가, 생명공학가, 항공공학가, 치과의사, 화학자 등의 전문직 유입을 위해 호주 정부는 '고등교육지원법(Higher Education Support Act 2003)'을 만들어 고등교육기관에서 이들을 위한 연계강좌(Bridging courses for overseas-trained professionals) 개설이 가능하

도록 하였다. 외국 교육기관에서 전문직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비학위과정으로 개설되는 이 강좌를 이수하면 호주의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호주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가진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유학생이 졸업 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한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고용주로부터 후원을 받지 못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자는 뛰어난 영어 실력을 보유하고 최근에 전문 경력을 쌓고 호주 고용 조건을 만족시켜야 지원이 가능하다. 기술이민 프로그램은 주로 호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의 반 이상이 호주에서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들이다.

마. 호주의 유학생 추진 기구

1) DEEWR 산하 AEI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책임부처는 호주 연방정부의 교육고용부(DEEWR: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이며, 이 산하에 국제교육을 전담하는 기구로 AEI: Australian Education International이 있어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AEI는 ①정책개발과 상담, ②호주교육의 국제적 대변자로서의 역할수행, ③국제교육의 질관리와 소비자보호, ④교육인증, ⑤유학시장 분석과 지원, ⑥홍보와 커뮤니케이션, ⑦학생 교류의 활성화이며, 특히 유학생 관리 및 유학생 장학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는 주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조직을 보면, 외국인 유학생 관련 동향에 관한 연구 분석,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데이터 수집, 정책개발, 'Study in Australia' 브랜드 관리 등을 통해 관련 교육산업계에 정책적 조언을 제공하는 국제전략본부(ISB: International Strategy Branch)와, 호주 내 외국인 유학생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법률인 'ESOS: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Act 2000'의 실행과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범국가적 교육품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IQB: International Quality Branch로 나뉘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호주무역위원회(Austrade: Australia Trade Commission)

호주 무역위원회인 Austrade는 한국의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한국무역협회(KITA)

와 비슷한 기구라 할 수 있다. 2009년의 법개정으로 인해 2010년 7월 1일부로 호주유학 및 국제 교육에 관한 홍보, 마케팅 사무, 유학관련 정부 공식 홈페이지인 studyinaustralia.gov.au 웹사이트 의 관리사무, 마케팅정보패키지(MIP: Marketing Information Package)의 간행업무 등이 교육고용 부 산하 국제교육 전담기구인 AEI(호주교육인터내셔널)로부터 Austrade로 이관되었다.¹⁵⁾

3) IDP

IDP의 정식명칭은 IDP Education Pty Ltd로 호주 회사법 상의 법인체인 주식회사이다. 외국인 학생모집 및 배치, 공인영어시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호주의 39개 대학 중 38개 대학과 온라인 채용회사인 SEEK Ltd가 각각 50%의 지분을 출자한 민간업체이다. 1969년 설립 당시 IDP는 호주와 아시아대학 간의 협력기구(AAUCS - Australian-Asian Universities' Cooperation Scheme)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및 태국의 교육분야 지원을 위해 호주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출범 하였다. 1981년 비아시아 국가들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면서 호주대학 국제개발프로그램(Australian Universities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gram)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1984년에는 다시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gram (IDP) of Australian Universities and Colleges로, 1994년에 현재의 명칭인 IDP Education Australia Ltd로 개명되었다. 2005년에는 이 조직의 영리사업을 담당하는 회사로 산 하에 IDP Education Pty Ltd를 설립하였다.

이 회사에는 8명으로 구성된 이사진이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집행부(executive)는 5명의 간부 로 구성되어 있다(Managing Director, Chief Operating Officer, Chief Financial Officer, General Manager for Strategy and Business Development, General Manager for People and Culture). 현재 IDP의 사장(Chief Executive)은 모나시(Monash)대학 국제부총장을 역임한 Anthony Pollock이 다. IDP는 29개국 75개 사무소를 통해 외국인 학생들이 고등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직업기술학교 및 영어교육프로그램(ELICOS)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IELTS시험은 121개국 450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IDP의 기능은 3가지로 (1)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2) 공인영어시험 주관, (3) ADB, World Bank, AusAID 등 기구와 협력 하에 진행되는 국제 교육원조 프로그램의 관리다.

15) 자세한 설명은 업무이관과 관련해 호주정부에서 나온 안내문 Australian Government Agency Responsibilities for International Education, 1 July 2010 참고.

바. 특징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호주 국내에서는 소규모인 고등교육 수입의 많은 부분을 유학생이 차지하고 있어 세계 최고의 유학생 유치국이지만 인도인 유학생 폭력 사건 등과 같은 ‘카레 바싱’에서 보이는 것처럼 국제화에 역행하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첫 번째는 유학생의 출신국가, 전공분야, 교육수준의 특징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호주의 유학생 출신 국가는 주로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중국 유학생이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전공분야는 주로 비즈니스에 치우쳐 있으며, 학교 급별로는 학사 과정에 60%이상이 재적하고 대학원 과정 유학생은 4%에 불과하다. 지식기반 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도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들 외국인 유학생의 편중이 향후 호주 고등교육의 질과 관련하여 사회,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호주 정부 또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에 따른 호주 고등교육기관의 재정 취약이라 할 수 있다. 대학 재원의 평균 15% 이상이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이며 대학에 따라 40% 이상을 유학생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대학도 있다. 이는 호주 대학의 경영기반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국내학생에 대한 교육서비스의 향상이나 연구 환경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호주 고등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의 유학생 확보에 장애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호주에 많은 유학생을 송출하였던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이 유학생 시장에 유치국으로 부상하면서 유학생 유치에 관한 호주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 캐나다

캐나다는 1980년대 중반까지는 세계 5위의 유학생 유치국이었다. 캐나다의 유학생 유치는 미국과 매우 유사하여 자유방임주의나 마찬가지로였으나 급증하는 유학생이 캐나다 학생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1975년 정부의 조사 결과에 놀라 입국조건을 엄격히 하는 새로운 이민법을 제정하였다. 실제로는 캐나다의 유학생 수는 캐나다 전체 고등교육의 5%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유학생과 캐나다 학생의 수업료를 따로 책정하여 유학생에게는 비싼 수업료를 징수하는 등, 유학생

의 유입을 억제하였다. 그러나 미국에 비해 저렴한 학비와 이중 언어 정책으로 최근 들어 유학생이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국가이다.

가. 캐나다의 유학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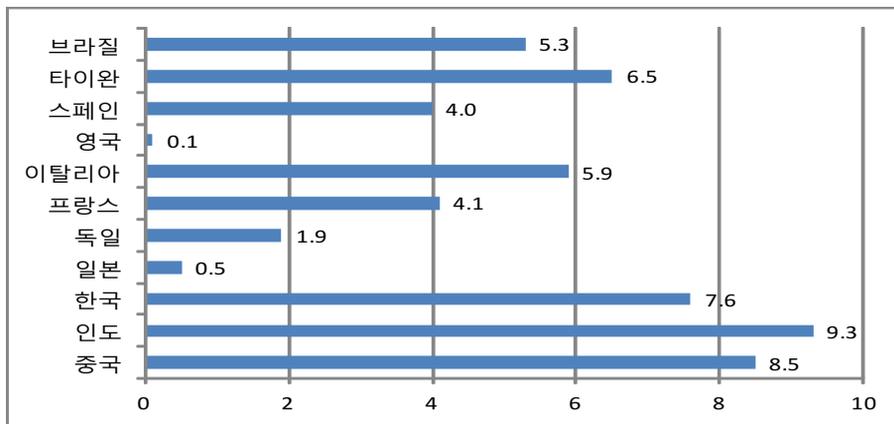
캐나다는 전체 고등교육기관 중 외국인 유학생이 6.6%에 달해 미국의 3.4%보다 높다. 또한 지속적인 유학생 수용 방침에 따라 유학생 수는 2011년 87,798명으로 2002년의 52,650명에서 67%나 증가해 유학생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이다.

〈표 VI-9〉 캐나다 연도별 유학생 수 현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입국자 수	69,073	80,902	76,933	69,705	66,116	67,878	71,789	74,031	79,529	85,178	96,157
체류자 수	89,505	105,046	127,011	139,558	149,760	153,491	155,821	159,436	162,761	168,002	181,989
총 유학생 수	158,578	185,948	203,944	209,263	215,876	221,369	227,610	233,467	242,290	253,180	278,146

◎ 출처 :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2010). Canada facts and figures 2010

유학생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지는 나라는 인도로 2010년 6,325명에서 2005년에 비해 70%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유학생 전체적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며 이가 전체 유학생의 18.7%에 달하고 있다.



[그림 VI-4] 1997-2008년 유학생 출신국별 평균 증가율

〈표 VI-10〉 캐나다 유학생의 주요 출신 국가별 입국자 수 현황(상위 10개국)

국가 \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중국	11,446	11,811	10,140	7,458	7,432	8,988	10,037	13,685	16,401	17,934
인도	1,288	2,138	2,492	1,824	2,258	2,750	2,697	3,250	5,726	11,543
한국	14,052	14,842	13,969	13,456	13,822	15,597	15,170	13,940	11,061	10,527
사우디 아라비아	296	351	565	643	836	822	1,428	3,524	5,289	6,941
프랑스	4,617	4,068	3,951	4,238	4,410	5,123	4,815	4,676	5,327	5,656
미국	6,543	5,785	5,618	5,664	5,611	5,376	5,288	4,696	4,663	4,584
일본	7,278	6,759	6,022	5,711	5,516	4,817	4,310	3,632	3,319	3,253
멕시코	5,077	3,908	2,384	2,388	2,617	2,718	2,642	2,589	2,760	2,933
독일	2,087	1,964	1,766	1,903	2,036	2,098	2,344	2,513	2,331	2,451
브라질	1,864	1,360	687	835	975	1,202	1,427	1,745	1,739	1,807
유학생 총 입국자 수	80,902	76,933	69,705	66,116	67,878	71,789	74,031	79,529	85,178	96,157

© 출처 :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2010). Canada facts and figures 2010

재학단계별로 살펴보면, 2010년 현재 가장 많은 유학생이 유입되고 있는 학교급은 대학으로 39.1%에 해당한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중등이하 교육기관이나 교환학생 비율은 낮아지고 기타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유학생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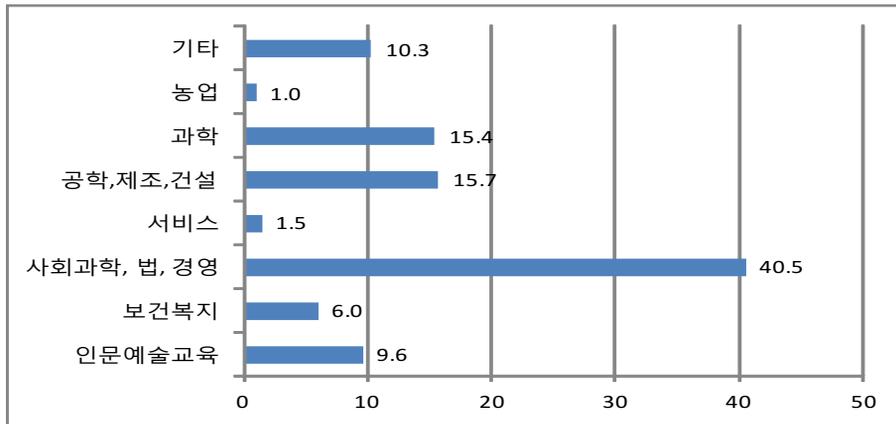
〈표 VI-11〉 캐나다 유학생의 학교급별 총 입국 수 현황

(상단: 입국 수(명)/하단: 비율(%))

유형 \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중등 이하	19,014 (23.5)	17,365 (22.6)	15,939 (22.9)	15,921 (24.1)	16,806 (24.8)	18,872 (26.3)	19,494 (26.3)	19,888 (25.0)	18,407 (21.6)	19,809 (20.6)
교환학생	13,151 (16.3)	12,786 (16.6)	11,566 (16.6)	10,374 (15.7)	10,116 (14.9)	10,605 (14.8)	10,917 (14.7)	10,360 (13.0)	8,763 (10.3)	7,880 (8.2)
대학	30,419 (37.6)	29,954 (38.9)	28,148 (40.4)	28,068 (42.5)	28,613 (42.2)	29,793 (41.5)	30,889 (41.7)	33,767 (42.5)	37,340 (43.8)	37,587 (39.1)
기타 고등교육기관	9,381 (11.6)	9,284 (12.1)	8,522 (12.2)	6,376 (9.6)	7,059 (10.4)	7,248 (10.1)	7,707 (10.4)	9,883 (12.4)	14,622 (17.2)	23,442 (24.4)
기타	4,873 (10.9)	4,140 (9.7)	2,938 (7.9)	2,920 (8.1)	2,835 (7.8)	2,826 (7.3)	2,663 (6.8)	2,695 (7.1)	2,645 (7.1)	3,130 (7.7)

유형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유형이 명시되지 않음	30 (0.1)	15 (0.1)	4 (0.0)	2 (0.0)	2 (0.0)	5 (0.0)	3 (0.0)	6 (0.0)	3 (0.0)	6 (0.0)	
계	80,902 (100.0)	76,933 (100.0)	69,705 (100.0)	66,116 (100.0)	67,878 (100.0)	71,789 (100.0)	74,031 (100.0)	79,529 (100.0)	85,178 (100.0)	96,157 (100.0)	

이를 전공분야별로 살펴보면, 40.5%가 사회과학, 법, 경영 전공이며 다음으로 공학, 제조, 건설이 15.7%, 과학이 15.4%의 순으로 유학생이 많다.



[그림 VI-5] 캐나다의 전공별 유학생 분포

나. 캐나다의 유학생 유치 배경

2012년 8월 14일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교육산업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65억 달러에서 2011년 80억 달러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쓴 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다른 영어권 국가에 외국인 유학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2010년 총 23만여 명인 외국인 유학생을 오는 2020년까지 45만 명으로 늘릴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한다고 한다. 1970년대 중반부터 유학생 수가 급증하자 연방정부는 1978년 입국조건을 까다롭게 한 새로운 이민법을 제정하고 온타리오 주와 알버타주에서는 유학생에 대한 수업료를 캐나다 학생의 2.5배로 인상하는 등,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이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유학생 유치의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정책을 변경한 것이다.

이러한 유학수지의 증가 뿐 아니라 졸업 후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민자로 정착할 가능성이 큰 고급인력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산업 전반에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라 보고 2012년 예산에서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자문기구 운영을 위해 1천만 달러를 배정한다고 한다(뉴월드뉴스, 2012/08/15).

다. 캐나다의 유학생 유치 정책

캐나다헌법(Constitution Act, 1867)은 각 주(Province)에서 독자적인 교육자치제를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정부 차원의 교육부는 존재하지 않지만 연방정부는 여러 부서를 통하여 13개 주에 대해 간접적인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캐나다 정부는 2011년 국제교육전략의 개발 및 실행을 위해 예산을 수정하여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제교육전략에 대한 방안을 작성할 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캐나다의 국제교육전략의 개발과 실행, 평가를 위한 지침 및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 것이다. 캐나다 국제교육전략 자문위원회의 보고서 'International Education: A Key Driver of Canada's Future Prosperity'에서는 캐나다가 21세기 국제교육의 리더가 되기 위한 비전과 함께, 전 세계 인재들을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그들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원한다면 정착(이민)도 할 수 있게 하여 캐나다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유학생 수 및 캐나다 학생들의 국제 이동(international mobility) 기회 증가를 위한 첫 번째 국제 전략인 성취 가능한 목표를 위해서 full-time 유학생들의 수를 2011년 기준 239,131명에서 2022년까지 450,000명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2022년까지 매년 5만 명의 캐나다 학생들이 해외에 연구 및 문화 교류, 서비스 및 기타 경험적 학습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기관 및 지방 정부와 함께 주요 학생 이동 프로그램(student mobility program)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 교육기관과 교직원 교류 및 리서치 파트너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 공함으로써 캐나다 유학생 및 연구자들이 해외 각국의 유학생들을 캐나다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책 기획 및 지속가능한 질 관리 확립이다. 이를 위해 교육의 국제화를 정부의 공공 정책 및 계획의 전략적 요소로 하여 각 정부부처에 정책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국제 교육 및 연구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의 질을 강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CIER과 CMEC가 밀접하게 협조하여 질 관리 및 이들 프레임워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유학생 지원은 물론 캐나다 교육의 질 확보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세 번째는 캐나다 교육 홍보이다. 먼저 가장 성장 가능성이 큰 국제화 시장(중국, 인도, 브라질, 터키를 포함한 아프리카 동부 및 북부 지역, 베트남 멕시코 등)에 집중 투자하고 한국,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의 시장 홍보를 위한 충분한 자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3년에 한 번씩 우선순위 시장 평가를 수행하고 각 나라에 특화된 전략을 개발하여 해외 캐나다 대사관과 e-플랫폼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캐나다 브랜드 마케팅을 위해 'Imagine Education in Canada'의 포괄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개발하고, 나아가 e-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만들어 유학생들의 국제적 포털 프로그램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 비자발급은 물론 온라인 학생 지원을 꾀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투자이다. 학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유학생 및 박사 후 과정 연구원에게 수여되는 장학금 및 보조금을 확대하고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같은 특정국가 장학금에 투자하여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과의 유학생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제언을 담고 있다. 나아가 이를 위해 우선순위 국가들과 상호 협정을 맺어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기반제도 확충 및 지원이다. 먼저 교육비자 발급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입국지원을 꾀한다고 한다. 또한 캐나다 대사관 및 해외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고 특히 캐나다 유학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의 정착(이민)을 늘려 캐나다 노동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라. 캐나다의 유학생 지원

1) 입국(입학) 지원

가) 정보 제공

캐나다에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캐나다에서는 유학생 유치 정보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http://www.hrsdc.gc.ca/en/learning/exchanges/index.shtml>). 여기에서는 캐나다의 교육 체계, 캐나다 유학의 장점, 기대효과, 취업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학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를 한다.

나) 비자 발급

캐나다에 유학하기 위해서는 취학허가증이 필요하다. 취학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일부 출신국가의 외국인 유학생은 일시 체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캐나다의 학교, 칼리지, 대학 혹은 기타 교육기관이 발행한 입학 허가증이 나오면, 먼저 캐나다에서 생활할 수 있는 교육비와 생활비 지불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인 본인과 동반가족(배우자 혹은 내연의 파트너, 부양가족)의 생활비와 귀국여비를 증명하게 되는데, 캐나다 이민국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수업료와 신청인 본인의 연간 생활비로 약 1만 달러가 필요하며 부양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부양가족은 4천 달러, 그 이후의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1인당 3천 달러가 필요하다. 이외에 범죄력이 없어야 하면 건강진단서를 필요로 한다. 단, 6개월 미만의 코스, 또는 대학의 교환 학생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취학비자가 필요하지 않으나 단기 취학자가 주에 따라 미성년자로 간주되는 경우나 학내에서 취로를 하는 경우, Co-op이나 인턴십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역시 취학허가 비자를 받아야 한다.

다) 의료보험

캐나다 내의 모든 국제 학생들은 반드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제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의료혜택은 주별로 다양하게 적용된다. 유학생의 경우에는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학생들이 직접 개인 의료보험이나 여행자 종합보험을 통해 의료비 부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유학생을 위한 캐나다 주정부의 의료보험 정책은 주별로 그 수혜범위와 내용이 다양하다. 예를 들어 브리티시 컬럼비아, 알버타와 사스캐츄완 주는 유학생에게도 의료보험혜택을 제공하지만 그 이외의 주로 유학하는 학생이라면 별도의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료보험 가입은 학교를 통해 이루어진다. 일부 학교에서는 등록금에 의료보험료를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적절한 의료보험에 가입된 것이 입증될 때까지 등록절차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의료보험을 신청할 때는 유학허가서의 사본을 제출하고 최소 3개월간의 보험료를 미리 지불하면 된다.

라) 입학 전 어학 교육

캐나다에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진학희망자에게 최적의 대학준비교육의 일환으로 실용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는 다양한 어학 코스를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실용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는 ESL은 대학 부속과 사립기관이 운영하고 있다. 사립의 ESL은 밴쿠버와 토론토에 집중되어 있으며 현재 약 300여개의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대학 부속의 ESL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카데미한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ESL 중급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소속 대학의 정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학교 도서관이나 카페테리아, 스포츠 센터를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교 기숙사에도 들어갈 수 있다.

캐나다 ESL의 가장 큰 특징은 사립이나 대학 부속 관계없이 방과 후의 유적 관광, 예술 감상, 주말의 교류 파티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기관에 따라서는 유학생의 불안이나 고민을 상담해 주는 어드바이저가 상주하기도 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학업지원 정책

가) 학업 교류

유학생 유치를 위해 캐나다 인적자원·사회 개발부에서는 국제학업교류(International Academic Mobility)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캐나다 대학들이 학생교환 및 다른 국제적인 연구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캐나다와 유럽국가(European Community) 간의 고등교육기관 협력 프로그램, 그리고 북미자유무역협정국가(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Countries)간의 교육협력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 학업 중 취로

유학생이 학업 중 취로를 할 경우 별도의 취로허가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학위과정의 정규 학생 비자를 가지고 대학이나 칼리지 내부에서 일을 할 경우 고용주가 교육기관, 혹은 학내 영업 민간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취로 비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대학원생이 조교, 특별연구원, TA(Teaching Assistant)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학내의 취로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별도의 비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학내가 아니더라도 연구조성금 관련, 연구소, 제휴기관이나 교직원인 지도가 분명한 경우에는 취로 비자 없이 학외 활동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교육기관에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헬스 케어 스튜던트(의학, 간호, 이학사 등)는 취로 비자가 없어도 의료 교육기관에서 실습을 할 수 있다.

3) 생활지원 정책

캐나다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다양한 장학금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대학 원생을 중심으로 장학금이 지원된다. 학부 유학생의 경우에는 대학 내부의 장학금이나 민간 장학금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정부 장학금으로는 Government of Canada Awards (GCA)가 있다. 이는 외국 학생들이 캐나다에서 연구와 학업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매년 가용한 장학금을 캐나다 외교통상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재정 및 행정관련 사항은 캐나다 국제교육국이 담당하고 있다.

GCA로 가능한 프로그램으로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베네주엘라 등, 캐나다 정부가 선정한 일부 국가에 한해서 적용하는 ①대학원생교환프로그램(Graduate Students' Exchange Program), 한국, 브라질, 독일, 이태리, 일본, 노르웨이, 러시아 출신 유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②박사연구과정장학금(Post-Doctoral Research Fellowships)이 있으며, ③박사 후 과정자 대상 학자금 프로그램인 PDRF(Post-Doctoral Research Fellowships)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캐나다 국공립 대학교 혹은 연계 연구 기관의 박사 후 연구 과정 장학생을 선발, \$36,500의 학자금(1년)을 지원한다. 최근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장래가 촉망되는 자연과학, 엔지니어링, 사회과학, 인문학 분야의 인재들에게 학자금 프로그램 선발 기회가 주어지며, 전문예술가 혹은 환자치료와 관련된 의료연구나 트레이닝은 제외된다.

〈표 VI-12〉 캐나다의 장학금 지원 현황

장학금	지원기관
Government of Canada Post-Doctoral Research Fellowships (PDR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Canada (DFAIT)
Banting Postdoctoral Fellowships	Government of Canada
CIHR Fellowship	Canadian Institutes of Health Research
Industrial Postgraduate Scholarships Program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Research Council of Canada (NSERC)
Industri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ternship (IRDI) Program	Networks of Centres of Excellence of Canada
Junior Fellowships	Canadian Institute for Advanced Research (CIFAR)
Mitacs Elevate	Mitacs
Mitacs Step	Mitacs

장학금	지원기관
Mitacs-Accelerate	Mitacs
Research Associate Program	National Research Council Canada
Sauvé Scholars Program	Jeanne Sauvé Youth Fondation
Strategic Training Initiative in Health Research (STIHR)	Canadian Institutes of Health Research
Trudeau Fellowships	Trudeau Foundation
Trudeau Scholarships	Trudeau Foundation
Vanier Canada Graduate Scholarships	Government of Canada
Visiting Fellowships in Canadian Government Laboratories Program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Research Council of Canada (NSERC)

또 다른 하나의 정부 장학금으로 Vanier Canada Graduate Scholarship Program이 있다. 이는 세계 수준의 박사 과정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1년간 5만 달러에 달하는 장학금을 박사학위 과정 학생들에게 최대 3년까지 수여한다. 장학금 수여 분야는 사회과학 및 인문학(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과학 및 공학(science and engineering), 보건 및 리더십 기술(health and leadership skills) 등이며, 이를 운영하는 기관은 캐나다 산업부라 할 수 있는 Industry Canada가 담당하고 있다.

4) 졸업 후 후속조치

유학종료 후에 캐나다에서 취업을 할 경우에는 학위 취득 후 일반적으로는 1년 동안 가능하며 (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 지역) 타 지역의 경우에는 2년까지 가능하다. 또한 졸업 후 Post-Graduation Work Permit Program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국공립 고등교육기관, 칼리지, 무역/기술 전문학교, 대학 혹은 퀘벡에 있는 CEGEP, 공립과 마찬가지로 평가를 받은 사립기관에서 적어도 8개월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기간 이내(최대 3년)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 캐나다의 유학생 추진 기구

앞서 설명한 것처럼 캐나다는 연방으로 되어 있어 각 주가 독립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관리 지원한다. 중앙정부의 유학생 유치와 관련하여 캐나다 외교부는 국제학생 교환프로그램을, 인적사회

개발부는 유학생 유치를 그리고 이민국은 학생비자 발급 등에 대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담당한다. 캐나다 정부의 유학생 유치관련 정책을 제공하고 있는 부서는 인적사회개발부(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인데 이 부서의 임무는 더 강하고 경쟁력 있는 캐나다를 만들고, 캐나다인들이 좀 더 생산적이고 보람찬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캐나다 연방정부 내 유학생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는 따로 없으며, 인적사회개발부에서 유학생 유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외 여러 부서들이 간접적으로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게 되는데, 외교부는 유학생교류, 이민국은 학생비자, 그리고 외교부와 캐나다국제개발원은 장학금을 제공한다. 매년 13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캐나다에 유학을 오고 있고 이들의 유치를 위해 각 대학은 독자적으로 기숙사, 취업 알선, 각종 장학금, 학교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해 홍보를 하고 있다.

마. 특징

캐나다의 유학생 유치의 특징을 보면, 첫째, 같은 영어권인 미국보다 생활비가 싸고 영어·프랑스어의 이중 언어 국가라는 점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중등과 대학원 수준의 고등교육으로 양분되어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캐나다에서도 호주와 마찬가지로 이민국가라는 점에서 졸업 후 취업을 장려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장학금 지원의 단계에서부터 기본적으로 대학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정 학문분야 고등교육 수료증으로 졸업 후 취업을 장려하여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전문 우수인재로 양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2001년부터 10년 사이에 기타 고등교육 분야의 유학생 증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화 전략에서도 관리직, 기술직 또는 무역직 등과 같은 전문 인력의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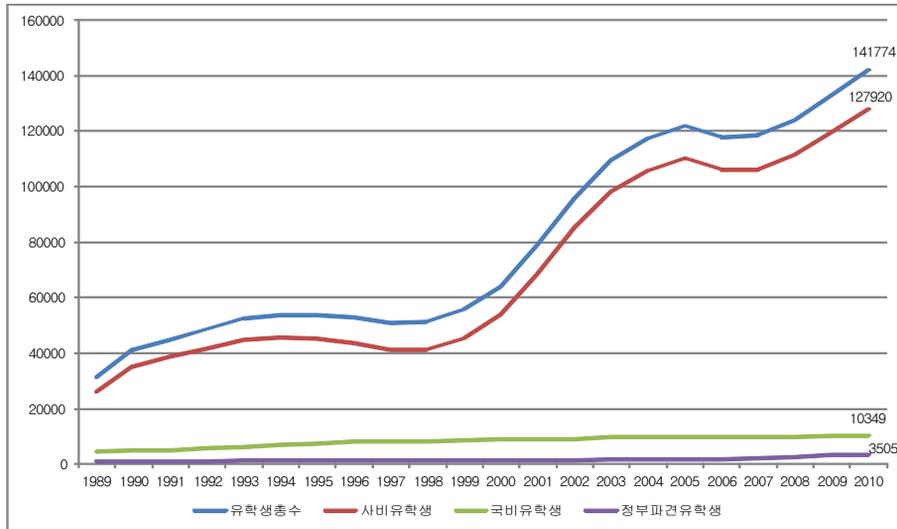
셋째, 학업 교류를 통한 국제 연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학생들의 학업지원이나 학위의 표준화를 위해 유럽은 물론, 북미 전역에서의 국제 연계 강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3. 일본

일본은 전 세계적인 학생 이동의 활성화로 1983년 세계 흐름에 발맞추어 ‘유학생 10만 명 계획’을 책정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유학생의 생활지원과 국내외 일본어 교육의 추진을 목표로 일본국제교육협회를 설립하여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을 통해 2003년 외국인 유학생이 11만 명에 달하자 2008년 7월 ‘유학생 30만 명 계획’을 설정하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일본 경제 불황을 해외 우수 인재의 유치로 타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일본 국내 학생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는 고등교육기관 자체의 국제화를 위해 대학국제전략본부강화사업, 아시아 연구교육거점 사업, 매력있는 대학원 이니시에티브, 글로벌 COE 프로그램, 대학원교육개혁지원 프로그램, 세계 TOP 수준 국제연구거점 촉진 프로그램, 청년 연구자의 인터내셔널 트레이닝 프로그램(ITP) 등 다양한 대학 국제화를 꾀하고 있으며, 2008년 8월에는 ‘개국도’를 수치화하여 투자, 관광, 무역 등의 분야에서 일본 경제가 어느 정도 글로벌화되어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유학생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偉敏殼他, 2010).

가. 일본의 유학생 현황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속적인 유학생 수용 방침에 따라 2009년 132,720명, 2010년 141,774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대비 유학생 수용 비율은 3.5%로 미국의 20%, 유럽 각국의 10%에 비해 낮아 국제적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中央教育審議會, 2010b).



출처: 独立行政法人日本学生支援機構(JASSO)平成22年度外国人留学生在籍状況調査について

[그림 VI-6] 일본의 연도별 유학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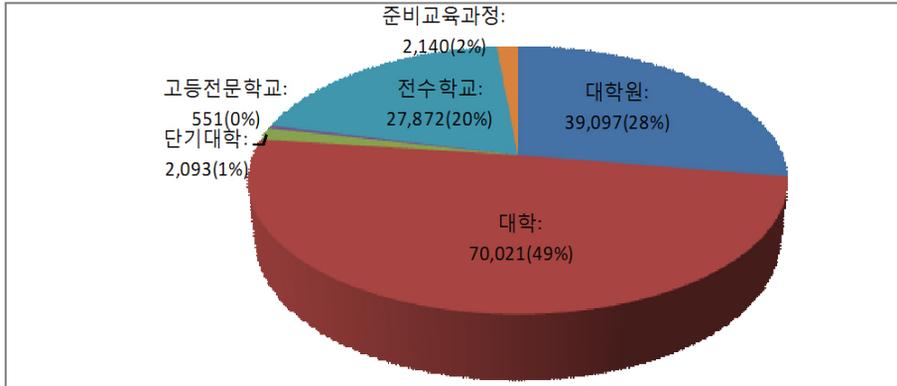
출신 국가별 유학생 수를 보면 전체 60.8%에 해당하는 86,173명이 중국으로부터의 유학생이며 다음은 한국이 20,202명으로 14.2%를 차지하고 있다.

〈표 VI-13〉 상위 10위권의 출신국가별 유학생 수 및 구성비

순위	국가·지역명	유학생 수	구성비
1	중국	86,173	60.8
2	한국	20,202	14.2
3	대만	5,297	3.7
4	베트남	3,597	2.5
5	말레이시아	2,465	1.7
6	태국	2,429	1.7
7	미국	2,348	1.7
8	인도네시아	2,190	1.5
9	네팔	1,829	1.3
10	방글라데시	1,540	1.1

출처: 独立行政法人日本学生支援機構(JASSO)平成22年度外国人留学生在籍状況調査につい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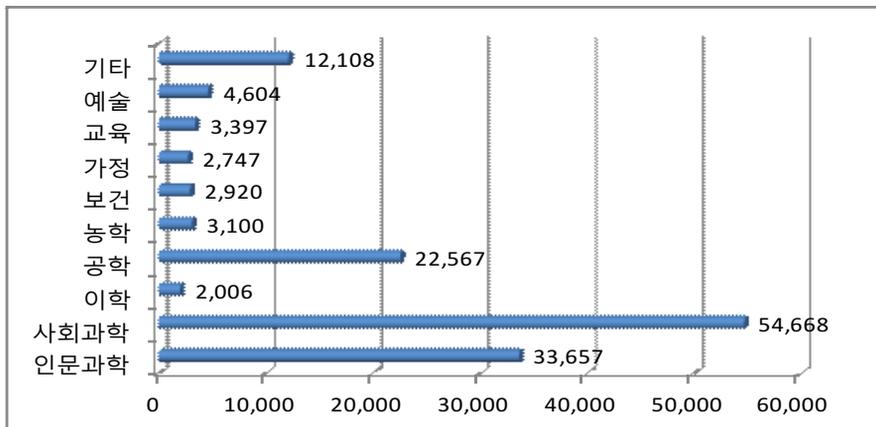
재학단계별로 살펴보면, 대학(학부)이 49%로 반 가까이 학부에 재학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전체 유학생의 28%에 해당하는 약 4만 명이 대학원 과정에 재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출처 : 独立行政法人日本学生支援機構(JASSO) 平成22年度外国人留学生在籍状況調査について

[그림 VI-7] 일본의 대학유형별 유학생 분포

이를 전공분야별로 살펴보면, 38.6%에 해당하는 54,668명이 사회과학 전공이며 다음으로 인문과학 24.8%, 공학 15.6%의 순이다.



© 출처 : 独立行政法人日本学生支援機構(JASSO) 平成22年度外国人留学生在籍状況調査について

[그림 VI-8] 일본의 전공별 유학생 분포

나. 일본의 유학생 유치 배경

일본에서는 internationalization, globalization 등, ‘국제화’가 구체적인 정의도 없이 모든 부분에서 추구해야 할 ‘good thing’으로 세상을 풍미하고 있다(Roger Goodman, 2007)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국제화에 대한 정책 추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품격 있는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 학술 측면에서의 소프트 파워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앞으로의 국제화 방향의 종합 지침으로 ‘2011년 국제 전략 답신’을 제시하였다(文部科学省, 2011).

먼저 ‘세계 대학 경쟁시대에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무교육에서부터 국제적으로 활약할 인재를 육성하고 세계 톱 수준의 외국인 연구자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일본인을 초빙하고 이를 위해 여성연구자 활약 기회를 확대하고 연구 업적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를 촉진하고 이들 유학생 교류를 통한 인적·지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지역의 거점이 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학의 국제화를 통해, 국제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학부 단계의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대학원 교육을 조직화하여 세계적인 연구거점을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일본 문화의 해외발신에 공헌할 수 있는 소프트 파워 육성을 위해 문화적 존재감의 향상과 문화 다양성을 보호·촉진하고 일본 전통문화의 발신하며, 과학기술 및 학술 교류를 통한 소프트 파워 함양하여 국제 사회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리더십 강화의 하나로 유학생 유치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이를 ODA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나아가 아시아 국가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 교류의 공통기반(Plat Form)을 구축하고 학생은 물론 교원, 관료 등 대단위 인적교류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국가들이 아시아의 교육거점(HUB)을 목표로 전략적으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 외국대학 유치는 물론 e-learning을 통한 해외진출을 시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대학을 중심으로 국제화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横田雅弘, 2009). 국경을 넘어서 제공되는 고등교육 수입국(아시아 제국) 및 제공국(미국, 영국, 호주) 모두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유학생 교류는 물론 고등교육 국제교류가 전무한 실정이며, 가까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조차 일본 대학의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위기감이 고조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내외 학습자나 고용자 시점에서 일본의 대학은 충

분한 매력이나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대학 교육에 대한 세계적 평가가 낮고 해외 유학을 선택하는 일본 학생이 적을 뿐 아니라 대학에서의 외국인 교원 부족으로 외국어 수업이 적다는 점에서 대학의 국제화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教育再生會議第2次報告, 2008).

다. 일본의 유학생 유치 정책

1) 유학생 30만 명 정책

글로벌 전략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유학생 30만 명 계획을 들 수 있다. 이는 2008년부터 5년 동안 유학생 유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2020년까지 일본 내의 외국인 유학생이 30만 명이 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0년에는 ‘유학생 30만 명 계획의 골자’라는 답신을 내고 구체적인 유학생 유치 방향을 제시하였다. 목표 수치 30만 명은 각국 사정이나 세계적인 정세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회의적이라 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우수한 유학생의 전략적 획득을 위해 유학생의 요구를 감안한 인재양성의 국제공헌은 물론, 유학생 획득이 일본의 과학기술과 학술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학생 획득 지역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아시아 유학생의 경우에는 만화, 패션, 게임 등과 같은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문학교, 학부 교육을 강화하고 아시아태평양대학교류기구(UMAP)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의 리더 양성에 주력하고, 구미 선진국 유학생 유치를 통해 대학원의 학술 연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Double Degree와 Summer School 등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의 경우에는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해당국의 수요에 맞는 분야의 국비 유학생을 중점적으로 유치하고, 자국에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는 오세아니아의 경우에는 공동 학위 프로그램이나 학점 교환 등을 장려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학생 획득을 위해 일본 유학에 관한 정보발신기능을 강화하고 대학 간 공동·연계는 물론 해외에서의 일본어 교육의 충실을 꾀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의 실현을 위해 유학생 정책을 외교 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일본 유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내 고등교육 시스템의 개혁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일

본 대학의 글로벌화이다. 대학 글로벌화를 위해 먼저 국제적 통용성이 있는 대학 커리큘럼을 정비하고, 영어 수업의 확충과 외국인 교원 채용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 간의 국제 연대를 강화하여 Double Degree, 프로그램 교환, 학생 교류 확대를 제안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가을 학기 입학 제안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대학들의 노력에 따라 국가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유학생 유치에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일본 사회의 글로벌화로 유학생을 유치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취직지원 및 고용의 촉진이다. 일본학생지원기구의 취직 가이드스, 경제산업성의 아시아인재자금구상, 후생노동성의 유학생인턴십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으나 이를 더욱 강화하고 촉진하기 위해 취업활동비자 기간을 현재의 180일에서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 등과의 컨소시엄을 통한 교류를 지원함으로써 취직을 지원하고 고용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학생 유치를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하기 위해 관계성청과의 연계를 중시하고 있다. 외무성은 국비외국인유학생 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재외공관에서 유학생 선발이나 개선을 하는 등, 문부과학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하며, 법무성의 입국관리국에서는 유학생 입국을 간소화하고 재류자격 등을 좀 더 유연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학생의 기숙사 확보에 있어 국토교통성, 지방 공공단체 등이 상호 연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학생 고용을 위해 관계성청은 물론 기업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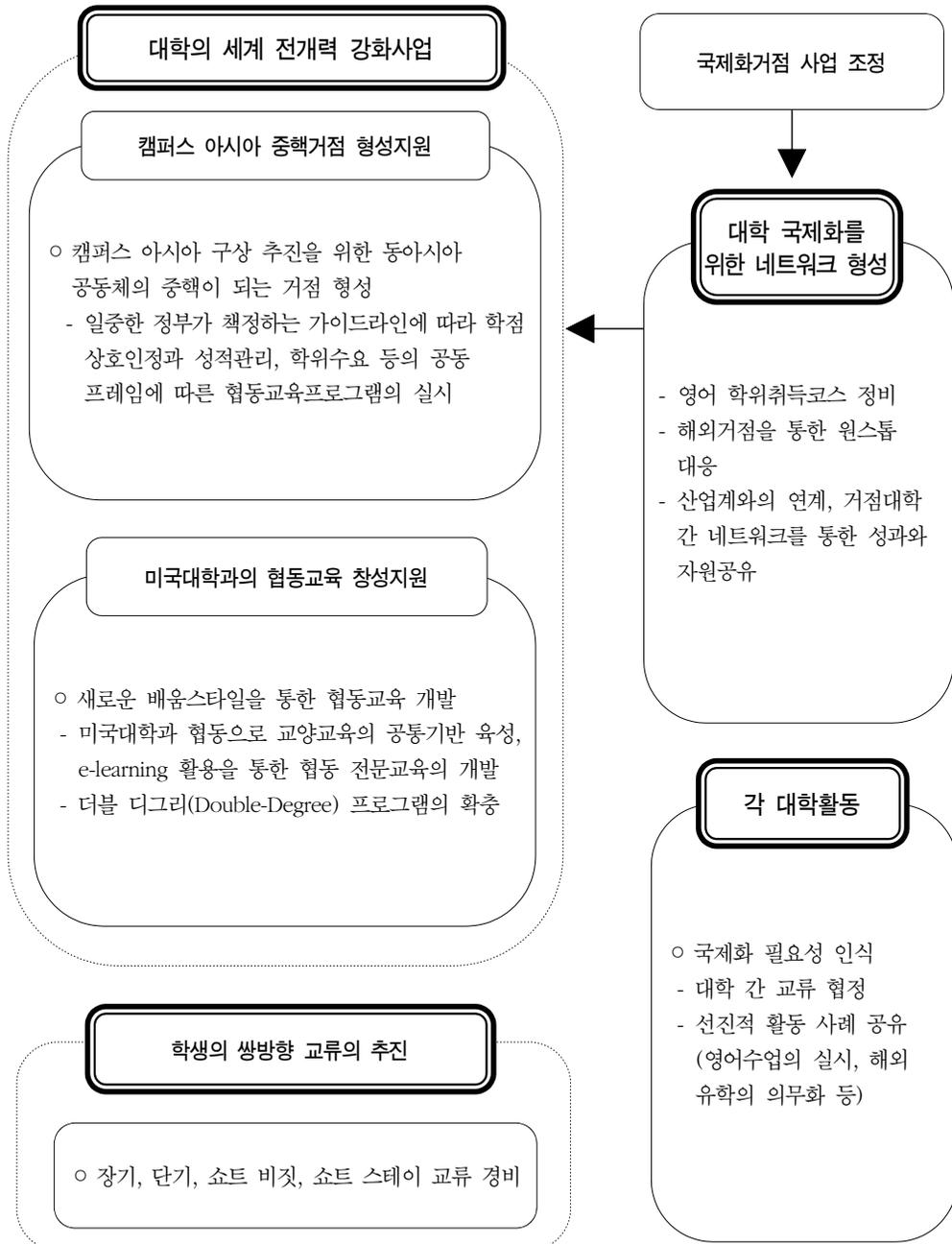
2) CAMPUS Asia 정책

최근 일본 내에서는 중국과 한국을 필두로 한 동아시아 공동체 구성을 위해 6월 18일 ‘신성장 전략: 활기 찬 일본 부활 시나리오’라는 내각 결정 답신에서 7개의 전략 분야의 하나로 ‘아시아 경제전략’이 설정되어 아시아의 대학, 과학기술, 문화, 스포츠·청소년 등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국제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인재의 육성을 중시하여 CAMPUS Asia로 대표되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内閣府, 2010). 이에 따라 문부과학성에서는 2009년 12월 ‘동아시아 교류에 관한 워킹 그룹’을 설치하고 교육의 질 보증을 전제로 한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에 공헌하기 위해 ①지식기반사회에서의 동아시아 인재의 공동 육성, ②지역 공동과제 대응, 상호이해와 ③공동체 의식의 함양의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동아시아 인재의 공동 육성을 위해서는 동아시아 질 보증과 대학 간 교류, 쌍방향 학생 교

류정책의 추진을 위해 일중한의 대학 간 교류·연계를 추진하는 ‘캠퍼스 아시아’를 통해 학위 프로그램의 가시화·체계화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대학과의 네트워크 연계를 위해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JICA)가 실시하고 있는 각국 공학계 고등교육기관의 강화와 공학계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아세안 공학계 고등교육 네트워크(AUN/SEED-Net)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공통의 교양교육과 동아시아 지역연구의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고 있으며 패션, 요리, 애니메이션 등 특화된 일본 전문학교로의 유학을 지원하고, 일본 학생의 국제화와 문화의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단기 교류 지원 확대, 일본인 학생의 영어와 동아시아 언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등과 같은 해외 유학 인센티브 부여를 제언하였다. 이와 더불어 유학생의 일본어 교육, 예비교육, 출구전략을 피하기 위해 해외 거점 대학을 추진하고 현재 구상 중에 있는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API)에 ‘유학생 플랫폼’을 설치하여 국제 공동연구 및 기업 네트워크 구축을 꾀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전략인 지역 공동과제 대응을 위해 동아시아 Science & Innovation Area를 설치하여 한중일 연구 인재 네트워크의 강화 및 두뇌 순환의 활성화를 위해 대형방사광시설(SPring-8), 대강도 양자가속기 시설(J-PARC)를 정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거점을 확충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 출처 : 日本文部科学省(2011) 大学の世界展開力強化事業

[그림 VI-9] 일본의 국제화 전략 정책

또한 우주, 환경 에너지, 원자력 등에 관한 기술 전개와 인재육성을 위해 학술회의 등과 같은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인재육성을 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아시아 각국이 공동 출자하는 한중일 공동기금 프로그램을 설립하여 녹색 성장과 라이프 이노베이션 분야의 기초연구를 확충 하겠다고 한다.

세 번째 평화롭고 안정적인 지역 구축을 위해 상호 이해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먼저 문화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스포츠·청소년 교류를 위해 국제경기를 유치 혹은 개최하고 풀뿌리 스포츠 교류를 추진하며 국공립 청소년 시설, 청소년 단체를 초빙하여 청소년 교류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3) 유학생 예산

2011년에는 대학의 국제화(세계 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¹⁶⁾까지 작용하여 캠퍼스 아시아의 추진은 물론 대학차원에서 적극적인 국제화를 유도하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대학의 세계 전개력 강화를 위해 학생의 쌍방향 교류 이외에 캠퍼스 아시아 중핵거점을 형성하여 한중일 협동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¹⁷⁾, 미국대학과도 교양교육의 공동 프로그램 개발, e-learning을 통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이를 공동학위(Double-Degree)로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개별 대학 수준에서도 해외 거점 설치, 산업계 연계 등과 같은 네트워크 형성과 더불어 교육과정의 국제화를 꾀하고 있다(그림 VI-9 참조). 실제 이 같은 대학 국제화 추진을 위해 대학관계 주요 예산을 6년 만에 증액하여 2011년도에는 일반회계 1조 8천 7백 66억 엔으로 책정하고 국제화 예산을 51억 9천 4백만 엔으로 증액하여 다음과 같이 배분하고 있다(文部科学省, 2011).

16) 문부과학성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묻는 퍼블릭 코멘트에서도 대학의 세계 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한 요구가 전체 71,747 건 중 1위로 선정되었다.

17) CAMPUS Asia 추진 정책을 통해 한중일 대학 간 교류를 통한 고도전문직업인 육성사업에 47개 대학이 신청을 한 가운데 학점 교류, 공동학위, 나아가 기업 연계를 중심으로 하는 6개 대학을 선정하여 2011년부터 매년 2.5억 엔을 지원하고 있다(문부과학성, 2011)

〈표 VI-14〉 대학 국제화 추진 사업 및 예산

(단위: 백만)

정책	세부내용	2010	2011	증감	
대학의 국제화	세계 전개력 강화	캠퍼스아시아중핵거점지원	474	1,316	842
		미국대학과의 협동교육 창성	신규	842	842
	대학국제화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국제화거점연계사업	2,880	2,900	0
	소계		3,799	5,194	1,395
학생의 쌍방향 교류	유학생 수용환경의 충실	외국인유학생장학금제도의 충실	276	293	19
		유학생숙사 확보	9	10	1
		유학생취업지원	0.1	0.1	0.01
	일본인학생의 해외유학 추진	장기파견	1.8	2	0.2
		단기파견	5.9	6	0.1
		단기방문	신규	11	11
	소계		35,544	34,245	1,299
총계		39,343	39,439	2,694	

© 출처: 日本文部科学省(2011) 平成23年度予算

캠퍼스 아시아 중핵거점을 6건에서 16건으로 확대하고 10건의 미국 대학과의 협동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2,178백만 엔을 투입하고 있다. 또한 국제화 거점의 체제정비를 통해 사업계와 거점 대학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29억 엔을 배분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수용한다는 유학생 정책에 따라 2020년까지 일본인 학생 30만 명과의 쌍방향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쌍방향 추진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318억 7천 4백만 엔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나,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수혜자의 수는 줄이고 외국인 유학생 취직 지도 가이던스, 외국인 유학생 취업활동 준비 세미나 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인 학생의 해외 파견 교류를 위해 장기 파견은 100명, 단기 파견은 760명으로 하고 단기 방문 7,000명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에는 190억 8백만 엔을 확보하고 있다.

라. 일본의 유학생 지원

1) 입국(입학) 지원

가) 일본어교육 지원

먼저 일본 유학 유치를 위해서 해외 일본어교육의 보급, 원스톱서비스의 전개와 같은 정보발신 기능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 해외에서의 일본어보급을 위해서는 외무성과 국제교류기금 합동으로 일본어 교육거점인 '사쿠라 네트워크'를 확충하여 전 세계 43개국에 116 거점을 확보하고 있다. 몽골 일본어교사회, 케냐의 일본어교사회는 물론이고 러시아에 극동국립종합대학을 설치하여 일본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외 57개국 186지역에서 1년에 한 번씩 일본어능력시험을 주최하고, 특히 중국, 한국, 대만 등 일본어능력시험 수험자가 36만에 이르는 지역에는 2009년부터 7월과 12월 2회에 걸쳐 일본어능력시험을 통해 일본 유학의 잠재적 수요를 확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외공관, 일본학생지원기구의 해외 사무소, G30공동이용사무소 등을 통해 일본 유학정보 제공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일본유학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어 능력과 기초 학력 평가를 하는 일본학생지원기구의 '일본유학시험'을 확대하여 13개국, 17개 도시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나) 비자 및 보험 관련 지원

일본 내 학업을 위한 유학을 하는 경우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이 정한 일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본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취득하려면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교부, 신청, 수속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밟아 기존에는 입국 후에 가장 먼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실시해야 했지만, 2009년 7월15일 입관법 개정에 따라 시, 구, 촌, 리가 관리하던 「외국인등록증」이 폐지되고 입국관리국이 직접 '재류카드'를 발행한다.

최근에는 유학생의 입국, 재류 심사 조건을 완화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입국, 재류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법무성에서는 '유학생 및 취학생 입국에 관한 제언'(2009년 1월 출입국관리정책간담회)을 통해 유학과 취학의 재류자격을 통일하고, 입관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유학생이 해당 대학의 계약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또는 연구 보조 활동에 대해 2010년 7월부터는 자격외 활동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도록 완화하였다.

유학생(재류 자격이 '유학')은 반드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특히, 2010년 1월 학기부터 모든 유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입국관리국에서 건강보험 지불유무에 대한 체크를 하고 어학교 및 전문학교, 대학교에서도 의무적으로 입국관리국에 보험비 지급체크명단을 제출하기로 되었다. 회사 및 사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이 가입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1년 이상 재류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지불하는 보험료는 연간 2만 엔이나 대학이나 지자체 등에서 이를 보조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부담금 70%를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고 30%만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JASSO의 유학생에 대한 의료비보조제도가 있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산의 경우 출생아 1명에 대해 출산 육아 일시금으로 35만 엔, 사망 시 5만 엔 범위 내 장례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JASSO에서는 이외에도 유학생의 질병이나 부상 치료를 위해 지불한 의료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의료비보조제도가 있다.

2) 학업지원 정책

가) 일본어교육체제

일본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1961년 정령 제319호) 별표 제1의 4에 의거하여 일본의 대학, 고등전문학교, 고등학교 또는 특별지원학교의 고등부, 전수학교, 각종 학교, 설비 및 편제에 관계 없이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유학' 재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일본어 교육을 받고 있다. (재)일본어교육진흥협회의 인정을 받은 일본어교육기관은 2009년 현재 426개로 학생수는 약 42,651명(2009년 7월 1일 현재)이다. 이들 일본어교육기관에서 일본어를 배우는 대부분의 학생이 일본 국내의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2001년부터 학습장려 대상으로 하여 해마다 약 700명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월 48,000엔을 지급하고 있다.

〈표 VI-15〉 일본의 일본어교육기관 현황

국가	대상	예비교육기관	기간	내용
중국	박사과정	일본유학생예비교육	6개월	교원파견
타이	학부/대학원	일본학생지원기구	1년-1년반	연락,조정,대학의뢰
말레이시아	학부	마라야대학예비교육	2년	교원파견
싱가폴	학부	일본학생지원기구	1년-1년반	연락,조정,대학의뢰
아랍연방	학부	일본학생지원기구	1년-1년반	연락,조정,대학의뢰
사우디아라비아	학부/대학원	일본학생지원기구	1년-1년반	연락,조정,대학의뢰

◎ 출처 : 独立行政法人日本学生支援機構(JASSO) わが国の留学生制度の概要 : 受け入れ及び派遣

또한 외국정부과건유학생에 대해서는 해당국의 인재양성을 추진하기 위해 일본어 예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길림성 장춘시의 동북사범대학 안에 있는 일본유학생예비학교를 설치하고 도일 전 유학생에게 예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 유학생 학업지원

일본의 대학이 유학생들에게 매력적인 교육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국립대학에서는 유학생의 교육과 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비교부금 예산에 반영하여 다양한 유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학부유학생을 대상으로 단기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사립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사립대학 경상비 보조금의 특별 보조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대학 간 교류협정에 따라 일본의 대학에 단기 유학(3개월 이상 1년 이내)을 희망하는 유학생을 1,800명 정도 선정하여 유학준비금 80,000만 엔과 월 80,000만 엔을 지원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국제교양, 글로벌이라는 이름의 학부 혹은 학과 신설이 증가하여 2011년 현재 국립 11개, 공립 13개, 사립 168개로 총 192대학에서 ‘국제화’ 학부를 설치하고 있으며, 일본 학생의 해외 유학 제도와 같은 학생 교류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대학도 589개로 98.0%에 이르고 있다(兩角亜希子, 2011).

〈표 VI-16〉 대학 간 교류 현황

	전체	국립	공립	사립
대학수	601	88	64	449
국제화학부·학과설치	192(31.9)	11(12.5)	13(20.3)	168(37.4)
학생교류	589(98.0)	86(97.9)	64(100)	439(97.8)
학점인정	249(41.4)	57(64.8)	23(35.9)	169(37.6)
Double Degree	80(13.3)	21(23.9)	3(4.7)	56(12.5)

◎ 자료 : 両角亜希子(2011) 大学のグローバル人材育成はどこまで進んでいるのかカリキュラムマネジメント168, 14-24에서 작성

뿐만 아니라 질 높은 대학 간 교류를 촉진하여 우수한 외국인학생과 외국인 교원을 확충하기 위해 국제화학부·학과설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文部科学省, 2012). 외국인 유학생이 접근하기 쉬운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영어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코스를 도입하고 있다. 2012년 현재 학부 33코스, 대학원 124코스를 설치하고 있고 이를 위해 영어 수업이 가능한 대학 교원을 국제적으로 공모하여 외국인 교원을 배치하고 있다. 유학생의 생활, 취업, 일본어 등을 지원하는 전문 유학생 담당요원을 두고, 전략적인 국제연계 추진을 위해 일본의 모든 대학이 이용할 수 있는 '해외대학공동이용사무소'를 세계 8곳에 설치하고 있다¹⁸⁾. 2011년 현재 국제화학부 대학으로는 도호쿠, 츠쿠바, 도쿄, 나고야, 교토, 오사카, 규슈, 게이오, 조치, 메이지, 와세다, 도시샤, 리츠메이칸 등 13대학이다.

다) 학위취득

뿐만 아니라 유학생 학위취득을 장려하기 위해 2005년 10월 학위규칙을 개정하였다. 인문사회계의 경우, 일본에서의 유학생 학위취득이 어려워 일본으로의 유학을 주저한다는 점에서 학위 취득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유학생이 귀국 후 취업을 용이하게 하고 학위의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한 것이다(文部科学省, 2008).

3) 생활지원 정책

가) 장학금

다른 나라에 비해 생활비용이 많이 드는 일본의 경우 국가수준에서 유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18) 러시아, 튀니지아, 인도(2곳),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이집트, 독일 등

〈표 VI-17〉 국비 외국인유학생 종류 및 대우(2010년도 예산)

구분	연구	교원 연수	학부	일본어 문화	고등 전문	전수	YLP
창설연도	1954	1980	1954	1979	1982	1982	2002
수준	대학원		학부				대학원
자격	대학졸업	대학졸업	고교졸업	학부재적	고교졸업	고교졸업	학부졸업
연령제한	35세미만		17-22	18-30	17-22	17-22	40세미만
기간	2년	1년반	5년(7년)	1학년	4년	3년	1년
모집국	세계각국 (161국)	개도국 (86국)	개도국 (114국)	세계각국 (80국)	개도국 (48국)	개도국 (69국)	개도국 (29국)
신규정원	4,747	155	468	340	90	110	70
장학금	비정규: 월152,000엔 석 사: 월154,000엔 박 사: 월155,000엔		월125,000엔				월258000
수업료	국립대학법인·고등전문학교는 징수하지 않으며 공사립은 문부과학성부담						
도항경비	왕복 항공운임(항공권) 지급						

◎ 출처: 独立行政法人日本学生支援機構(2012) わが国の留学生制度の概要: 受け入れ及び派遣

〈표 VI-18〉 사비 외국인유학생 종류 및 대우(2010년도 예산)

실시기관	장학금	내용
일본학생지원 기구	학습장려비의 급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대학재적자 중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성적우수자 지원금: 학부 월 48000, 대학원 월65000 정원 2010년도 11850명
일본국제교육 지원협회	冠유학생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기업 또는 개인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이 어떤 유학생을 지원하는 지가 분명한 '얼굴이 보이는' 장학금(간나이 유학생장학금, Kansai Paint Scholarship, 사닉스유학생장학금, 이이다유학생장학금, 후지미츠수지유학생장학금, 도코모유학생장학금, 분분카이유학생장학금, TIS유학생장학금, 우스이국제의학장학금, 텔피스박보당장학기금, 니시무라시카코유학생장학금, NTT데이터장학금, 미즈비시상사유학생장학금, 아시아지재인재장학금, 로손외국인유학생장학금, 이토츄장학금, 시게미츠장학금, M's장학금, 레오파레스21유학생장학금, 소설이노베이션장학금, 겐신장학회외국인유학생장학금, 군마대학제조인재육성HiKaLo장학금, 이스즈자동차장학금, JT아시아장학금, 오사카교에이신용조합장학금, 도요다통상유학생장학금, Kwasaki Sholarship)
지방공공단체, 대학, 민간	지방공공단체 대학 민간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46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단체 등 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장학금지급대학 2010년 8월 현재 222교 2010년도 장학금지급단체 129

◎ 출처: 独立行政法人日本学生支援機構(2012) わが国の留学生制度の概要: 受け入れ及び派遣

나) 기숙사 제공

일본에서는 76.8%에 해당하는 유학생이 민간 기숙사, 아파트 등에서 거주하고 있다.

〈표 VI-19〉 일본의 유학생 기숙사 현황

			학교수	유학생수(명)	비율(%)
공공 기숙사 거주 유학생	학교가 설치한 유학생 기숙사	국립대학 등	95교	7,399	14.1
		공립대학	25교	395	
		사립대학 등	371교	12,164	
		계	491교	19,958	
	공익법인 등이 설치한 유학생 기숙사	일본학생지원기구 설치 유학생 기숙사	-	2,227	4.8
		공익법인 설치 유학생 기숙사	-	893	
		지방공공단체 설치 유학생 기숙사	-	1,046	
		공영주택 등	-	1,963	
		민간기업의 사원 기숙사	-	609	
	계	-	6,738		
	학교가 설치한 일반 학생 기숙사	국립대학 등	97교	3,110	4.4
		공립대학 등	15교	218	
		사립대학 등	225교	2,867	
계		337교	6,195		
계		1,656교	32,891	23.2	
민간숙사·아파트 등 거주 유학생			-	108,883	76.8
유학생 총 수				141,774	100.0

© 출처 : 独立行政法人日本学生支援機構(2012) わが国の留学生制度の概要 : 受け入れ及び派遣

이에 따라 문부과학성 및 일본학생지원기구에서는 저렴하고 좋은 유학생 기숙사를 확보하기 위해 ①일본학생지원기구의 국제교류회관 운영, ②대학의 유학생기숙사 확보를 위한 일본학생지원기구의 유학생 임차숙사지원사업 실시, ③일본국제교육지원협의회를 통한 유학생 주택 종합 보상제도(해외여행자 보험과 보증인 보상기금을 통합한 것)를 실시하고 있다.

〈표 VI-20〉 일본의 유학생 기숙사 정책

기관	사업	내용
문부 과학성	국립대유학생숙사건설	◦ 정비 호수 7,693(2007년)
	일본학생지원기구 국제교류회관 운영	◦ 계2,700호(2010년)
	일본학생지원기구 유학생임차숙사지원	◦ 대학이 외국인유학생을 위해 민간 숙사를 임차할 때 해당 대학에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유학생 기숙사 확보를 촉진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유학생주택종합보상	◦ 입주 계약 보증인의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부담없이 보증인이 될 수 있도록 화재, 사고 등의 손해배상과 월세 지불 등을 보상대상으로 하는 것
	유학생지원기업협력 추진협회의 사원기숙사제공	◦ 경제동우회가 중심이 되어 민간기업의 협력을 통해 유학생들에게 사원기숙사를 제공하도록 하고 기업과 유학생 교류를 촉진(사원기숙사 제공 실적: 유학생 493명, 기업 119사)
국토 교통성	공적임대주택 유학생숙사활용	◦ 비어 있는 공영주택을 유학생 기숙사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도시재생기구임대주택에서는 개인계약의 경우 기구의 ‘유학생 입거촉진제도’에 따라 협정한 대학의 학생에 대해 통상 월세의 3개월분의 보증금을 1개월로 감면
	지방공공단체 및 민간사업자의 유학생숙사정비지원	◦ 민간사업자가 특별히 배려가 필요한 유학생 세대를 위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정비비와 월세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의 약 45%를 국가가 지원 ◦ 지방공공단체가 사회자본정비 종합교부금의 기간사업(공영임대주택의 정비 등)과 통합하여 지역 주택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유학생을 위한 주택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정비하고 주택상담창구를 설치 ◦ 주택정보의 제공 등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약 45%를 국가가 지원
	유학생임차주택지원	◦ 외국인 세대의 입주를 받아들이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 체납 월세의 채무보증을 실시

© 출처 : 独立行政法人日本学生支援機構(2012) わが国の留学生制度の概要 : 受け入れ及び派遣

3) 귀국 후 후속조치

유학 후 귀국한 유학생들을 위한 일본학생지원기구의 후속 조치 정책은 크게 귀국 외국인 유학생 단기 연구 제도와 귀국 외국인 유학생 연구지도 사업, 그리고 일본 유학 네트워크 매거진이라는 3가지 정책으로 나누어진다(文部科学省後頭教育局学生・留学生課, 2011).

먼저 귀국 외국인 유학생 단기 연구 제도는 모국에서 학술 연구 및 행정 분야에서 활약 중인 사람을 일본의 대학에 재차 초빙하여 해당 대학의 연구자와 공동 연구를 실시하는 것으로 교육·학술 연구 및 국제 교류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귀국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로 연령 45세 이하 전 유학생 60명 정도를 선발하여 60일 이상 90일 미만으로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2011년에는 56명의 전 유학생을 초빙하여 단기연구를 실시하였다.

두 번째로 귀국 외국인 유학생 연구지도 사업은 유학을 끝낸 후 고국에 돌아가 대학 등에서 교육·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본 내 대학에서 지도했던 교원(지도교수)을 파견하여 지도·지원함과 동시에 해당국의 연구능력 수준의 향상과 국제일본의 교육과 연구에 관한 정보의 보급을 꾀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지도교수 파견 기간은 7일 이상 10일 이내로 2011년 17명을 파견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 유학 네트워크 매거진(Japan Alumni eNews)은 유학생들과 일본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매거진을 매달 10일 발간하여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2012년 3월 현재 배신 건수는 33,821건이다. 이 외에도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무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학생 후속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표 VI-21〉 외무성 관계의 유학생 귀국 후 후속 정책

기관	사업명	목적
외무성	유학생어드바이저	일본유학에 대한 상담, 조회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유학경험자를 재외공관 어드바이저로 활용
	인재육성지원무상	개도국 정부와 합의한 인재육성계획에 따라 일본유학생파견사업에 관한 학비 등의 자금 지원
	유학생지원을 위한 엔 차관	인도네시아, 타이, 말레이시아 3국 정부에 대해 해당국 정부가 실시하는 일본유학자금 공여를 중심으로 지원
	귀국유학생 활동지원	재외공관을 통해 귀국유학생회의 조직화, 집회소의 유지, 운영, 명부작성, 일본유학 성과발표 등을 지원
	아세안 사비유학생 대책	ASJA인터네셔널 장학금사업 조성
	일본유학종합가이드	인터넷을 통한 일본유학정보제공(http://www.studyjapan.go.jp)
외무성·JICA	사비유학생육영자금대여	UN대학이 실시하는 사비유학생에 대한 자금대여사업지원
국제교류기금	ASEAN각국일본유학생협회	ASEAN8개국의 전 일본유학생협회 9단체 활동에 필요한 집회시설임대료와 사업비를 조성하고 각국 협회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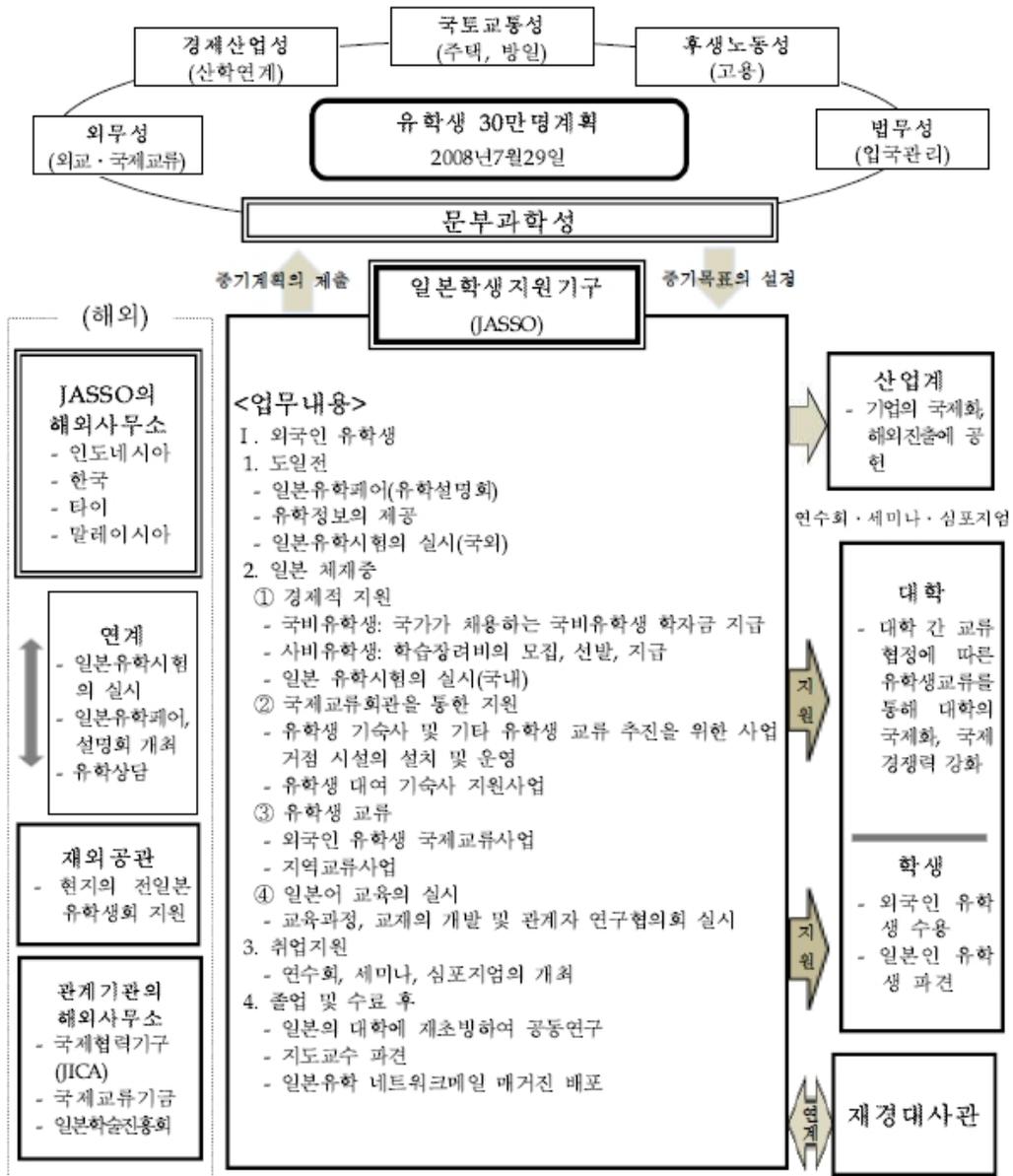
기관	사업명	목적
	마리아대학일본유학코스	도일 전 예비교육과정에 일본어전문가 파견
JICA	JICA장기연수	도상국 행정관 등을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2년 간 대학에 수용
	일제사회리더육성	중남미 여러나라의 일제 유학생(대학원)을 대상으로 원칙 2년간(의학, 치학 박사과정은 4년 간) 수용

◎ 출처 : 独立行政法人日本学生支援機構(2012) わが国の留学生制度の概要 : 受け入れ及び派遣

나아가, 후생노동성에서는 유학생 취업촉진을 위해 ‘외국인 고용서비스 센터’를 설치하고 구인, 구직 정보를 제공, 대학 취업담당자 방문을 통한 미취업 유학생 현황 파악과 동시에 재적 단계에 서부터 취업 가이드를 실시하여 유학생의 국내 취업 의식을 계발하고 동기 부여를 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 유학생의 상호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유학생 인턴쉽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급 외국인 인재를 활용하기 위한 실천 매뉴얼을 작성하고 기업 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글로벌人材育成推進会議, 2011).

라. 일본의 유학생 추진 기구

유학생 지원을 하는 국가 센터로 가장 대표적인 기관은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라 할 수 있다. JASSO는 대학에서 수학하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수학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간성이 풍부한 창조적 인재 육성과 더불어 국제 상호이해 증진에 기여(일본학생지원기구법 제3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특수법인 일본육영회, (재)일본국제교육협회, (재)내외 학생센터, (재)국제학우회, (재)간사이국제학우회 등을 통합하여 문부과학성의 유학생업무를 이관하여 2004년 설립되었다. 장학금지급, 학생생활지원사업과 더불어 유학생 장학금지급, 유학생교류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2년 133억 엔의 예산으로 사비유학생학습장려비지급, 유학교류지원, 유학생교류 등의 수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국토교통성, 후생성, 경제산업성, 외무성 등, 각 성청(정부부처)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다양한 유학생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다음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VI-10] 일본의 유학생 추진 기구

마. 특징

이상 살펴본 일본의 유학생 지원 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학생 30만 명 계획의 추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수 유학생을 전략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일본의 과학기술 및 산업 경쟁력 향상과 지속적인 국제 공헌을 꾀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또한 단순한 유학생 유치가 아니라 대학의 글로벌화 추진을 통해 일본 내 고등교육 자체의 글로벌화로 연계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국제화 예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외의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한편, 국내 대학의 국제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배분하고 있으며 대학 단위의 국제화를 위해 구체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셋째, 뿐만 아니라 일본 유학에 대한 동기부여, 입시, 입학, 입국에서부터 대학이나 사회에서의 졸업과 취업은 물론, 귀국 후의 진로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학금 지급, 유학생 기숙사 설립 등을 통해 안심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졸업 후에는 일본 사회에서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 전체의 글로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를 중심으로 유학생 지원 체제를 정비하고 법무성, 외무성은 물론, 국토교통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등의 정부 관계 부처 및 관계 기관의 연계와 제휴를 통해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유학생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시사점

이상의 호주, 캐나다, 일본의 유학생 지원 및 관리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VI-22〉 각국의 유학생 지원 및 관리

내용		호주	캐나다	일본
목적		◦ 기간산업(경제)	◦ 이민정책의 일환(경제)	◦ 대학 국제화
대표정책		◦ ESOS법개정 ◦ 유학생국제전략	◦ 국제교육	◦ 유학생30만명 ◦ 캠퍼스아시아
지원	입국전	◦ 비자 - 평가등급제	◦ 비자 - 취학허가증	◦ 비자 - 유학과 취학비자

내용	호주	캐나다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 - OSHC(의료보험) ◦ 입학전 어학교육 - ELICOS, F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 - 의료보험가입의무 ◦ 입학전 어학교육 - ES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 - 국민건강보험 - 손해보험 - 유학생주택종합보상제 ◦ 입학전 어학교육 - 사쿠라네트워크 	
학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L ◦ 교육과정등록제 - CRICO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학업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어교육 ◦ 단기유학프로그램 ◦ 대학 간 교류 ◦ 영어학위취득코스개설 ◦ 학위취득장려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금지원 - ALA, 엔데버, IPRS ◦ 학업 중 취업 - 아르바이트, 인턴 ◦ 보증기금 운영 ◦ 기숙사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금지원 - 대학원생중심GCA - 박사과정장학금 ◦ 학업 중 취업 - 취업비자 없이 활동 ◦ 기숙사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금지원 - 국비·사비장학금정책 ◦ 기숙사제공 	
졸업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 - 기술이민 - 연계강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 - 학위취득 후 1-2년 취업비자 없이 취업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 - 법령개정 ◦ 유학생단기연구제도 ◦ 귀국외국인유학생지도 ◦ Japan Alumni eNews 	
관리	전담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EI ◦ Austrade ◦ I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RSDC ◦ 부처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ASSO ◦ 국제교육지원협회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ICO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ASSO의 네트워크
비고				

이와 같은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유학생 유치와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는 유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나 캐나다, 호주 모두 국가 배경에 따라 유치의 목적이 다르다. 캐나다나 호주와 같은 영어권 국가에서는 어학연수를 위한 단기 학생비자 발급을 통해 유학생 유치를 일종의 기간산업으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의 유학생 유치 선진국에서는 유학생 유치를 통해 일본 국내의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화를 꾀하고 있다. 국가

간 유학생 획득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현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상황에 맞는 차별적이고 명확한 유학생 유치의 목표설정이 요구된다.

둘째, 이러한 목표 설정에 따라 입학단계에서부터 졸업 후까지를 통합 연계한 정책과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학생 수용 주체인 대학에 대한 정책 가이드를 명확히 제시하여 입학 전 단계부터 학업 지원은 물론 학위 취득, 졸업 후 취업과 진로까지를 지원하고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호주의 CRICOS처럼 유학 희망자 및 유학생들에게 자국 내 기관들에 관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고 교육기관 등록 시스템을 통해 교육과정의 질을 인증함으로써 입학단계에서부터 졸업 후까지를 통합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독립행정법인 학생지원기구와 같은 국가 수준의 전담 기구를 하루 빨리 설치하여 통합적인 관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호주에서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외국인 유학생 종합정보시스템(Study in Australia)을 운영하고 호주 국내 교육기관의 개설강좌 정보를 제공하는 CRISCO시스템, 나아가 해외에서 개설한 호주 교육기관의 강좌를 관리하는 AusLIST 제도 등을 통해 국가가 직업 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나아가 캐나다의 사례에서도 홍보와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Education au/in Canada를 재정비하고 e-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학생들을 위한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포털 사이트, 전담기구의 존재가 유학생 유치의 활성화로 이어지므로 유학생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국가수준의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유학생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처와 관계 기관의 연계가 필요하다. 호주, 캐나다는 물론, 일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는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건강보험을 담당하는 복지부, 생활지원을 위한 장학금 지급 담당부서, 졸업 후 진로에 관계되는 노동부, 나아가 대학, 기업 등 많은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이 연계되어 있다.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유학생 유치의 주체인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엄격한 학습언어(영어)의 습득 등을 위해 노력하고 기업은 취업 지원을 하는 등, 유학생 지원과 관리를 위해서 이들 관계 부처는 물론 관계 기관이 국가 비전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의 밀접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법 제도의 정비, 예산의 확충과 같은 행·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캐나다는 유학생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자문기구 운영에만 1천만 달러의 예산을 배분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국제화 예산에만 2012년도 400억 가까이 투자하고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지급, 기숙사 건립 등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일본 모두 취업 지원을 위한 법 제도를 개정하여 고도 우수 인재의 활용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행·재정 지원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VII.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체제 강화 방안



1. 방안 탐색의 기본 방향 및 과제
2. 강화 방안
3. 추진 전략

VII.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체제 강화 방안

1. 방안 탐색의 기본 방향 및 과제

가. 비전

우리나라에서 정부나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한국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제적 위상을 제고한다는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의 대학들이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고 나아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 대학 평가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 대학의 국제적 위치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상도 제고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을 적극 유치하고 이들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관리 및 지원 체제를 마련하는 것은 분명 우리 대학들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게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체제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간 학생 이동에 따른 유학 부문의 국제 수치 개선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외로 유학을 떠나는 한국 학생수가 우리나라로 유학 오는 외국인 학생수보다 많아 늘 유학 부문의 국제 수치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상에서의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경제적 차원에서도 개선해야할 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것은 이러한 국제 수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외국인 유학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유치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 확충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

다.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인재들이 한국에서 수학하고 생활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을 친숙하게 생각하며 나아가 국제 무대에서 한국을 알리며 돕는 친한파들의 네트워크로 활동한다면 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한층 제고될 것이다.

이상의 가능성들은 결국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지원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작용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당위성은 결국 궁극적으로 한국 대학들의 국제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체제 강화 방안을 찾는 것은 한국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한국 대학 및 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한다는 미래 비전 실천이라는 차원에서 탐색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비전은 한국 대학의 국제화 역량제고, 유학·연수 부문의 국제수지 개선,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 확충이라는 목표 추구에 의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나. 방안 탐색의 기본 방향

위에서 언급한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체제 강화 방안은 다음 5가지의 기본 방향 하에서 탐색하도록 설정하였다. 이러한 탐색의 기본 방향은 앞에서 연구한 현황 파악, 실태조사, 외국 사례 등의 각종 시사점을 토대로 설정된 것이다.

1) 전주기적 관리 및 지원 체제 구비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 혹은 그들을 위한 관리 및 지원체제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들이 졸업한 후 단계까지 전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유학생 정책들도 유학생에 대한 전 주기를 포괄함을 이미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크게 유학생의 유치부터 국내 도착을 포함한 입학 무렵, 재학 및 졸업 후 관리까지 포함하여 4단계로 영역을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할 관리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바 있다.

이러한 접근은 유학생에 대한 정부 및 국내 대학과 관련 기관들이 유학생과 관련된 정책개발 시, 혹은 이들을 위한 관리 및 지원체제 개발시 유학생을 단순히 관리의 대상으로만 보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할 대상이라는 데 초점을 둔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다. 유학생을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그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보다는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서 커다란 불편 없이 안정적으로 수학할 수 있는 지원책을 계속적으로 개발해야만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방향은 매우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체제 강화 방안에는 이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대학 접근, 언어능력, 학업 수행, 취업지도 등과 관련된 지원방안 등이 당연히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결국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 학생과는 전혀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 그에 따라 다른 종류의 필요와 지원을 느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처 방법으로서 관리 및 지원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전주기적 유학생 관리 및 지원 방안 탐색은 결국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에만 중점을 둔 정책보다는 그들이 학업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 혹은 국내에 취업하는 시기까지를 포함하여 단계별로 필요한 기관이나 부서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원하는 통합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추진될 것이다.

2) 질 관리 체제 내실화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체제 강화 방안은 유학생 개인의 질적 수준 제고와 더불어 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대학들의 질적 수준 확보라는 방향에서 탐색되어야 한다. 많은 대학들이 학생 정원의 대체 확보재로서 유학생 관리를 보는 시각이 있으나 이러한 시각만으로는 외국인 유학생 본인들의 질적 수준은 물론 대학들의 질적 수준 제고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국내·외 고등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유학생 유치의 양적 확대와 질 관리간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질 관리 체제의 내실화 방향은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적 통용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대학에서 수학적 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게 만든다는 점에서도 매우 의의가 크다. 유학생에 대한 국가간 이동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 속에서 입학이나 수업, 교육과정 운영, 학사 운영 및 졸업 기준 등에 이르기까지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한국 대학들의 국제화는 올바로 추구될 수 없을 것이다. 유학생의 질 관리뿐만 아니라 이들을 유치하고 있는 대학들의 질 관리가 중요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때문에 본 연구의 방안 탐색에서는 유학생의 입학 자격 기준과 졸업 기준 등의 질 관리 방안을 탐색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교육과학기술부가 현재 도입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의 합리적 운영 방안도 제시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 처리 요령'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졸업기준도 재검토하게 될 것이며, 유학생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하려는 정부 목적과 유학생 유치를 해야 하는 개별 대학의 현실적인 이해간의 적정 조정 대안도 탐색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작 '유학생 교육의 질 관리 주체'는 어디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와 함께 대안도 제시될 것이다. 즉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유학생의 한국어 졸업 자격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유학생에 대한 학위 수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개별 대학'에서 이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제시도 있게 될 것이다.

3) 보상적·지원적 인센티브 연계

외국인 유학생의 관리 및 지원 체제 강화 방안은 외국인 유학생을 성공적으로 유치 관리 지원하고 있는 대학, 정부의 동 정책을 원만히 잘 실천하고 있는 대학들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 하에서 탐색한다.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보상적 혹은 지원적 인센티브제 도입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의 관리 및 지원 체제를 개선 구축하는데 정부의 개입을 전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대부분의 정책이 그러하듯이 정책 추진 초기 단계에서는 정책 대상이 되는 기관들로 하여금 정부의 정책에 주목하게 만들고 나아가 이에 동참하도록 하는데 정부의 다양한 인센티브제가 효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이를 잘 실천하고 있는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들간의 차등적 인센티브제를 어떻게 개발하고 실행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대안 탐색은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등 정책은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리, 그리고 이들에 대한 지원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의 대안 탐색 시 현재의 인증제와 연동하여 재정 지원 및 각종 우선권 부여 정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안을 적극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4) 범정부 정책 연계

외국인 유학생의 관리 및 지원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동 정책과 관련된 정부 각 부처간의 연계 협력 강화라는 방향 하에서 탐색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관리 및 지원 체제와 관련되어 있는 부처는 매우 다양하다.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주관 부처는 물론 교육과학기술부이지만 실제

적으로 교과부도 이 업무의 대부분을 별도 직속기관이 국립국제교육원에 위임하고 있는 형편이며, 때로는 유관기관인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교과부 외에도 총리실, 법무부(특히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등도 외국인 유학생의 관리 및 지원 체제와 매우 관련이 높은 기관들이다. 나아가 이런 연관성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 대학에서 졸업한 후 취업까지를 고려하면 더 많은 부처들이 관련되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이들에 대한 각종 생활 편의나 지원을 고려하면 정부가 아닌 민간기관이나 단체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의 관리 및 지원이 어느 한 기관의 힘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대안 탐색도 관련되어 있는 범정부 부처간 연계 협력 체제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도 중요하게 다루고자 한다.

5) 한국 대학의 역량 강화

외국인 유학생의 관리 및 지원 체제 강화 방안은 한국 대학들의 역량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제 공해야 한다는 방향 하에서 탐색한다. 외국인 유학생을 보다 적절히 유치하고 이들을 세계적인 인재로 키워내기 위한 방안들은 1차적으로 결국 우리나라 대학들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방안의 효과가 유학생 규모 확대에만 국한되어 정작 대학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경제적인 성과는 어느 정도 달성하겠지만 정부 정책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수 있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정책 강화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대학들의 국제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지, 단순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의 국제적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향 하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외국인 유학생 정책 개발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 탐색에 주력하고자 한다.

다. 해결해야 할 과제

1) 외국인 유학생의 전략적 유치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첫 단계는 그들의 유치이다. 무분별하게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보다는 전략적으로 이들을 유치하여 한국의 대학들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켜야 할 과제가 있다. 국내 대학들의 정원 미충원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유학생을 유치한다면 유학생 및 대학의 질적 수준 제고는 곤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한국의 대학들을 외국인에게 매력적인 유학 기관으로 인식되게 할 것인가와 동시에 우리나라 대학들의 질적 수준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탐색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제 해결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유학을 결정하기 전 자국에 있을 때부터 한국의 대학들을 쉽게 유학 대상 대학으로 선정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될 것이다.

2) 평가와 모니터링 체제 완비

한국의 대학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어떤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해야 할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이다. 나아가 대학들의 유학생 유치 현황은 물론 한국에서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어디에 얼마나 어떤 전공으로 어떤 형태로 수학하고 있는가를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의 대학들이 유학생들을 적절히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들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지원체제는 어떻게 구비하고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제도 완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유학생들과 대학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효과적으로 체제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탐색하고자 한다.

3) 유학생에 대한 취업과 진로 지도 강화

한국으로 유학 오는 학생들의 상당수가 졸업후 한국에서 원만히 취업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나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들의 유학생들에게서 이러한 요구는 강한 편이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취업과 진로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유학지로서의 한국의 매력도를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취업 기회 제공과 효과적인 진로지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될 것이다.

4) 행·재정 지원 강화

외국인 유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대학 모두가 이들만을 위한 별도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체제가 필요하다. 정부가 외국인들에 대한 법적 지위나 권리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책임과 제한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유학생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원을 고려한다면 그 답의 많은 부분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탐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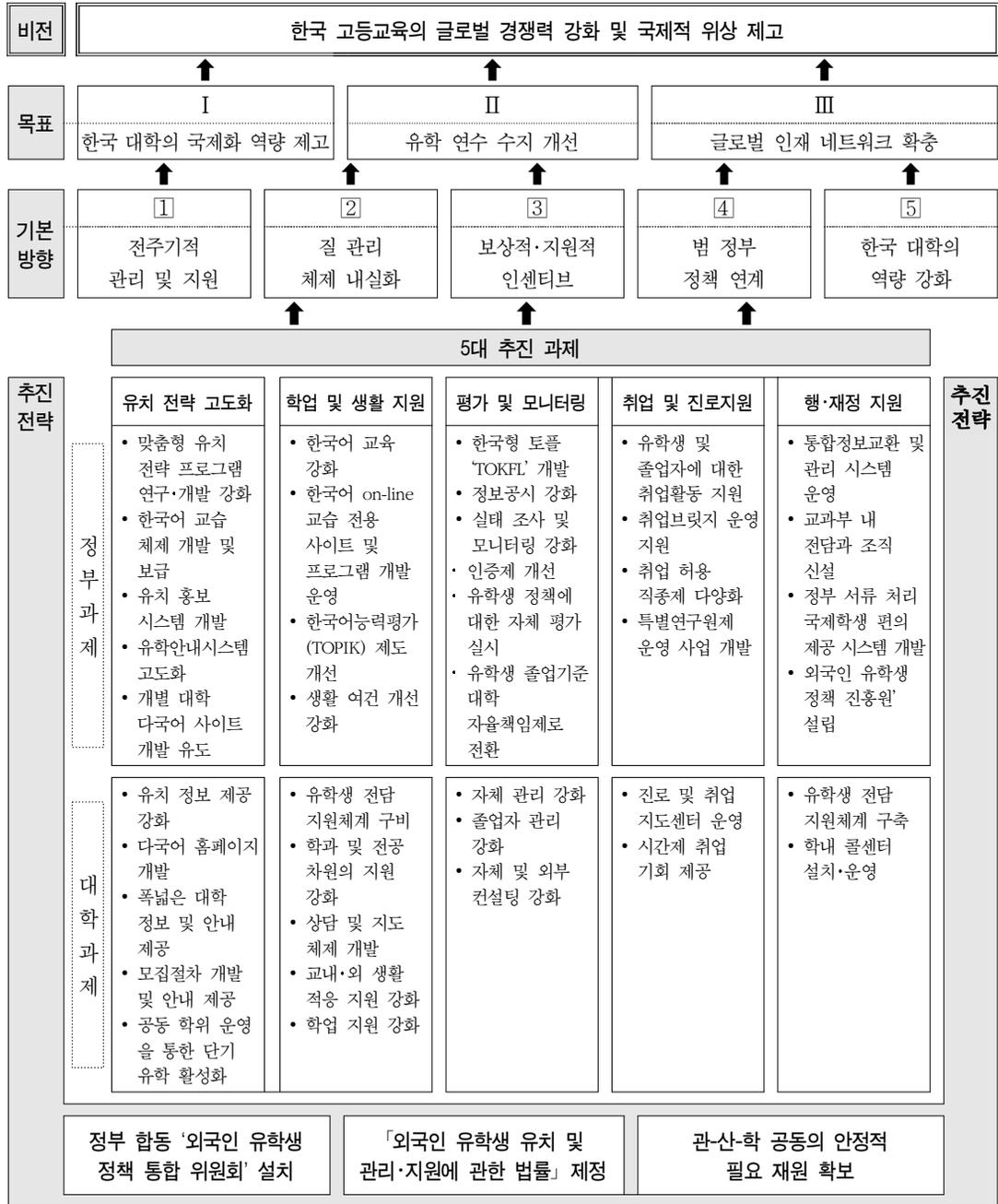
5) 유학생 학업 및 생활 지원 강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의 학업과 생활을 불편하게 생각한다면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처음부터 곤란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한국에서의 불편하지 않은 유학생들과 학업의 성공적 이수를 기대하게 만들어야 하는 실질적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앞의 실태 조사에서도 이미 드러나 있듯이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에서의 불편한 생활과 학업 이수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이 아직도 다양한 불편과 어려움이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 제시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이들의 성공적인 학업 이수를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방안을 탐색하게 될 것이다.

이상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체제 강화 방안을 탐색하는데 전제해야할 비전과 대안 탐색의 기본방향, 이를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를 모형으로 제시하면 다음 [그림 VII-1]과 같다.



[그림 VII-1] 미래비전과 대안 탐색의 기본방향 및 과제

2. 강화 방안

가. 유학생 유치 전략의 고도화

한국 대학들이 질적 수준이 높은 외국인 유학생을 적정 유치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이들이 한국을 유학 대상국으로, 한국의 대학들을 유학 대상 교육기관으로 보다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을 고도화 한다.

1) 정부

□ 대상 국가별 맞춤형 유치 전략 프로그램 연구·개발 강화

- 전문 연구기관의 정책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가 유치해야할 대상 국가를 전략적으로 선정하
되 선정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
 - 한국으로의 유학 희망자 증가 추세국
 - 자국의 국비 유학생 확충 사업을 갖고 있는 나라
 - 경제 개발 협력 대상국
 - 정치 및 외교적으로 중시해야 할 국가
 - 개발도상국 중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국가
 - 자원 강국으로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
 - 한국 교민들 수가 비교적 많은 나라
- 국가별 구체적인 유치 전략 연구·개발 및 이에 의한 지속적인 전략 수정 보완체제 마련
 - 전문 연구기관의 정책 연구를 통해 대상 국가에 대한 다양한 기초연구를 시행하고 나아가 이를 통한 중·장기적 유치 전략 개발
 - GKS 석·박사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고급 두뇌의 전략적 유치
 - GKS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장학생의 수월성과 선발방식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발 결과를 공개하고 국가별 적정 정원 배정 기준 개발
 - GKS 장학생에 대한 추수 관리를 강화하여 GKS 장학생을 일반 유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대

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홍보대사증을 수여·임명하는 ‘홍보대사증제’ 운영. 홍보 대사 자격 부여를 위한 기준을 운영하고 홍보대사에게 각종 인센티브 제공

□ 잠재적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자국내에서의 한국어 교습체제 개발 및 보급

- 외국인 학생 중 한국 유학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유학 희망자들의 유학 결심을 제고시키는데 한국어 구사 능력이 결정적임을 감안하여 현지에서 그들에 대한 한국어 교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 개발
 - 각국 주재 한국공관 및 한인학교, 한인 문화원 등의 적극 활용
- 한국으로의 유학 수요가 많은 나라에 한국어교습학원 해외 진출 장려책 마련
 - 한국의 발달된 학원 문화를 활용한 한국어교습학원의 해외 진출을 적극 장려할 수 있는 우대책을 개발하고, 각종 지원책 마련
 - 한국의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KOTRA와의 협력 하에 한국어교습학원의 해외 진출 지원

□ 전략적 유학생 유치 홍보 시스템 개발 운영

- 외국인 유학생 홍보 통합관리 체제 개발
 - 교과부가 주관하고 외교 통상부가 참여하며 재외 한국교육원(14개국 34개소), 한국문화원(9개국 12개소), KOTRA, KOICA,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이 통합적으로 유학생 홍보 시스템을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화
- 우리나라의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홍보 강화
 - GKS 사업 전용 다국어 홍보 사이트 개발 보급
 - 각국의 교육부 및 고등학교, 대학교에 한국의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정부장학금 내용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 보급 확대
- 외국인에게 직접 찾아가는 대학 공동 ‘외국인 유학생 유치 설명회 및 박람회’ 개최 지원 확대
 - 각국 주재 외교공관의 적극적 협력 유도
 - 교과부의 관련 지원 예산 확대 및 각 참가 대학의 회비제 운영
 - 박람회의 경우 대학과의 공동 계획 개최 방식에서 개최국가, 지역, 방법, 시기 등 박람회 개

최 계획을 수립단계부터 개최단계까지 대학(또는 협의체)이 자발적으로 작성하게 하여 이를 심의한 후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 한국 유학 홍보 다양화

- 산업체와 연계한 유학생 유치 홍보프로그램 마련
- 각종 국제협력행사에 유학생 교류 사업을 포함하여 유치 홍보
- 한류 확산을 계기로 한국 문화, 관광, 취업 등과 연계 한국 유학 홍보 추진

□ 유학안내시스템(www.studyinkorea.go.kr)의 고도화

○ 유학 종합 포털사이트로서의 확대 개편 추진

- 외국인 유학 희망자와 실제 유학생들에게 종합적인 유학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 포털사이트로 확대 개편을 추진
- 유학생과 대학의 유학업무를 On-line 서비스하는 유학종합 포털사이트로 유학생에게는 입학 지원, 입학허가, VISA신청·발급, 대학입학 및 수학, 출국까지의 전 과정을 On-line 서비스하는 실질적인 종합 정보 제공
- 대학, 법무부 등 관련기관에게는 유학생 편입학·출국 등 제도적인 추가 변경사항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사이트 운영 예산과 인력을 대폭 확대

○ 다국어 서비스의 실질적 확대 개편

- 현재의 'StudyinKorea' 유학 안내 사이트는 다양한 다국어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실제 사이트를 이용해 보면 일부 내용만 다국어로 되어 있지 실제 전체 내용 모두를 다국어로 제공하지 못하고 영어만을 일방적으로 제공
- 이에 의해 실제 유학 희망생들은 여전히 영어 실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한국 대학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형식적인 다국어 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유학안내시스템 사이트에 대해 불만 가중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 사이트의 실질적인 다국어 서비스를 확대하여 해당 자국어를 클릭하면 모든 내용을 자국어로 볼 수 있도록 고도화하고 이를 위해 동 사이트에 보다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

- 개별 대학의 외국어 사이트에 자동 연계 링크 추진
 - 'StudyinKorea' 유학 안내 사이트를 실질적인 유학 안내 종합 포털사이트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구글, 야후 등 주요 검색엔진에 등재하고, 한국대사관·한국교육원·문화원 등과 연계되어 있는 것에서 탈피
 - 현재 'StudyinKorea' 유학 안내 사이트에는 개별대학의 간단한 유학 정보만 있고 실제 해당 대학의 외국어 홈페이지와 자동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외국인들이 이 사이트를 통해 구체적인 유학 정보를 얻기는 곤란함
 - 'StudyinKorea' 유학 안내 사이트가 실질적인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국 개별 대학의 외국어 홈페이지 사이트에 자동으로 연계 링크되도록 고도화 추진
- 유학 정보 서비스 제공 확대 및 지속적 보완 추진
 - 외국인 유학생 입학·입국부터 졸업 후 출국까지 한국 유학 전 과정에 대한 맞춤형 On-Line One-stop 유학 정보서비스 제공 사이트로서의 내용 보완

□ 개별 대학들의 홈페이지 다국어 사이트 개발 유도

- 대학홈페이지 다국어 사이트 개발 지원
 - 우리나라 각 개별대학의 홈페이지는 대부분 영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어 홈페이지 내용 중 일부만을 서비스하고 있어, 외국인들이 해당 대학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유학 정보를 얻기 어려움
 - 대학들이 다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 않고서는 유학생 확대를 통한 대학의 국제화를 달성하기 어려움
 - 다국어 사이트 개발 제공시 외국인 유학생은 정원 외로 지원
- 대학 평가에 반영
 -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다국어 서비스 홈페이지를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각종 대학 평가의 국제화 지표에 이의 운영 상황을 평가 반영토록 함

2) 대학

□ 외국 학생 정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공개로 유치 정보 제공 강화

- 외국인 학생에 대한 학교 자체내 정책 계획 수립 강화
 - 외국인 학생에 대한 학교 자체 정책을 수립하고, 동 계획 속에 해당 학생에 대한 지원 정책을 포함하며,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 정책을 포함
- 외국인 학생에 대한 학교 자체내 정책 계획 공개
 - 자체 대학 외국어 홈페이지에 공개 추진
 - 대학 정보공시 항목으로 추가 고려

□ 외국인 유학 희망자들을 위한 대학별 다국어 홈페이지 사이트 적극 개발

- 외국인 유학생들이 쉽게 한국 대학의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국어 홈페이지 개발 및 서비스 제공 강화
 - 자체 대학의 외국어학과와의 협조 체계로 개발 활용

□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깊이 있고, 폭넓은 대학 정보 및 안내 제공

-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 및 재학중인 유학생 모두에게 깊이 있고, 폭넓은 정보 제공
 - 유학 사증 규정 관련 서류나 절차 등에 관한 안내
 - 적절한 유학준비를 위해 학업관련 정보와 학교 주변지역에 관한 정보 제공
 - 숙소 비용을 포함한 생활비 관련 정보
 - 교통, 운전 면허 취득, 거래 은행 개통 관련 등의 생활 정보 제공
 - 입학 절차 및 외국 학생에게만 적용되는 규정
 - 비자 취득 요건 및 절차
 - 영어 능력을 포함한 입학 요건
 - 입학에 필요한 절차, 예치금 및 환불 규정
 - 등록금을 포함한 학비
 - 장학금과 학비 보조 관련 정보

- 학과 및 교육 프로그램 관련 정보
- 고등교육과 기관에서 제공하는 학위 및 자격에 대한 정보
- 학생 지원 서비스 관련 정보
- 학교시설 이용 안내(도서관, 전산실 등)
- 각종 학생활동 프로그램 안내
- 각종 직업 활동에 관한 정보
- 문화적 다양성 관련, 문화적 충격이나 사안 발생 시 상담 정보

□ 외국인 학생 모집에 적합한 절차 및 안내 개발

-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입학 전형 개발
 - 자격 기준과 지원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 개발
 - 전형 방법의 다양화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정확한 이민 관련 규정 정보와 지시 사항 안내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도착 전 안내 패키지 제공

□ 외국 대학과의 공동 학위 운영 강화를 통한 단기 유학생 유치 활성화

- 한국으로의 유학 희망 국가 대학들과의 공동학위제(joint degree) 강화 및 활성화
 - 여름학기제 공동 운영
 - 공동 교육과정 운영
 - 학년 상호 교환 프로그램 운영
- 한국으로의 단기 유학생 유치를 위한 상호 학점 교류 강화
 - 저개발국가 및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대학들과의 상호 학점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단기 유학생의 효과적 유치

나. 유학생에 대한 학업 및 생활 지원 강화

외국인 유학생의 원만하고도 편리한 유학 생활을 유도하여 유학 실패자를 최소화 하고 나아가 유학생들이 성공적인 학업성취를 유도하여 한국 유학에 대한 안정도를 제고하기 위해 유학생에 대한 학업 생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1) 정부

□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강화

- 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대학별 가칭 ‘한국어교육센터’ 설립 유도
 - 각 대학들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교육센터’를 운영하도록 유도 하여 외국인들의 한국어 교습을 전담
 - 희망하는 외국인들 모두에게 일정 경비를 받고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형태로 설립 유도
 - 타대학 외국인 유학생, 자기 대학 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유학생이 아닌 일반인 외국인들 모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나 교습비를 차등화
 - 자기 대학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교습 비용 최소 실비로만 수납
 - 만일 대학별로 동센터를 설치 곤란할 때는 2-3개 대학이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정 역할 수행
- ‘KSL 코스’ 운영 및 한국어 저능력자들의 한국어 과정 이수 의무화
 - 대학측에서는 추가 교육과정으로 수준별 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 코스를 개발 운영하되, 한국어학당 혹은 한국어교육센터가 있는 대학들은 해당 학당 또는 센터로 위탁 교육
 - 유학생의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 수준을 가진 자로 선발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 입학한 후 별도의 일정 이상의 학점으로 한국어 과정 이수를 의무화함

□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on-line 교습 전용 사이트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유학생 전용 한국어 교습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

-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의 교육을 위한 전용 사이트 개설
- 동 프로그램 자유 접속 무료 제공
 - 무료로 제공하되 회원제로 운영하여 아이디를 발급함으로써 접속하는 학생들의 기본 자료 파악

□ 한국어능력평가(TOPIK) 제도 개선

- 시험 실시 횟수 확대
 - 한국어능력평가 시험 횟수를 현재 연 4회에서 연 8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유학생들에 대한 편의 확대
- 시험 장소 확대
 - 한국어 능력평가 시험 장소를 지역별로 확대하고 지역별로 적절하게 안배
- 시험 주관 기관 독립 운영
 - 현재 동 시험을 주관하는 ‘국립국제교육원’은 국제교육 정책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세워진 기관이기 때문에 실제 한국어능력평가를 주관하고 관리하며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음
 - 시험기관으로 전문성을 제고하고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공하는데도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한국어 시험만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별도의 독립된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생활 여건 개선 강화

- 외국인 유학생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친화적 기숙사 제공 강화
 - 외국인 친화적인 기숙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취사 가능한 기숙사로 개발
 - 입학 최초 년도부터 최소 2년간 이상은 모든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학교내 기숙사 제공 유도
 - 전학생들은 최소 1년간 제공
 -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건설시 각종 건축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 지원
 - 지방대학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건설시 자금 융자 지원 주선
 - 대학간 공동 기숙사 건설시 정부의 직접 지원프로그램 개발
 - 대학, 민간업체,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자 방식의 기숙사 건설 권장(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혹은 정부관리 기금에서 융자 지원 고려)

- 외국인 유학생들의 건강 의료보험 가입 지원 및 건강 진료 서비스 확대
 - 개인 상황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외국인 학생 의료보험제를 다양하게 개발 운영
 - 내국인에 비해 저렴한 의료보험제로 개발하고, 유학생들이 선택 가능한 다양한 의료보험제 개발 적용
 - 외국인 유학생은 기본의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되 추가적인 의료보험은 개인 자율로 설정
 - 기본건강보험 가입을 유학생 비자발급 요건으로 처리
 - 교내 건강센터 무료 진료 확대, 필수 건강진단 시행
- 외국인 유학생 위기관리 매뉴얼 개발 배포
 - 위기관리 매뉴얼 개발 배포로 외국인 유학생들 안전생활 지원 확대

2) 대학

□ 대학내 외국인 유학생 전담 지원체계 구비 의무화

- 대학내 외국인 유학생 전담지원 기구 혹은 부서 자체 의무화
 - 전담 지원 인력 의무적으로 배치
 - 기능 : 학생 유치·선발·입/출국 담당, 학사·생활·애로상담 등
- 유학생 지원을 전담하는 공식 기구(registered representatives) 또는 기구의 소속 직원(agents) 과 연계하는 지원시스템 구축
 - 대학 자체적으로 국제화 업무에 관해 경험이 부족하거나 전문화 되어 있지 못할 경우 외부 전문 기구의 도움으로 전담 체제를 구축·운영해 갈수 있음¹⁹⁾

19) - 1안 : 공식 기구(registered representatives)는 국립국제교육원과 같은 전담기구 내에 유학생 지원 담당 부서 및 직원이 될 수 있으며, 대학의 요청으로 공식기구의 직원을 일정 기간 파견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음
 - 2안 : 본 연구에서 제안한 '외국인 유학생 정책 진흥원'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활용하여 대학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 3안 : 유학생을 지원하는 각종 민간 기구 및 단체들을 정부차원에서 공식 지정(registered)하는 과정을 거쳐, 지정된 기구들이 대학과 연계하여 유학생 관련 업무를 지원해주는 방안

□ 학과 또는 동일 전공 차원의 지원 강화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동일 전공의 한국인 학생 학업 도우미 자원봉사제 운영
 - 외국 학생들을 위한 한국인 학생 도우미제도를 대학이 주관 운영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상호 연결
 - 한국인 학생 도우미들의 적극적인 사원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제 개발 시행(외국인 학생 학업 도우미들에게는 졸업후 취업 우선 추천, 장학금 수혜 기회 제공, 학교 내 아르바이트 우선 채용 등)
- 학과별 외국인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유도 및 지원
 - 외국인 유학생들을 보유한 학과에서 그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지도하고 해당 운영 학과들에 대한 학과 운영 경비 추가 지원

□ 외국인 유학생별 상담 및 지도 체제 개발

- 학과 교수와 친척 맺기 방식으로 전문 상담자 배정
 - 친척 맺기 방식으로 학과 교수와 SNS 대화 및 상담 채널 개발
- 학과 선배와 1:1 지도 상담 시스템 개발
 - 학과 선배와 지도 상담 시스템을 개발하여 자유롭게 고민을 지도, 조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유학생의 교내·외 생활 적응을 위한 교류 및 문화 활동 지원 강화

-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 각종 문화적 프로그램 및 활동 지원
 -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한 문화 충격과 갈등을 조정하고 이해시켜 줄 수 있는 문화 체험 활동 운영 및 지원 강화
- 한국 학생들과의 네트워크 개발 지원
 -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대학커뮤니티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 학생들과의 다양한 교류 기회 개발
 - 한국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도 국제 학생과 국제 교육 교류의 가치 및 중요성 인식 확산 프로그램 개발 보급

- ‘학업 외의 동아리 활동/공간’ 참여 유도
 - 수업은 경쟁적 공간으로서 학생들이 친교를 쌓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학업 외의 동아리 활동에 유학생들을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사람과 사람으로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제공

□ 유학생의 학업생활 지원 강화

- 학사 지원 강화
 - 유학생 대상으로 별도의 학사일정편람 제작·배포 확대
 - 논문자격시험 지침, 학위논문심사에 관한 지침, 교과과정을 영문으로 구비
 - 수강편람, 학사일정, 커리큘럼을 다국어 홈페이지에 안내
- 학업 만족도 조사 및 지원 설계
 - 매년 외국인 학생 만족도 조사 실시 후 개선 대책 수립

다. 평가 및 모니터링 체제 강화

외국인 유학생과 유학생 유치 대학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 유학생들과 대학에 대한 평가체제를 확립하고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비한다.

1) 정부

□ 외국인 유학생 자질과 능력의 사전 검증을 위한 한국형 토플 개발 및 시행

- 한국형 토플 가칭 ‘TOKFL(Test of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개발 시행
 - 외국인 학생들이 국내 대학에 들어와 한국어를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수학할 수 있는 기본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외국인의 한국어로의 대학 유학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토플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립국제교육원이 관장하고 있는 ‘한국어능력평가(TOPIK)’ 는 한국의 대학으로 유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한국어능력평가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

고 있어 그 전문성과 다양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또한 한국어시험만을 전문으로 하는 독립된 기관이 아니며 한국으로의 대학 유학을 위한 사전 검증 전문 기관으로의 성장에도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가칭 'Test of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 TOKFL'로 명명하고 정부가 주관하되 현재 한국어 평가를 사업화해 온 관련 대표적인 기관을 모아 해당 민간이 참여하는 컨소시움 형태로 TOKFL 개발 및 실제 공동 운영
- 이 시험은 외국인들의 한국 대학으로의 진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한국어 능력 시험에 대한 국가 공인 점수로 활용
- 개발 및 운영 주체
 - 컨소시움 형태로 하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참여시켜 실제 운영기관으로 위탁
 - 시험응시료는 정부와 컨소시움 참여기관이 공동 합의에 따라 결정하되 가능한한 저렴하게 책정
- 반영 방법 자율화
 - 해당 성적은 대학 자율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입학 기준으로 참고케 유도

□ 유학생 정보 공시 강화

- 공시 항목 추가
 - 출신국별 전공별 유학생수 현황
 - 유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수혜액 및 수혜 비율
 - 유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강좌 과정 제공 수
 - 졸업후 진로 및 귀국 상황 등

□ 유학생 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 정기적인 유학생 실태조사 실시
 - 매년 정기적으로 한국의 대학들에서 수학중인 유학생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시행
 - 실제 시행은 교육연구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실태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종합 위탁하는 방식 고려

- 유학생 수, 출신국가, 재학 유형 및 유학형태별 현황 모니터링 위주에서 장학금, 숙소, 대학에서의 학습 과정 및 성과, 졸업 후 진로 등에 대한 조사로 확대
- 실태 조사에는 유학생들의 입국경로 및 학교입학 및 전공선택, 수학 과정, 중도 탈락, 거주 형태 등의 정보를 종합 조사
- 국가 수준의 주기적인 ‘외국인 유학생 학업·생활 현황 조사’ 실시
 - 교육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외국인 유학생 학업·생활 현황 조사’를 위한 조사도구 개발
 - 각 대학들이 동일한 조사도구를 활용하여 매년 조사에 참여하도록 의무화 하고 조사는 유학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온라인으로 실시함(본 연구에서 제안한 ‘외국인 유학생 정책 진흥원’에서 조사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자체 시스템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음)
 - 자기대학 상황을 본 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기본·핵심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타 대학과 비교 가능하도록 공개함. 공개 및 비교를 위한 핵심 항목은 다음과 같음
 - 비자 발급 형태
 - 유학생 중도 탈락자, 휴학자 등 학생 관리
 - 목적 외 비자 사용 등
 - 조사 결과는 인증제 정성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

□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개선

- 인증제로 대학에 대한 관련 항목 평가 통합 운영
 - 대학특성화지원사업, BK21사업 등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 항목에 유학생 지원 실적을 삭제하고 대신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로 통합
- 유학생정보관리시스템 운영 강화
 - 유학생 정보 다양화 및 확대 기록
 - 어학연수생까지 포함하여 종합 관리
 - 교육과학기술부를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정보 활용
 - 외국인 유학생 DB 수준 제고

- 부실대학 판정 기준 및 지표의 상세화 및 판정 방식 개선
 - 부실 대학 판정 기준 및 지표의 양적 기준 강화
 -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하 : 부실 대학, 사증 발급 불허
 - 70점대 : 주의 대학, 사증 제한
- 인증 대학 인센티브 강화
 -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사업 우선 지원
 - 해외 대학 공동학위제, 유치 박람회, 기숙사 건축 등 행재정적 지원
 - 80점대 : 인증 대학 + 행정적 지원
 - 90점대 : 인증 대학 + 재정적 지원 + 사증 발급 간소화
- 인증 유효기간 차등화
 - 80점대 기관 : 2년
 - 90점대 기관 : 3년

□ 외국인 유학생 정책에 대한 자체 평가 실시

- 정책 성과 평가 주기적 실시
 - 정책 성과평가 년 1회 이상 필수 도입
 - 정책의 성과와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문제를 보완하는 근거로 활용
- 정책 평가에 근거한 고등교육 국제화 예산 편성 타당화
 - 평가 결과를 고등교육부문의 국제화 명목의 예산 확보 및 편성 기준으로 활용

□ 유학생 졸업기준 대학 자율책임제로 전환

- 유학생의 졸업자격 기준 대학 자율 결정
 - 현재 고등교육법상 학위 수여 권한을 개별 대학의 총장이 갖고 있는 한, 유학생의 졸업 자격 기준도 원칙적으로 개별 대학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함
 - 대학별 졸업 자격 기준의 지나친 대학별 격차를 예방하기 위해 최소 자격기준을 설정하되, 대학교육협의회의를 통한 자율적인 설정 유도

- 졸업 자격 기준의 실제 시행에 대한 책임 부여
 - 기준을 엄격하게 시행하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 정원 축소

2) 대학

□ 유학생 자체 관리 강화

- 중도 탈락 관리 강화
 - 학업 부진 이유 중도 탈락 가능자 사전 예방 관리
 - 경제적 사정으로 중도 탈락 가능자 장학지원 관리
 - 중도탈락자의 체류 신분 철거 관리 및 보고 강화
- 불법체류 관리 강화
 - 불법체류자에 대한 법무부 신고 의무화
 - 불법 체류자에 대한 사전 통보 시스템 개발
- 학사관리 강화
 - 학기말 출석부 수거 통한 직접 집계
 - 외국인 유학생 2주 이상 결석 시 교·강사가 행정실 통보
 - 행정실 연락 후, 연락불가 시 외국인지원센터에서 학생 학부모와 통화하여 거취 파악
 - 교과목 담당교수별 수업 시 출석 확인
 - 학기말 성적 제출 시 학생별 결석 시수를 함께 보고함
 - F/A제도 (6시간 이상 결석시 과목 낙제), 출결 조교제, 지정좌석제 실시
 - 학사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토대로 각 학생들에게 각 과목별 출결상황(FA 1,2차 경고, FA 확정)에 관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지하고, 각 개인별 포털사이트에 게시(과목별 결석/지각일자, 결석/지각일수, FA현황)하여 결석 허용 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통지
 - 학사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토대로 담당교수가 과목별 출결상황을 포털 시스템에서 조회 허용

□ 유학생 졸업자 관리 강화

- 졸업후 귀국 관리 강화
 - 졸업후 공식 취업 비자 발급자 외의 경우 1차적으로 귀국자로 선정하여 관리
 - 불법 체류 방지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졸업후 동문 관리 서비스 적극 지원
 - 유학생 졸업 동문 관리 온라인 관리 체제 개발 운영

□ 유학생 관리 효율화를 위한 자체 및 외부 컨설팅 강화

- 유학생 관리 및 지원에 대한 대학 자체 컨설팅단 운영
 - 외국어학과 교수 및 유학 경험 교수 위주로 자체 컨설팅단 구성
 - 대학 총장 및 교무처장, 학생처장 등을 상대로 정기적 컨설팅 시행
- 외부 컨설팅 적극 수용
 - 정부의 공식 자문단 초청 컨설팅 수용
 - 민간 관련 컨설팅 위탁 정례화

라.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및 진로지원 강화

한국으로의 유학 동기를 자극하고 나아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자극하며, 유학생 졸업자의 고급 두뇌 한국 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및 진로지도 지원을 강화한다.

1) 정부

□ 외국인 유학생 및 졸업자에 대한 취업활동 지원

- 유학생 졸업자 취업정보 제공 전문 사이트 운영
 - 교과부 및 노동부와의 협조 하에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토록 지원
 - 다국어 사이트로 개발

- 운영 예산은 대학교육협의회와 정부가 공동 투자
- 취업 지원체제 개발
 - 교과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경제인연합회, 리쿠르트사, 대학 등과의 취업 협력체제 개발
 - 대학별 체제 마련으로 경쟁 유도
 - 각종 대학평가 시 취업률 지표를 활용할 경우 유학생 졸업자에 대한 취업률은 별도 지표로 산정함. 또한 정보공시제의 취업률 항목도 유학생과 국내 대학생의 취업률을 분리하여 산정함
-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 개최 유도
 - 정부가 주관하고 대학교육협의회, 개별 대학, 기업체 등이 공동 개최하는 외국인 취업 박람회를 년 1회 이상 개최
 - 각종 세제 혜택 등으로 기업체의 적극 참여 유도 장치 개발
-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범위 확대
 -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구직활동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한도 다양화
 - 전문학사 6개월
 - 학사 1년
 - 석사 1년 6개월
 - 박사 2년
- 지식경제부의 해외고급인력 채용제도(Gold Card System) 채용 기회 확대
 -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 지원을 위해 지식경제부의 해외고급인력 채용제도(Gold Card System)와 연계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취업 채용 기회를 확대

□ 유학생 졸업자 취업브릿지 운영 지원

- 인턴쉽 희망자와 국내 기업과의 인턴쉽 연결 창구 개설
 - 지역별로 거점 대학을 지정하여 전국에 16개 창구 개설
 - 거점대학에 일정 예산 지원
- 유학생 졸업자 취업브릿지 콜센터 운영
 - 취업과 관련한 유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콜센터’ 등을 운영

- 졸업한 유학생을 고용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체들과 국내·외 한국기업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유학생들을 연결

- 유학생 졸업자 동문에 대한 취업뉴스레터 제공

- 취업 뉴스레터를 개발하여 졸업생이 본국으로 귀국하더라도 계속 취업관련 정보와 소식을 제공

□ 유학생 취업 허용 직종제 다양화

- 박사학위자의 경우 취업 허용 직종제 원천 폐지

- 석사학위자의 경우 허용 직종 기존의 50% 이상 확대
- 학사학위자의 경우 허용 직종 기존의 30% 이상 확대
- 준학사학위자의 경우 현재대로 규제

□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특별연구원제 운영 사업 개발

- 박사학위소지자 특별 연구원제 사업 시도

- 국내 모든 공공기관 혹은 공공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졸업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연구직으로 선발시 일정 비율 인건비 지원

- 석사학위소지자 특별 연구조원제 사업 개발

-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취업시 일정 비율 인건비 지원

2) 대학

□ 유학생 진로 및 취업 지도센터 운영

- 운영 주체 및 방식

- 개별 대학이 운영
- 주요 기능은 재학중 시간제 취업 알선 및 졸업 후 취업 지원과 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 현재 학생취업지원센터가 있는 대학에서는 별도 센터 설립 없이 기존 센터가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 기능까지 포함

- 센터 네트워크 개발

- 취업 관련 기관 및 각종 산업체와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MOU 체결 체제로 네트워크 형성

○ 주요 기능

- 일주일에 두 번 학생취업지원센터에서 관련 정보 설명
- 지역내 취업지원 기관과 연계
-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작성 등 보조
- 고용관련 변호사와 국제학생담당자의 워크숍 개최
- 외국인 학생 취업지원 프로그램 1차 전문가초청 특강 실시
- 외국인학생 대상 취업 영어 및 한국어 경진대회 실시
- 전문가초청 특강 및 이력서 클리닉 실시
- 유학생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

□ 유학생 재학중 시간제 취업 기회 제공

- 대학 내 파트타임 취업기회 우선 부여
 - 학내 구직을 원하는 유학생들에게 학내 파트타임 취업기회 우선 제공
- 시간제 아르바이트 정보 안내
 - 시간제 취업을 원하는 유학생들에게 관련 구인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대학에서 수행

마. 행·재정 지원 강화

외국인 유학생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유치·관리하고 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1) 정부

□ 통합정보교환 및 관리시스템 운영

- 외국인 유학생 정보관리·활용을 위한 종합 On-line시스템 통합 운영

- ‘외국인유학생정보시스템’(법무부), ‘한국 유학안내시스템’(교과부)을 통합
- 정보가 제한적이고 부처 간, 대학 간 정보공유가 미흡하므로 통합하여 유학 종합 포털 사이트 시스템으로 확대 개편
- 유학생의 입학지원부터 입국, 학사, 출국단계까지 전 과정을 On-line화하여 학생 및 대학에 서비스 강화
- 교과부 주관으로 통합 운영하되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운영
 - 교과부가 주관하여 통합하되 교과부(전담기관)-개별대학(국제학생처)-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관리소)-민간의 ‘대한외국인학생담당자협회(KAFSA: Korean Association of Foreign Student Administrators)’ 등이 참여
 - 실제 운영은 국립국제교육원이 전담하고 대학교육협의회로 실무 관리 위탁처리 가능

□ 교과부에 전담 과 조직 신설

- 교과부에 ‘외국인 유학생 관리·지원과’ 신설
 -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교과부에 유학생 전담관리 조직이 없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교과부 과 신설 운영
 - 교과부 국제협력관 소속 하에 가칭 ‘외국인 유학생 관리·지원과’ 설치
 - 대학지원과와 상호 연계 협력 체제 유지
- 교과부 신설 ‘외국인 유학생 관리·지원과’에 관련 정부 실무 통합 운영권 부여
 -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외교부 등 관련 부처의 업무를 통합하여 교과부 위임 방식으로 이관 추진
- 교과부 신설 ‘외국인 유학생 관리·지원과’에 관련 정부 공무원 파견 근무 추진
 - 과 신설로 인한 업무 효율화를 위해 관련 부처 공무원 파견 근무 추진

□ 유학생 관련 정부 서류 처리 국제학생 편의 제공 시스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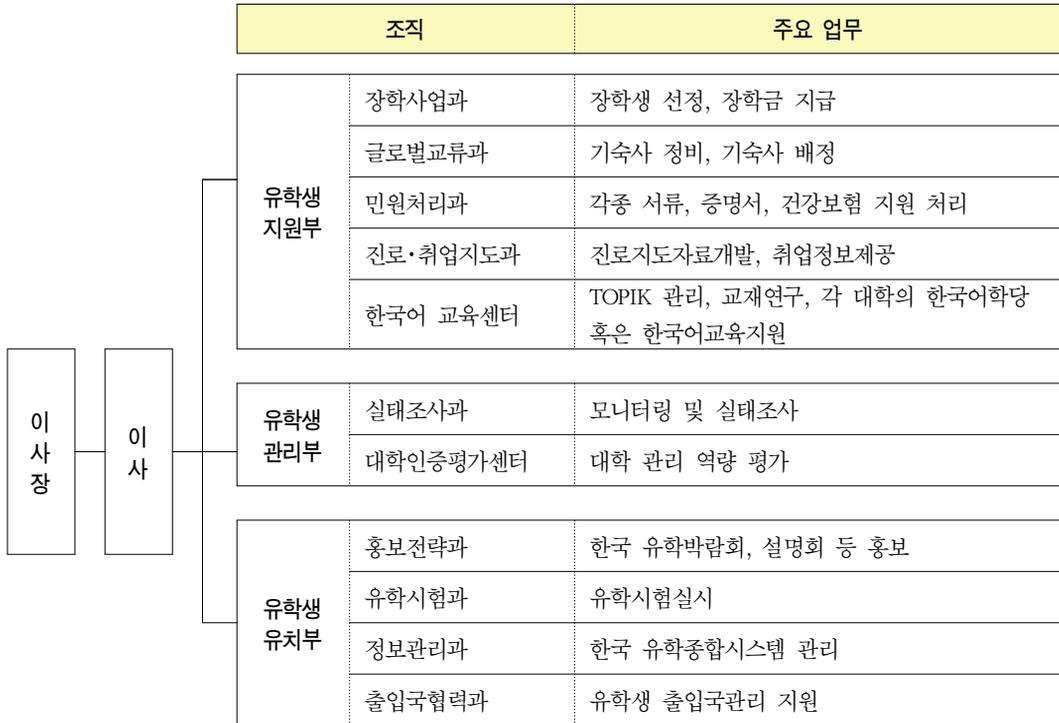
- 국제 학생출입국 요건 및 과정 간소화 추진
 - 유학생들에게는 특히 비자발급과 관련하여 많은 서류가 요구되고 있어서 상당한 경제적, 시

- 간접 부담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입국 요건 등도 대폭 완화하고, 국가별로 차등적으로 요구하는 추가 서류를 모두 균등하게 처리하는 등 전체적으로 비자 발급 규제를 완화하되, 유학생 관리에 관한 개별 대학의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학생 비자 관리 정책을 변화
- 비자 등 출입국·체류 관리 규정을 완화하여 유학생의 편의를 고려한 출입국 요건 및 서류와 과정을 간소화 추진
- 유학생 중 학비, 기숙사비 등 전액을 지원받는 장학생은 출입국관리소에서 요구하는 재정능력 입증 서류를 대학의 장학금 지급 보증 서류로 대체
-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대학 입학 유학생에 대해서는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이동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공 검토
- 운전면허증 및 건강보험증 등 각종 증명서 발급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유학생들의 각종 행정처리를 종합적으로 서비스해줄 수 있는 창구를 마련
 - 기초구역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민원 서비스 창구 전용 개설 지원

□ 정부출연기관형태의 가칭 ‘외국인 유학생 정책 진흥원’ 설립

- 교과부 소관 별도의 출연기관으로 설치
 - 고등교육의 국제화에 대비하고 증가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 지원하기 위해 가칭 ‘외국인 유학생 정책 진흥원’ 설립
 - 동 신설 기관을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 유치, 지원 및 유학생 관리, 유학안내시스템 관리, 콜센터 운영, 실태조사 수행 등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 관리 및 지원 전문기관으로 육성
 - 장기적으로는 정책연구, 이슈발굴, 유학시장 동향분석, 중장기 전략분석, 국제인력교류 분야 정책개발 등 고등교육국제화 추진 전문정책지원기관으로 육성

○ 조직(안)



[그림 VII-2] '외국인유학생정책진흥원' 조직(안)

- '국립국제교육원'의 유학지원팀 업무 신설 진흥원으로 이관 추진
 - 교과 소속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립국제교육원'의 관련 업무를 신설되는 동기관으로 이관
 - 국립국제교육원의 국립으로서 갖고 있는 인력 및 예산 확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출연기관 형태의 동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효율적임

2) 대학

□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 전담지원체계 구축

- 대학에 국제학생과를 설치할 확대하고 동 부서에 수행해야할 구체적인 역할을 다음과 같이 부여
 - 국제학생을 위한 상담을 위해 정확한 이민 관련 규정 정보와 지시 사항 제시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도착 전 안내 패키지 제공
- 외국인 유학생이 거주할 적절한 수준의 주거 시설 확보
- 공항 마중 서비스
- 비자 및 출입국관련 지원, 동반 자녀나 배우자 비자 업무 지원
- 비자 관련 문제발생 시 해결방안 제시
- 오리엔테이션 실시
- 국내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이 같은 시설에서 함께 활동하고 지낼 수 있는 여건 마련
- 사회, 문화, 교육적인 지원 서비스 개발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재정지원 개발과 시행
- 외국인 유학생의 새로운 환경 적응을 위한 개별적 지원 제공
- 제도적 책임감과 의료보험 관련 법적요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보장
- 캠퍼스 내 다국적인 활동, 프로그램, 행사 개발의 권장 및 지원
- 유학생의 적응을 위해 교수와 교직원의 외국 문화 이해 증진 노력
- Host-family 확보와 mentor활동 개발
- 수강신청, 숙소, 학교의 주변 환경 등에 관한 지원 제공을 위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 프로그램 구축
- 외국인 유학생-교수가 생활, 학습, 근무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환경으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학교 공동체가 타 문화에 대해 배우는 과정에 참여하고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활동 조직
- 외국인 유학생의 소속감 고양 관련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다양한 문화를 알리기 위한 학생모임 지원
- 타문화 이해를 위한 워크샵 및 활동 조직
- 외국 학생모집과 순조로운 유학 절차를 위해 교육 방면 지도자 및 지원체제와의 공조
- 외국인 유학생의 재정적 여건 평가 및 유학을 위한 재정적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도착 전 및 유학과정 중 필요한 정보 제공
- 출입국 문제와, 재정문제, 혹은 다른 개인적 문제에 관해 일대일 혹은 그룹 토론의 장 마련

-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직원과 학생 연수 프로그램 개발
-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한 문제 관련 교직원에게 상담 및 조언 제공
-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 혹은 지역사회와의 접촉 경험 및 주요 이슈에 관한 연구
-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 된 연구에서 제기된 주요 이슈의 인식 증진 및 연구 결과 보고

□ 외국인 유학생 전용 학내 콜센터 설치·운영

- 외국인 유학생들의 각종 애로·불만을 전화, 인터넷을 활용하여 상담·안내
 -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생활 중에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안내와 해결을 지원해 주기 위한 전용 콜센터 운영
- 콜센터에 별도의 전화상담요원을 배치
 - 상담요원은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등 외국인 유학생 중에서 연수 후 선발

3. 추진 전략

가. 정부 합동 ‘외국인 유학생 정책 통합위원회’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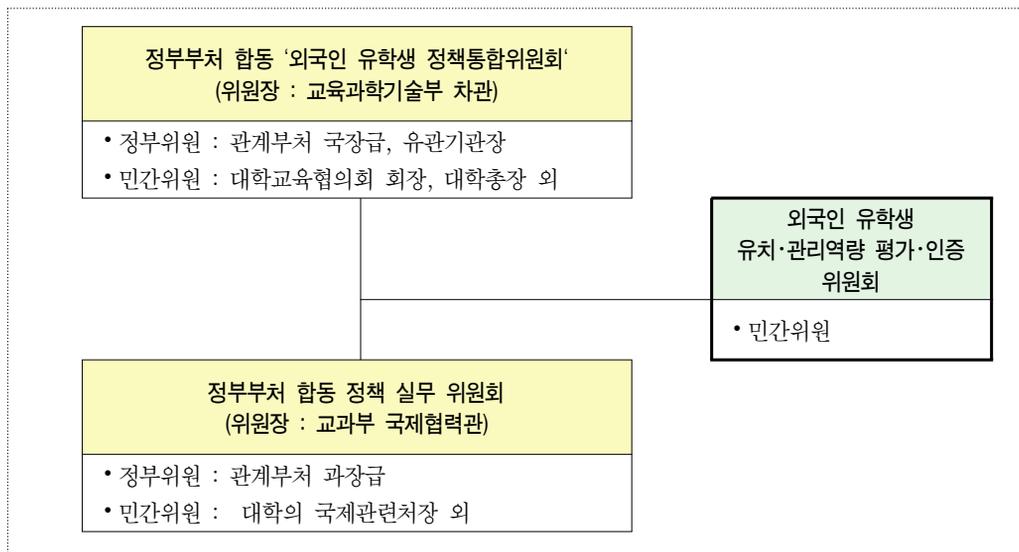
외국인 유학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부처간(교과부·법무부·외교부 등) 협조가 1차적으로 필요하고 나아가 2차적으로는 개별 대학과 민간과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협조체제가 미흡하여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난립하게 되고 나아가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제적 역량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제고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강화 방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관계부처(교과부, 총리실, 법무부, 외교부 등)가 참여하는 정부부처 합동 가칭 ‘외국인 유학생 정책 통합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위원회로 하여금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선발, 입학, 학사관리, 졸업, 체류 등의 전 과정에서 범정부 차원으로 외국인 유학생 정책방향을 논의하여 결정하게 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정부별로 흩어져 있는 유학생 관련 업무의 통합 조정과 협력 체계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위원회는 하부 조직으로 외국인 유학생 정책 실무 위원회를 통해 부처 간 세부 정책 연계 및 공조 체제를 강화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주로 외국인 유학생 정책 방향 결정 및 주요정책(기본계획 등) 심의·의결기구로 역할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실무 위원회는 정책을 발굴하고, 부처간 실무협의·연계로 주요 정책을 개발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관련 긴급 현안이 발생하였을 시 상호 협조적으로 과제 해결을 주도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평가 인증위원회’를 이 위원회의 하부 위원회로 존치하여 동 위원회가 명실상부한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 정책 통합위원회’의 조직(안)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VII-3]과 같다.



[그림 VII-3] ‘외국인유학생정책통합위원회’의 조직(안) 예시

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미 앞서서도 언급하였지만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법적 근거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인프라가 되어 해외 유학생 유치는 물론 국제사회의 고등교육 수요자들의 유학국가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또한 유학생 지원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자, 유학생 관리 및 지원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다양한 정부 정책 추진에 앞서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체제 선진화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법적 기반 구축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국제 교육시장 점유율 상위국가로서 호주의 경우 국제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외국인 학생을 위한 교육 서비스법(ESOS ACT)」(2000)을 제정하여 학생 안전(International Student Wellbeing), 교육 소비자 보호(Consumer Protection), 정보 제공(Better Information), 교육의 질(Quality of Education)에 대한 내용을 보장하고 있음을 이미 설명한 바 있다.

호주의 유학생을 위한 교육서비스 법(ESOS)은 유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유학생이 해당 대학에서 유학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학생이 알아야 할 교육기관의 학생지원 서비스 이용방법, 유학생 담당관, 학점신청, 등록 연기, 유예 및 취소, 학생의 학업향상을 위한 교육기관의 요건, 신청한 과정의 출석체크 여부, 교육기관 변경, 교육기관에 대한 불만 및 소송 절차 이용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은 ‘일본학생지원기구법’에 따라 학생지원기구를 통한 일본 국내 학생 및 유학생 지원과 학생지원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를 통한 유학생 지원 내용은 외국인 유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 유학생 교류사업의 운영, 학생 생활지원 사업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들을 포괄 규정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는 법률 제정시 유학생 유치·선발·관리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 대학의 기본 권리와 책임 명시, 유학생 유치 조건과 제한, 유학생 선발시 최소 자격 기준과 선발 방법 및 과정에 대한 기초 조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대학의 조직 및 인력의 기준, 유학생들의 학비감면 제한, 한국어 과정 졸업학점 대체 운영 제한, 외국인 유학생 입학 및 졸업 자격 최소 기준 등, 장학금 기준, 유학생들의 권리와 의무, 유학생에 대한 체류 관리 책임, 유학생 교류사업, 학생이 알아야 할 교육기관의 학생지원 서비스 이용방법, 유학생 담당관, 학점신청, 등록 연기, 유예 및 취소, 학생의 학업향상을 위한 교육기관의 요건, 신청한 과정의 출석체크 여부, 교육기관 변경, 교육기관에 대한 불만 및 소송 절차 이용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한편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 처리요령」 중 중요한 일부 내용들

은 동 법률시행령 수준으로 격상 규정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즉 이는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이 시행 중이나 업무처리를 위한 지침에 불과, 현장의 이행수준이 낮고 실효성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기도 하다.

다. 관-산-학 공동의 안정적 필요 자원 확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다양한 방안들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유학생의 유치, 수학 및 생활·취업지원, 우수대학 인증 사업, 수시 실태점검 등 유학생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바 이를 확보하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홍보, 유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학업과 생활 지원, 유학생들과 유학생 보유 대학의 관리 및 평가 강화, 유학생에 대한 진로 지도 및 취업 활성화, 기타 행정적 조치들은 모두 많은 재정을 소요로 한다. 예컨대 한국 유학박람회, TOPIK 활성화 등 한국어능력 강화, 외국인 유학생 실태조사,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의 효과적인 실시, 외국인 유학생 정주여건 개선,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사후관리 지원, 유학생 지원·관리 정책 개발, 유학생 관리전담조직 운영 및 전담기관 설치, 한국 유학종합시스템 구축업무 등은 모두 예산이 수반되어야 실현될 수 있는 정책들이다.

이상의 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은 1차적으로 정부가 세수를 통해 확보할 수 밖에 없다. 물론 민간의 참여와 기금으로 확보할 수 있으나 그 재정 수준이 미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국고 투자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유학생 관련 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일부 재원은 유학생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들로부터 일정 외국인 유학생 지원 공동기금을 확보할 할 수도 있다.

다양한 자원 마련을 위해 민간의 기부금을 유도할 수도 있다. 예컨대 대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수출위주의 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들을 상대로 일정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기금 각출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들이 수출로 인해 벌어들인 소득 중 일부를 해당 수출국 유학생들을 위해 투자한다는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정책이 될 수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 입장으로 보면 자기 나라에 물건을 파는 한국의 기업들이 자신의 출신국 유학생들을 위해 기금을 제공한다면 해당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가져갈 수 있다. 이는 결국 우리의 수출 기업들의 이익 신장에 상당 기여하게 될 것이다.



VIII. 요약 및 제언

1. 요약
2. 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화 역량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 그 유치에서 관리 및 배출에 이르는 전 과정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관리 및 지원체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및 국제화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분석하고, 한국의 유학생 생활의 실태 및 요구분석, 정부정책 및 대학의 현황과 해외 주요국의 유학생 정책의 사례를 분석하여 정책 방안 도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한민국 외의 국적 소지자 및 재외 국민으로 국내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를 하는 학생이며 정규 과정·연구과정(D-2 비자 소지자) 물론 그 외의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어학연수생(D-4 비자 소지자)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자하며, 효율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본 연구의 대상은 대학의 정규 학부과정에 전일제 등록 학생으로 재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으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유학생 관리 및 지원 체제를 크게 유학생 유치, 입학시, 재학중 및 졸업 후 관리까지 포함하여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할 관리 및 지원 활동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분석하였는데, 이는 유학생 관리 및 지원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도출하는데 기초 자료가 되었다.

유학생에 관한 현황 분석은 통계현황, 정부정책, 대학별 운영현황 등으로 구성된다. 통계 현황은 유학생의 규모 및 학업 및 생활과 관련하여 거시적인 변화 양상과 현재 상황을 진단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 정책은 그 변천과정과 현재의 중점 추진 정책들을 분석하여 유학생 지원에 관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 성과와 한계 등을 진단하였고, 마지막으로 대학의 현황 분석을 통해 정부에서 실

시하는 유학생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A-B유형 대학을 비교하여 유학생 지원 및 관리 사례를 통해 대학의 미시적인 실태를 진단하였다. 현황분석을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유학생 유치목표 설정 및 성과 평가 실시, 둘째, 유학생 구성의 다양성 제고, 셋째, 유학의 전 주기를 포괄하는 지원범주 설정 및 지원 및 관리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넷째, 고등교육 국제화 관련 평가체제 구축, 다섯째, 유학생 관련 대학 평가의 과도기적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한 접근 필요 등이다.

유학생 유치 성과가 우수하고 관련 정책에 관한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분석은 본 연구에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기초 자료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학생 비율이 높은 호주와 최근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캐나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해외사례 분석결과 첫째, 한국의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유치 목표 설정, 둘째, 입학단계에서부터 졸업 후까지를 통합 연계하는 정책과 시스템 개발, 셋째, 국가 수준의 전담 기구 설치 및 통합적인 관리 지원 시스템 구축, 넷째, 법 제도의 정비, 예산의 확충과 같은 행·재정 지원이 필요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유학생 실태조사는 면담과 설문조사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면담은 ‘유학생의 한국 유학의 전 과정’을 사례 분석의 중심축으로 설정하고, 반 구조화된 면담을 통해서 ‘유학 결정, 입학 준비, 대학 재학, 취업 및 진로 준비 과정’에 대한 유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함과 동시에 이들과 대학 캠퍼스에서 긴밀히 상호작용을 하는 대학 구성원들(유학생 담당 직원, 한국인 학생, 교수)이 유학생에 대해서 갖는 인식도 함께 조사하여 유학생의 관리 및 지원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 면담 결과 유학생에 관한 5가지의 이슈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국내의 고등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유학생 유치 확대와 질 관리(quality control)간의 적정한 균형을 맞출 필요성, 둘째, 졸업기준으로서 어느 정도의 한국어 능력을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셋째, 입학조건으로서 언어 능력 외에 ‘학업수학능력’을 별도로 검증하는 절차 도입의 필요성, 넷째, 유학생 교육과 관련하여 영어 강의를 어느 정도로 확대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취업 지도’를 포함할 것인가의 여부 등이다. 면담조사 결과 및 논의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온라인 유학정보 포털 구축, 둘째,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간의 협조체제 구축, 셋째, TOPIK(한국어능력 시험) 4급 취득 정책 재검토, 넷째, 영어 강의에 대한 전략적 접근, 다섯째, 유학생 위한 학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한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여섯째, 유학생 인턴십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이다.

한편, 유학생의 학업 및 생활에 대한 거시적인 실태 파악을 위해 194개 4년제 일반대학의 유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5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크게 유학 선택, 입학 전 유학 준비, 재학 중 학업 및 생활, 졸업 후 계획 등 4영역으로 구성된다.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첫째, 유학생들이 학업의 성과가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 필요, 둘째, 대학별로 운영하는 한국어학당(또는 교원) 및 프로그램에 질 관리 강화, 셋째, 대학의 엄격한 질 관리를 통한 대학평가 결과(순위) 및 평판도에 대한 정보 신뢰도 확보, 넷째,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유학생 정책의 수립 및 추진, 다섯째, 유학생 학원 지원 강화, 여섯째, 한국 유학의 특성화를 통한 국제 고등교육 시장에서의 차별화 및 경쟁력 확보, 일곱째, 기숙사 관리 및 지원 강화로 유학생의 생활 부담 경감 방안 마련, 여덟째, 영어강의 확대 및 다양화 필요 등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체제 강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5가지 기본방향에 의해 탐색하였다. 1) 전주기적 관리 및 지원 체제 구비, 2) 질 관리 체제 내실화, 3) 보상적·지원적 인센티브 연계, 4) 범 정부 정책 연계, 5) 한국 대학의 역량 강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방향 하에 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였다. 즉 1) 외국인 유학생의 전략적 유치, 2) 평가와 모니터링 체제 완비, 3) 유학생에 대한 취업과 진로 지도 강화, 4) 행·재정 지원 강화, 5) 유학생 학업 및 생활 지원 강화 등의 방안을 탐색하였다.

이상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체제 강화방안을 요약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학생 유치 전략의 고도화를 추구한다. 정부는 대상국가별 맞춤형 유치 전략 프로그램 연구·개발 강화, 잠재적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자국내에서의 한국어 교습체제 개발 및 보급, 전략적 유학생 유치 홍보 시스템 개발 운영, 유학안내시스템(www.studyinkorea.go.kr)의 고도화, 개별 대학들의 홈페이지 다국어 사이트 개발 유도 등을 추진한다. 그리고 대학은 외국 학생 정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공개로 유치 정보 제공 강화, 외국인 유학 희망자들을 위한 대학별 다국어 홈페이지 사이트 적극 개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깊이 있고 폭넓은 대학 정보 및 안내 제공, 외국인 학생 모집에 적합한 절차 및 안내 개발, 외국 대학과의 공동 학위 운영 강화를 통한 단기 유학생 유치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둘째, 유학생에 대한 학업 및 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강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on-line 교습 전용 사이트 및 프로그램 개발 운

영, 한국어능력평가(TOPIK) 제도 개선,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생활 여건 개선 강화 등을 추구하고, 대학은 대학내 외국인 유학생 전담 지원체제 구비 의무화, 학과 또는 동일 전공 차원의 지원 강화, 외국인 유학생별 상담 및 지도 체제 개발, 유학생의 학교내·외 생활 적응을 위한 교류 및 문화 활동 지원 강화, 유학생의 학업생활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셋째, 평가 및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자질과 능력 사전 검증을 위한 한국형 토폴(TOKFL) 개발 및 시행, 유학생 정보 공시 강화,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개선, 외국인 유학생 정책에 대한 자체 평가 실시, 유학생 졸업기준 대학 자율책임제로 전환 등을 추진하고, 대학은 유학생 자체 관리 강화, 유학생 졸업자 관리 강화, 유학생 관리 효율화를 위한 자체 및 외부 컨설팅 강화 등을 추진한다.

넷째,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및 진로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및 졸업자에 대한 취업활동 지원, 유학생 졸업자 취업브릿지 운영 지원, 유학생 취업 허용 직종제 다양화,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특별연구원제 운영 사업 개발 등을 추진하며, 대학은 유학생 진로 및 취업 지도센터 운영, 유학생 재학중 시간제 취업 기회 제공 등을 추진한다.

다섯째, 행·재정 지원체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통합정보교환 및 관리시스템 운영, 교과부에 전담 과 조직 신설, 유학생 관련 정부 서류 처리 국제학생 편의 제공 시스템 개발, 정부출연기관형태의 가칭 ‘외국인 유학생 정책 진흥원’ 설립, 대학은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 전담지원체제 구축, 외국인 유학생 전용 학내 콜센터 설치·운영 등을 추진한다.

이상의 다양한 강화 방안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부 합동 ‘외국인 유학생 정책 통합위원회’ 설치, 둘째,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셋째, 관·산·학 공동의 안정적 필요 재원 확보 등이 그것이다.

2. 제언

가. 중·장기 외국인 유학생 정책 종합계획 개발 및 실천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교육정책은 그 실천의 역사가 매우 일천하다. 한국의 지방대학들이 학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의 학생들을 유치하기 시

작할 때만 해도 유학생 유치는 일부 대학의 일로만 치부되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국가 발전에 필요한 고급 두뇌 유치로 생각하는데 미숙하였으며, 유학생들 유치에 의한 국제수지 개선에 둔감하였고, 나아가 한국을 친밀하게 만드는 졸업·귀국 후 외국인 우수 두뇌의 역할을 간과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러한 미숙함과 간과에서 벗어나고 있다. 정부 역시 외국인 유학생의 전략적 유치와 그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지원에 나름대로의 적극적인 정책 개발에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교과부가 2011년 5월 입안 발표한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제대로 실천하고 나아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강화 방안을 좀 더 심도 있게 정책적으로 구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이미 외국의 예에서도 보았듯이 많은 나라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유학생들의 유치를 다루고 있으며 그들의 관리 및 지원도 여전히 정부가 개입하여 정책적인 차원의 종합계획 작성과 그에 의한 체계적인 과제를 실행하고 있음을 간과해야 한다. 유학생 유치를 일종의 국가적 기간산업으로 간주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으며, 유학생 유치를 통해 자국내의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화를 꾀하여 세계 대학 순위 평가에 우위를 점하려는 나라들도 있다. 따라서 국가간 유학생 유치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우리나라도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상황에 맞는 차별적이고 명확한 유학생 유치·관리·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종합 계획안에는 유학생의 유치와 입학단계에서부터 졸업 후까지를 전과정적인 차원의 정책과 시스템을 개발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유학생 수용 주체인 대학에 대한 정책 가이드를 명확히 제시하여 입학 전 단계부터 학업 지원은 물론 학위 취득, 졸업 후 취업과 진로까지를 지원하고 관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계획을 구안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의 강화 방안에서 제시한 국가 수준의 전담 기구를 조속히 설치하여 통합적인 관리·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 종합정보시스템(Study in Australia)과 CRICOS시스템, AusLIST 제도, 캐나다의 Education au/in Canada를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학생의 지원 및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계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간의 통합적 연계 협력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는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건강보험을 담당하는 복지부, 생활지원을 위한 장학금 지

급 담당부서, 졸업 후 진로에 관계되는 지경부 및 노동부, 나아가 대학, 기업 등 많은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이 연계되어 있다. 이들 기관들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가 비전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동 정책의 종합 계획 수립은 제대로 개발되지도 못할 것이고, 설령 개발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실천되지 못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종합계획 개발과 그 효과적 실천을 위해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효과적으로 유치·관리·지원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관련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이 더욱 필요하다.

나. 정부와 대학의 적극적 문제 파악과 해결 자세 필요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올바르게 결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문제 파악이 우선이다. 국제 사회에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이나 한국 유학에 대한 수요 및 한국을 기피하는 원인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유학생 유치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성과에 대해 통계적 근거가 확보가 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 전략 및 정책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되어 부단히 정책이 쇄신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학의 부적절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행도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 B유형 대학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한 유학생 모집, 유학생에 대한 일괄 학비감면 또는 근거 부족의 과도한 학비 지원 등의 문제도 그 해결 의지가 중요하다. 엄격한 질 관리와 평가 방식의 개선으로 대학의 잘못된 유학생 유치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수학능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엄격한 검증, 유학생의 중도탈락률 개선, 유학생에 대한 방만한 학사운영 개선, 유학생의 한국어 교습 지원, 영어강의의 남용 개설 예방 등등 산적한 문제들은 정부의 강한 개혁 의지가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해결이 쉽지 않다.

문제 해결의 의지가 더욱 요구되는 것은 유학생 출·입국 규제이다. 그 동안 법무부와 외교통상부는 유학을 빙자한 국내 불법체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유학 희망자에 대한 입국절차를 엄격히 관리해왔으나 대학 및 교과부에서는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신속한 비자 발급 및 유학생에 대한 출·입국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획기적인 개선 의지가 없다면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의 재정 투자 의지도 중요하다. 유학생 유치, 지원 및 관리에 대해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정부로부터 충분한 재정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정부에서 고등교육 국제화 지원에 예산을 배정한 것은 2010년부터로 비교적 최근의 변화라 할 수 있으며, 2012년 해외 한국 유학 홍보, 질 관리를 위한 인증제 등에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나 규모가 크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정부 초청 장학 사업을 위하여 꾸준히 예산을 증액해가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외에도 정부의 강한 의지가 필요한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이상에서 언급된 문제만이라도 조속히 하려는 정부 당국자들의 강한 의지가 중시되어야 한다.

다. 관련 기초 및 정책연구의 축적 필요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초 연구와 정책 연구 결과가 축적되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다양한 정책 결정과 그 시행에 필요한 연구 기반 없이는 정책의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이 분야의 연구 축적이 상당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언급해 보면 기초 연구 성격으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으로의 유학 희망자에 대한 각 국별 실태 파악과 요구 분석’, ‘유학 희망 학생들의 국내 대학 입학 경로 분석과 문제 파악’,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에서의 학업실태 분석’,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생활 문제 및 요구 분석’, ‘한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부실 관리 실태 파악’, ‘외국인 유학생 취업 및 진로지도 실태 분석’, ‘주요 외국의 유학생 정책 비교 연구’, ‘주요 외국의 유학생 정책성과 분석 연구’, ‘주요국의 외국인 유학생 관련 법령 제정 및 운영 실태 연구’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정책 연구로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요청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대학 규모별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체제 구축 방안 연구’, ‘외국인 유학생 장학 지원 확대 방안 연구’, ‘외국인 유학생 졸업후 취업 기회 제고 방안 연구’,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효율화를 위한 민간의 역할 제고 방안 연구’,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대한 국내 대학의 전략 비교 연구’,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법률 제정안 개발 연구’, ‘외국인 유학생 졸업후 효과적 관리 방안 연구’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많은 연구 과제들은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향후 외국인 유학생 관련 연구 축적을 위해 연구재단이나 교과부의 연구비 확보 및 지원이 요구되며, 나아가 교육정책 전문 연구 기관 및 대학의 전문 학자들의 연구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이화·김아영·김대현(2008).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경험에 관한 연구. **교육사상연구**, 21(3), pp.65-88.
- 교육과학기술부(2009). **외국인 유학생 지원·관리 개선방안**. 교과부 글로벌인재육성과.
- 교육과학기술부(2010).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 교과부 글로벌인재육성과.
- 교육과학기술부(2010).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 방안(안).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0). **OECD 교육지표**.
- 교육과학기술부(2011a). **아시아 대학생 교류 및 대학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CAMPUS Asia 시범사업 추진계획**.
- 교육과학기술부(2011b).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안)**. 교과부 국제협력관.
- 구자익(2010). **한·중 양국민간 우호정서 저해원인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남희 외(2004). **국내에서 해외 고급인적자원의 활용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김미란·채재은(2011). **외국대학 유치모델 및 기준연구: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김선남(2007). 중국 유학생의 국내 대학적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 **한국정치정보학회**, 10(1), 185-206.
- 김소정(2010).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인지적 종결욕구와 자아존중감에 대학 생활적응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민(2010). **성공적인 대학 수학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우중(2011). **한국과 일본의 중국인 유학생 유치전략 비교연구**. 한국무역협회.
- 김현아·김병삼(2010). **프랑스의 유학생 제도 및 정책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김현철(2011).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제화(II):주요 대학들의 국제화 실태와 발전과제. **한국교육논단**, 10(3), pp.21-39.
- 김혜진(2009). **외국인 유학생 공동기숙사 건립 타당성 연구**. 대구경북연구원.
- 김화영(2005). **대학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 방안**,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임순(2006).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비영리 연구**, 5(2), pp.159-197.
- 노종희·이일용·유길한(2003).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를 위한 국가별, 지역별 마케팅 전략**. 교육인적자원부.
- 두경자(2002). 내국인 및 재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공공가정 설계의 기초,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 16, pp.1-10.
- 문부과학성(2004). **일본의 유학생 제도 개요 : 수용 및 파견**. 문부과학성 고등교육국 학생지원과.
- 문성주(2011). **주한 유학생의 선교모델 수립을 위한 신앙성숙도 고찰**. 백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홍호 외(2010). **한·중 양국의 상호 유학생 실태와 개선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중국 종합연구 협동연구 총서.
- 박은경(2008). **외국인 유학생의 국제이주와 지역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웅수·설동훈·강일규·안정근(2004). **전문대학에서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실천적 방안 연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박태호(1999). **대학의 국제화 지원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 연구**. 교육부.
- 박태호(2000). **대학의 국제화 지원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 서영인(2011). **한·호간 고등교육 질 보증 네트워크**. 한국교육개발원.
- 송영관·양주영(2009).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을 통한 외국 전문인력 활용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안선민·장상옥·신경주(2006).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계획을 위한 연구 : 주거유형별 주거만족, 선호 및 요구를 중심으로. **한국생활환경학회지**. 13(1), pp.31-44.
- 양준호(2010). **일본의 유학생 제도 및 정책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엄혜경(2003).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 : 서울 5개 대학교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왕샤오링(2002). **중국인 유학생 왕 샤오링의 한·중 젊은이 비교론 : 왕 샤오링의 한국 리포트**, 가람기획.
- 윤성원(2001). **주한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 조사연구**.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종혁(2010). **중국의 선택 : 해외 우수인재 유치 전략과 고등교육 개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이명재(2006). **외국인 유학생 확대를 위한 취업연계 장학 프로그램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은화·장경(2010). **중국의 유학생 제도 및 정책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이익수·지봉구(2006). 중국 유학생의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산업연구경영**, 29(5), pp.437-454.
- 이인영(2011). **외국인 유학생 실태분석과 효과적 지원 방안 연구 : 서울대학교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모(2007).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 실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해연(2007). **중국 유학생들의 학업자존감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 연(2005). **제한 중국 유학생의 한국어숙달수준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 분석**.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경환(2010). **영국의 유학생 제도 및 정책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장혁심(2005). **서울 지역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정미경(2008). **주한 외국인 유학생 현황 및 다문화 인식에 대한 기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조선일보(2012). 미국 대학, 재정위기 극복위해 5년간 58% 늘어난 유학생으로 예산 충당 (2012.2.7일자).
- 조혁수·전경태(2009).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사회과학연구**, 20(3), pp.193-223.
- 주현준(2007).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요구 분석: AHP 기법을 이용한 국립 S대학 사례 연구. **교육학연구**, 45(3), pp.83-106.
- 주희정(2010).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대학 학습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교육문제연구**, 36, pp.135-159.
- 진 평(2006). **중국유학생들이 지각하는 한국의 관광목적지 이미지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민영(2007).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일 경험을 통한 배움**.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재은(2010). 외국대학 유치정책 비교분석: 한국, 싱가포르, 두바이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교육 연구**, 20(4), pp.29-52.
- 최석준(2010). **글로벌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서비스 역량강화 방안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최윤곤(2003).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 **한국어문학연구**, 제41호, pp.115-138.
- 최정순(2007). **해외인적자원 유치 확대 및 활용을 위한 유학생 지원 전담기구 설립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최정윤·김미란(2009).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및 지수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최정윤·김미란·박영진(2011). **동아시아 국가와의 전략적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현황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최준규(2008). 고등교육 국제화의 개념과 동기에 관한 비교연구. **종교교육학연구**. 제28권, pp.213-234.
- 최진희(2005). **주한외국인의 한국 이미지에 대한 연구 :국내 거주 중국 및 일본 유학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정희(2008). 중국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20(2), pp.473-496.
- 한국교육개발원(2010).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 한상연(2010). **호주의 유학생 제도 및 정책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한영옥(2007). **유학생 유치규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재준 외(2010). **유학생 시장의 특성과 정책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허준영·김광일·이장한(1999).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과 정신건강. **정신건강연구**, 18, pp.107-133.
- 호세전·구기보(2010). 중국유학생의 한국 유입 급증에 따른 대안 모색. **한중사회과학연구**, 8(3), pp.49-75.
- 황정미 외(2011). **교육이주의 추이와 미래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황해연(2007). **재한 중국 유학생의 대인관계 문제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dam, S.(2003). *The Recognition, Treatment, Experience and Implications of Transnational Education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Swedish National Agency for Higher Education, Stockholm.
- Altbach P.G. and J. Knight(2006). The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Motivations and Realities, *The NEA 2006 Almanac of Higher Education*. pp. 1-11.
- Andrade, M. S.(2009). English language programs and academic support overview. *International students: Strengthening a Critical Resource*.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Lanham.
- Bohm, A. D., Davis, D. Meares and Pearce, D.(2002). *The Global Student Mobility 2025 Report: Forecasts of the Global Demand for International Education*. IDP. Canberra, Australia.
-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2010). *Canada Facts and Figures 2010*.
-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2010). *International Students Strategy for Australia: 2010-2014*.

- Cunningham, S., Y. Ryan, L. Stedman, S. Tapsall, S. Bagdon, T. Flew and P. Coaldrake(2000). *The Business of Borderless Education*, Australian Department of Education, Training and Youth Affairs, Canberra.
- CVCP(2000). *The Business of Borderless Education : UK Perspectives*. Committee of Vice-Chancellors and Principals, London.
- Davis, D., A. Olsen and A. Bohm(2000). Transnational Education: Providers, Partners and Policy. *A Research Study*. IDP. Brisbane.
- Dillon, R. K., & Swann, J. S.(1997). *Studying in America: Assessing how uncertainty reduction and communication satisfaction influence international students' adjustment to U.S. campus lif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Chicago, IL.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355 886).
- HEFCE(2004). *International Students Mobility*. Commissioned by HEFCE, SHEFC, HEFCW, DEL, DfES, UK Socrates Erasmus Council, HEURO, BUTEX and the British Council.
- Heggin, W.J., & Jackson, J.F.L.(2003). Understanding the collegiate experience for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at a Midwestern research university. *College Student Journal*, 37(3), pp.379-391.
- Heikinheimo, P.S., Schute, J.C.M.(1986). The adaptation of foreign students: Student view and institutional implication.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7. pp.399-406.
- Housley, H.(2009). Creating Connections. *International students: Strengthening a Critical Resource*.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Lanham.
- Kennedy, A., Kojima, T., Okura, Y., & Ward, C.(2003). The u-curve on Trial: a longitudinal study of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adjustment during cross-cultural trans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2(3), pp.277-291.
- Kessler, G.(2009). Instructional technology for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students: Strengthening a Critical Resource*. Lanham: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 Kingston, E. and Forland, H.(2008). Bridging the gap in the expectations between international students and academic staff.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2(2), 204-221.
- Knight, J.(2004). *Internationalization Practices and Priorities: 2003 IAU Survey Report*.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ies, Paris.
- Knight, J.(2005a). *Borderless, Offshore, Transnational and Crossborder Education: Definition and Data Dilemmas*. Report for Observatory on Borderless Higher Education, London.

- Knight, J.(2005b). Cross-border Education: An Analytical Framework for Programme and Provider Mobility. in J. Smart and W. Tierney (eds.), *Higher Education: Handbook of Theory and Practice*. Springer Academic Publishers, Dordrecht, The Netherlands.
- Knight, J.(2006a). *Higher Education Crossing Borders: A Guide to the Implications of GATS for Cross-border Education*. Commonwealth of Learning and UNESCO. Paris, France.
- Knight, J.(2006b). Internationalization: Concepts, Complexities and Challenges, in J. Forest and P. Altbach(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Higher Education*, Springer Academic Publishers, Dordrecht, The Netherlands.
- Larsen, K. and S. Vincent-Lancrin(2002). International Trade in Education Services: Good or Bad?, *Higher Education and Management Policy*, Vol. 14(3), OECD, Paris.
- Larsen, K., R. Morris and J. Martin(2002). Trade in Education Services: Trends and Issues, *World Economy*, Vol. 25, No 6.
- Mori, S.(2000). Addressing the mental health concerns of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8(2). pp.137-144.
- OECD(2001-2012). *Education at a Glance*.
- OECD(2004a). *Quality and Recognition in Higher Education: The Cross-Border Challenge*. OECD, Paris.
- OECD(2004b). *Internationalization and Trade in Higher Education—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ECD, Paris.
- OECD(2005). *Guidelines for Quality Provision in Cross-border Higher Education*. OECD, Paris.
- OECD(2007). *Cross-border Tertiary Education : A Way toward Capacity Development*. OECD·World Bank·CERI.
- OECD & The World Bank (2007). *Cross-border Tertiary Education*. Paris: OECD.
- OECD(2009). Higher Education to 2030. Vol 2. Globalization.
- Ozturgut & Murphy.(2009). Literature vs.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Teaching and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22(3), pp.374-385.
- QAA(2011). *International students studying in the UK-Guidance for UK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e Quality Assurance Agency for Higher Education.
- Rendón, L. I., Jalomo, R. E., and Nora, A.(2002). Theoretical considerations in the study of minority student retention in higher education. In J. M. Braxton(Ed.), *Reworking the student departure puzzle*(Second edition., pp. 127-156). Nashville.

- Rosenstiel, E., Taaaffe, J and Thomas, L.(2009). The graduate preparation program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International students: Strengthening a Critical Resource*.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Lanham.
- Seidman, A.(2005). *College Student Retention: Formula for Student Success*. NewYork.
- Sherry, M, Thomas, P., and W.C. Chui.(2010). International Students: a Vulnerable Student population. *Higher Education*. 60: 33-46.
- Sundstrom, C. J.(2009). Graduate writing support program: the least we owe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s. *International students: Strengthening a Critical Resource*.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Lanham.
- Tran, T. L.(2008). Unpacking academic practices: International students in management and education disciplines in Australian higher education. *Higher Educ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27(3). 245-256.
- UKCOSA(2007). Benchmarking the provision of servic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UKCOSA, London.
- UNESCO and Council of Europe(2001). *The UNESCO-CEPES/Council of Europe Code of Good Practice for the Provision of Transnational Education*. UNESCO.
- UNESCO(2002). *The role of student affairs and services in higher education: A practical manual for developing, implementing and assessing student programmes and services*. UNESCO, Paris.
- UNESCO(2004). *Higher Education in a More Globalized World*, Position Paper. UNESCO. Paris.
- UNESCO/OECD(2005). *Guidelines for Quality Provision in Cross-border Higher Education*. UNESCO and OECD, Paris.
- Verbik, L. and L. Jokivirta(2005). *National Regulatory Frameworks for Transnational Higher Education: Models and Trends*. Part 1 and Part 2, Briefing Notes. Observatory on Borderless Higher Education, London.
- Vincent-Lancrin, S.(2005). *Building Capacity Through Cross-border Tertiary Education*. Observatory on Borderless Education, London.
- Volz, N.(2009). *Promoting Quality in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s: the French Experience*. International Promotion of Higher Education - Experiences and Challenges. 23-24 March 2009. Budapest, Hungary.
- WES(2007).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patterns and trends. *World Education News and Reviews*. (October).

- 芦沢真五(2006). 大学国際化に係わる研究の成果, 高等教育の質保証に係わる国際比較研究, 1-6.
- 太田浩(2010). キャンパス・アジア構想: 留学生交流の現場から, 教育学術新聞. 第2422号(11/17), 日本私立大学協会.
- 太田浩(2010). 大学国際戦略本部強化事業について, 文部科学省発表資料.
- 大森不二雄(2010). WTO貿易交渉が迫る高等教育の市場開放. カレッジマネジメント第124号, リクルート. 32-39.
- 科学技術・学術審議会学術分科会(2010). 国際研究交流の概況.
- 教育再生会議(2008). アジア・ゲートウェイ構想: 長期戦略指針イノベーション25
- 佐藤由里子 (2010). 日本の留学生政策の評価. 東信社.
- 杉村美紀(2008). アジアにおける留学生政策と留学生移動, アジア研究, 第54-4号 アジア政経学会.
- 両角亜希子(2011). 大学のグローバル人材育成はどこまで進んでいるのか, カレッジマネジメント 168, 14-24
- 文部科学省(2004). 文部科学省における国際戦略提言
- 文部科学省(2005). 学校教育法施行規則等の一部改正について (通知).
- 文部科学省(2008). 大学教育のグローバル化を目指した当面の施策の検討事項
- 文部科学省(2011). 我が国の留学生制度概要: 受け入れ及び派遣.
- 文部科学省(2010a). 平成21年度文部科学白書.
- 文部科学省(2010b). 人と知恵を両輪とした新成長戦略の推進:教育・科学技術・文化・スポーツを基盤とした人のための社会・経済の実現.
- 文部科学省(2011a). グローバル化社会の大学院教育: 世界の多様な分野で大学院修了者が活躍するために(答申).
- 文部科学省(2011b). 東アジア地域を見据えたグローバル人材育成の考え方: 質の保証を伴った大学間交流推進の重要性.
- 文部科学省(2011c). 平成23年度予算(案) 主要事項.
- 中央教育審議会(2002). 大学の質の保証に係わる新たなシステムの構築について (答申)
- 中央教育審議会(2004). 国境を越えて教育を提供する大学の質保証について: 大学の国際展開と学習機会の国際化を目指して (答申).
- 中央教育審議会(2010a). 中長期的な大学教育の在り方に関する第二次報告.
- 中央教育審議会(2010b). 質保証システム部会資料.
- 山口茂(2010). 海外留学の実態と政策, IDE現代の高等教育, No.526. 48-53.
- 横田雅弘(2006). 岐路に立つ日本の大学: 全国四年生大学の国際化と留学交流に関する調査報告書
文部科学省研究費調整金報告書

中央教育審議会大学分科会 留学生特別委員会(平成20年7月). 留学生30万人計画の骨子とりまとめの考え方に基づく具体的方策の検討(とりまとめ).

中央教育審議会(平成15年度). 新たな留学生政策の展開について(答申) -留学生交流の拡大と質の向上を目指して-. 16-22, 32.

産経新聞 2010/07/21

- 文部科学省 홈페이지: <http://www.mext.go.jp>
- 뉴월드뉴스(2012). 캐나다, 유학생 모시기에 1천만 달러 배정(2012.8.15일자) :
<http://www.extell.net/news/view.html?section=1&category=118&no=88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www.law.go.kr/main.html>
- 스타디 인 코리아 홈페이지 : <http://www.studyinkorea.go.kr>
- 스타디 인 오스트레일리아 홈페이지 : <http://www.studyinaustralia.gov.au>
- 엑서터 대학교 홈페이지 : <http://www.exeter.ac.uk/internationalstudents/afterexeter/return/>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 <http://www.hikorea.go.kr>
- 일본학생지원기구 홈페이지 <http://www.jasso.go.jp/>
- 일본유학생정보 지원기구 홈페이지 <http://www.jpss.jp/>
- 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홈페이지 <http://www.jees.or.jp/>
-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http://www.kr.emb-japan.go.jp/>
- 주한캐나다교육원 홈페이지 : <http://www.studycanada.ca/southkorea>
- 캐나다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홈페이지 : <http://www.cic.gc.ca>
- 캐나다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Canada 홈페이지 :
<http://www.international.gc.ca>
- 캔버라 대학교 홈페이지 :
<http://www.canberra.edu.au/seasu/intl-student-support/retruning-home/reverse-culture-tips>
- 통계청 e-나라지표 : <http://www.index.go.kr/egams/index.jsp>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 <http://std.kedi.re.kr/index.jsp>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http://ecos.bok.or.kr>
- 호주 교육고용부 홈페이지 : <http://aei.gov.au>
- 호주 AusAID 홈페이지 : www.ausaid.gov.au

Abstract

A Study on Enhancing Management and Support System for Foreign Students in Korea

Seo, Young In
Kim, Mee Ran
Kim, Eun Young
Chae, Jae Eun
Yoon, Na Kyung

This research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exploring reinforcement measures of the management and support system for foreign students in Korea, the core variable for improving internationalization competency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s, this research review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foreign students and internationalization, analyzed the conditions and demands of foreign students, examined policies and the current condition of universities, investigated examples of foreign student policies in major countries and employed this as preliminary data to deduce policy measures.

This research defines foreign student as a student studying or conducting research at a national university or graduate school who possess a nationality that is not Korean or a Korean national residing abroad. This definition not only includes students who are taking regular courses(holder of D-2 visa), but also foreign students studying Korean(holder of D-4 visa) at affiliated institutes of universities. For efficient research, this research limited research subjects to full-time students enrolled in regular undergraduate courses. Based on this

definition, this research categorized the management and support system for foreign students into four levels- attracting foreign students, managing students when being admitted, during the period at school, and after graduation- and deduced necessities for each level.

The reinforcement measures of the management and support system for foreign students were explored based on the following five factors. 1) Establishment of pre-periodic management and support system, 2) reinforcement of quality management system, 3) promotion of compensative·supportive incentives, 4) connections with pan-government policies, 5) strengthening the competencies of Korean universities. Based on these factors, this research suggests measures such as 1) strategic attraction of foreign students, 2) full equipment of a evaluation and monitoring system, 3) increased support for academics and living for foreign students, 4) expansion of employment and career guidance, and 5) reinforcement of administrative·financial support. The followings are the summary of the reinforcement measures of management and support system for foreign students in Korea.

First, this research suggests enhancement of attracting strategies of foreign students. The government should proceed with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ustomized attraction programs according to countries, develop and supply Korean language learning systems in one's home country for potential foreign students, develop and operate a promotion system for strategic attraction of foreign students, enhance information system for studying abroad (www.studyinkorea.go.kr), and lead individual universities to develop multi-lingual school websites. In addition, schools should promote short-term attraction of foreign students through strengthening provision of information on attracting students by establishing plans and making public the policies about foreign students, actively participating in developing multi-lingual school websites for potential foreign students, providing extensive information about schools for students, developing appropriate procedures for admitting foreign students, and reinforce measures for joint degrees with foreign universities.

Secondly, academic and life support for foreign students should be reinforced. In order to do so, the government should promote Korean language learning programs for foreign

students, develop online learning sites and programs, improve the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TOPIK), and develop measures to improve the living conditions for foreign students. Measures universities should take include compulsory support systems for foreign students, reinforcement of support at levels of departments or identical majors, development of guidance system for foreign students, promoting support for interaction and cultural activities for students to adjust not only at school, but in the country, and strengthen support for students' academic life.

Thirdly, reinforce evaluation and monitoring systems. At the government level, Test of Korean as a Foreign Language(TOKFL) should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in order to pre-verify foreign students' qualities and skills, self-evaluation on policies for foreign students should be implemented, and students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ir own graduation standards. Universities should reinforce management on students, graduates and conduct self/external consulting for effective management of foreign students.

Fourthly, employment and career guidance should be actively implemented. Government measures include support for employment for foreign students and graduates, operation of "employment bridges" between students and graduates, diversification of occupational categories allowed to foreign students, and development of programs for foreign graduates to be employed as special researchers. School measures include execution of a foreign student employment and career guidance center and providing opportunities for foreign student to be employed part-time.

Lastly, this research suggests reinforcement of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In order to do so, the government should administrate a comprehensive information exchange and management system, newly establish an exclusive section in the department of education, develop a system that conveniently handles papers for foreign students, and establish a government institute such as "National Institution for Foreign Student Policy". Schools should authorize an exclusive support system for foreign students and an on-campus call center.

This research presents three promotion strategies to smoothly carry out the various plans.

First is the creation of a "committee for foreign student policy," second is the legislation of "acts on attraction and management/support system for foreign students," and last is securement of common finances from the government, education industry, and academic field.

What more, to effectively carry out these measures, comprehensive plans for medium and long term foreign student policies should be formed and put into action, active participation of the government and schools to comprehend and solve problems is necessary, and accumulation on preliminary and policy research were suggested.

Keywords : International Students, Foreign Students, Attraction of Foreign Students, Management and Support System, Foreign Student Policy



부 록

[부록 1] 면담조사 질문지

[부록 2] 설문조사지

[부록 1] 면담조사 질문지

면담지 (외국인 유학생)

□ 면담 일시

- 일시(시간) :
- 장소 :
- 면담자 :

□ 피면담자 기본 정보

	피면담자 1	피면담자 2	피면담자 3	피면담자 4
이름 (성별)				
출신국				
한국 입국년도				
전공 및 학년				
사전 어학연수 이수 유무				
기타				

□ 한국 유학 결정

- 본국에서 한국 유학에 관한 정보는 어떠한 방법으로 획득하였습니까?
- 한국을 유학 국가로 결정하는 데에 어떠한 요인들이 주로 영향을 미쳤습니까?
- 많은 한국 대학 중에서 현재 재학중인 대학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외국 학생들이 한국 대학을 선택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보나 도움을 한국 대학 (또는 정부)이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입학전

- 입학이 결정된 후 한국 입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점들이 어려웠습니까?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 현재 소속 대학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았습니까?
- 입학 전에 한국어 공부는 어떠한 식으로 하였습니까?
- 숙소를 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점들이 어려웠습니까?
- 이외에, 입학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다른 어려운 점들은 무엇입니까?
- 유학생들의 한국 입국 준비를 돕기 위해서 한국 대학이나 정부가 어떠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학중

[생활 관련]

- 학비와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 장학금은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 주거(하숙/기숙사 등)와 관련하여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학업 관련]

- 학업(전공, 교양수업)을 따라가는 데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 학교생활에 관한 정보(수강신청, 학교행사 등)를 얻는 데 주로 어떠한 어려움을 겪습니까?

[교수 및 다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 지도교수와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지도교수님으로부터 주로 어떠한 도움을 받습니까?
- 학교에서 “학생 동아리 활동”에 참여를 합니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없습니까?
- 학교에 자주 만나는 “한국인 친구들”이 있습니까? 한국인 친구들과 만날때 문화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 교내에 친한 외국인 학생들이 있습니까? 주로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혹시 학교에서 다른 외국인 학생들을 정기적으로 만날 기회를 만들어 주니까?) 출신국이 다른 외국인 유학생들로부터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하여 어떠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기타 고충]

- 앞서 제시한 것 외에 대학생활과 관련하여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생기면 주로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으십니까? 소속 대학의 국제처 등으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 외국인 학생들이 대학생활에 보다 잘 적응하기 위해서 대학 차원에서 어떠한 도움을 주기를 원합니까?

□ 졸업후 계획

- 졸업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한국(또는 외국)에서 취업을 원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한국(또는 외국)에서 대학원 진학을 원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진로 결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주로 정보(또는 도움)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유학생들의 취업/진학과 관련하여 소속대학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기를 희망합니까?

면담지 [한국 학생]

□ **면담 일시**

- 일시(시간) :
- 장소 :
- 면담자 :

□ **피면담자 기본 정보**

	피면담자 1	피면담자 2	피면담자 3
이름 (성별)			
전공 및 학년			
수업을 같이 들은 유학생들의 출신국			
기타			

□ **유학생의 영향**

[수업]

- 유학생들과 같이 듣는 수업과 그렇지 않은 수업의 가장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외국인 유학생들과 같이 일하기를 원하는 편(또는 기피하는 편)이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유학생들이 한국 학생들과 비교할 때 가지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수님들의 성적 평가시에 유학생들이 겪는 언어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학생들을 고려하여 ‘영어 강의 수업’ 등이 늘어나는 데, 이러한 변화가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타]

- 교내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주로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친하게 지내는 외국인 유학생 친구가 있습니까? 어떠한 계기로 친하게 되었습니까?
- ‘유학생들’과 같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유학생들은 수업외 학교생활(동아리 활동)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학생 정책 관련 개선 사항]

- 외국인 유학생 증가가 대학교육의 질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유학생 유치 과정(한국어 수준 등 고려)에서 학교측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유학생들과 같이 듣는 수업의 경우,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 측(또는 교수님들이)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 언어 차이로 인해서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들과의 갈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 학교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면담지 [대학의 유학생 업무 담당자]

□ **면담 일시**

- 일시(시간) :
- 장소 :
- 면담자:

□ **피면담자 기본 정보**

	피면담자 1	피면담자 2
이름 (성별)		
소속 부서		
직위		
유학생 업무 담당 경력		
기타		

□ **유학생 유치**

- 귀 대학의 유학생 유치의 목적과 전략(주요 유치 국가, 전공 등)은 무엇입니까?
- 지난 십년간 유치대상 국가나 전략에 있어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주로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대학이 직접 외국기관을 접촉하여 유치, 정부의 유학생 유치 Fair 참여 등)
- 유학생 유치와 관련하여 귀 대학에서 주로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최근에 정부에서 도입한 「유학생 관리인증제」가 유학생 유치에 어떠한 영향 (긍정적/ 부정적)을 미치고 있습니까? (긍정적/ 부정적)
- 「유학생 관리인증제」의 취지를 살리고 대학 현장의 현실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각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입학전

- 유학생 입학 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각 대학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학생들이 '하숙' 등을 구하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 앞서 내용 외에, 유학생들의 입학 준비를 돕는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 재학중

- 유학생들이 학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학생 튜터제나 보충수업 운영, 한국어 지원 등)
- 유학생이 주로 상담을 요청하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 유학생들에게 학비와 생활비는 어떠한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귀교에서는 전체 유학생 중에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 유학생의 불법 알바 금지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 유학생끼리의 동아리 활동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귀교에서는 유학생 동아리(네트워킹)를 위해서 어떠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 유학생 지원/관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들은 주로 어떠한 고충을 겪고 있습니까?
- 귀교에 “유학생을 이해하는 대학 문화”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을 지원(또는 저해)하는 요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유학생 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교수들은 어느 정도 협조하고 있습니까? 교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대학 차원에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앞서 내용 외에, 유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진로 지도

- 유학생들이 진로/진학과 관련하여 주로 상담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 학교 차원에서 유학생들을 위한 진로/진학 지도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 졸업한 유학생에 대한 후속 관리는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졸업생들이 유학생 유치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졸업생들과 재학중인 유학생들이 서로 만날 기회를 학교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까?
- 유학생의 진로/진학 지도와 관련하여 담당자들이 겪는 가장 큰 고충은 무엇입니까?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대학/학교 차원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면담지 [유학생 지도 경험이 있는 교수]

□ 면담 일시

- 일시(시간) :
- 장소 :
- 면담자 :

□ 피면담자 기본 정보

	피면담자 1	피면담자 2
이름 (성별)		
소속 학과		
직위		
유학생 지도경험		
기타		

□ 유학생 교육

- 유학생들이 있는 수업과 그렇지 않은 수업이 수업의 질이나 분위기 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유학생들이 수업에 있는 경우에 특별히 교수법, 과제 평가 등에 있어서 고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수업 운영할 때 유학생들의 출신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십니까?
- 유학생들과 한국인 학생들이 융합시키기 위해서 수업 운영과 관련하여 노력(예: 팀 구성시에 혼합 구성 유도)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 유학생들이 한국 학생들과 비교할 때 가지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유학생 지도면에서 교수로서 겪는 고충들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고충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부분의 대학에서 유학생 유치를 확대해하려고 하는 데, 유학생 증가가 대학교육의 질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 유치시에 강조되어 할 점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상담 및 지도

- 유학생들이 주로 상담/지도를 요청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 유학생들을 지도할 때, 한국인 학생들과 다르게 특별히 고려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 유학생의 상담 및 지도와 관련하여 교수님들이 주로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취업 및 진로

- 소속 학과의 유학생들은 주로 졸업후에 어떠한 분야로 취업/진학을 하고 있습니까?
- 졸업한 유학생들에 대한 후속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졸업한 유학생들이 재학 중인 유학생들을 만나는 기회가 학과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습니까?
- 소속 학과에서 유학생들에 대한 취업/진학 지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유학생들을 위한 취업/진로 지도를 하실 때, 한국 학생과 달리 특별히 배려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 유학생의 취업/진로 지도를 위해서 학교(또는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록 2] 설문조사지

1. 국문 설문조사지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유학생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외국인 유학생 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대학의 국제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체계 강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유학생들의 학업 및 생활에 관한 실태와 만족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유학생들의 경험을 본 정책 연구에 담아 유학생 지원 환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지 작성은 약 10~15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조사결과는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7월

한국교육개발원장

※ 이 조사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아래의 조사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 ◎ 문의처 :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고등교육연구본부 고등교육연구실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1길 35(우면동)
- ◎ 담당자 : 윤나경(02-3460-0391 / nk0504@kedi.re.kr)
최슬기(02-3460-0230 / seulki@kedi.re.kr)
- ◎ 조사담당자: (주)리서치앤리서치 이상미 과장 (02-3484-3045)

※ 다음은 귀하의 개인 배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소속 대학명 (분교의 경우 캠퍼스 소재지 기재)

_____ 대학교 (_____ 캠퍼스)

2. 성별

- ① 남성 ② 여성

3. 나이

- ① 18세 이하 ② 19-20세 ③ 21-22세 ④ 23-24세 ⑤ 25세 이상

4. 출신지역 및 국가

4-1. 지역	4-2. 국가					
① 아시아	① 중국	② 일본	③ 베트남	④ 대만	⑤ 몽골	⑥ 기타: _____
② 북미	① 미국	② 캐나다	⑥ 기타: _____			
③ 아프리카	① 탄자니아	② 나이지리아	③ 카메룬	④ 케냐	⑤ 에티오피아	⑥ 기타: _____
④ 유럽	① 러시아	② 프랑스	③ 독일	④ 영국	⑤ 스페인	⑥ 기타: _____
⑤ 남미	① 브라질	② 멕시코	③ 과테말라	④ 콜롬비아	⑤ 아르헨티나	⑥ 기타: _____
⑥ 오세아니아	① 호주	② 뉴질랜드	⑥ 기타: _____			

5. 유학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이후 현재까지의 체류 기간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2년 미만
 ③ 2년 이상 ~ 3년 미만
 ④ 3년 이상 ~ 4년 미만
 ⑤ 4년 이상

6. 전공 계열

- ① 인문사회계열 ② 공학계열 ③ 자연계열
 ④ 의·약계열 ⑤ 예·체능계열

7.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 입학한 후 등록한 총 학기 수 (2012년 1학기 기준)

- ① 1학기 ⑤ 5학기
 ② 2학기 ⑥ 6학기
 ③ 3학기 ⑦ 7학기
 ④ 4학기 ⑧ 8학기 이상

8. 유학의 형태

- ① 자비 유학
 ② 한국 대학 초청 유학
 ③ 한국 정부 초청 유학
 ④ 자국 정부 파견 유학 (출신국의 국비 유학)
 ⑤ 기타 : _____

9. 직전학기 성적 (2012년 1학기 기준) (※ 예시 : 3.2 점 / 4.5점 만점)

□.□ 점 / □.□ 만점

10. TOPIK(한국어능력시험) 급수

- ① 5~6급
 ② 3~4급
 ③ 1~2급
 ④ 아직 응시하지 않음
 ⑤ TOPIK 성적이 필요하지 않음

I. 유학국가 및 학교 선택

1. 본인의 유학 목적으로 다음 각 항목이 어느 정도 중요했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더 좋은 취업 기회를 얻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2) 더 좋은 진학 기회를 얻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3) 다양한 학문적 경험을 위해서	①	②	③	④	⑤
4)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의 교류를 위해	①	②	③	④	⑤
5) 외국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6) 자국에서의 대학 진학이 어려워서	①	②	③	④	⑤
7) 기타 : _____	①	②	③	④	⑤

2. 한국을 유학 국가로 선택한 이유로 다음 각 항목이 어느 정도 중요했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학비(교육비)가 적절해서	①	②	③	④	⑤
2) 생활비가 적절해서	①	②	③	④	⑤
3) 본인이 원하는 전공분야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①	②	③	④	⑤
4) 졸업 후 본국에서의 취업기회 획득에 유리해서	①	②	③	④	⑤
5) 졸업 후 한국에서의 취업기회 획득에 유리해서	①	②	③	④	⑤
6) 유학중 아르바이트(part-time job)를 구하기 쉬워서	①	②	③	④	⑤
7) 한국에 친지·친척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①	②	③	④	⑤
8) 본국에서 거리상 비교적 가까운 국가이므로	①	②	③	④	⑤
9) 비자 발급 등 유학 절차가 비교적 쉬워서	①	②	③	④	⑤
10) 다른 국가에 비해 치안 및 안전이 우수해서	①	②	③	④	⑤
11) 한류에 따라 한국의 문화·언어를 배우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12) 기타 : _____	①	②	③	④	⑤

3. 현재 재학하는 대학을 선택할 때 다음 각 항목이 어느 정도 중요했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 하지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유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이 잘 되고 있어서	①	②	③	④	⑤
2) 유학생에 대한 생활비 지원이 잘 되고 있어서	①	②	③	④	⑤
3) 대학의 순위(ranking) 또는 평판도가 높아서	①	②	③	④	⑤
4) 교육과정 및 교수진이 우수하므로	①	②	③	④	⑤
5) 영어강의 강화 수가 많아서	①	②	③	④	⑤
6) 부모님, 친척, 선배 등이 추천해서	①	②	③	④	⑤
7) 고등학교 선생님이 추천해서	①	②	③	④	⑤
8) 유학원에서 추천해서	①	②	③	④	⑤
9) 입학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①	②	③	④	⑤
10) 홍보 등을 통해 평소에 많이 들어봐서	①	②	③	④	⑤
11) 기타 : _____	①	②	③	④	⑤

4. 유학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가장 도움이 된 순서대로 3개를 골라 해당 번호를 써 주십시오.

	4-1) 1순위	4-2) 2순위	4-3) 3순위
해당 번호			

- ① 본국의 유학원
- ② 고교 진학 상담 교사
- ③ 한국 유학 경험이 있는 선배·친척·지인
- ④ 본국에 방문한 한국 측의 유학 박람회·설명회
- ⑤ 본국의 교육 관련 정부기관 또는 유관기관
- ⑥ 한국의 유학 관련 종합 정보 시스템
- ⑦ 인터넷, 브로슈어, 각종 광고
- ⑧ 본인이 전공하는 분야에서 유명한 교수
- ⑨ 현재 유학하고 있는 대학에 다니는 한국 학생
- ⑩ 본국에서 다니던 대학의 국제업무 담당 부서

5. 한국에서 유학생생활을 해본 후 유학 전에 알았(들었)던 정보와 크게 다르게 느낀 순서대로 3개를 골라 해당 번호를 써 주십시오.

	5-1) 1순위	5-2) 2순위	5-3) 3순위
해당 번호			

- ① 주거 및 숙소의 지원
- ② 학비 및 생활비 지원
- ③ 생활비의 및 물가에 관한 정보
- ④ 대학의 평판도
- ⑤ 교육과정의 내용 및 질
- ⑥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제도
- ⑦ 의료, 건강 및 복지 제도

II. 입학 전 유학 준비

6. 다음의 한국어 공부 방법 중 본인에게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을 골라 ✓표시해 주십시오.

- ① 본국에서 개인적으로 다닌 학원 또는 교습소
- ② 유학원에 소속된 한국어 프로그램 이수
- ③ 본국 대학에서 어학(한국어) 프로그램 이수
- ④ 현재 다니고 있는 한국 대학의 한국어학당(원)
- ⑤ 자습 및 독학
- ⑥ 기타 : _____

7. 입학 직전 단계에서 지원이 가장 필요한 순서대로 3개를 골라 해당 번호를 써 주십시오.

	7-1) 1순위	7-2) 2순위	7-3) 3순위
해당 번호			

- ① 각종 학교시설 및 기자재 사용 안내
- ② 학사 관련 정보 제공
- ③ 학교생활을 위한 각종 행정 지원 서비스 정보
- ④ 전공이수에 필요한 예비(사전) 교육
- ⑤ 한국어 교육 및 학습
- ⑥ 한국 문화 교육 (에티켓, 생활 방식 등)
- ⑦ 의료 및 복지 정보 제공
- ⑧ 숙소 및 주거 정보 제공
- ⑨ 멘토링 및 튜터링 지원
- ⑩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정보 제공

8. 입학 직전 단계에서 다음 항목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지원되었습니까?

	전혀 지원 안됨	지원 안됨	보통	지원됨	매우 잘 지원됨
1) 각종 학교시설 및 기자재 사용 안내	①	②	③	④	⑤
2) 학사 관련 정보 제공	①	②	③	④	⑤
3) 학교생활을 위한 각종 행정 지원 서비스 정보	①	②	③	④	⑤
4) 전공이수에 필요한 예비(사전) 교육	①	②	③	④	⑤
5) 한국어 교육 및 학습	①	②	③	④	⑤
6) 한국 문화 교육 (에티켓, 생활 방식 등)	①	②	③	④	⑤
7) 의료 및 복지 정보 제공	①	②	③	④	⑤
8) 숙소 및 주거 정보 제공	①	②	③	④	⑤
9) 멘토링 및 튜터링 지원	①	②	③	④	⑤
10)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정보 제공	①	②	③	④	⑤
11) 기타 : _____	①	②	③	④	⑤

Ⅲ. 재학 중 학업 및 생활

9.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문항 11 으로 이동)

- ① 기숙사
- ② 기숙사 외에 학교가 마련한 숙소
- ③ 원룸, 오피스텔 및 고시원 등 자취
- ④ 하숙
- ⑤ 자택 (부모님 또는 본인 소유의 집)
- ⑥ 친척 및 친지 집
- ⑦ 기타 : _____

10. 기숙사 외의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기숙사 수가 부족해서
- ② 기숙사의 생활 규칙이 너무 엄격해서(통금 등)
- ③ 다른 사람과의 공동생활이 불편해서
- ④ 기숙사의 시설 및 여건이 열악해서
- ⑤ 기숙사 비용이 비싸서
- ⑥ 기타 : _____

11. 본인의 유학을 위해 자국으로부터 1년 동안 송금되는 총액을 표시해 주십시오. (자국에서 본인 또는 소속 대학으로 지급되는 각종 장학금 지원 포함 / 한국정부지원 장학금 제외)

- ① 1,000만 원 미만
- ② 1,000만 원 이상 ~ 1,500만 원 미만
- ③ 1,5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미만
- ④ 2,000만 원 이상 ~ 2,500만 원 미만
- ⑤ 2,5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⑥ 3,000만 원 이상

12. 한국에서 한 달 생활비로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월세 등 숙소로 인한 지출 포함)

- ① 40만 원 미만
- ② 40만 원 이상 ~ 60만 원 미만
- ③ 60만 원 이상 ~ 80만 원 미만
- ④ 80만 원 이상 ~ 100만 원 미만
- ⑤ 100만 원 이상

13. 현재 학업 외에 어떤 유형의 직업 활동(취업 및 아르바이트)을 하고 있습니까? (중복체크 가능)
(②, ④ 번 응답자 → 문15번으로 갈 것)

- ① 교내 시간제
- ② 교내 전일제
- ③ 교외 시간제
- ④ 교외 전일제
- ⑤ 직업 활동은 전혀 하지 않음

14.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 정도 직업 활동(아르바이트 등)을 하는지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20시간 이상
1) 교내	①	②	③	④	⑤
2) 교외	①	②	③	④	⑤

15.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 정도 학습 활동(예습·복습 및 과제)을 하는지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20시간 이상
1) 예습·복습	①	②	③	④	⑤
2) 과제 수행	①	②	③	④	⑤

16. 한국어 및 영어 강의 수업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 한국어 강의	①	②	③	④	⑤
2) 영어 강의	①	②	③	④	⑤

17. 수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각 항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상관 없음	상관 없음	보통	상관 있음	매우 상관 있음
1) 나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서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영어 능력이 부족해서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선행학습 또는 기초학습이 부족해서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예습·복습을 하지 않아서	①	②	③	④	⑤
5) 교수 및 강사의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①	②	③	④	⑤
6) 수업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서	①	②	③	④	⑤
7) 전공 특성상 수업 내용이 어려워서	①	②	③	④	⑤
8) 기타 : _____	①	②	③	④	⑤

18. 다음 각 사항들에 대해 지도교수와 어느 정도 의논하고 있습니까?

	전혀 의논 하지 않음	의논 하지 않음	보통	의논함	매우 자주 의논함
1) 과목 선택 및 수강신청	①	②	③	④	⑤
2) 시험 및 성적	①	②	③	④	⑤
3) 수업 내용 및 과제 수행	①	②	③	④	⑤
4) 진학 및 취업 등 진로 지도	①	②	③	④	⑤
5) 교수·학습 외 개인 생활 지도	①	②	③	④	⑤
6) 기타 : _____	①	②	③	④	⑤

19. 교수 외의 학교 구성원들과 어느 정도 상호 작용(교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교류 없음	교류 없음	보통	교류함	매우 자주 교류함
1) 같은 학교의 한국 대학생	①	②	③	④	⑤
2) 같은 국가 출신의 유학생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국가 출신의 유학생	①	②	③	④	⑤
4) 행정 직원 및 국제 업무 담당 직원	①	②	③	④	⑤

20. 한국 유학생생활을 통해 느낀 학업과 생활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학업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2) 생활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21. 다음의 학업 관련 항목들에 대해 유학생생활을 통해 경험한 만족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만족하지 못함	만족 하지 못함	보통	만족함	매우 만족함
1) 우리 대학의 등록금 및 교육비 수준	①	②	③	④	⑤
2)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혜택	①	②	③	④	⑤
3) 교육과정의 구성 및 내용	①	②	③	④	⑤
4) 교수 및 강사의 수업의 질	①	②	③	④	⑤
5) 영어 강의의 질적 수준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대학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6) 유학생에 대한 학업 지원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7) 학문 및 학업적 성취	①	②	③	④	⑤
8)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	①	②	③	④	⑤
9) 실험실습 및 교육 관련 기자재	①	②	③	④	⑤
10) 학교 시설 및 교육 여건 조성	①	②	③	④	⑤
11) 각종 행정 지원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12) 심리 상담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13) 직업 및 진로 지도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대학의 각종 문화 행사	①	②	③	④	⑤

22. 다음의 생활 관련 항목들에 대해 유학생생활을 통해 경험한 만족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만족하지 못함	만족 하지 못함	보통	만족함	매우 만족함
1) 주거 및 숙소(housing) 구하기	①	②	③	④	⑤
2) 교내 일자리 얻기(on-campus)	①	②	③	④	⑤
3) 교외 일자리 얻기(off-campus)	①	②	③	④	⑤
4) 기숙사의 시설 및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5) 안전·치안	①	②	③	④	⑤
6) 의료·건강 관련 제도	①	②	③	④	⑤
7) 출입국·체류 관련 각종 법률 지원	①	②	③	④	⑤
8)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	①	②	③	④	⑤
9) 생활비의 적정성 (물가)	①	②	③	④	⑤
10)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이웃, 친구 사귀기)	①	②	③	④	⑤
11) 한국 문화 체험 기회	①	②	③	④	⑤

23. 한국 유학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위의 23번 문항에서 ③~⑤에 체크하신 분은 25번 문항으로 가시오.)

- ① 절대 추천하지 않겠다.
- ②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추천할 만하다.
- ⑤ 적극적으로 추천하겠다.

24. 추천하고 싶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5. 유학생활을 하면서 차별을 느낀 적이 있다면 어떤 대상으로부터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차별이 심함	차별이 심함	보통	차별 없음	전혀 차별 없음
1) 같은 학과 친구 또는 룸메이트	①	②	③	④	⑤
2) 교수 및 강사	①	②	③	④	⑤
3) 행정 직원	①	②	③	④	⑤
4) 같은 학교 한국 대학생	①	②	③	④	⑤
5) 다른 나라 출신의 외국인 유학생	①	②	③	④	⑤
6) 학교 밖에서 만나는 일반 한국인	①	②	③	④	⑤
7) 기타 : _____	①	②	③	④	⑤

26. 유학생활을 하면서 차별을 느낀 적이 있다면 어떤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차별이 심함	차별이 심함	보통	차별 없음	전혀 차별 없음
1) 성별	①	②	③	④	⑤
2) 국적	①	②	③	④	⑤
3) 인종	①	②	③	④	⑤
4) 종교	①	②	③	④	⑤
5) 한국어 능력	①	②	③	④	⑤
6) 영어 능력	①	②	③	④	⑤
7) 기타 : _____	①	②	③	④	⑤

27. 한국 유학생활을 통해 다음의 각 항목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성과 없음	성과 없음	보통	성과 있음	매우 성과 있음
1) 다양한 학문적 경험	①	②	③	④	⑤
2) 더 좋은 취업 기회 확보	①	②	③	④	⑤
3) 더 좋은 진학 기회 확보	①	②	③	④	⑤
4)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의 교류	①	②	③	④	⑤
5) 외국어 역량 확대	①	②	③	④	⑤
6) 기타 :	①	②	③	④	⑤

IV. 졸업 후 계획

30. 다음 중 본인의 졸업 후 계획에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 ① 한국에서의 진학 ⑤ 본국에서의 취업
- ② 본국에서의 진학 ⑥ 다른 국가에서의 취업
- ③ 다른 국가에서의 진학 ⑦ 아직 계획 없음
- ④ 한국에서의 취업 ⑧ 기타 : _____

31. 유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다음 중 어떤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유학생에 대한 인턴십 기회 확대
- ② 한국 및 외국의 취업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
- ③ 대학-기업-지역사회가 연계한 취업 관련 각종 행사 확대(설명회, 박람회 포함)
- ④ 지도교수의 취업 지도 역할 확대
- ⑤ 기타 : _____

32.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원 진학을 위해 다음 중 어떤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등록금 및 교육비에 대한 재정 지원
- ② 영어 강의 개설 확대
- ③ 국제 사회에서 한국 대학의 경쟁력(평판도) 강화
- ④ 유학생에 대한 학업 지원(예비·보충 학습 등) 서비스 강화
- ⑤ 기타 : _____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영문 설문조사지

International Students Survey

Dear international students

Thank you for participating in this international students survey. As a comprehensive survey on international students studying in Korea, This research, a Research on Improving the International Education System in Korea, is currently being conducted by the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KEDI)**. It's purpose is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students studying in Korea and suggesting policy alternatives to improve the international education system in Korea.

Your participation will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to the Korean Government an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on the experience international students. This survey will take approximately 15-20 minutes to complete. All your answers will be kept strictly **confidential**.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 !

July, 2012

The President of KEDI

※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refer to the following information.

◎ Address : The Office of Higher Education Research, KEDI 35, Baumoe-Ro, 1-Gil,
Seocho-Gu, Seoul

◎ Tel/Email : Nakyung Yoon(02-3460-0391 / nk0504@kedi.re.kr) Sul Ki Choi(02-3460-0230
/ seulki@kedi.re.kr)

6. Academic Field

- ① Humanities & Social Sciences ② Engineering ③ Natural Sciences
 ④ Medical Sciences & Pharmacy ⑤ Arts & Physical Education

7. Which semester have you completed at your university?

- ① the 1st semester ⑤ the 5th semester
 ② the 2nd semester ⑥ the 6th semester
 ③ the 3rd semester ⑦ the 7th semester
 ④ the 4th semester ⑧ over the 8th semester

8. The type of funding for your studying in Korea

- ① Self-paying
 ② Funded by your university
 ③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④ Funded by the government of home country
 ⑤ Others :

9. Grade Point Average (GPA) (as of first semester 2012) (Ex : I got 3.2 Out of 4.5)

I got . out of .

10. The Level of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TOPIK)'

- ① Level 5~6
 ② Level 3~4
 ③ Level 1~2
 ④ I have not taken TOPIK yet.
 ⑤ I do not have to take TOPIK.

I . Choosing Destination and University

1. Please tick(✓) the number that represents how important you felt about followings when deciding to study abroad.

	Very Unimportant	Unimportant	Moderately Important	Important	Very Important
1) To get better job opportunities	①	②	③	④	⑤
2) To apply for admission to a school of higher grade	①	②	③	④	⑤
3) To experience academic diversity	①	②	③	④	⑤
4) To build relationships with people from diverse cultures and backgrounds	①	②	③	④	⑤
5) To improve my foreign language skill	①	②	③	④	⑤
6) Due to the difficulties in going to college in my home country	①	②	③	④	⑤
7) others : _____	①	②	③	④	⑤

2. Please tick(✓) the number that represents how important you felt about followings when choosing to study in Korea.

	Very Unimportant	Unimportant	Moderately Important	Important	Very Important
1) Lower costs of studying compared to other countries	①	②	③	④	⑤
2) Lower costs of living compared to other countries	①	②	③	④	⑤
3) Better Competitiveness in my academic field compared to other country	①	②	③	④	⑤
4) For Better job opportunities in my home country after graduation	①	②	③	④	⑤
5) For Better job opportunities in other countries after graduation	①	②	③	④	⑤
6) Ease of finding a part-time job while studying	①	②	③	④	⑤
7) I have relatives in Korea,	①	②	③	④	⑤
8) Korea is geographically close to my home country	①	②	③	④	⑤
9) Ease of visa application procedure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①	②	③	④	⑤
10) Korea is safe compared to other countries,	①	②	③	④	⑤
11) To experience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o meet the 'Korean wave'	①	②	③	④	⑤
12) Others : _____	①	②	③	④	⑤

3. Please tick(✓) the number that represents how important you felt about followings when choosing your current university.

	Very Unimportant	Unimportant	Moderately Important	Important	Very Important
1) Financial support for the cost of studying	①	②	③	④	⑤
2) Financial support for the cost of living	①	②	③	④	⑤
3) University ranking and reputation	①	②	③	④	⑤
4) Quality of curriculum and faculty	①	②	③	④	⑤
5) Number of English mediated courses	①	②	③	④	⑤
6) Recommendation of parents, relatives or alumni	①	②	③	④	⑤
7) Recommendation of high school guidance counselor or teacher	①	②	③	④	⑤
8) Agencies for studying abroad	①	②	③	④	⑤
9) Lower admission standards	①	②	③	④	⑤
10) Publicity	①	②	③	④	⑤
11) Others : _____	①	②	③	④	⑤

4. Which information source was most helpful to you when you were trying to get information about studying in Korea? Please choose three in descending order.

	4-1) 1st	4-2) 2nd	4-3) 3rd
No. of below			

- ① Agencies for studying abroad
- ② Counselor or teacher in high school
- ③ Family members or senior who have studied in Korea
- ④ Study abroad fair at home country
- ⑤ Government agencies home country
- ⑥ Total information system provided by Korea
- ⑦ Internet, brochure and any kinds of advertising
- ⑧ Renowned professor in the academic field that you want to study
- ⑨ Korean students attending your university
- ⑩ International affair office in your home university

5. Staying in Korea, which of the followings do you realise was the most inaccurate information you got before coming to Korea? Please choose three in descending order.

	5-1) 1st	5-2) 2nd	5-3) 3rd
No. of below			

- ① Housing and accommodation support
- ② Financial support for the cost of studying (e.g. tuition fee, scholarship, grants and other financial aid)
- ③ Financial support for the cost of living (e.g. food, accommodation, goods and service)
- ④ The reputation of my university
- ⑤ The contents of the educational program and its quality
- ⑥ The systems of immigration and staying
- ⑦ The health system and medical the health and medical care system

II. THE PREPARATION BEFORE ENTRANCE

6. Which of the followings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study Korean language to you?

- ① Language course provided by private language institute in home country
- ② Language course provided by the agency for studying abroad in home country
- ③ Language course provided by the university in home country
- ④ Language course provided by your university in Korea
- ⑤ Self-study or independent study
- ⑥ Others : _____

7. Which of the followings should be most supported before you enter the university? Please choose three in descending order.

	7-1) 1st	7-2) 2nd	7-3) 3rd
No. of below			

- ① How to use university facilities and equipment
- ② Information on academic affairs
- ③ Information on administrative support
- ④ Information on graduation requirement
- ⑤ Education on Korean language
- ⑥ Education of on Korean culture (e.g. manners, lifestyle)
- ⑦ Information of health and medical Health and medical care information
- ⑧ Housing and accommodation information
- ⑨ Mentoring and tutoring programs
- ⑩ Information on immigration and staying

8. Since arriving in Korea, how well was each type of information supported?

	Need a lot of improvement	Need some Moderate	Moderate	Good	Excellent
1) How to use university facilities and equipment	①	②	③	④	⑤
2) Information on academic affairs	①	②	③	④	⑤
3) Information on administrative support	①	②	③	④	⑤
4) Information on graduation requirement	①	②	③	④	⑤
5) Education on Korean language	①	②	③	④	⑤
6) Education on Korean culture (e.g. manners, lifestyle)	①	②	③	④	⑤
7) Health and medical care information	①	②	③	④	⑤
8) Housing and accommodation information	①	②	③	④	⑤
9) Mentoring and tutoring programs	①	②	③	④	⑤
10) Information on immigration and staying	①	②	③	④	⑤
11) Others : _____	①	②	③	④	⑤

III. Managing Academic and Social Life in Korea

9. Where do you live at the moment? (If you live in dormitory, please go to question 11)

- ① In dormitory (on campus)
- ② In student accommodation (e.g. off campus and/or provided by your institution)
- ③ In private rental accommodation (e.g. one-room, officetel)
- ④ In boarding house
- ⑤ In my house (owned by my parents or me)
- ⑥ In my relative's
- ⑦ Others : _____

10. If you live in other than dormitory, what are your reasons for that?

- ① Dormitory shortage
- ② Rigid rules
- ③ Inconveniences of living with other people
- ④ Poor facilities
- ⑤ High boarding fee
- ⑥ Others : _____

11. Approximately how much do you have a remittances from your home country per year for your studying and living in Korea including any kinds of financial aid from home country? (any kinds of financial aids from Korean government and/or university not included)

- ① Under 10 million won
- ② Over 10 million won ~ under 15 million won
- ③ Over 15 million won ~ under 20 million won
- ④ Over 20 million won ~ under 25 million won
- ⑤ Over 25 million won ~ under 30 million won
- ⑥ Over 30 million won

12. Approximately how much does it cost living in Korea for one month?

(including rent or boarding fee, etc.)

- ① Under 400,000 won
- ② Over 400,000 won ~ under 600,000 won
- ③ Over 600,000 won ~ under 800,000 won
- ④ Over 800,000 won ~ under 1 million won
- ⑤ Over 1 million won

13. Are you currently working? Multiple items can be chosen.

(②, ④ → Please go to question 15.)

- ① part time - on campus
- ② full time - on campus
- ③ part time - off campus
- ④ full time - off campus
- ⑤ I'm not currently working

14. How many hours do you work per week on average?

	Under 5 hours	over 5 hours ~under 10 hours	over 10 hours ~under 15 hours	over 15 hours ~under 20 hours	over 20 hours
1) On campus	①	②	③	④	⑤
2) Off campus	①	②	③	④	⑤

15. How many hours do you study per week on average?

	Under 5 hours	over 5 hours ~under 10 hours	over 10 hours ~under 15 hours	over 15 hours ~under 20 hours	over 20 hours
1) Prepare & review	①	②	③	④	⑤
2) Assignment	①	②	③	④	⑤

16. How well do you think you understand Korean mediated courses and English mediated courses?

	Under 20%	over 20% ~under 40%	over 40% ~under 60%	over 60% ~under 80%	over 80%
1) Korean	①	②	③	④	⑤
2) English	①	②	③	④	⑤

17. In case that you think it isn't easy to keep up with Korean or English mediated courses, Please tick(✓) the number that represents how decisive you think following factors are.

	Not decisive at all	Not decisive	Moderately decisive	Decisive	Very Decisive
1) Lack of Korean language competency	①	②	③	④	⑤
2) Lack of English language competency	①	②	③	④	⑤
3) Lack of prerequisite learning	①	②	③	④	⑤
4) Lack of lesson preparation and review	①	②	③	④	⑤
5) Lack of English speaking proficiency of lecturers	①	②	③	④	⑤
6) The pace of the class is too fast.	①	②	③	④	⑤
7) Difficult field of study	①	②	③	④	⑤
8) Others : _____	①	②	③	④	⑤

18. How often do you have interaction with your professors for each of the following issues? Please tick(✓) the number.

	Never	Rarely	Sometimes	Very often	Always
1) Course selection and/or registration	①	②	③	④	⑤
2) Test and/or grade	①	②	③	④	⑤
3) Classwork and/or assignment	①	②	③	④	⑤
4) Career guidance	①	②	③	④	⑤
5) Personal life	①	②	③	④	⑤
6) Others : _____	①	②	③	④	⑤

19. How often do you have interaction with the people in the university for each of the following cases? Please tick(✓) the number.

	Never	Rarely	Sometimes	Very often	Always
1) Korean students	①	②	③	④	⑤
2) International students form your country	①	②	③	④	⑤
3) International students form other countries	①	②	③	④	⑤
4) Staff in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 and /or Administration	①	②	③	④	⑤

20. Please tick(✓) the number that represents how satisfied you are with your academic and social life.

	Very Dissatisfied	Dissatisfied	Moderate	Satisfied	Very Satisfied
1) Academic life	①	②	③	④	⑤
2) Social life	①	②	③	④	⑤

21. Please tick(✓) the number that represents how satisfied you are with each of followings while studying in Korea.

	Very Dissatisfied	Dissatisfied	Moderate	Satisfied	Very Satisfied
1) Cost of education of the university	①	②	③	④	⑤
2) Scholarship, grant and other financial aids	①	②	③	④	⑤
3) Quality of Curriculum	①	②	③	④	⑤
4) Quality of faculty	①	②	③	④	⑤
5) Quality of English mediated classes	①	②	③	④	⑤
5) Korean language course of the university	①	②	③	④	⑤
6) Academic support service (e.g. tutoring, mentoring services)	①	②	③	④	⑤
7) Academic achievement	①	②	③	④	⑤
8) Acquisition of knowledge and skills for employment requirements	①	②	③	④	⑤
9) Condition of educational facilities and equipments	①	②	③	④	⑤
10) Condition of university facilities	①	②	③	④	⑤
11) Helpfulness of the service of administration office	①	②	③	④	⑤
12) Psychological counseling service	①	②	③	④	⑤
13) Career guidance service	①	②	③	④	⑤
14) Diversity of cultural event	①	②	③	④	⑤

22. Please tick(✓) the number that represents how satisfied you are with each of followings while living in Korea.

	Very Dissatisfied	Dissatisfied	Moderate	Satisfied	Very Satisfied
1) Looking for accommodations	①	②	③	④	⑤
2) On-campus work opportunities	①	②	③	④	⑤
3) Off-campus work opportunities	①	②	③	④	⑤
4) Dormitory facilities and services	①	②	③	④	⑤
5) Public safety	①	②	③	④	⑤
6) Health and medical care system	①	②	③	④	⑤
7) Legal service of immigration and staying	①	②	③	④	⑤
8) Social attitudes towards international students	①	②	③	④	⑤
9) Cost of living affordability	①	②	③	④	⑤
10) Social network (relationship with friends)	①	②	③	④	⑤
11) Opportunities to experience Korean culture	①	②	③	④	⑤

23. Would you recommended studying in Korea to your friends or family in your home country?

(※ If you check ③ ~ ⑤ in question 23, please go to question 25)

- ① I would never recommend it
- ② I would not like to recommend it.
- ③ I'm not sure.
- ④ I'd like to recommend it.
- ⑤ I would strongly recommend it.

24. If you don't want to recommend studying in Korea, what are your reasons for that?

25. Have you ever been unfairly treated by anyone of the followings in Korea?

	Very Unfairly	Unfairly	Moderate	fairly	Very Fairly
1) Classmates and/or roommates	①	②	③	④	⑤
2) Faculty	①	②	③	④	⑤
3) Administration office staff	①	②	③	④	⑤
4) Korean students in your university	①	②	③	④	⑤
5) International students from other countries	①	②	③	④	⑤
6) Korean(in general)	①	②	③	④	⑤
7) Others : _____	①	②	③	④	⑤

26. Please tick(✓) the number that represents how unfairly you have been treated due to each factor of followings.

	Very Unfairly	Unfairly	Moderate	fairly	Very Fairly
1) Gender	①	②	③	④	⑤
2) Nationality	①	②	③	④	⑤
3) Race	①	②	③	④	⑤
4) Religion	①	②	③	④	⑤
5) Korean language competency	①	②	③	④	⑤
6) English language competency	①	②	③	④	⑤
7) Others : _____	①	②	③	④	⑤

27. Please tick(✓) the number that represents how successfully you think you have accomplished each of the followings since you first came to Korea.

	Not at all successful	Not successful	Moderate	successful	Very successful
1) I have experienced academic diversity	①	②	③	④	⑤
2) I got better job opportunities.	①	②	③	④	⑤
3) I got better academic opportunities.	①	②	③	④	⑤
4) I have built relationships with people of different background	①	②	③	④	⑤
5) My foreign language competency has improved.	①	②	③	④	⑤
6) Others : _____	①	②	③	④	⑤

IV. After Graduate

30. What are you most likely to do after completing your course?

- ① Further education in Korea
- ② Further education in home country
- ③ Further education in other countries
- ④ Pursue a career in Korea
- ⑤ Pursue a career in home country
- ⑥ Pursue a career in other countries
- ⑦ I don't have a definite plan yet
- ⑧ Others : _____

31. Which service should be provided further to improve international students' career development?

- ① Expand internship opportuniti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 ② Provide more information about working in Korea or other countries
- ③ Provide more events held by university-industrial-local community alliance
(including job fairs or information sessions etc.)
- ④ Offer more career guidance from academic advisors (or professors)
- ⑤ Others : _____

32. Which service should be provided further to support international students to go to graduate school?

- ① Provide more financial aid such as scholarship, grants and loan etc.
- ② Offer more English medium instructions
- ③ Rais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reputation) of Korean universities
- ④ Strengthen the academic support service (such as prerequisite learning and/or compensatory learning)
- ⑤ Others : _____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

3. 중문 설문조사지

关于支援在韩外国留学生情况的问卷调查

你好!

韩国教育开发院为了了解大学中的外国留学生生活和韩国的留学情况，并改善对外国留学生的支援方式以及提高大学的国际化水平，针对外国留学生进行有关<大学中的外国留学生管理及留学生支援系统的加强方案>研究。因此为了了解留学生对学业和生活的满足程度关于<支援在韩外国留学生情况>进行问卷调查。

我们以留学生的问卷调查为基础进行此项研究，以求改善对留学生的支援环境，敬请各位合作。该调查大约需要10~15分钟，调查结果仅限于学术研究。谢谢!

2012年 7月

韩国教育开发院院长

※ 关于此次调查有什么问题，请拨打以下联络电话

◎ 问讯处：韩国教育开发院 未来高等教育研究本部 高等教育研究室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1길 35(우면동)

◎ 负责人：윤나경(02-3460-0391 / nk0504@kedi.re.kr)

최슬기(02-3460-0230 / seulki@kedi.re.kr)

※以下的內容是關於個人經歷的問題。

1. 大學名字 (若自己的大學是分校的話, 請記載學院的所在地)

_____ 大學 (_____ 學院)

2. 性別

- ① 男性 ② 女性

3. 年齡

- ① 18歲 以下 ② 19-20歲 ③ 21-22歲 ④ 23-24歲 ⑤ 25歲以上

4. 出生地區與國家

4-1. 地區	4-2. 國家					
① 亞洲	① 中國	② 日本	③ 越南	④ 台灣	⑤ 蒙古	⑥ 其他:
② 北美	① 美國	② 加拿大	⑥ 其他:			
③ 非洲	① 坦桑尼亞	② 尼日利亞	③ 喀麥隆	④ 肯尼亞	⑤ 埃塞俄比亞	⑥ 其他:
④ 歐洲	① 俄羅斯	② 法國	③ 德國	④ 英國	⑤ 西班牙	⑥ 其他:
⑤ 南美	① 巴西	② 墨西哥	③ 危地馬拉	④ 哥倫比亞	⑤ 阿根廷	⑥ 1 其他:
⑥ 大洋洲	① 澳大利亞	② 新西蘭				

5. 您已經在韓國多長時間了?

- ① 不到1年
 ② 1年到2年
 ③ 2年到3年
 ④ 3年到4年
 ⑤ 4年以上

6. 专业

- ① 人文社会系列
- ② 工学系列
- ③ 自然系列
- ④ 医药系列
- ⑤ 艺术和体育系列

7. 入学后在读几个学期?(不包括2012年第二学期)

- ① 1学期
- ② 2学期
- ③ 3学期
- ④ 4学期
- ⑤ 5学期
- ⑥ 6学期
- ⑦ 7学期
- ⑧ 8学期 以上

8. 留学的方式

- ① 自费留学
- ② 韩国大学留学邀请
- ③ 韩国政府留学邀请
- ④ 自己国家公派的留学(自国的国费留学)
- ⑤ 其他 : _____

9. 前学期成绩(以2012年 第一学期为标准) (* 例 : 3.2 分 / 4.5满分)

□.□ 分 / □.□ 满分

10. TOPIK(韩国语能力考试) 等级

- ① 5~6级
- ② 3~4级
- ③ 1~2级
- ④ 还没参加考试
- ⑤ 不需要TOPIK成绩

I. 留学国家以及学校选择

1. 个人以留学为目的, 请标出以下事项的重要程度

	根本 不重要	不重要	一般	重要	非常 重要
1) 得到更好的就业机会	①	②	③	④	⑤
2) 得到更好的升学机会	①	②	③	④	⑤
3) 得到多种多样的学文经验	①	②	③	④	⑤
4) 与不同文化背景的人交流	①	②	③	④	⑤
5) 提高外语能力	①	②	③	④	⑤
6) 在自己国家不容易上学	①	②	③	④	⑤
7) 其他 : _____	①	②	③	④	⑤

2. 个人以韩国选为留学国家, 请标出以下事项的重要程度

	根本 不重要	不重要	一般	重要	非常 重要
1) 学费比较适当	①	②	③	④	⑤
2) 生活费比较适当	①	②	③	④	⑤
3) 自己所选择的专业在韩国具有竞争力	①	②	③	④	⑤
4) 将来在自己的国家, 就业前景好	①	②	③	④	⑤
5) 将来在韩国, 就业前景好	①	②	③	④	⑤
6) 在留学生活中容易打工	①	②	③	④	⑤
7) 亲戚居住在韩国	①	②	③	④	⑤
8) 离自己的国家比较近	①	②	③	④	⑤
9) 留学签证程序比较容易	①	②	③	④	⑤
10) 与别的国家相比更安全	①	②	③	④	⑤
11) 因为韩流的影响, 学习韩国的文化和语言	①	②	③	④	⑤
12) 其他 : _____	①	②	③	④	⑤

3. 你选择现在的大学时, 请标出以下事项的重要程度

	根本 不重要	不重要	一般	重要	非常 重要
1) 学校对留学生学费方面提供帮助	①	②	③	④	⑤
2) 学校对留学生生活费方面提供帮助	①	②	③	④	⑤
3) 大学级别和评价比较高	①	②	③	④	⑤
4) 教育过流好, 优秀的教授多	①	②	③	④	⑤
5) 英语课程比较多	①	②	③	④	⑤
6) 父母, 亲戚, 学友推荐	①	②	③	④	⑤
7) 高中老师推荐	①	②	③	④	⑤
8) 留学中介机构推荐	①	②	③	④	⑤
9) 留学条件不太苛刻	①	②	③	④	⑤
10) 通过广告等的媒体, 平时经常接触到	①	②	③	④	⑤
11) 其他: _____	①	②	③	④	⑤

4. 你搜集留学信息的时候, 为你提供帮助的事项是什么? 请看下面的内容, 按你认为重要的顺序, 各选三项。

	4-1) 第一	4-2) 第二	4-3) 第三
选择的号码			

- ① 自己国家的留学中介机构
- ② 高中的升学指导老师
- ③ 在韩国有过留学经验的学友, 亲戚, 朋友
- ④ 韩方到自己国家进行的博览会和说明会
- ⑤ 自己国家的有关教育的政府机构
- ⑥ 有关韩国留学的综合信息系统
- ⑦ 因特网, 小册子等各种广告
- ⑧ 自己的专业方面的著名教授
- ⑨ 现在大学的韩国学生
- ⑩ 在自己的国家上大学时的国际业务负责部门

5. 在韩国的实际留学生生活与留学之前所听到的韩国生活有什么不同? 请看下面的内容, 按你认为不同的顺序, 各选三个。

	5-1) 第一	5-2) 第二	5-3) 第三
选择的号码			

- ① 居住和宿舍的提供
- ② 学费和生活费的提供
- ③ 有关生活费 and 物价的信息
- ④ 大学的级别
- ⑤ 教育流程的内容和质量
- ⑥ 有关出入境和滞留的制度
- ⑦ 医疗, 健康和福利制度

II. 入学之前的留学准备

6. 下面的韩语学习方法当中对自己最为有效的方法是什么?

- ① 自己国家的培训班和补习班
- ② 参加留学中介机构的韩语课程
- ③ 参加本国大学的韩语课程
- ④ 参加现在韩国大学的韩语课程
- ⑤ 自学
- ⑥ 其他: _____

7. 入学之前, 最需要哪些方面的帮助? 按你认为需要的帮助顺序, 各选三个。

	7-1) 第一	7-2) 第二	7-3) 第三
选择的号码			

- ① 各种学校的设施及器材的使用说明
- ② 提供关于本科方面的信息
- ③ 学校生活当中所需要的各种行政方面的信息
- ④ 对于专业知识的基本体系完善
- ⑤ 充实韩语基础
- ⑥ 韩国文化教育(礼节, 生活方式等)
- ⑦ 提供医疗和福利方面的信息
- ⑧ 提供宿舍和居住方面的信息
- ⑨ 提供专业, 语言和生活方面的帮助(辅导)
- ⑩ 提供有关出入境和滞留方面的信息

8. 请标出入学之前以下各项目中实际得到帮助的程度?

	根本没得到帮助	没有得到帮助	一般	得到帮助	得到很多帮助
1) 各种学校设施及器材使用的说明	①	②	③	④	⑤
2) 提供关于本科方面的信息	①	②	③	④	⑤
3) 学校生活当中所需要的各种行政方面的信息	①	②	③	④	⑤
4) 对于专业知识的基本体系完善	①	②	③	④	⑤
5) 充实韩语基础	①	②	③	④	⑤
6) 韩国文化教育(礼节, 生活方式等)	①	②	③	④	⑤
7) 提供医疗和福利方面的信息	①	②	③	④	⑤
8) 提供宿舍和居住方面的信息	①	②	③	④	⑤
9) 提供专业, 语言和生活方面的帮助(辅导)	①	②	③	④	⑤
10) 提供有关出入境和滞留方面的信息	①	②	③	④	⑤
11) 其他: _____	①	②	③	④	⑤

Ⅲ. 上学的时候学业和生活

9. 现在你住在哪儿? (→ 如果你住在宿舍, 请按11题回答)

- ① 宿舍
- ② 除了宿舍以外学校准备的地方
- ③ 单间, 商住两用和考试院等自住
- ④ 寄宿(下宿)
- ⑤ 自己家(父母或自己拥有的家)
- ⑥ 亲戚和友人的家
- ⑦ 其他: _____

10. 如果你住在宿舍以外的地方, 其原因是什么?

- ① 宿舍的数量不够
- ② 宿舍的生活规则太严格(宵禁等)
- ③ 与别人的共同生活不方便
- ④ 宿舍的设施和环境不好
- ⑤ 宿舍的费用贵
- ⑥ 其他: _____

11. 请标出一下, 留学一年当中从本国汇款的总额。

(包括本国为个人或者韩国大学提供的各种奖学金 / 不包括韩国政府提供的奖学金)

- ① 不到韩币1,000万元
- ② 韩币1,000万元到1,500万元
- ③ 韩币1,500万元到2,000万元
- ④ 韩币2,000万元到2,500万元
- ⑤ 韩币2,500万元到3,000万元
- ⑥ 韩币3,000万元以上

12. 在韩国的一个月生活费大概有多少? (包括月租金等有关宿舍的开支)

- ① 不到韩币40万元
- ② 韩币40万元到60万元
- ③ 韩币60万元到80万元
- ④ 韩币80万元到100万元
- ⑤ 韩币100万元以上

13. 现在你除学习以外, 做哪些工作 (例: 工作, 打工)? (可以重复选择)

(②, ④ → Please go to question 15.)

- ① 校内打工(几个小时)
- ② 校内打工(整天)
- ③ 校外打工(几个小时)
- ④ 校外打工(整天)
- ⑤ 没有工作或打工

14. 你一个星期平均工作几个小时(打工等)?

分别	不到5个小时	5个小时到 10个小时	10个小时到 15个小时	15个小时到 20个小时	20个小时以上
1) 校内	①	②	③	④	⑤
2) 校外	①	②	③	④	⑤

15. 你一个星期平均学习几个小时(预习, 复习和作业等)

分别	不到5个小时	5个小时到 10个小时	10个小时到 15个小时	15个小时到 20个小时	20个小时以上
1) 预习, 复习	①	②	③	④	⑤
2) 作业	①	②	③	④	⑤

16. 请标出韩语和英语讲座的里解程度。

分别	不到20%	20%~60%	40%~ 60%	60%~80%	80% 以上
1) 韩语课程	①	②	③	④	⑤
2) 英语课程	①	②	③	④	⑤

17. 你认为哪些因素让你很难理解讲座?

	根本 没有关系	没有关系	一般	有关系	非常有关系
1) 我的韩语水平不高	①	②	③	④	⑤
2) 我的英语水平不高	①	②	③	④	⑤
3) 我的基础学习和事先学习不够	①	②	③	④	⑤
4) 我没复习, 预习	①	②	③	④	⑤
5) 教授和讲师的英语能力不高	①	②	③	④	⑤
6) 上课进行的速度太快	①	②	③	④	⑤
7) 专业的内容本身很难	①	②	③	④	⑤
8) 其他: _____	①	②	③	④	⑤

18. 以下事项你与指导教授进行交流沟通吗?

	根本 没有沟通	没有沟通	一般	沟通	经常 沟通
1) 选课	①	②	③	④	⑤
2) 考试和成绩	①	②	③	④	⑤
3) 上课内容和作业	①	②	③	④	⑤
4) 升学及就业等的问题	①	②	③	④	⑤
5) 除学习以外的个人生活	①	②	③	④	⑤
6) 其他: _____	①	②	③	④	⑤

19. 请标出一下, 你在学校里与教授以外的人有没有交流?

	根本 没有交流	有交流	一般	交流	经常交流
1) 同一个大学的韩国学生	①	②	③	④	⑤
2) 同一个国家的留学生	①	②	③	④	⑤
3) 别的国家的留学生	①	②	③	④	⑤
4) 行政职员及国际业务部门的职员	①	②	③	④	⑤

20. 关于下面留学生的生活事项, 请标出一下你对学业和生活的满足程度?

	非常不满足	不满足	一般	满足	非常 满足
1) 学业方面的满足程度	①	②	③	④	⑤
2) 生活方面的满足程度	①	②	③	④	⑤

21. 关于下面留学生的生活事项, 请标出一下你的满足程度。

	非常不满足	不满足	一般	满足	非常 满足
1) 现在大学的学费和教育费	①	②	③	④	⑤
2) 对留学生的奖学金优惠	①	②	③	④	⑤
3) 教育课程和内容	①	②	③	④	⑤
4) 教授和讲师讲课的质量	①	②	③	④	⑤
5) 英语课程的水平	①	②	③	④	⑤
5) 大学的韩语教育课程	①	②	③	④	⑤
6) 对留学生的学业辅导服务	①	②	③	④	⑤
7) 对学文和学业的成就	①	②	③	④	⑤
8) 就业时所需要的知识和技术学习	①	②	③	④	⑤
9) 实验和教育有关的器材	①	②	③	④	⑤
10) 学校设施和教育环境	①	②	③	④	⑤
11) 各种行政方面的服务	①	②	③	④	⑤
12) 心理咨询服务	①	②	③	④	⑤
13) 有关职业和前途的指导服务	①	②	③	④	⑤
14) 大学的各种文化活动	①	②	③	④	⑤

22. 关于下面留学生生活的事项, 请标出一下你的满足程度。

	非常不满足	不满足	一般	满足	非常满足
1) 找居住地和宿舍(housing)	①	②	③	④	⑤
2) 校内找工作(on-campus)	①	②	③	④	⑤
3) 校外找工作(off-campus)	①	②	③	④	⑤
4) 宿舍的设施和服务	①	②	③	④	⑤
5) 安全和治安	①	②	③	④	⑤
6) 有关医疗和健康的制度	①	②	③	④	⑤
7) 提供出入境和滞留有关的各种法律服务	①	②	③	④	⑤
8) 社会对外国人的关心和关怀	①	②	③	④	⑤
9) 生活费的适当程度 (物价)	①	②	③	④	⑤
10) 社会方面的人际关系网(与邻居, 朋友交流)	①	②	③	④	⑤
11) 体会韩国文化的机会	①	②	③	④	⑤

23. 你不想向别人推荐韩国留学?

(※你做第23题时, 若你标出 ③~⑤, 请做第25题)

- ① 绝对不推荐
- ② 不想推荐
- ③ 不知道
- ④ 值得推荐
- ⑤ 积极地推荐

24. 若你不想推荐, 其原因是什么?

25. 在韩国留学当中, 如曾遭到歧视, 请按以下事项回答

	歧视非常严重	歧视严重	一般	没有歧视	根本没有歧视
1) 同一个系的学友或者舍友	①	②	③	④	⑤
2) 教授或者讲师	①	②	③	④	⑤
3) 行政职员	①	②	③	④	⑤
4) 同一个学校的韩国大学生	①	②	③	④	⑤
5) 别的国家的外国留学生	①	②	③	④	⑤
6) 在学校外面见到的韩国人	①	②	③	④	⑤
7) 其他: _____	①	②	③	④	⑤

26. 在韩国留学当中, 如曾感受到歧视, 请在以下事项中标出所受歧视的程度。

	歧视非常严重	歧视严重	一般	没有歧视	根本没有歧视
1) 性别	①	②	③	④	⑤
2) 国籍	①	②	③	④	⑤
3) 种族	①	②	③	④	⑤
4) 宗教	①	②	③	④	⑤
5) 韩语水平	①	②	③	④	⑤
6) 英语水平	①	②	③	④	⑤
7) 其他: _____	①	②	③	④	⑤

27. 通过韩国的留学生活, 你觉得在以下事项中有所收获吗? 请标出以下事项中所获收获程度。

	根本没有收获	没有收获	一般	有收获	非常有收获
1) 多种多样的学文经验	①	②	③	④	⑤
2) 确保更好的就业机会	①	②	③	④	⑤
3) 确保更好的升学机会	①	②	③	④	⑤
4) 与很多背景不同的人交流	①	②	③	④	⑤
5) 提高外语水平	①	②	③	④	⑤
6) 其他: _____	①	②	③	④	⑤

IV. 毕业后的计划

30. 下面的哪一事项是自己毕业以后的计划?

- ① 在韩国上学
- ② 在自国上学
- ③ 在别的国家上学
- ④ 在韩国找工作
- ⑤ 在自国找工作
- ⑥ 在别的国家找工作
- ⑦ 还没有计划
- ⑧ 其他 : _____

31. 为帮助留学生的就业, 你认为应该加强哪些事项的力度?

- ① 增加对留学生的实习机会
- ② 系统的提供关于韩国和外国就业的信息
- ③ 增加大学-企业-地区社会相关的就业有关活动 (包括说明会和博览会等)
- ④ 指导教授对就业方面进行积极引导
- ⑤ 其他: _____

32. 如在韩国读研究生, 你认为应该加强哪些方面的服务?

- ① 对学费和教育费的财政提供
- ② 增加英语课程
- ③ 加强韩国大学的国际竞争力
- ④ 提供对留学生的学业支援(辅导等)的服务
- ⑤ 其他 : _____

谢谢你们参加问卷调查!

연구보고 RR 2012 - 15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체제 강화 방안 연구**

발 행 2012년 12월
발 행 인 백 순 근
발 행 처 한국교육개발원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피로1길 35(우면동)
전화 : (02) 3460-0114
FAX : (02) 3460-0121
<http://www.kedi.re.kr>
등록번호 1973. 6. 13. 제16-35호
인 쇄 처 경성문화사
(02)786-2999
I S B N 978-89-6113-881-9 93370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